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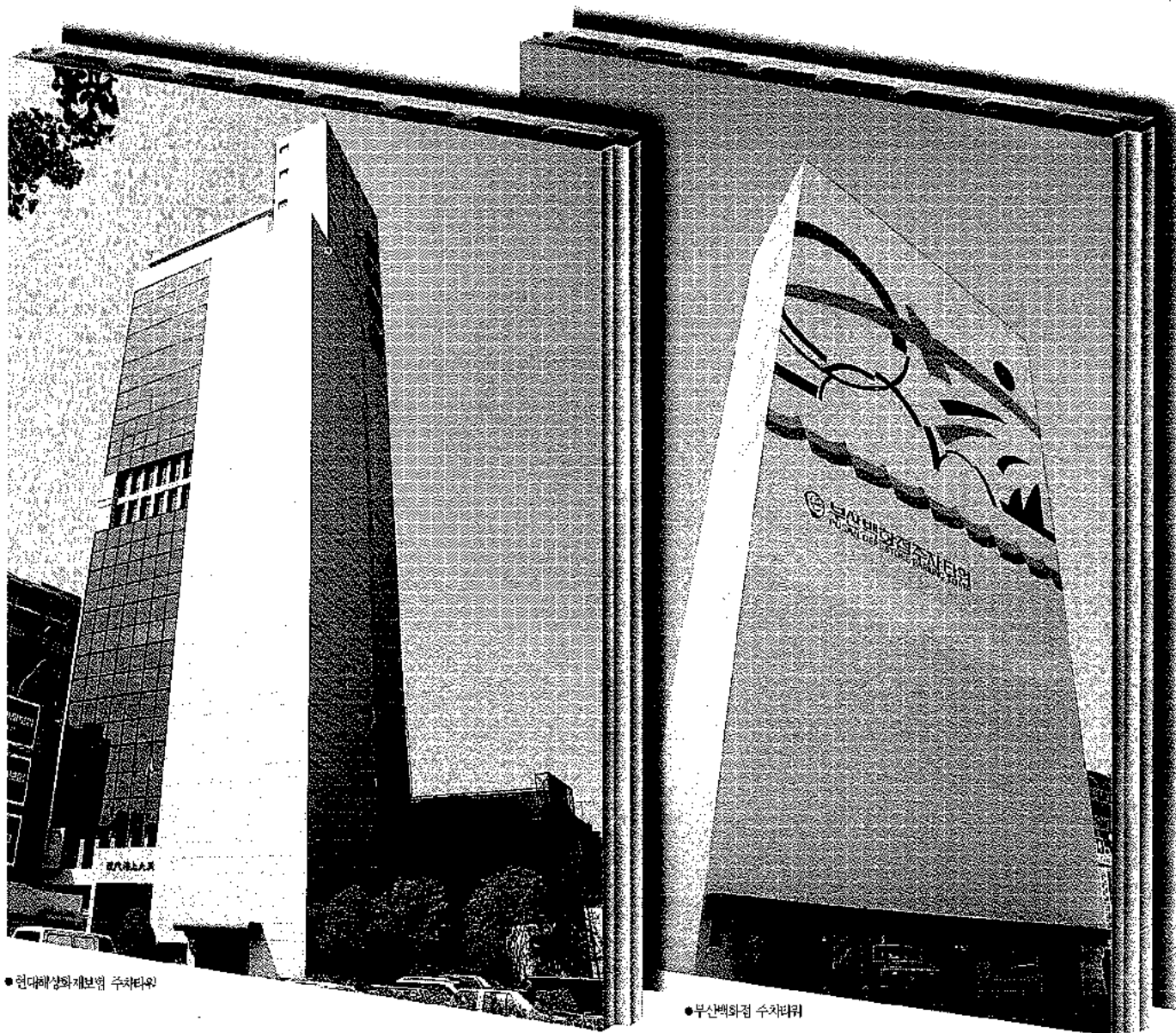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May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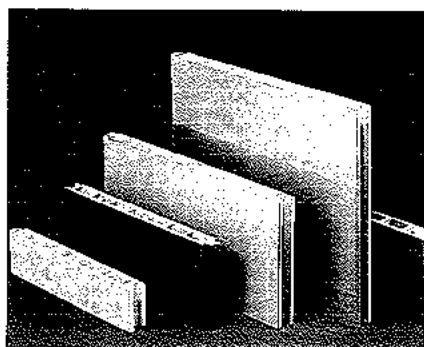
5
MAY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바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세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건축물의 으벽·칸막이·계단·도로벽의 차음력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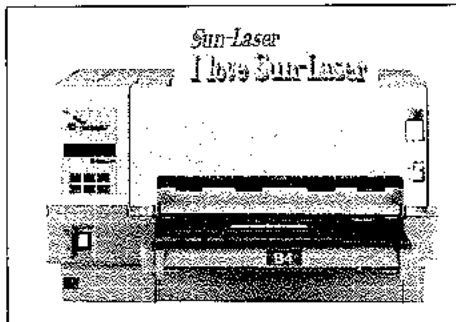
벽산 베이스

CAD 축제 '나인티 두'

서통AI사업부가 국산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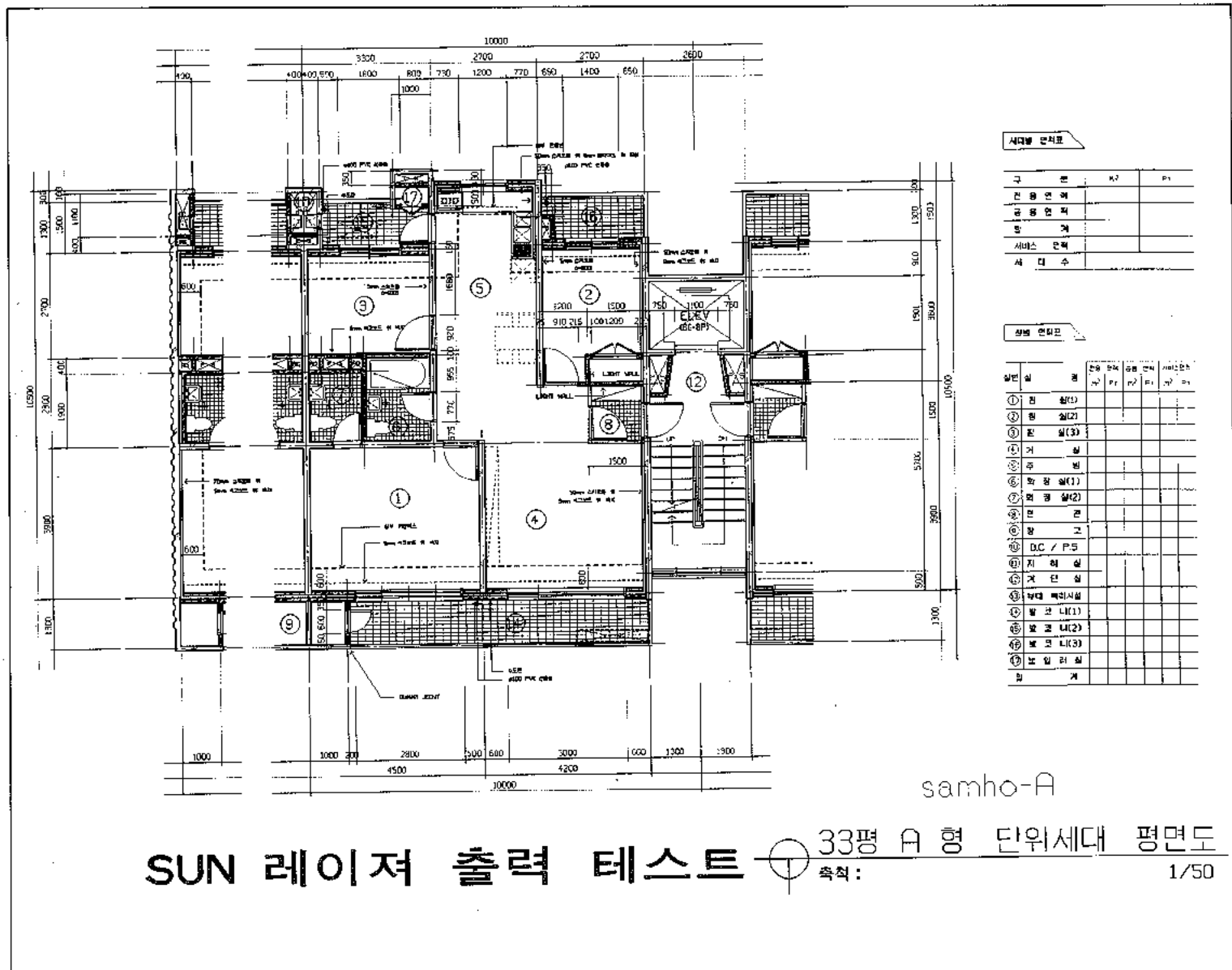
Solution 1.

CAD 겸용 레이저 프린터 썬레이저 탄생!



**출력시간
7분이면
만사 OK**

- 해상도: 300dpi
- 프린트속도: 11 PPM
- 용지 Size: B4, A4
- 무한대 확대, 축소 회전기능
- Emulation Version
 - KS(NAIS) -IBM 5540 / 50
 - KSSM -PS-55xx
 - EPSON -HP II



ARRIS가 살아 숨신다!

92.5.1 ~ 92.7.30

실현하는 두가지 **SOLUTION!**

Solution 2.

인공지능 3S 기능을 채택한 해인 슈퍼 하우스!



■ 해인 슈퍼 하우스의 특징 ■

-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 구현
- 사용자의 단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 슈퍼하우스의 주요기능 ■

-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 기능
- 창호도 자동 작도 기능
- 벽체 마감 자동 작도 기능 -벽체 해칭 자동 작도 기능
- 수량 산출 기능
-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 다양한 제단 작도 기능
-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 기능
- MULTI WINDOW 기능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 완성형 한글(약 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약 7,500자)제공
- DATABASE 관리기능
-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캐드축제'92 문의전화 서울:514-0386 /대구:(053)421-2856 캐드축제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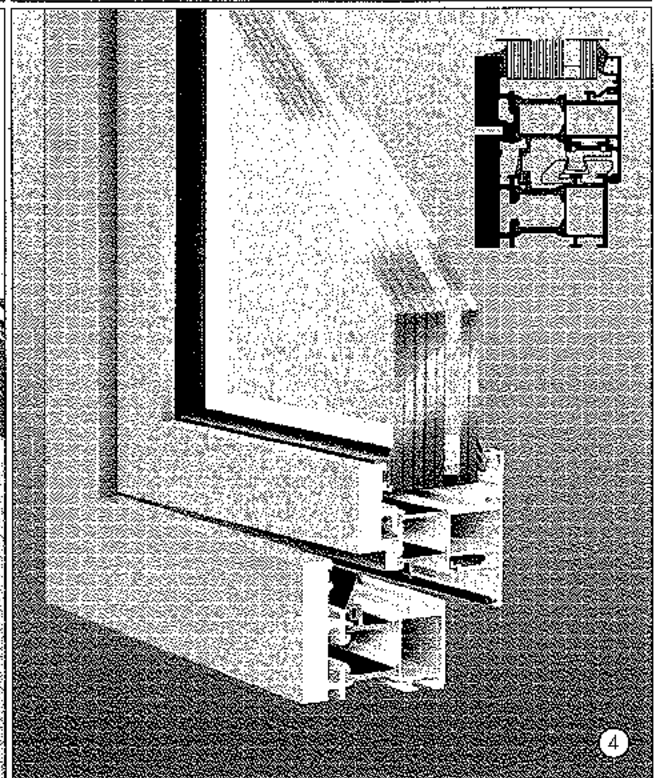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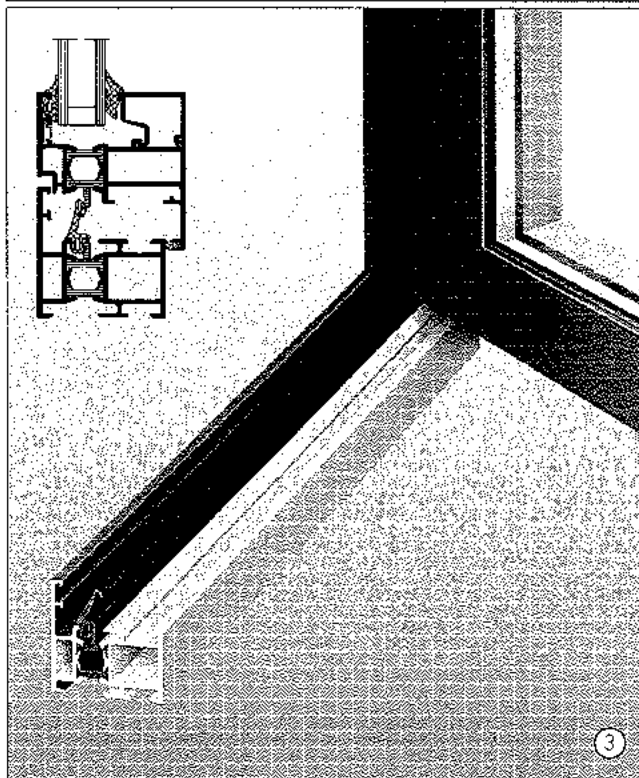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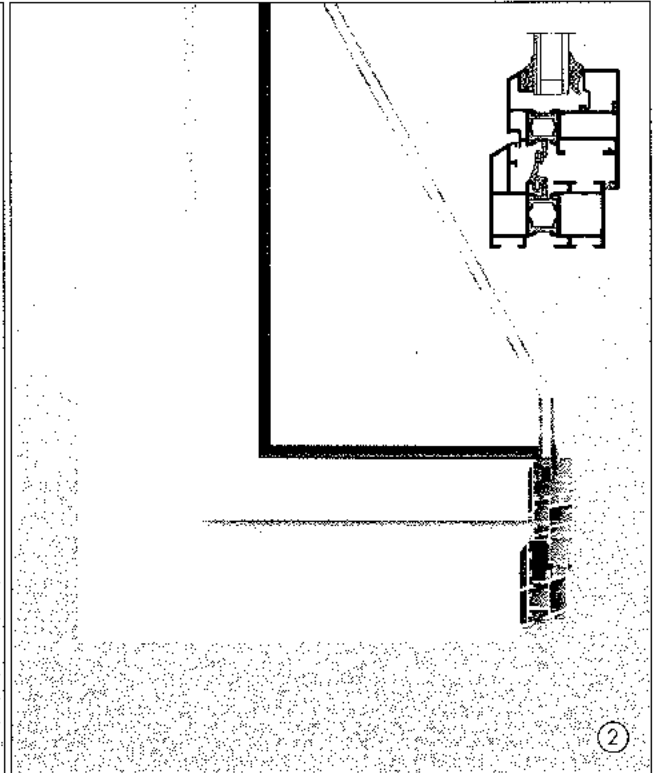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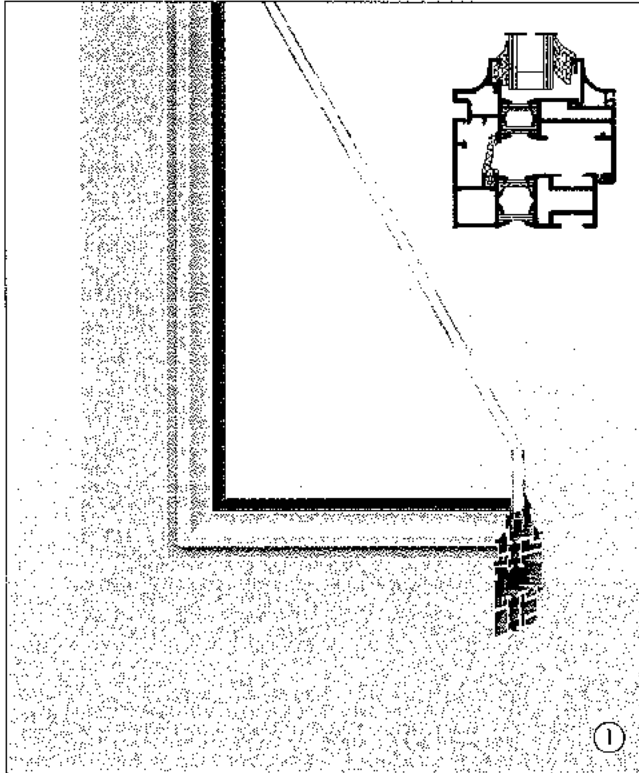


▶캐드축제'92 기간중에는 다양한 PACKAGE 상품을 준비하여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AutoCAD 사용자를 위하여도 국내에서 제작된 3rd Party S/W CADSPEED와 우월 Detail Library를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원 **B\$C** (주)빌리언시스템

비리언
Graphic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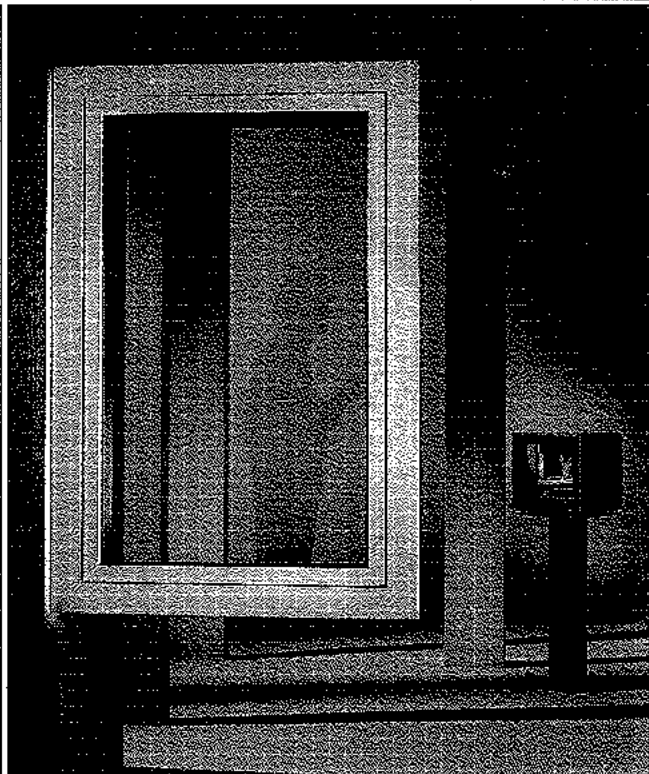
기능과 아름다움이 조화된 알루미늄 창호



여기 소개된 창호는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나 알루미늄 창호의 기능적인 단점을 해결하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외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고려하여 새롭게 설계된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이 알루미늄 창호는 기존의 건축물을 새로 보수할 경우에도 잘 어울리도록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창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1. 스타일 윈도우 - 외부 프레임 부분에 정교하게 파여져 우아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창호입니다.
2. 리노베이션 윈도우 - 30° 경사진 프로파일은 유리의 아음세가 전통인 글레이징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컴비네이션 윈도우 - 내부와 외부의 프레임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창호 이견창호



4. 셰이프티 윈도우 - 창문의 방법효과를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기술적인 측정과 디자인이 고려되어 설계된 방범용 창호입니다.

경제성, 기능성, 예술성이 함께 조화된 합리적이고 남다른 창호를
생산 공급하는 이견창호에서는 독일의 슈코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기존 창호와
다른 새로운 알루미늄 창호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창호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은 물론 시스템 선정과 견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사영업부 상설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테치동 509
전화 563-2071 팩스 563-5528
- 논현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540-2071 팩스 540-2080
- 대구전시장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61-2
전화 053-553-0916 팩스 053-553-0917
- 부산전시장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434-10 서방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팩스 051-557-2077
- 제주전시장 제주시 노형동 928-8 골드건축자재백화점 지하1층
전화 064-41-4301 팩스 064-42-3486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 이견자본개발주식회사, EAGAN FOREST PRODUCT INC, EAGAN INDUSTRIAL Co., GmbH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라튼워커빌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여화여대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 본당 ●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에술대학강당 ● 개뽕센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
|--|--|--|

주요 생산품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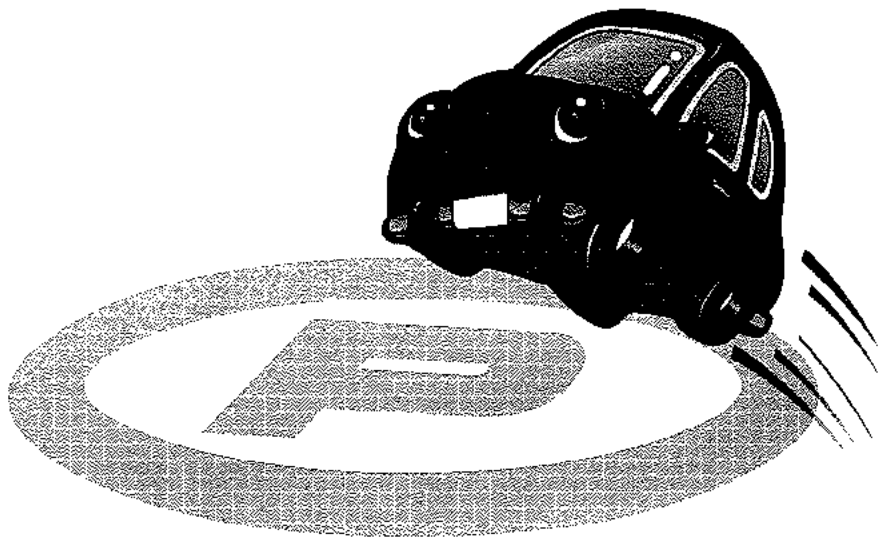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987-4184, 102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인 장치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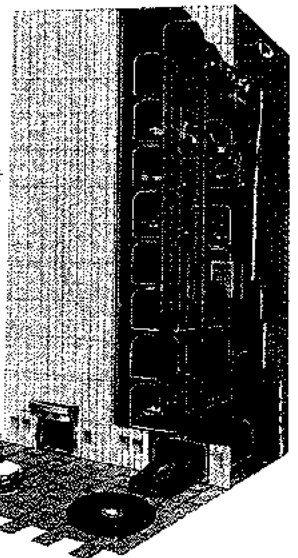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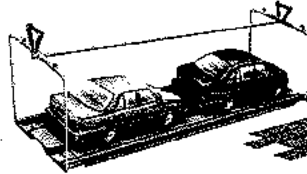
완벽 A/S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여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대형체인인 차량을 설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배열해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형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 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패널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패널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능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료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므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패널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우수한 견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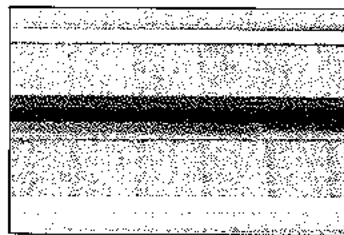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겹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 겹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티로폼	85℃
P. U. R	110℃
P. I. R	180℃
페놀폼	200℃
그라스울	350℃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인슈그라스울패널의 단면구성)

단열재명	열 전 도 율
그라스울	0.029
스티로폼	0.0285
암면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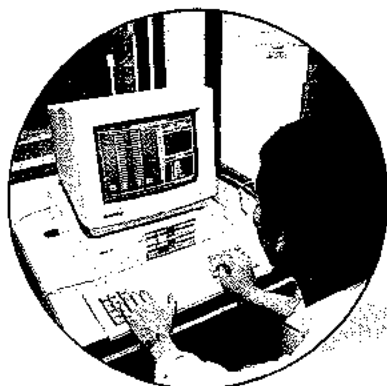


주식회사 인합인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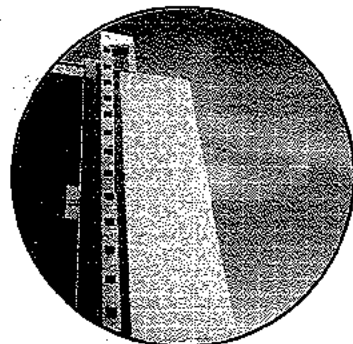


본사및공장: 경기도 아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02) 745-0687, (0336) 34-8880 FAX: (0336) 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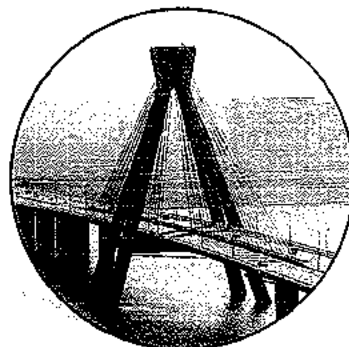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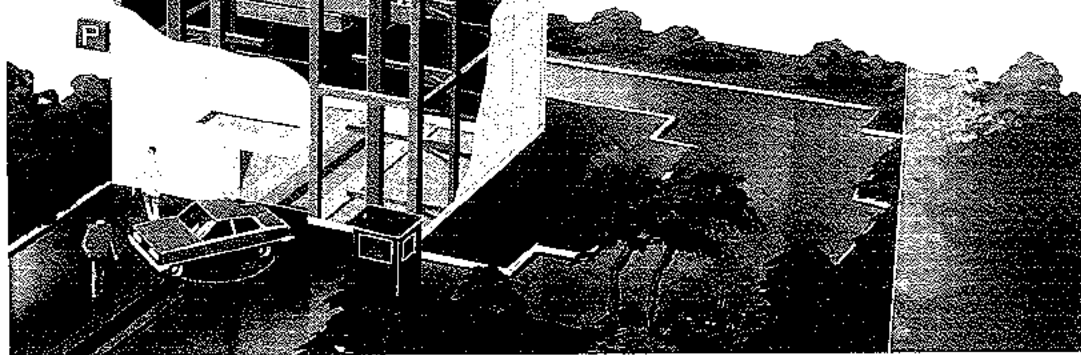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평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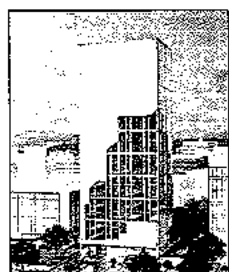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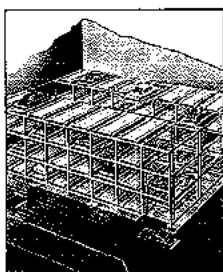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피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 연립형



YOP-M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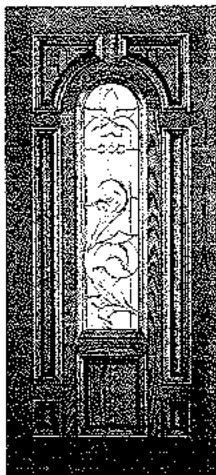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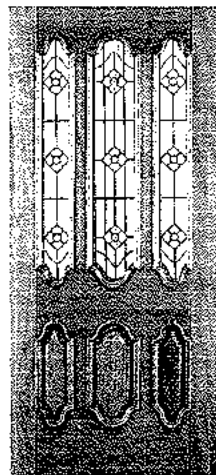
주차 플랜트부



좋은 집 좋은 문 - 해밀리 통나무 현관도어



FED-525 외장통목 117199



FED-1300 외장통목 117198

미국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FAMILY EXTERIOR SOLID DOOR / 6개월이상 건조시킨 100% 천연통나무 현관용 도어로 양육의 본고장 미국의 고급 단독주택에 절찬리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시대 최고수준의 디자인

미국의 일류 건축 디자인에 의해 탄생되어 격조높은 미국 상류층 주택시장에서 꾸준히 애용되고 있는 매우 품위있고 세련된 제품임

환상적인 채광효과

이름다운 BEVELED 조각 무늬 유리를 통해 부수지는 햇살들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집의 첫관문인 현관공간을 밝고 눈부시게 가꾸어 줌

늘리는 단열 차단효과

따뜻한 느낌의 천연통나무와 3겹 진공 복층유리의 단열효과는 알루미늄 제품과는 비교될 수 없으며 문틀과 문 사이에 설치된 특수 고무 꼴대(WEATHER STRIP) 장치는 비바람 먼지, 외부의 소리 등을 차단시키며 문을 여닫을시 충격방지 역할도 해줌

■ 주요시점 : (대법원장실, 김금중원고회, 군부리요회, 방포성당, 주안성당, 독포우당교회, 기미 천국에 많은 빌라 및 기안주어

■ 유사도에 주의하십시오.

■ 국내대리점 : 서울 : 강남543-8800 건일회관 540-0595 을지로 208-3124 논현 543-7352 은평 389-9594 서대문 388-2938 ● 경기 : 성남 855-3943 오산 72-8300 인천 422-0868 안양 55-3513 안산 402-7868 수원 757-8117 부평 516-4288 ● 충청 : 대전 627-5120 대전동부 255-7117 대덕동부 294-3677 농주 86-4241 송주 847-7255 송주중앙 847-3750 서산 64-4156 천안 62-8196 재천 43-7425 대천 34-7337 ● 강원 : 강릉 44-3341 동해 31-5498 원주 42-2202 속초 33-4455 정선 374-4303 춘천 51-2616 홍천 56-3257 ● 전남 : 광주 229-9920 군산 42-6719 전주 86-2622 여수 61-4917 순천 742-2570 광주서부 675-6461 ● 경남 : 부산 741-6601 동부산 454-1277 대구 783-6703 대구중앙 555-2529 아산 95-3000 우이 51-0646 포항 61-6970 인동 51-5197 영주 34-6012 김천 30-6877 김천중앙 33-4365 울산 55-3968 경주 43-1818 부산동해 863-5146 남주 535-5838 평택 33-6464 천주 745-6992 무안시립 505-8806 김해 53-7528 ● 제주 : 제주 56-4131 시애틀 33-8304 ■ 해외대리점 : Tokyo ● Osaka ● Los Angeles

*대리점 개설문의 : 직통 (032) 577-0122 김성민



(주)삼익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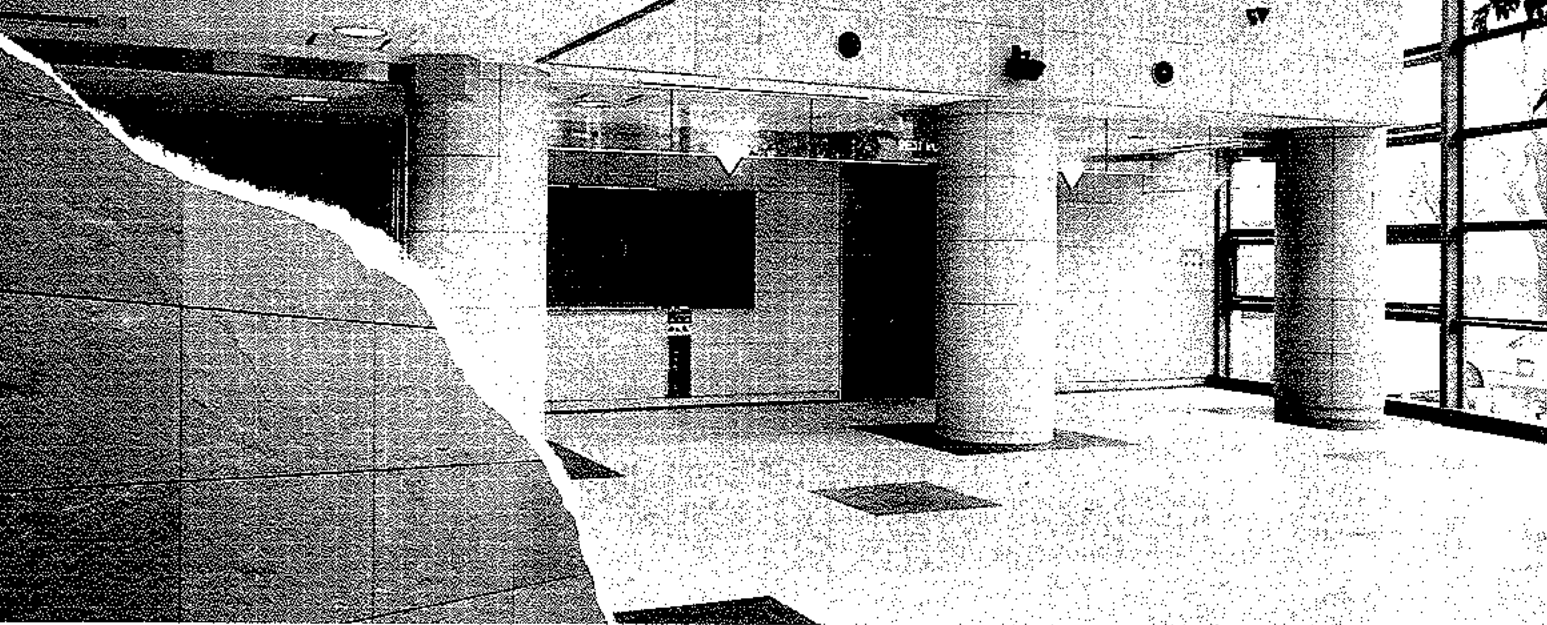
· 仁川直轄市 西區 佳佐洞 178-71

· PHONE : (032) 576-7070 ~ 5

FAX : (032) 577-0120

焼結石이 호흡한다. 국내 최초의 신건축 소재 "BIO-HAPPY STONE"

삼화화성 30년 기술과
일본 CLAY BURN CERAMICS 신기술의 만남
"BIO-HAPPY STONE" 탄생



66

국내 유일의 종합 염기성 내화물 제조업체인 삼화화성이 30년 축적된 기술과 오랜 경험으로 '91 우수 KS업체 대상 수상과 함께 국내 최초로 건축 내외장 마감재인 소결석 "BIO-HAPPY STONE"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의 언어인 신기술과 IE 추진 강화로 2000년대 최고기업으로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

Bio Happy Stone 은 제품 자체에서 발생되는 바이오성분에 의하여 공기중의 유해질을 정화시키고 모든 생물의 생체리듬을 활성화시켜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3가지 자유의

Bio Happy Stone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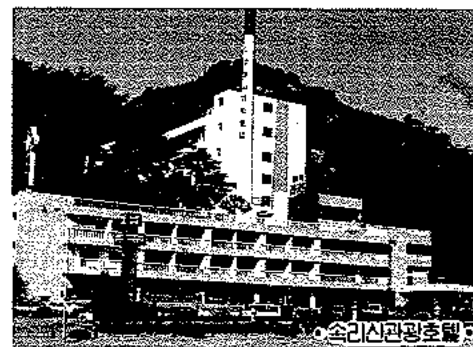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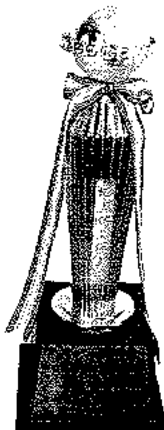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어 자연스럽고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2. 뛰어난 가공성

1,200°C 이상에서 소성한 불연제품의 수축, 팽창이 없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대형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25^t, 600×600m/m×25^t로 공공건물,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삼화화성 '91우수 KS업체 대상 수상—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본사·공장 : 경북 포항시 청림동 1-143 TEL.(0562) 72-2051~3, 80-0114
FAX. 72-8033 / 서울총판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9-22(국제조명빌딩 2층) TEL.(02) 516-7772~4, FAX. 516-7775

차례/1992년 5월호 통권 제277호

會員作品	경기은행 본점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16
	범우대전지사 / 宋光燮	21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 / (주)원도시건축	24
	정릉 S씨 주택 / 張世洋	28
	삼풍백화점 / 文政一	32
	경남교원 회관 / 崔寬泳	35
	삼성종합연수원 창조관 / 金昌壽 + 朴昇 + 韓相默	40
	평택 동일빌딩 / 李章伯	44
스케치	축산업협동조합 춘천지사 / 李明奎	46
計劃作品	태 800 / 承孝相	48
작품노트	동아생명 본사 사옥 / 李星觀	50
일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지금 / 李珏杓	52
特別寄稿	소련 건축에 대하여 / 니콜라이 김	54
企劃連載	패러다임,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2) / 吉成鎬	64
研 究	일본의 수변공간 개발 / 金文德	72
법 령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과 반영비교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분석	82
설계경기	대전생명보험사옥 현상설계	92
資 料	1992년 3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6
協會消息		98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丁植, 李瓚榮, 金文圭, 崔英集,
宋洙九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년 3월 23일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i-Koo

Member: Suh, Chun-Sik/Rh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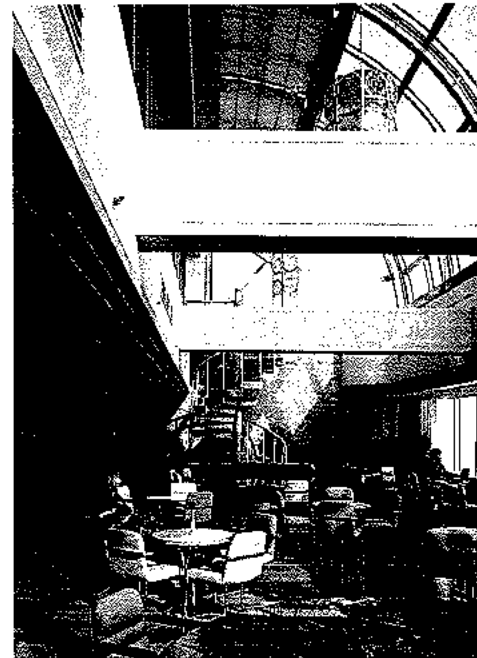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l(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 경남교원회관
(설계/최관영)

WORKS	Kyonggi Bank Head Office /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16
	Bumwoo Co. Daejeon Branch / Song, Kwang - Sub	21
	Korean National Traditional Music School / Archiban Architects Group, Ltd.	24
	Jeongleung S's Residence / Chang, Sea - Yang	28
	Sampoong Department Store / Moon, Jung - Il	32
	Kyungnam Teacher's Hall / Choi, Kwan - Young	35
	Samsu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 Kim, Chang - Soo · Park, Seung & Han, Sang - Mook	40
	Dongil Building, Pyungtaek / Lee, Jang - Back	44
SKETCH	The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Chooncheon Branch / Lee, Myung - Kyu	46
PRELIMINARY	Tae 800 / Seung, Hchiah - Sang	48
DRAWINGS	Dong - a Life Insurance Co. Headquarter Building / Lee, Sung - Kwan	50
ESSAY	The Actuality of Ours / Lee, Kak - Pyo	52
FEATURE	About the Soviet Union Architecture / Kim, Nikolai Nikolaevich	54
REPORT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s / Kil, Soung - Ho	64
REPORT	Waterfront Development in Japan / Kim, Moon - Duck	72
NEW LAWS & ORDINANCES		82
COMPETITION	Daejeon Life Insurance Co. Building	92
STATISTICS		96
KIRA NEWS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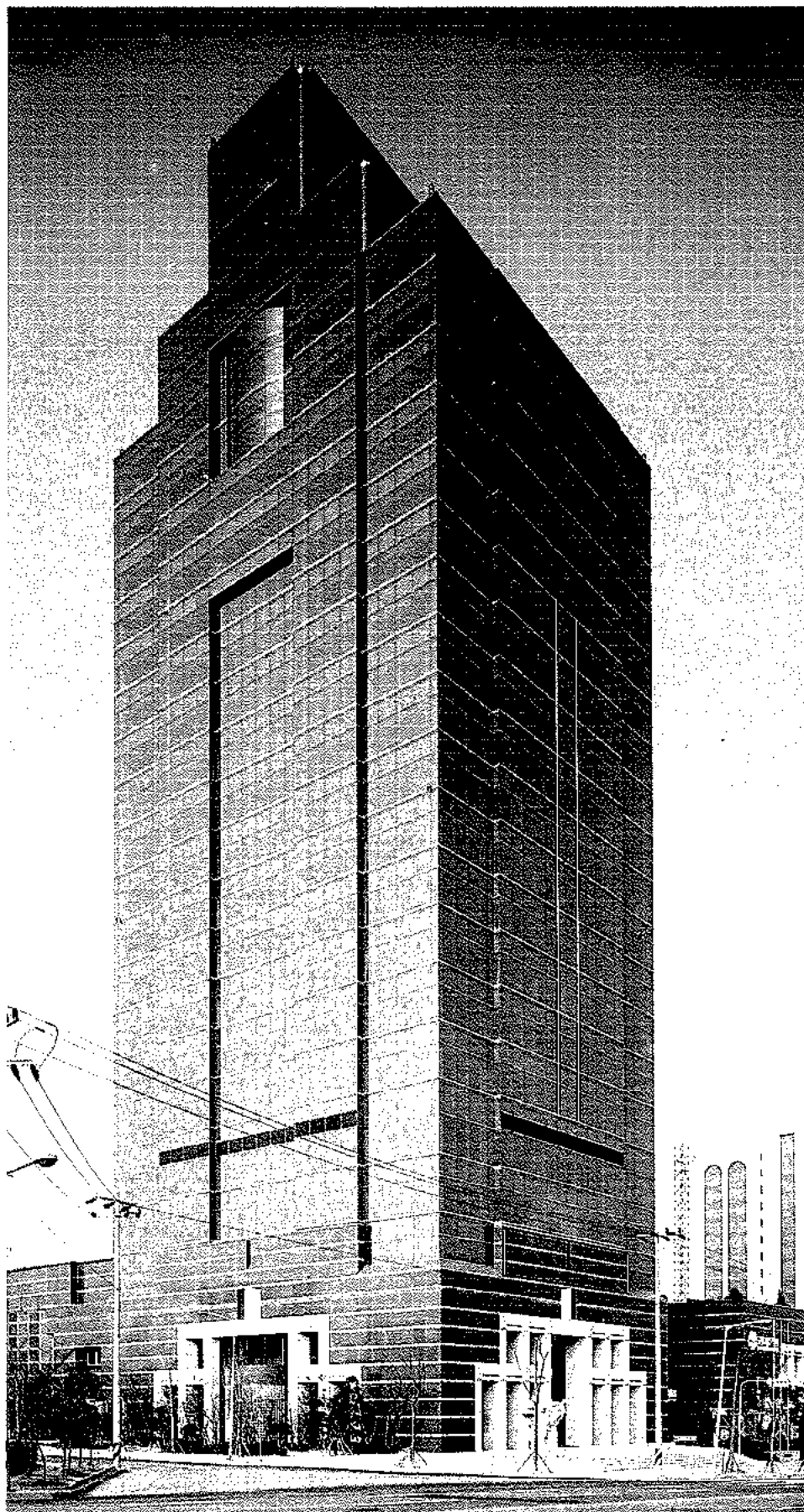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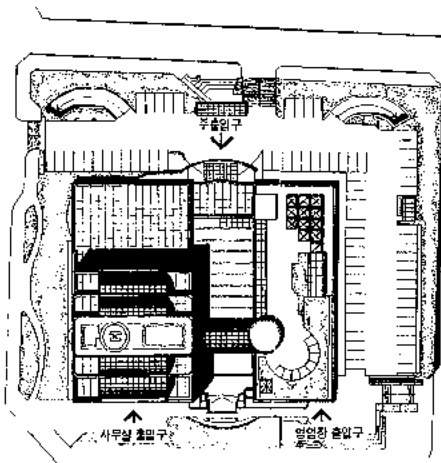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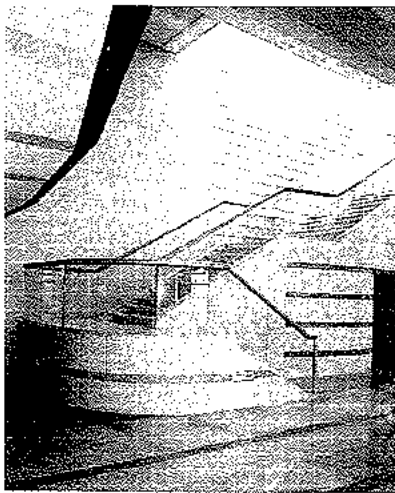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건축사초등 1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 / 서대문구연화동 169-25, 333-6411, 관악분회 / 관악구신림동 1422-17, 882-6744, 도봉분회 / 도봉구수유동 191-13, 903-3425, 영등포분회 / 영등포구당산3가181, 634-2143, 강동분회 / 강동구상대동 317-4, 484-6840, 강서분회 / 강서구화곡동 1105-05, 604-7168, 성동분회 / 성동구구의동 252-16, 446-5244, 동대문분회 / 동대문구신설동 101-7, 923-6313, 종로분회 / 종로구수성동 46-18, 735-0905, 마포분회 / 마포구상사동 275-1, 336-5057, 송파분회 / 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분회 / 중구로27149-11, 279-1415, 용산분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분회 / 서초구서초1동1023 1, 586-7707, 은평분회 / 은평구녹원동 79-32, 352-6720, 동작분회 / 동작구사당동 206 6, 815-3026, 강남분회 / 강남구논현동 242-30, 511-8515, 노원분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52-8076, 양천분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중랑분회 / 중랑구면목동 166-46, 923-6123, 성북분회 / 성북구삼전5가410, 923-4401, 구로분회 / 구로구구도동 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직할시중구동명동 174 (부산대파트네) (051)246-6284~7 ■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여동 3가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 (FAX) 437-3385 (한국종합빌딩 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 694-10, (062)521-0025~6 (FAX) 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대전직할시대흥동 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매곡3가124-5, (0331)47-6129~30, 직할분회 / 경기도수원시매곡3가124-5, (0331)43-6662, 7072, 안양분회 / 안양시만안동 523-5, (0343)49-2698, 부천분회 / 부천시중구원미동 88-1, (032)664-1554, 성남분회 / 성남시수정구태평동 3407, (0342)755-5445, 의정부분회 / 의정부시외정동 182, (0351)2-1083, 송탄분회 / 송탄시서정동 343-22, (0333)4-6153, 고양분회 / 고양시원당읍주교38번길16로트, (0344)63-8902, 구리분회 / 구리시수택동 409-2, (0346)63-2337, 이천분회 / 이천시인원읍리 192-1, (0336)635-6545, 광명분회 / 광명시철산동 464-7, 682-2875, 안산분회 / 안산시고잔동 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옥천동 39-5, (0361)34-2442, 원주분회 / 원주시중앙동 60-54, (0371)42-4287, 강릉분회 / 강릉시성내동 6-14, (0391)2-2262, 속초분회 / 속초시농림동 466-63, (0392)33-5081, 삼척분회 / 삼척시남양동 55-43, (0397)2 3106, 영월분회 / 영월군영월읍영동 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충주시북문로 3718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회 / 충주시약전동 673-1, (0411)847-3082, 제천분회 / 제천시외리동 8-8, (0431)43-6253, 옥천분회 / 옥천군옥천읍삼양리 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충청남도대천시충구대흥동 452-2, (042)256-4068, 천안분회 / 천안시문화동 160-1, (0417)551-4551, 홍성분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0451)32 2755, 부여분회 / 부여군부여읍동리 703-1, (0463)2-2217, 대천분회 / 대천시대천동 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 (대북빌딩 508), (0652)87-6007~8, 이리분회 / 이리시남동 1가77-22, (0653)52-3304, 군산분회 / 군산시신창동 35-4, (0654)445-4060, 남원분회 / 남원시화성동 108-2, (0671)31-1009 ■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 783 2리추진회관 (062)364 7567, 33-9944, 목포분회 / 목포시대안동, (0631)43 3348, 순천분회 / 순천시강원동 51-11 (0661)3-2457, 여수분회 / 여수시백동 441번지, 1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중구동명동 174 (285번지), (053)425-4904, 포항분회 / 포항시죽도동 43-8, (0562)44-6029, 46-1664, 경주분회 / 경주시농림동 771-4, (0561)3-3638, 구미분회 / 구미시원평동 904-264, (0546)52-6351, 52-7547, 안동분회 / 안동시서부동 157-4, (0571)54-5703, 김천분회 / 김천시평화동 280-1, (0547)2 2541, 영주분회 / 영주시유천2동 642-52, (0572)33-7504, 경춘분회 / 경춘시중앙동 280-3, (0581)2-2706, 52-2286, 상주분회 / 상주시남성동 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73-47, (0551)46-4530~1, 울산분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0522)74-8836, 진주분회 / 진주시문성동 7-20, (0591)41-6403, 통영분회 / 통영시서호동 163-18, (0557)44-3232, 김해분회 / 김해시무원동 511-1, (0525)35-5692, 밀양분회 / 밀양시내일동 392-1, (0527)355-4848, 거창분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 274-3, (0598)43-6000, 양산분회 / 양산군양산읍남부동 467-19, (0523)84-3050, 거제분회 / 거제군안남읍고현리 139-2, (0558)635-3432, 삼천포분회 / 삼천포서동관동 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2로1동1289-6, (064)22-3248, 52-3248, 서귀포분회 / 서귀포시서귀동 299-6, (064)62-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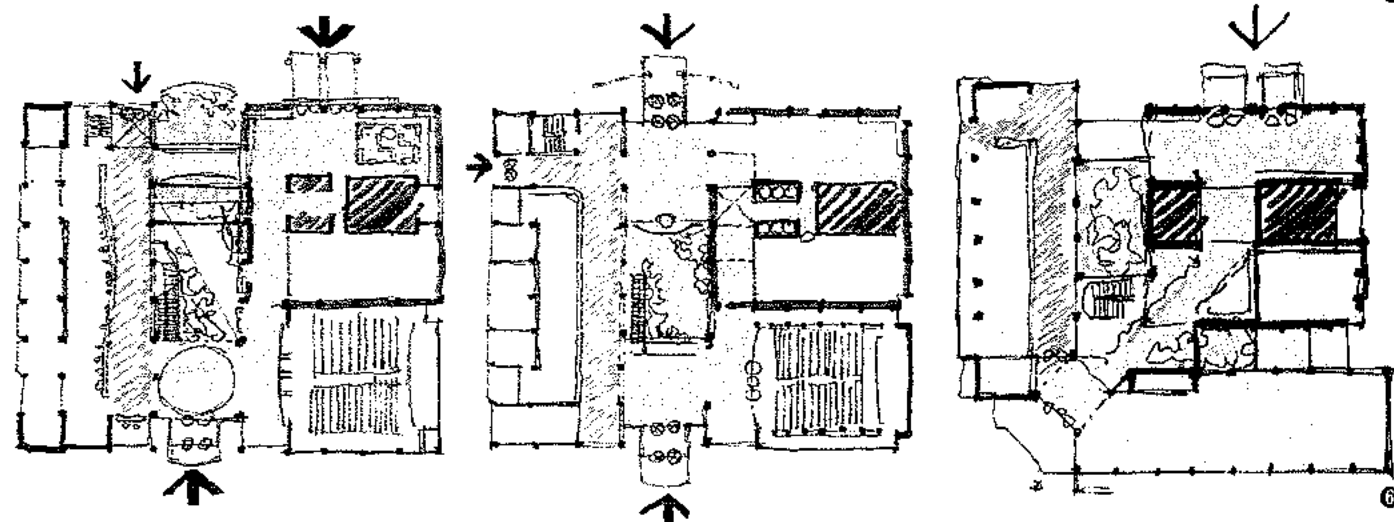
경기은행 본점 Kyonggi Bank Head Office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 ① 배치도
- ② 전경
- ③ 연결계단측 상세
- ④ 로비
- ⑤ 중앙 로비
- ⑥ 초기 개념 스케치





과거 단순한 사무기능의 축적과 은행으로서의 엄격한 권위가 추구된 은행건물은 이제 사용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를 통해 친근감과 신뢰감을 높임으로써 그들에게 애용되는 은행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의 역할과 이미지가 요구되고 있다. OA기기 등의 최신 시설을 통하여 창의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적 요구와, 업무를 통한 인간 접촉과 정보교환의 기회를 추구하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더이상 은행건축이 개방 지향적이지 않는 것을 마무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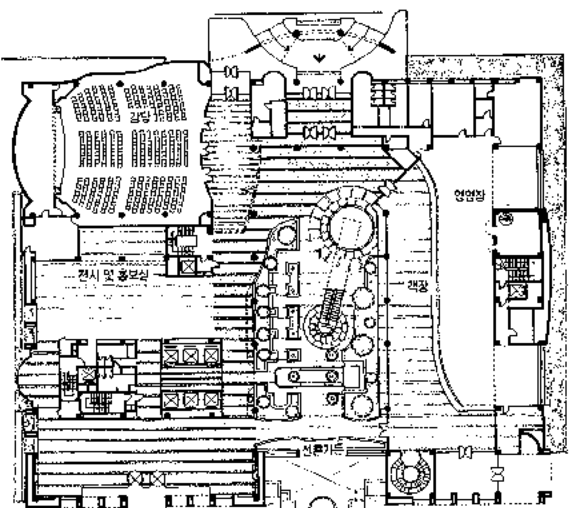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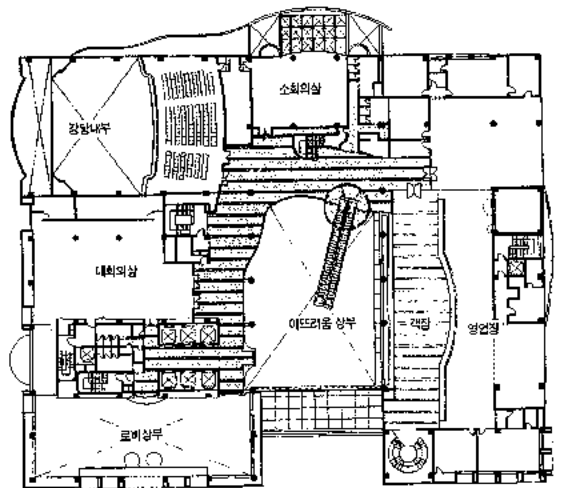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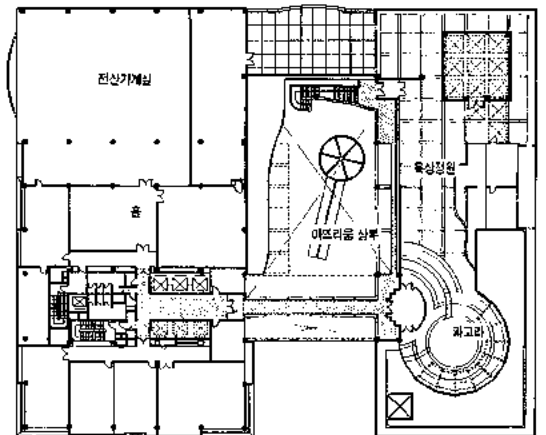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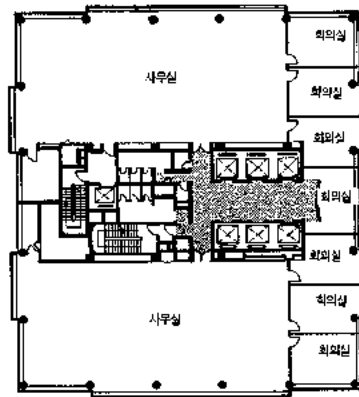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은 은행측의 건설의도와 시민의 요구에 부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으며,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공공적 기능의 독립성을 갖는 것 등의 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특히 인천항이 갖고 있는 활발한 지역특성과 환경요소들은 지방 은행이 추구하는 독특한 건축조형을 위해 배움을 수 있는 요인이자 인지하면서 계획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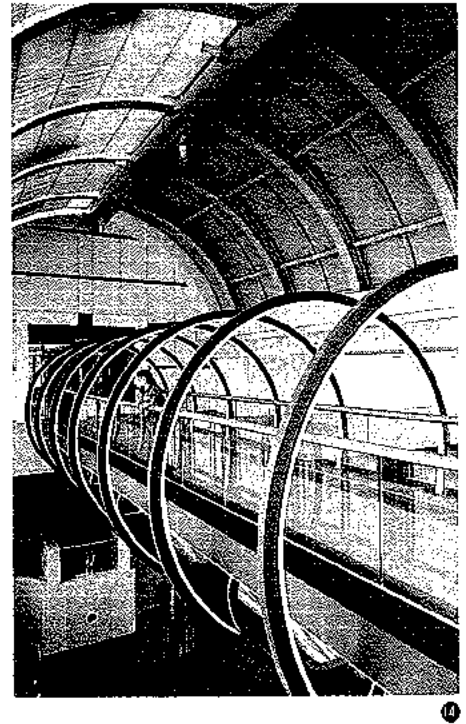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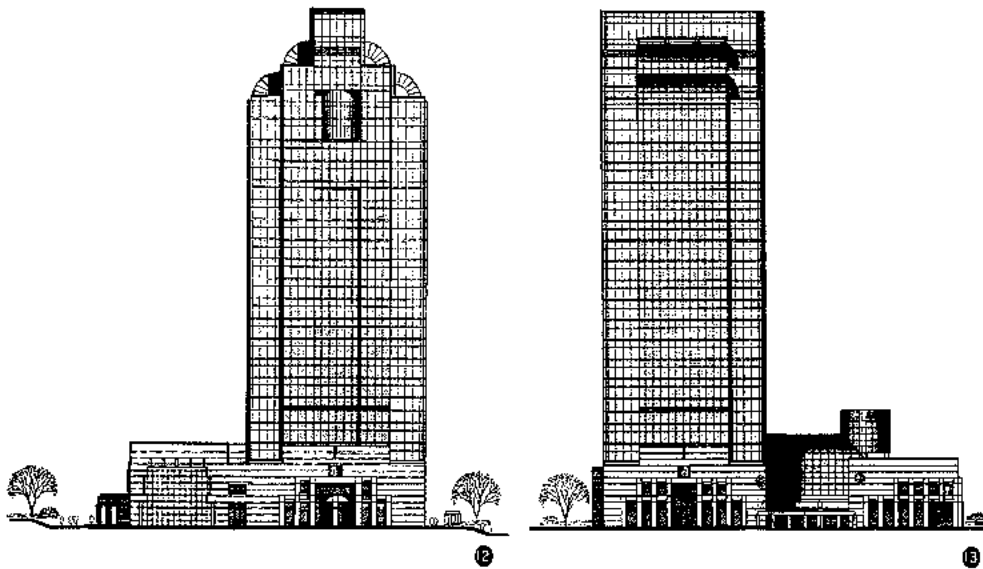
입면계획

상징적 조형성을 부여하는 이미지로서, 수평적 기반을 형성하는 저층부 기반 위에 상승적 기반을 형성하는 타워 몸체부가 정면과 측면 파사드를 대비적으로 구성하고, 타워 상부를 장식하며, 전체적인 건물을 상징하는 크라운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견고한 기반 위에 급성장하는 경기은행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저층부는 은행 기능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감을, 형태적 요소로는 기반의 의미를 갖도록 화강석으로 구성하며 색조의 변화로서 입구와 전체 저층부 배스를 통일감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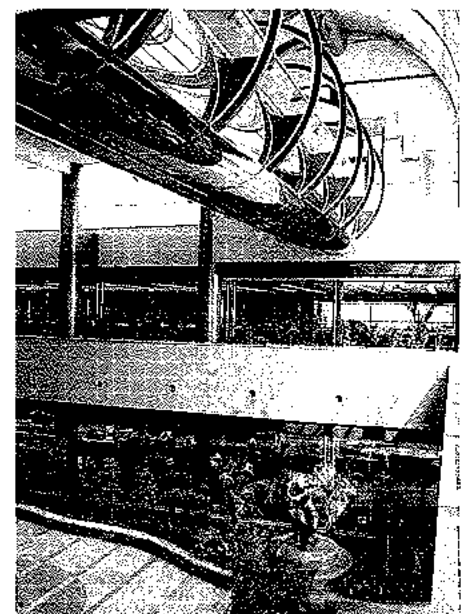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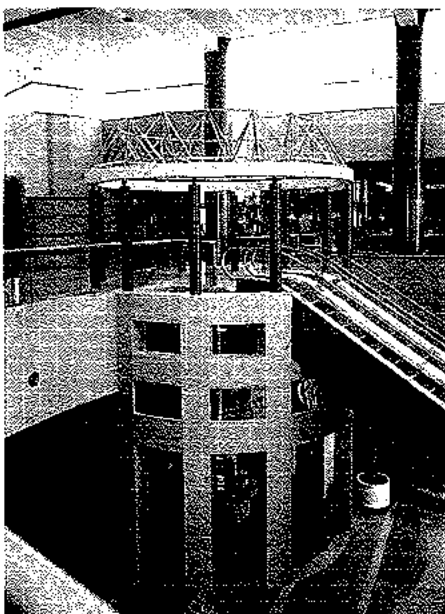
수직성을 강조한 고층부는 실리콘 실란트를 이용한 스트리취팅 그레이징공법을 사용하여 유리외 유리 접합부의 투박한 선을 제거하고 스텐레스 수평접합띠를 강조함으로써 강조된 수직성에 대응하는 수평의 리듬감을 반복하여 심미감을 더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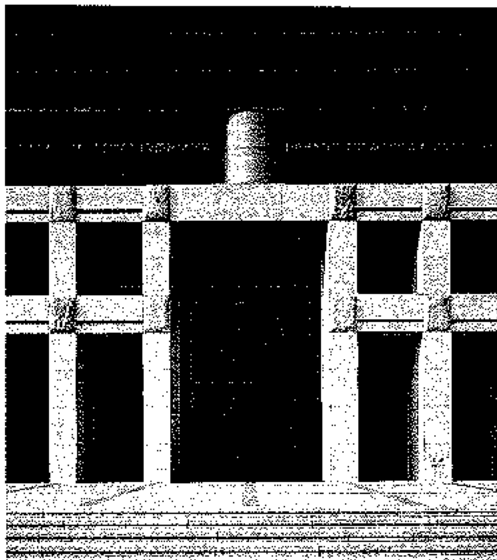
좋은 건축은 도시환경이 요구하는 외적 조건과 건물 기능이 요구하는 내적 조건이 서로 잘 조화 될 때,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상승 작용을 한다. 새로운 환경 질서의 구축이 될 경기은행 본점은 지역 경제 및 금융의 중심으로 기여하면서 인천의 상징적 조형물로서 문화의 심벌이 되며, 공익시설로서, 시민의 장(場)으로서, 봉사와 신뢰감을 주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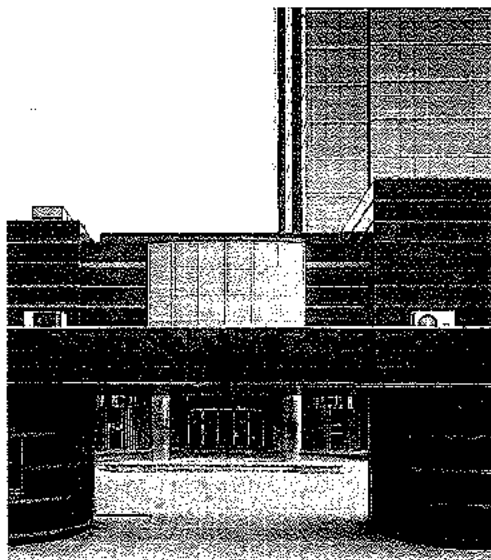


- ⑦ 동측 전경
- ⑧ 기준층 평면도
- ⑨ 3층 평면도
- ⑩ 2층 평면도
- ⑪ 1층 평면도
- ⑫ 남측 입면도
- ⑬ 서측 입면도
- ⑭ 1층 로비상부 보릿지
- ⑮ 20층 스카이 라운지 내부 전경
- ⑯ 1층과 2층의 중앙 연결 로비
- ⑰ 2층에서 본 로비공간
- ⑱ 로비에서 본 아트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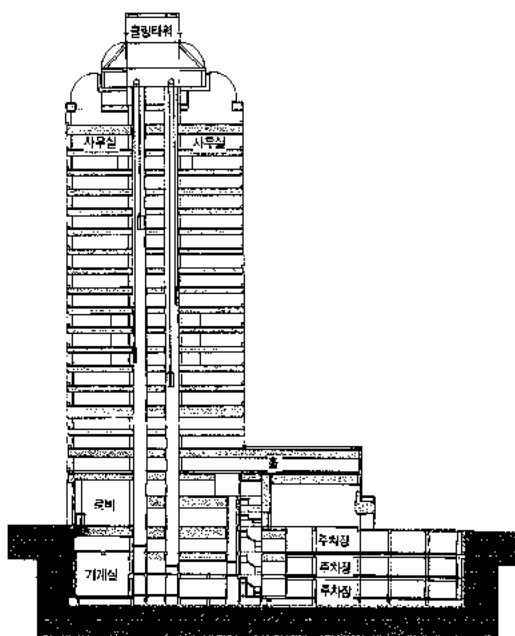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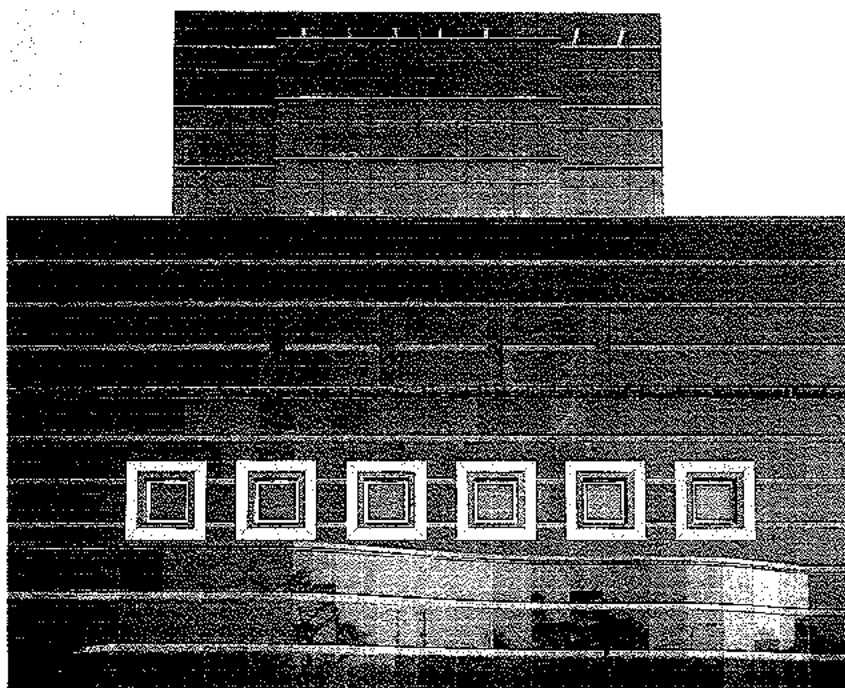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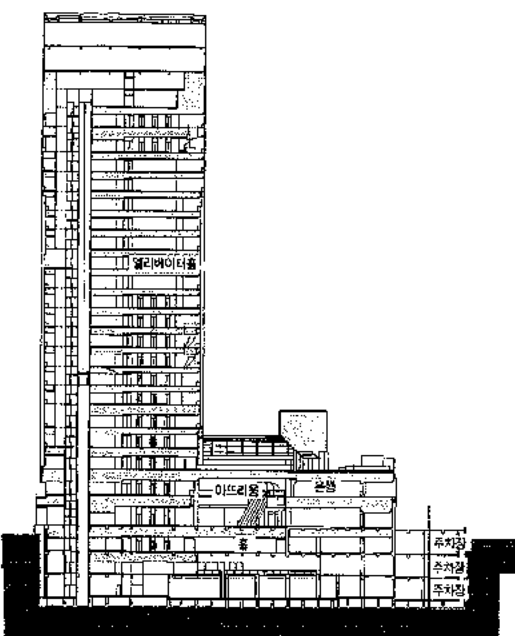
- ⑫ 외벽상세
- ⑬ 주출입구측 상세
- ⑭ 종 단면도
- ⑮ 횡 단면도
- ⑯ 외벽 상세
- ⑰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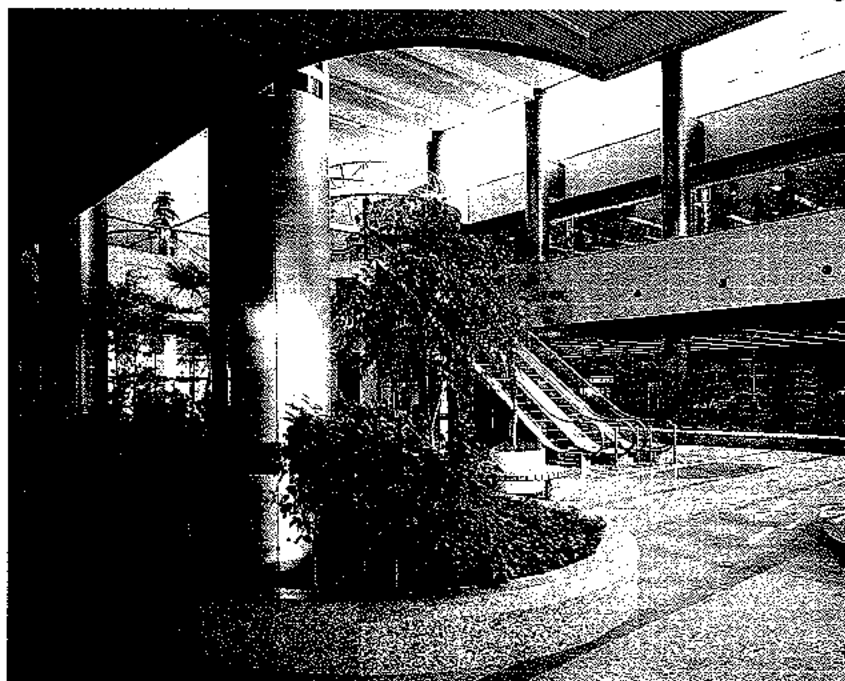
21



22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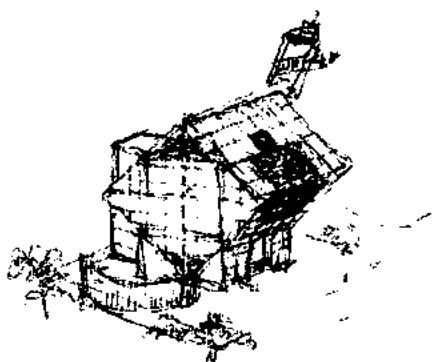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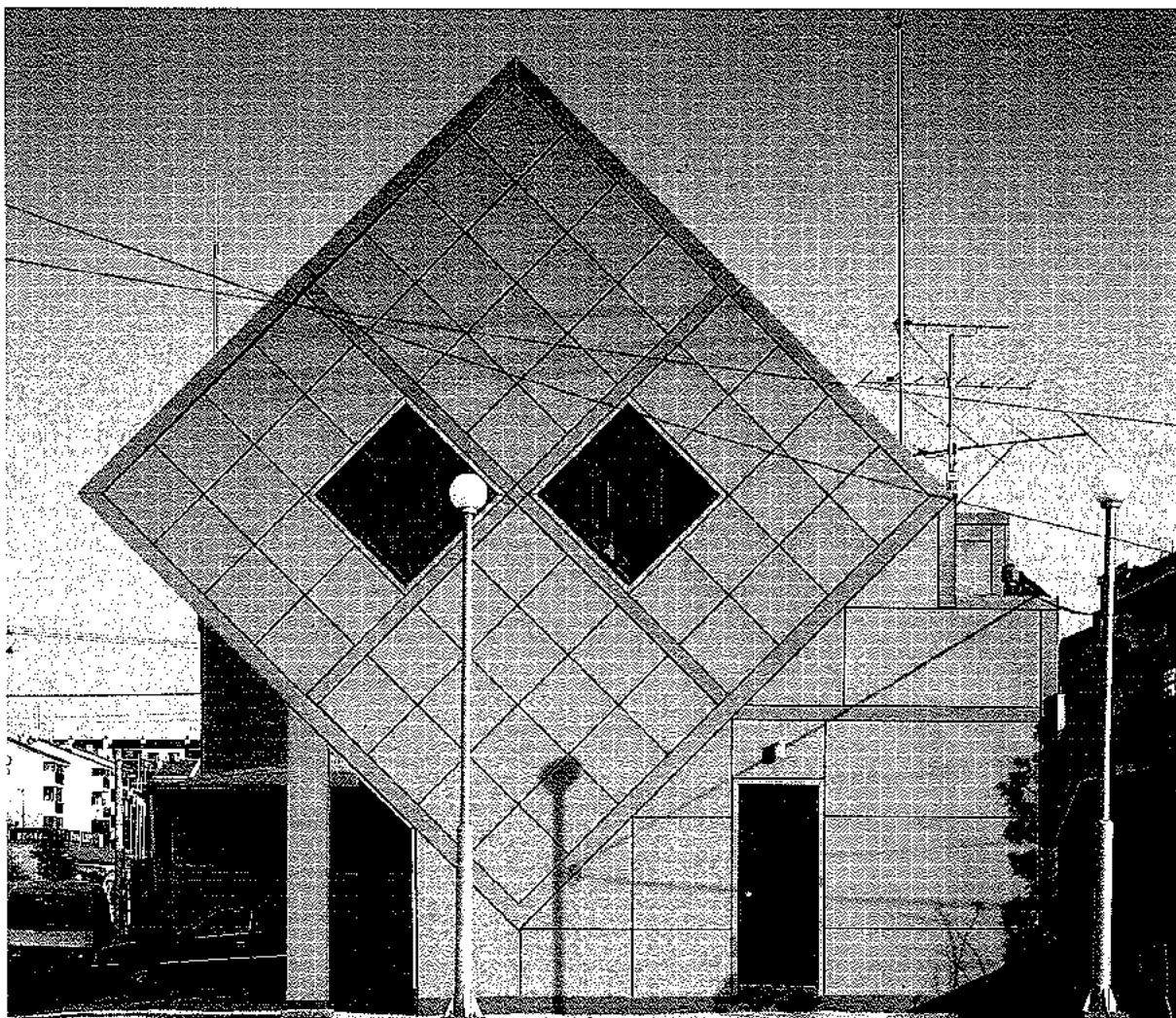
범우대전지사

Bumwoo Co. Daejeon Branch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 - Sub

■
 대지면적 : 193.80m²
 연면적 : 95.49m²
 건축면적 : 51.75m²
 건폐율 : 26.70%
 구조 : 철골조
 규모 : 지상 2층
 외부마감 : 스틸판넬
 사진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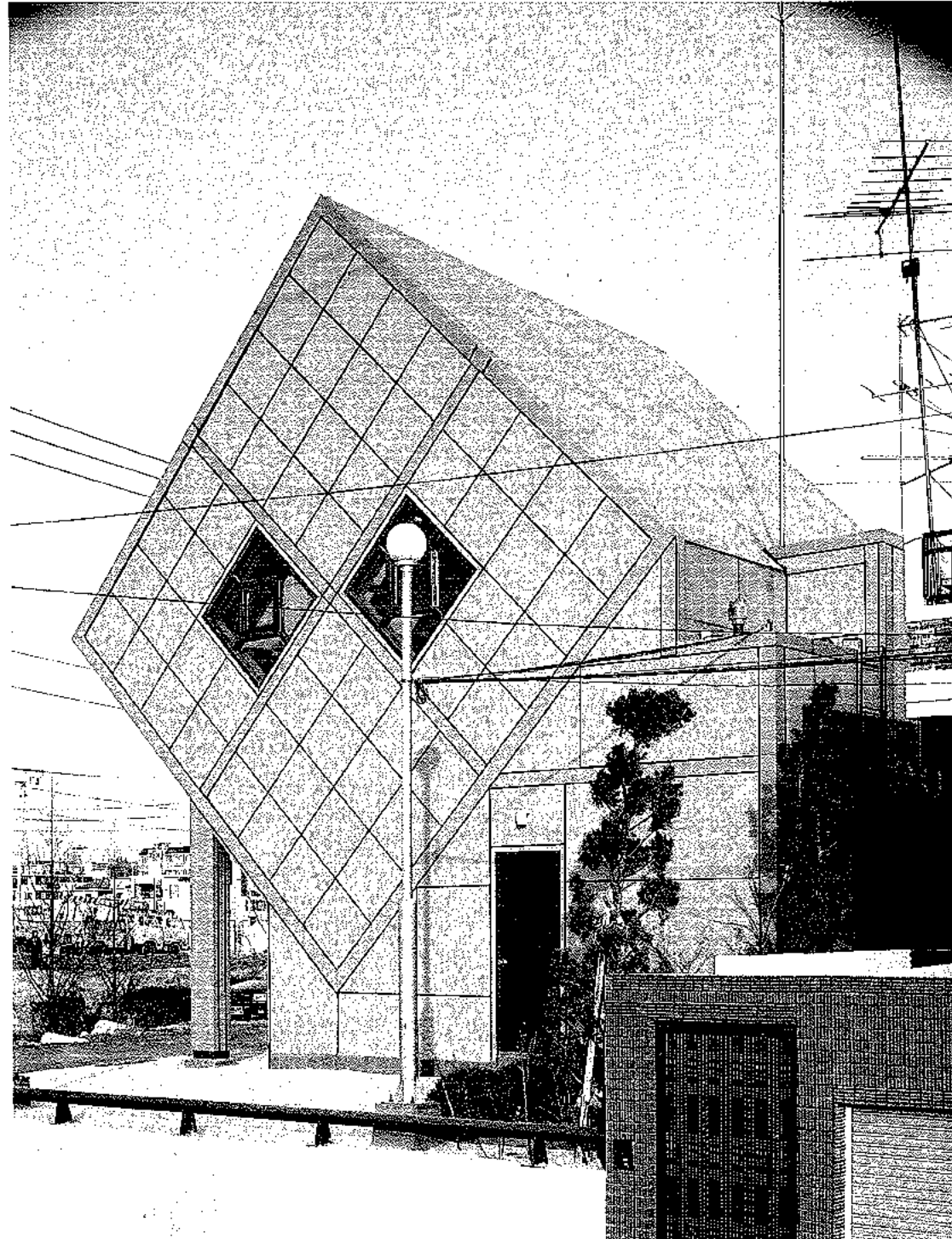


- ① 전경
 ② 초기안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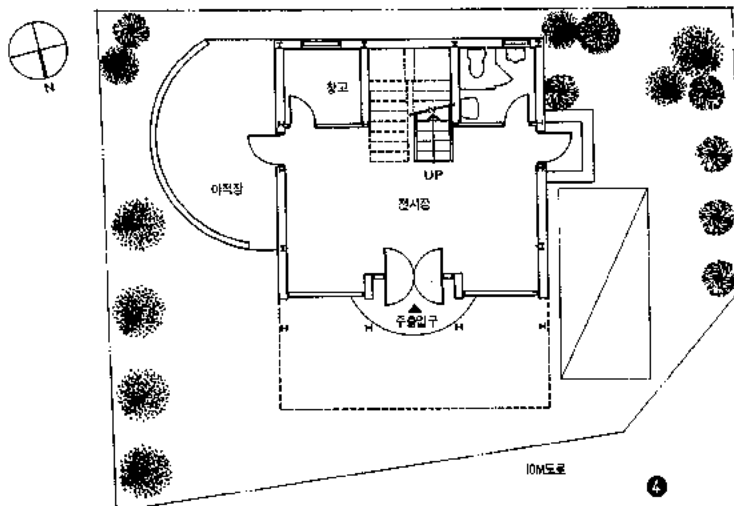
■ 좁은 국도를 타고 가는 여행, 신탄진 쪽 가다 보면 지루해진다. 길 한갈피에서 잠시 피곤함을 삭이려는 즈음 작으나마 모뉴멘트적 성향을 지닌 건물을 만난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놀이 기구로 큐빅이 있다. 고사리 같은 손안에서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숫자가 맞춰지는 게임 - 건물의 규모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입방체를 큐빅을 조립하는 마음으로 대지에 심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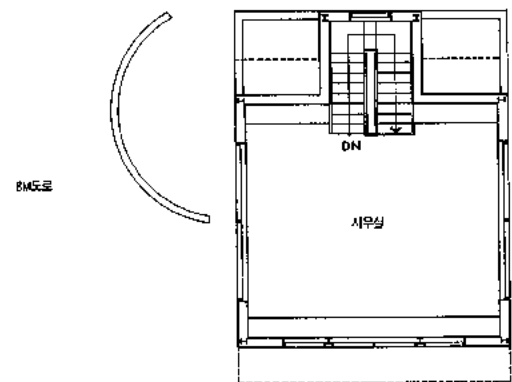
입면요소로서의 기하학적 Grid를 45° 회전시켜 도출시킨 형태와 매끈한 질감, 반영구적 구조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로서, 사무실겸 전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하며 단기간 시공이 끝나야 한다는 시간상의 압박으로 스틸판넬, H-beam, 데크 플레이트 등이 선택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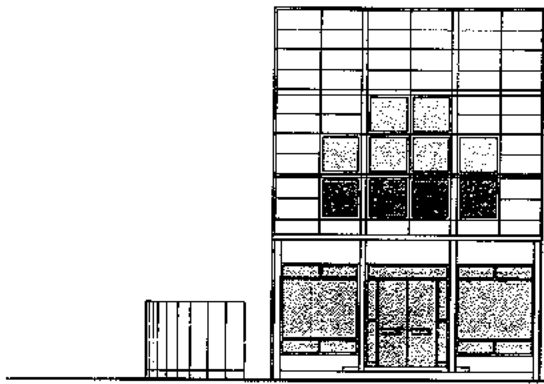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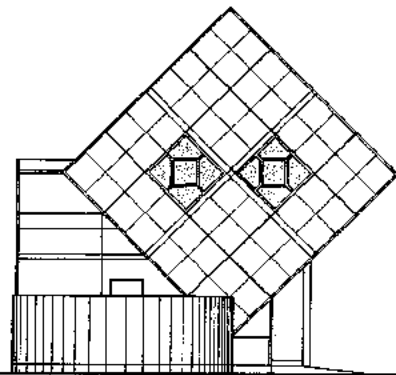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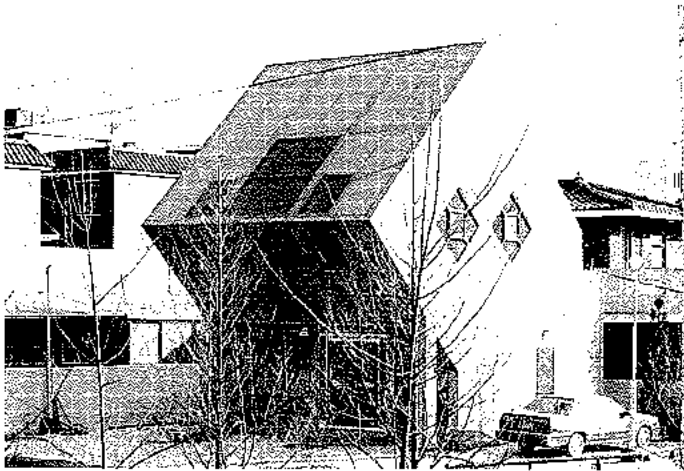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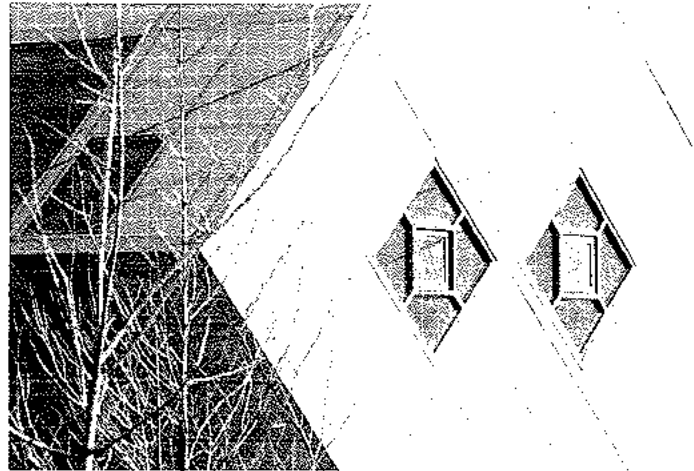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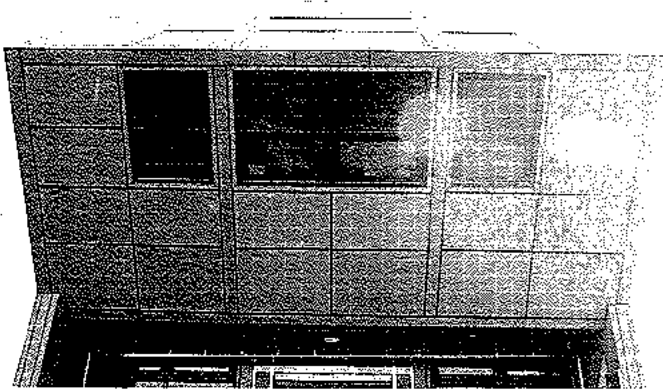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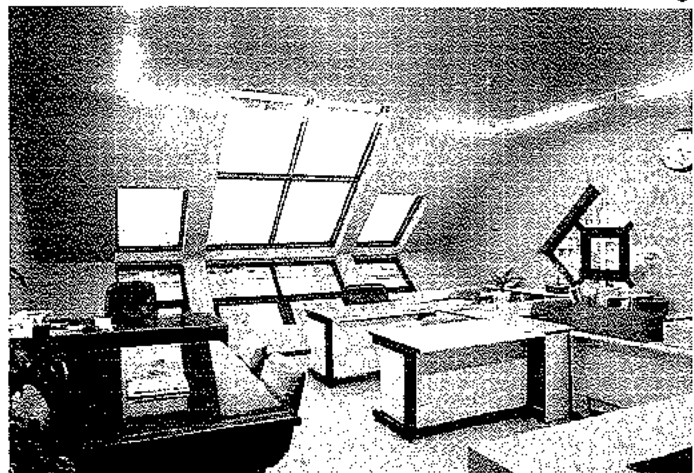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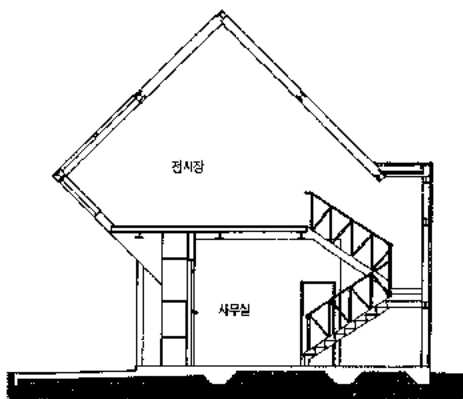
9



10



11



12

- ③ 전경
- ④ 1층 평면도
- ⑤ 2층 평면도
- ⑥ 북측 입면도
- ⑦ 동측 입면도
- ⑧ 주출입구측 전경
- ⑨ 외벽 상세
- ⑩ 외부 상세
- ⑪ 내부 전경
- ⑫ 단면도

국립 국악 중 · 고등학교

Korean National Traditional Music School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Archiban Architects Group, Ltd.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72

지역 · 지구 : 주거지역 · 주차장정비지구, 학교시설지구

용도 : 중 · 고등학교 + 기숙사

대지면적 : 18,985.4m²

건축면적 : 4,955m²

연면적 : 교사 - 13,336.7m²

기숙사 - 3,015m²

규모 : 교사 - 지하 1층, 지상 5층

기숙사 - 지상 4층

건폐율 :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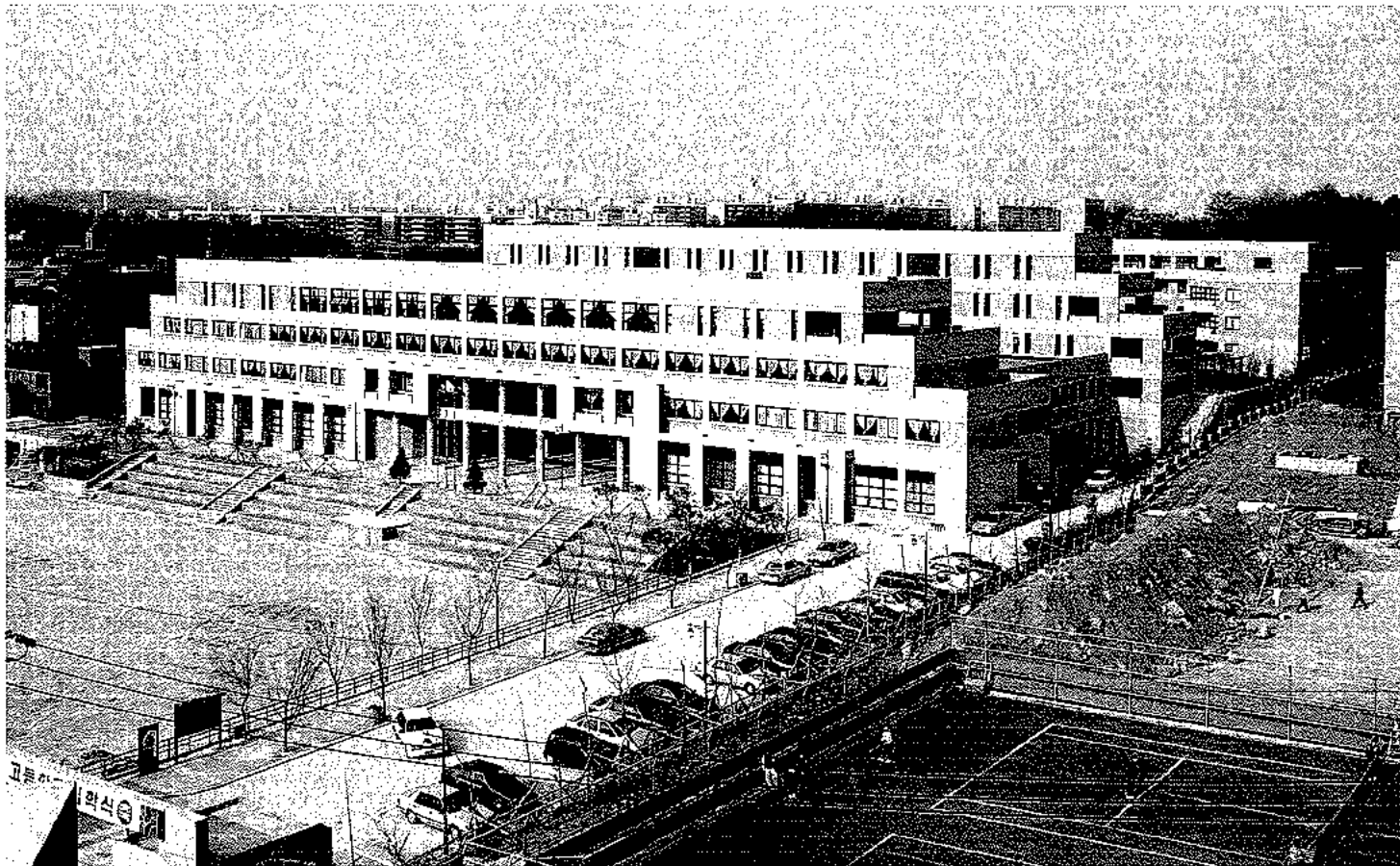
용적률 : 73.9%

구조 : RC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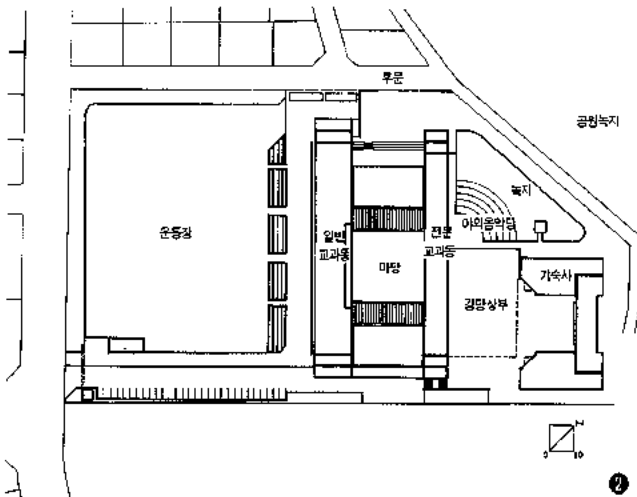
운동장면적 : 5,400m²

주요외장 : 노출콘크리트 + 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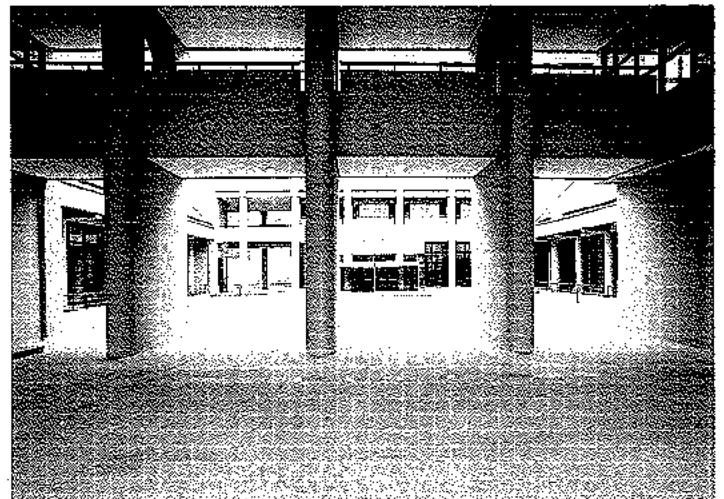
사진 : 김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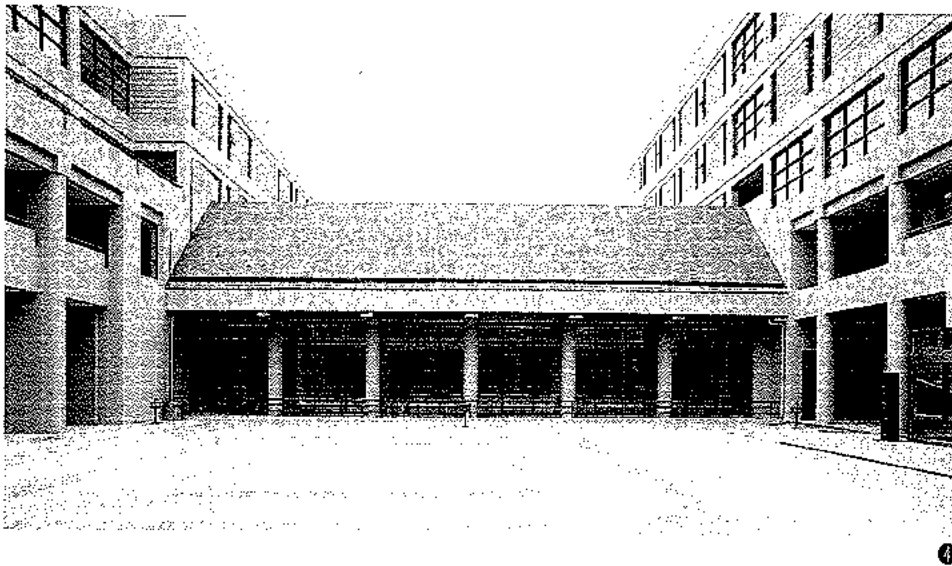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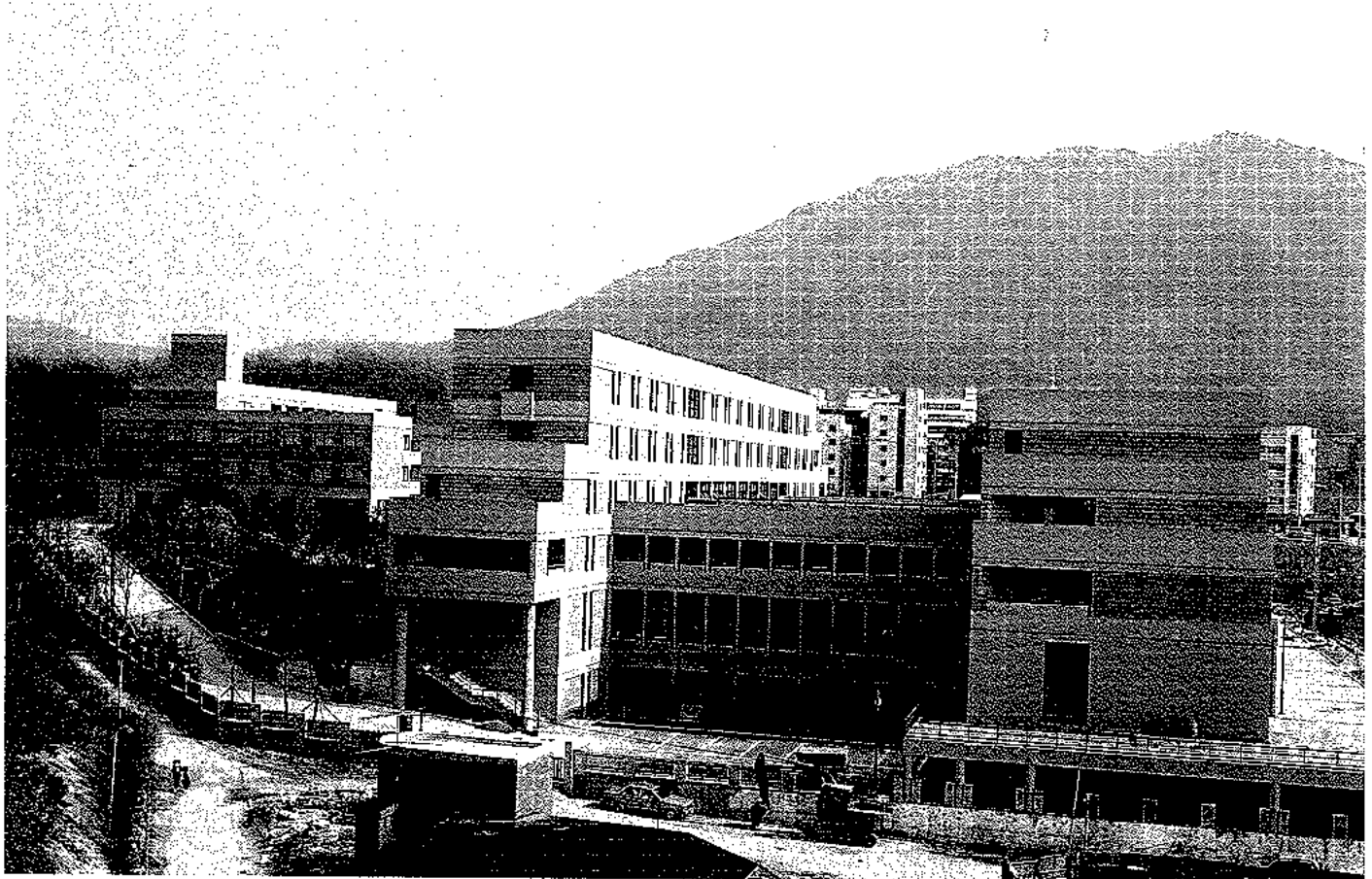
2



3



- ① 남측 전경
- ② 배치도
- ③ 중정과의 연결 통로
- ④ 중정부에서 본 외부상세
- ⑤ 측면 전경



“마당을 비워둔다” 또는 “비어있는 마당”이 이집의 주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외 공간에도 적용된다. “비워둔다”는 것은 공간의 기능을 중성화(中性化)하려는 것이고 “비어있음”은 건축의 절대 미감이 부여된 고유한 질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건축의 방법은 그 건축공간 또는 장소를 사람이 경험하는 방법에 따른다”는 일반적 공감대에 근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공간, 하나의 장소, 또는 형태적 대상들이 어떤 특정한 조건아래 있게 되었을때, 비로소 하나의 고유한 상황과 느낌을 매 순간 자율적으로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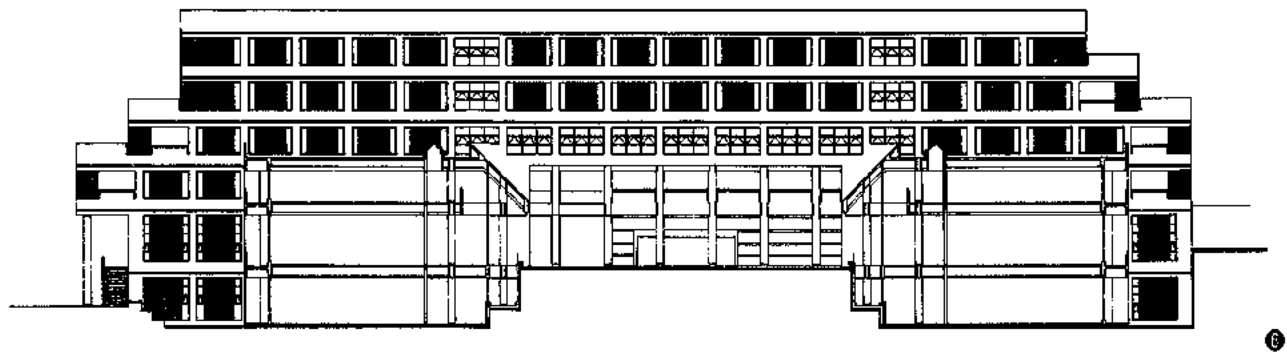
이러한 발상은 하나의 건축공간이 일의적(一意的) 기능과 감동만을 의도하는 현대기능주의 건축의 규범에 대한 극복이다. 물론 이러한 건축 접근 방법은 건축·공간 그리고 형태를 너무 현상적으로만 보려는 위험에 빠지는 것을 충분히 조심한다면, 건축가치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 발의의 근거는 우리 전통건축에서 발견된다. 우리 전통건축의 내·외공간은 특정한 하나의 기능이 주어진다기 보다는 항상 중성적으로 남아 있다가 때에 따라 어떤 특유의 기능 또는 행위가 도입되었을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절제히 비어 있게 한다. 따라서 영역으로만 크게 분할되면서 각각 공간의 질, 그것들의 연계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우리의 전통철학과 자연관에 따라 빛과 바람 그리고 자연환경과 그것의 변화와 적절히 조우하게 하는데 힘쓰게 된다. 해서 비어있음이 그냥 비어있음이 아니라 조용함, 투명성, 명료함, 채울수 있는 잠재력, 완성으로의 열림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집에 이러한 의도를 구체화 함에 있어 우선 설정된 각각 내·외 공간의 3차원적 크기, 형태 및 비례, 거기에 쏟아지는 햇빛, 거기를 통하여 지나갈 바람, 그리고 마감재료의 질감과 색채가 주된 디자인 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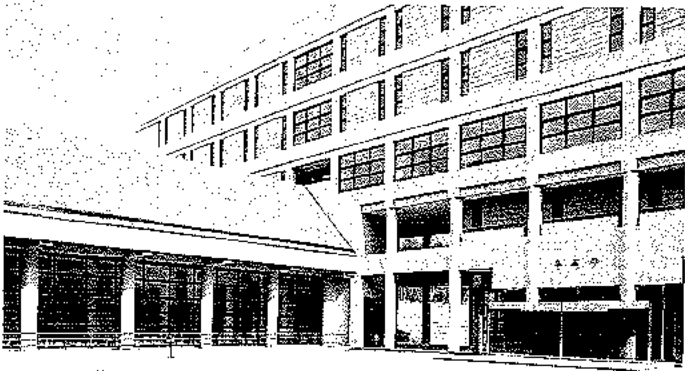
적절한 개방감과 폐쇄감을 가진 적절한 크기와 형식의 공간에, 직사광, 반사광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명암이 가능한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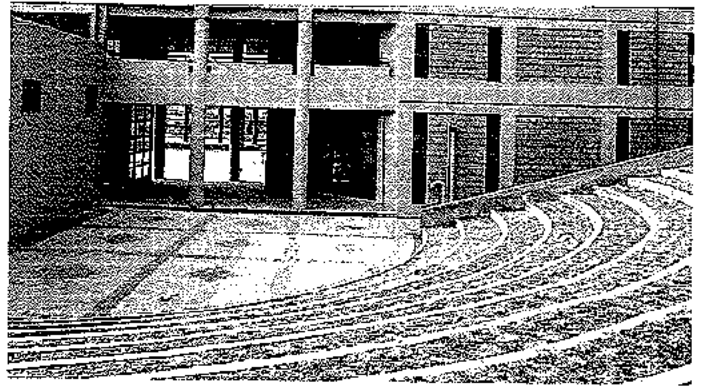
전개되도록 조정하고, 그곳을 지나가며 부는 바람이 적절히 흐르고 머물게하며 도입될 행위의 극대화를 위해 그 행위의 배경이 될 벽과 바닥의 철저한 무채색화로 절제된다.

이러한 질을 가진 공간들은 그곳으로 통입되는 동선에 따라, 의도된 이야기에 따라 조직된다. 특히, 모든 장소와 공간들은 그곳으로 구태여 끌어 들인 동선으로 둘러쳐져서 의도된 행위를 더욱 조장할 뿐 아니라 또한 의도되지 않은 행위를 유발·촉진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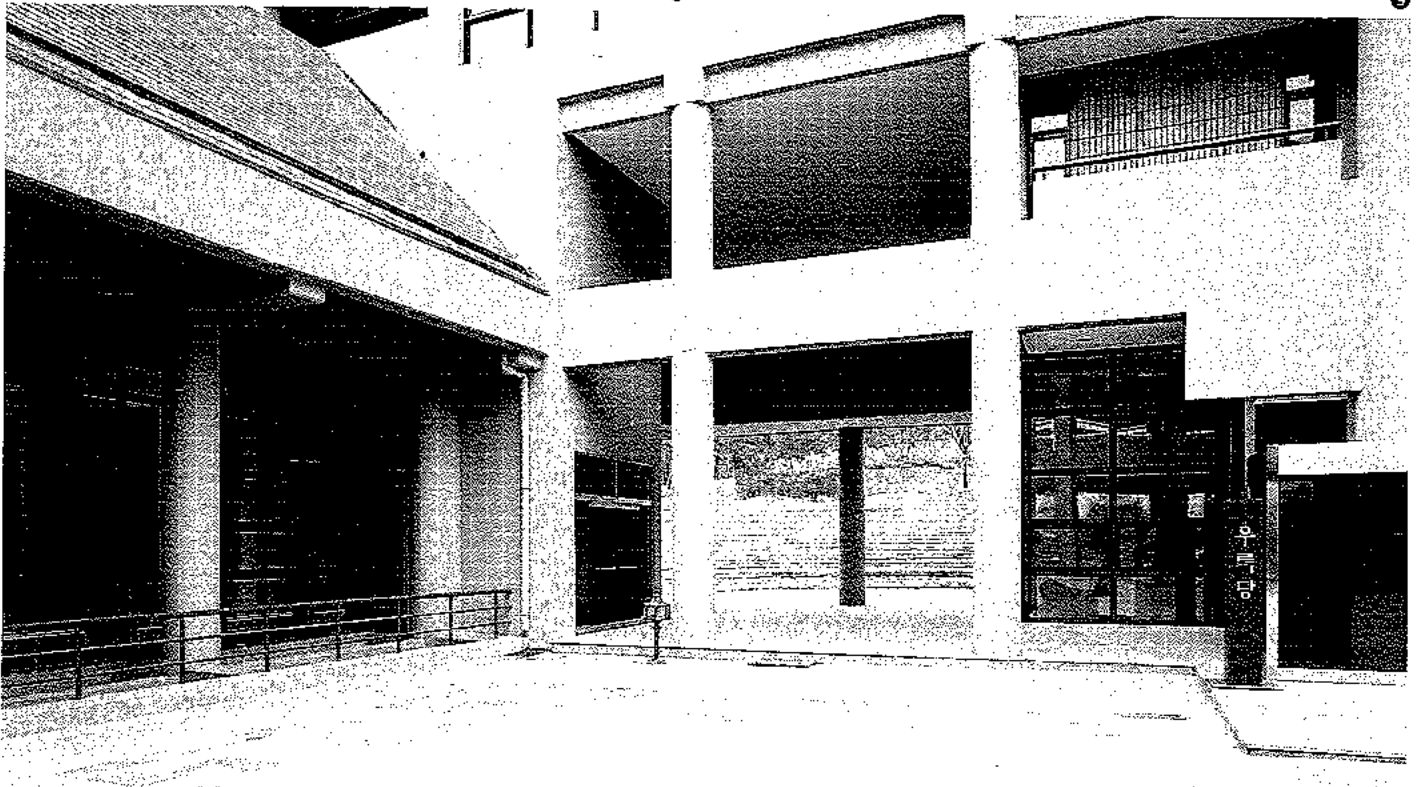
- ⑥ 주 단면도
- ⑦ 기숙사 전경
- ⑧ 중정에서 본 외부상세
- ⑨ 야외 음악당측 상세
- ⑩ 중정에서 본 외부 통로
- ⑪ 1층 평면도
- ⑫ 교과 3, 4 층 평면도
- 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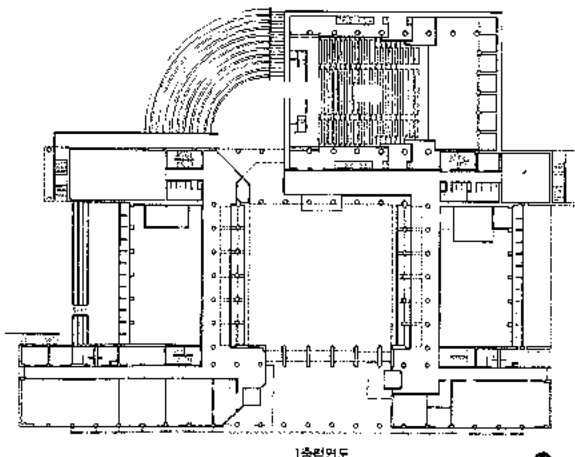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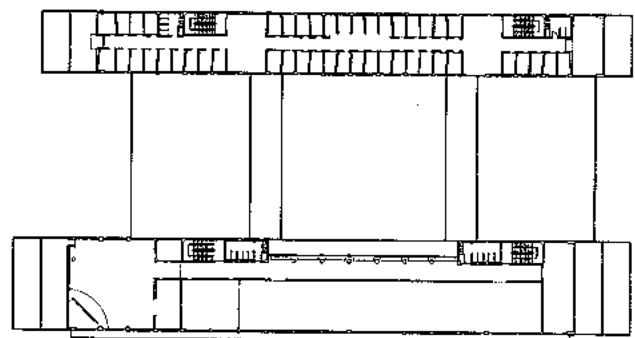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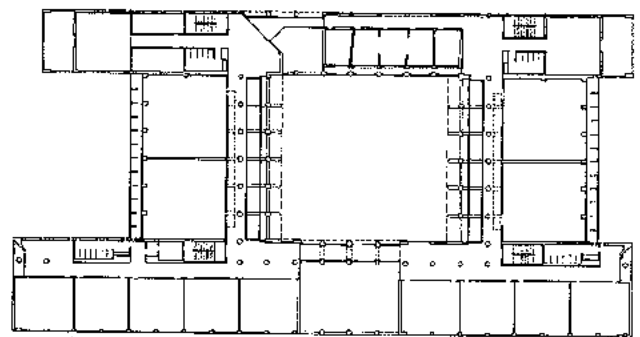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1



4층 평면도

12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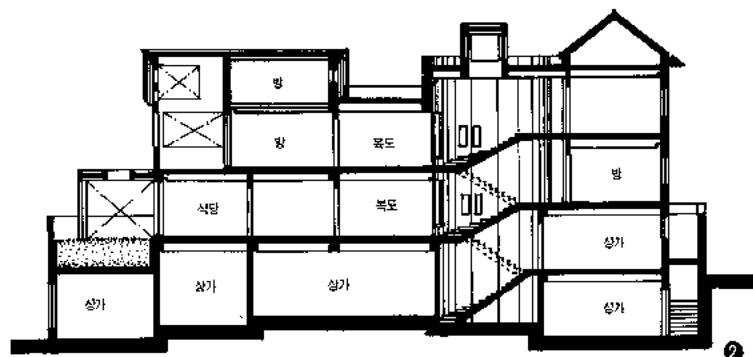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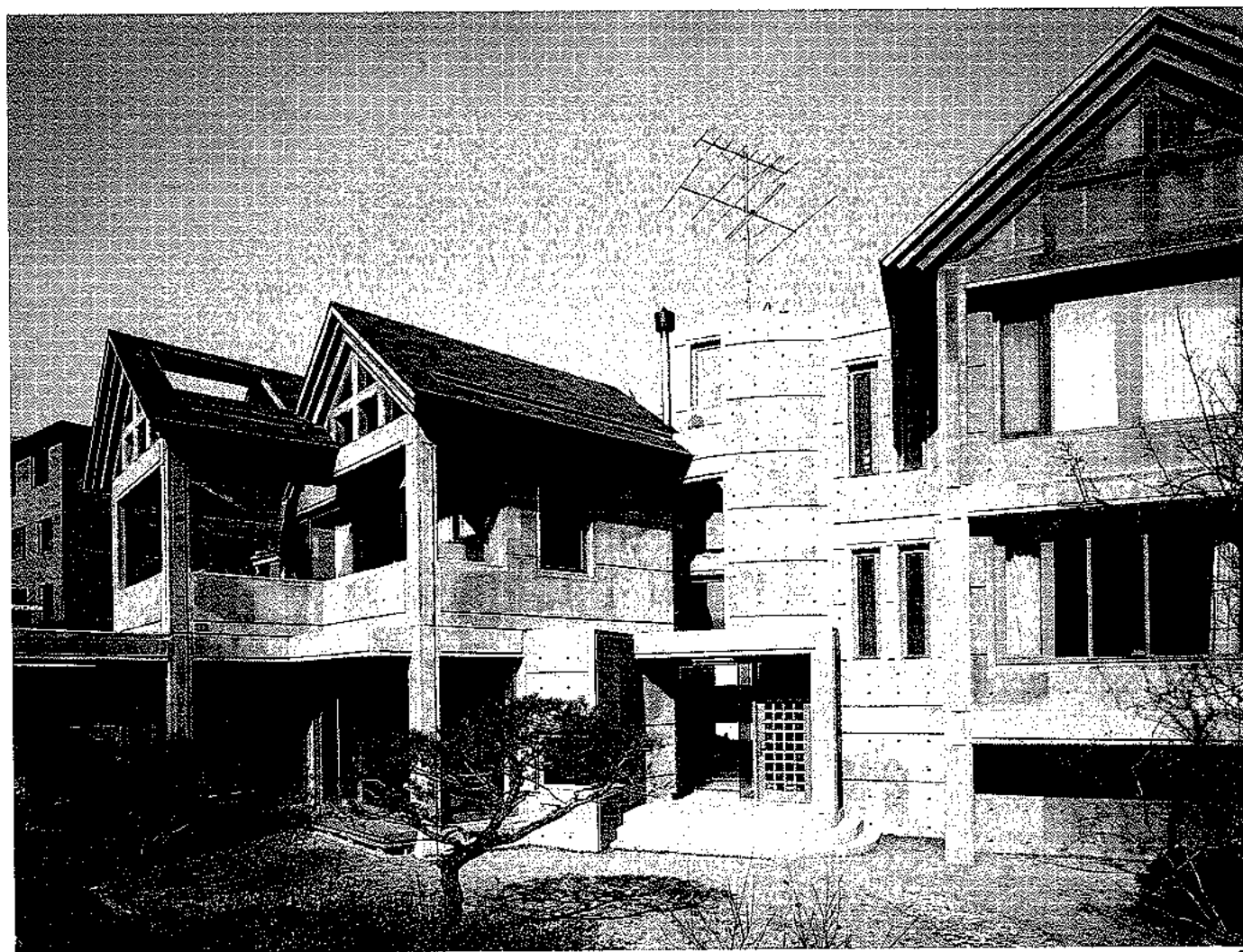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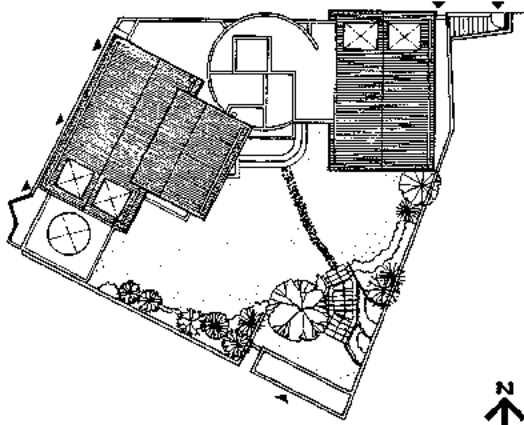
정릉 S씨 주택

Jeongleung S's Residence

張世洋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ang, Sea - Yang

■
대지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371.43m²
건축면적 : 172.89m²
연면적 : 484.30m²
건폐율 : 46.55%
용적률 : 96.19%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 지붕 - 아스팔트 평굴
외벽 - 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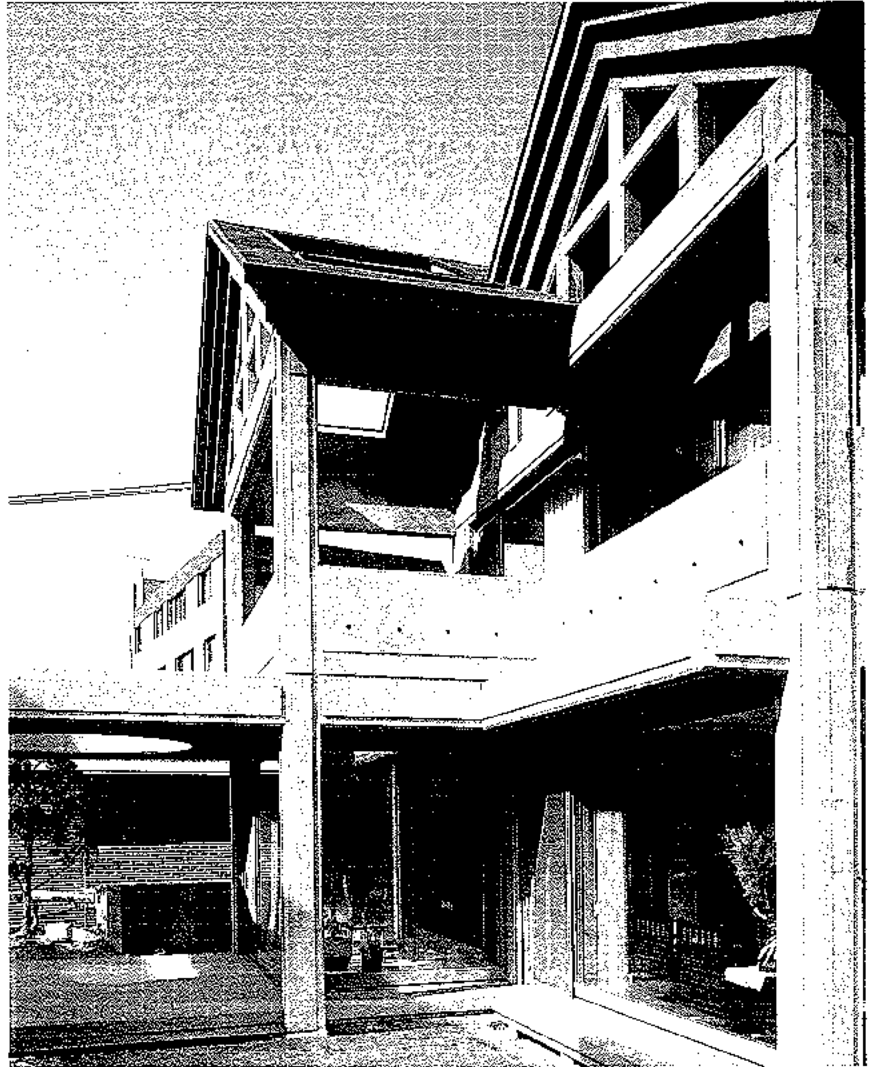


4



6

- ① 전경
- ② 정면도
- ③ 배치도
- ④ 올려다 본 외부상세
- ⑤ 외부 상세
- ⑥ 거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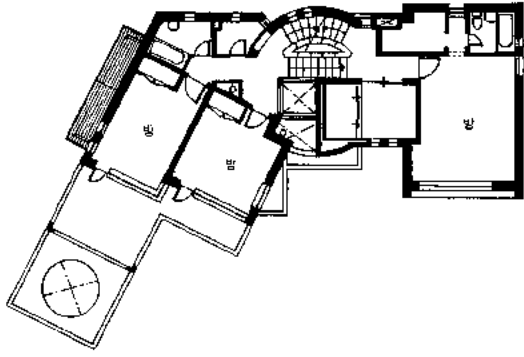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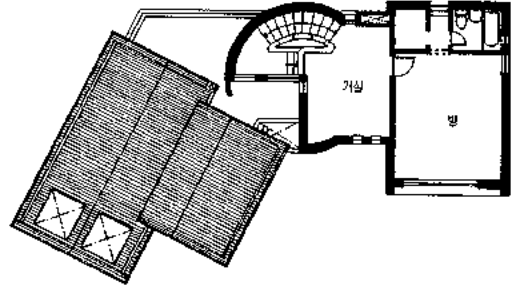
주택은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어야 하며, 살기 위한 편안한 휴식의 장소이어야 한다. 더욱이 주택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 다분히 외도적인,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공간열출로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가 기대어 안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대지는 비교적 급한 경사지이며, 삼면에는 상태가 불량한 근린시설 및 주택들이 접해 있으나 높은 위치여서 원경이 양호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건축주는 정원을 넓게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따라서 대지의 북쪽과 서쪽 도로에 기대어 건물을 배치함과 아울러 주택을 2·3층에 배려함으로써 남동방향으로의 넓은 정원과 좋은 전망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위압감은 주택의 전체적인 덩어리의 본질, 조각적 요소의 도입, 도로와 접하는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접목시킴으로써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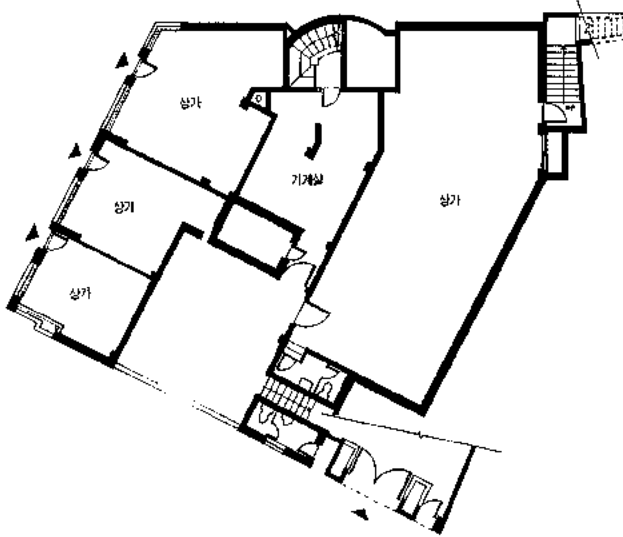
평면계획에서는 주택을 인지하면서 현관에 이르는 과정적 공간을 되도록 길게 하여 완충지대를 마련함으로써 답답함을 해소하였다. 건물 중앙부는 원통형의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반층씩 높이 차를 두고 거실 및 식당의 공적 공간, 주인 공간, 작은아들과 막내딸의 공간(혹은 장래 성장할 큰아들의 공간), 큰아들 부부를 위한 공간을 배치하여 3대가 함께 살면서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 수직통로에서 약간 출고 긴 듯한 완충공간을 지나면 각 세대들만의 개인적인 공간이 시원한 조망과 함께 펼쳐지도록 하였다. 또한 공적 공간은 집안 행사 때에는 주방과 식당 사이의 미서기문을 터서 자녀들이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식당에서 이어지는 옥외공간을 거실과도 연결, 정원으로의 확장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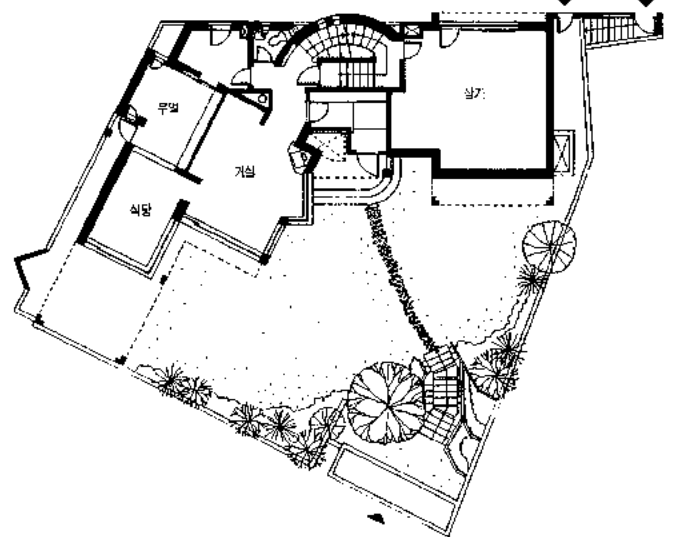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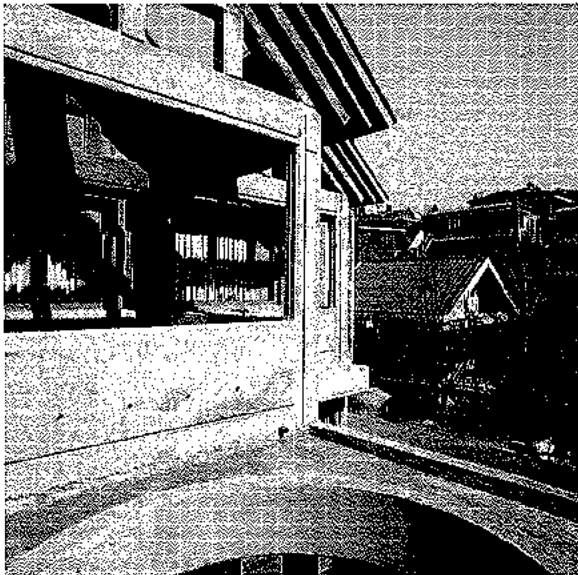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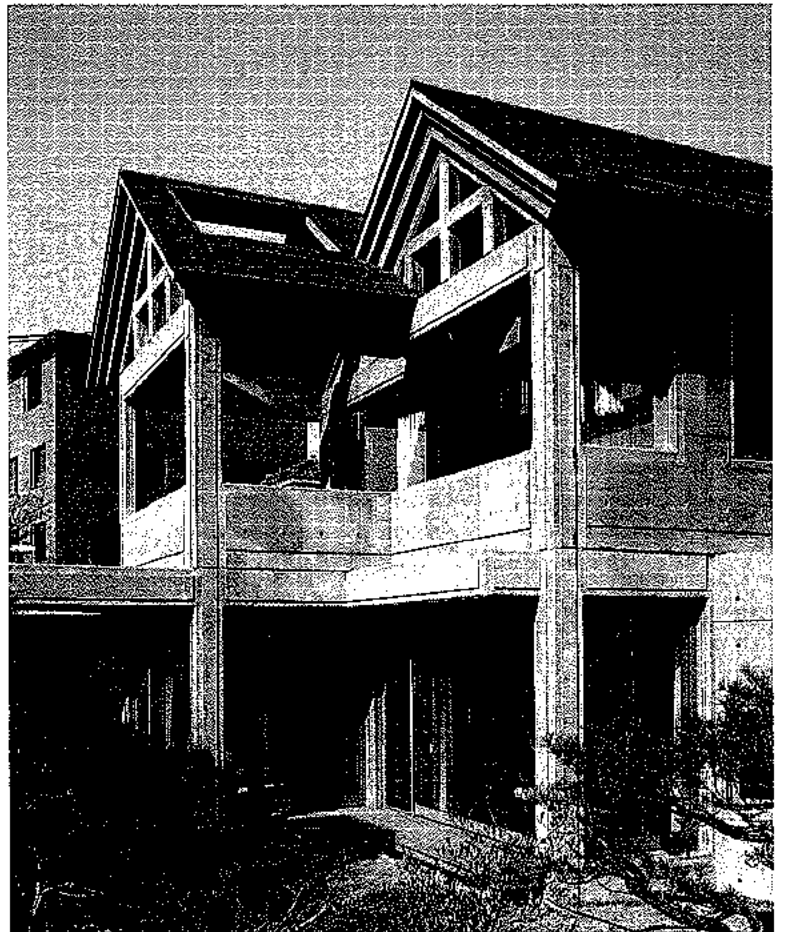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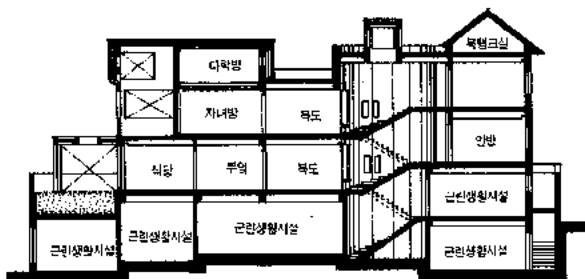
10



11



12



인면도

13

- ⑦ 지상 2, 3층 평면도
- ⑧ 지상 2, 3층 평면도
- ⑨ 지하 1층·지상 1층 평면도
- ⑩ 지상 1, 2층 평면도
- ⑪ 외부 상세
- ⑫ 단면도
- ⑬ 측면 상세
- ⑭ 전면 현관측 상세
- ⑮ 정면도
- ⑯ 북측면도(배면도)
- ⑰ 2층방 상세
- ⑱ 식당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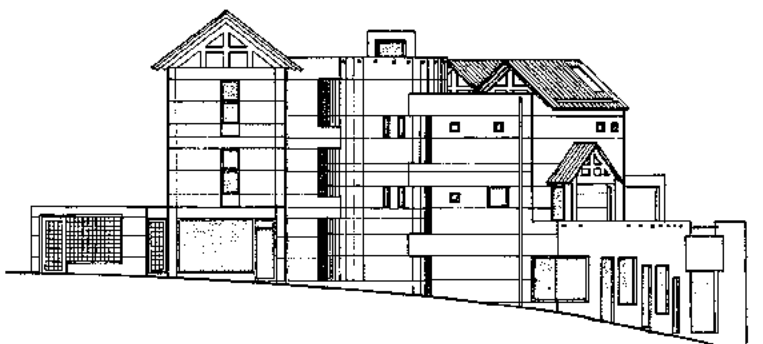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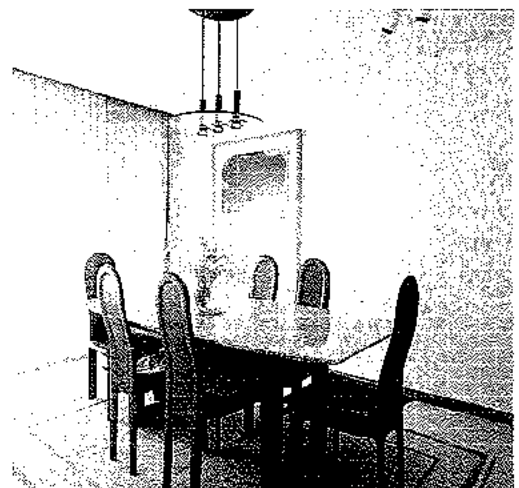
⑰



⑮



⑬



⑱

삼풍백화점

Sampoong Department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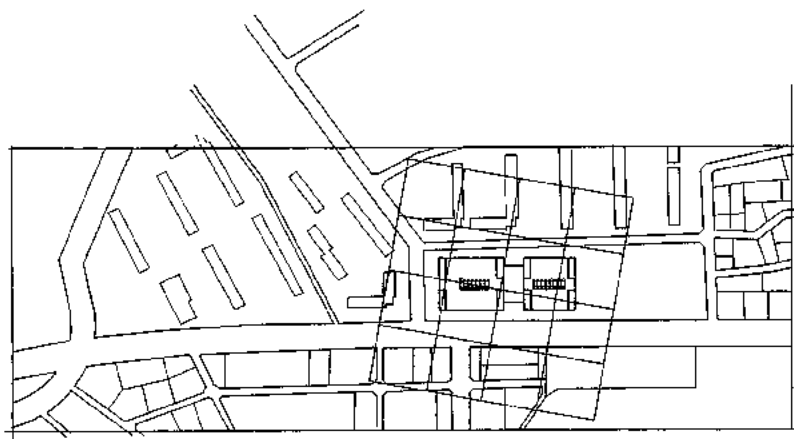
文政一 / (주)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oon, Jung -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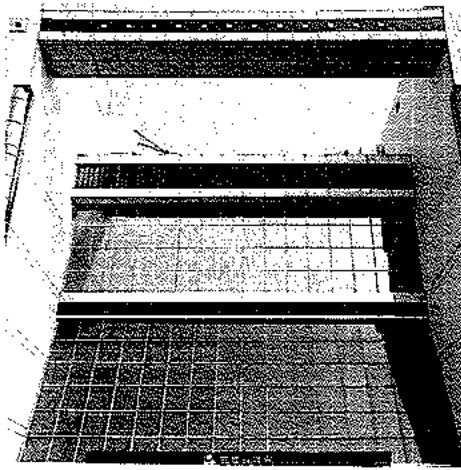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 지구 : 상업지역 · 1종비판, 업무지구
 대지면적 : 15,225m²
 건축면적 : 7,489m²
 연면적 : 73,205m²
 규모 : 지하 4층, 지상 5층
 건폐율 : 48%
 용적률 : 214%
 주차대수 : 옥외 - 84대, 옥내 - 1,524대



1



2



1

장방형의 대지에는 주차공간과 건물의 스페이스를 구분함이 일반적인 배치방법이나 층수를 제한하는 관계법규 등의 이유로 건물을 중심부에 배치하고 주차 스페이스를 건물 외곽으로 확보하고 주차 스페이스 이외의 공간에 휴식공간을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여 건물 주위로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게 계획하였다.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쉽게 지하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지하로 출입하는 불편을 가능한 배제하였다.

건물의 4면으로부터 출입이 가능하게하고 각 코너에 계단실을 두어 단순한 사각형형태의 매장을 형성하고 그 단순함을 실내 장식으로써 변화를 주어, 전체 공간은 단순하나 변화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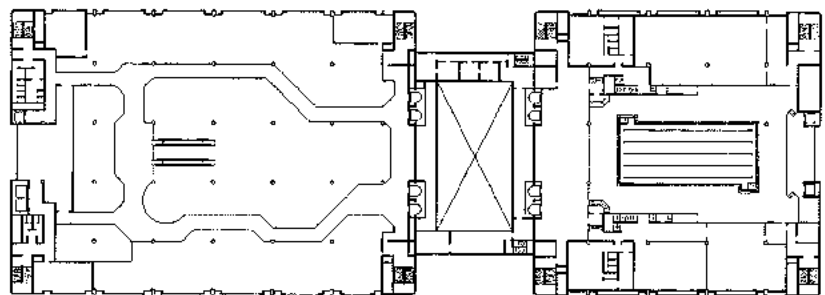
에스카레이터가 위치한 연결선 상에 상부 천창과 건물 측면의 창을 통하여 빛을 도입하고, 그 빛을 따라 쇼핑 몰(Shoppingmall)을 형성함으로써 건물의 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좌우 두 개의 건물동 중앙에 보이드의 공간을 브릿지로 연결하고 좌우에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지상층 매장에 이르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 매장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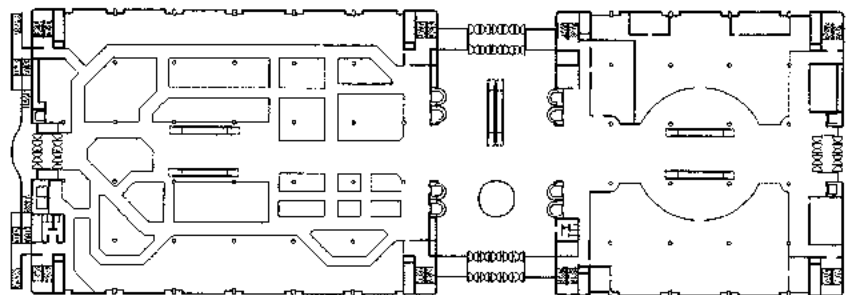
두 개의 분절된 건물동을 커튼월의 유리면으로 연결하고 각 스펀의 외관은 쇼핑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창면적을 가급적 줄이고 G. R. C를 이용한 벽면으로 처리하였다. 고저차가 있는 도로상에 위치한 건물이 주는 불안정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전면에 수평으로 긴 장식물을 설치하여 건물의 외관을 안정감있게 처리하고, 건물의 측면은 기능적인 면에서의 벽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차후 사인보드와 광고용 프레임드를 계절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상품을 돌보이게 하려면 건물의 외관은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입면을 계획하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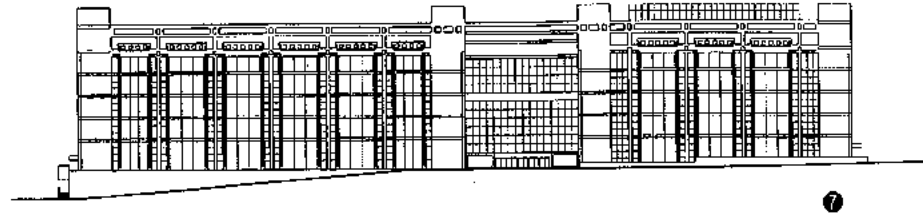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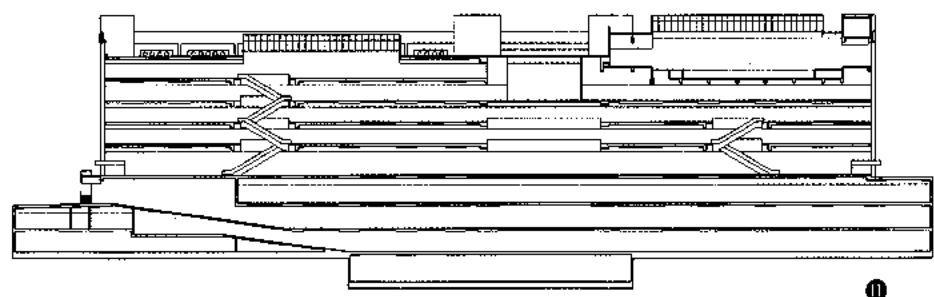


4

- 1 전경
- 2 배치도
- 3 현관상부 커튼월
- 4 현관 홀
- 5 5층 평면도
- 6 1층 평면도



- ⑦ 입면도
- ⑧ 후면 상세
- ⑨ 측면 계단 상세
- ⑩ 5층 수영장 전경
- ⑪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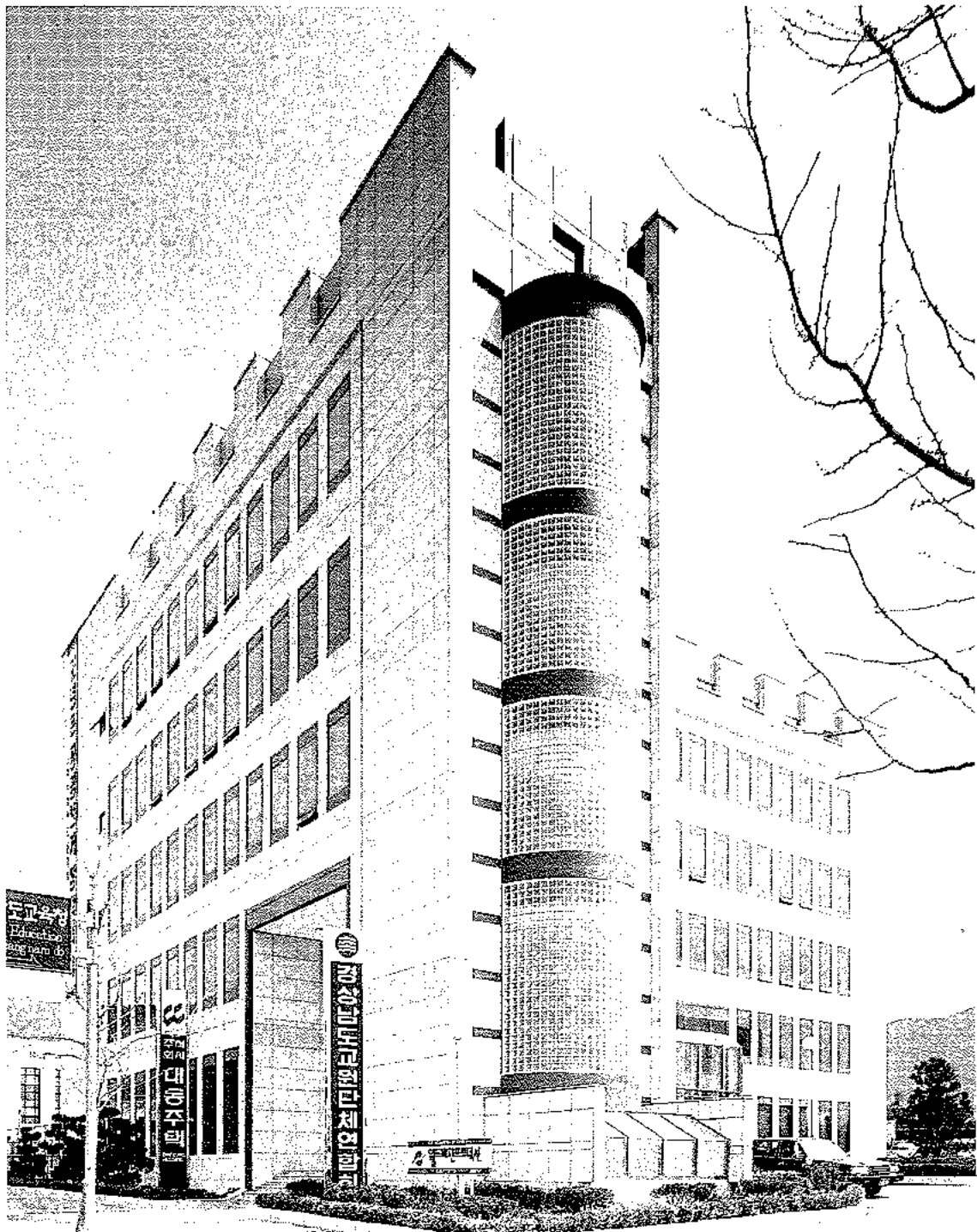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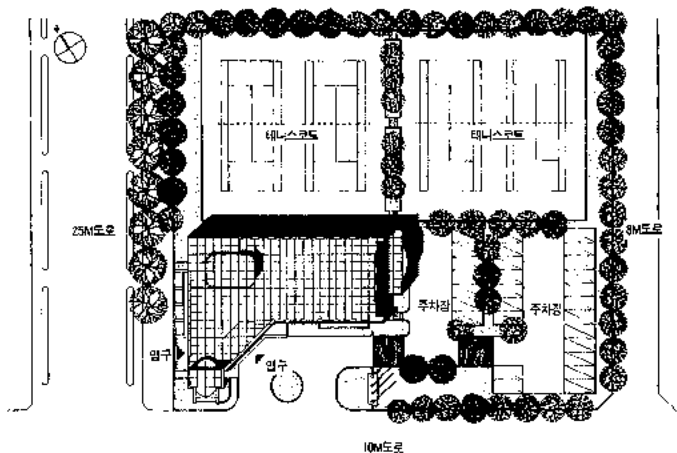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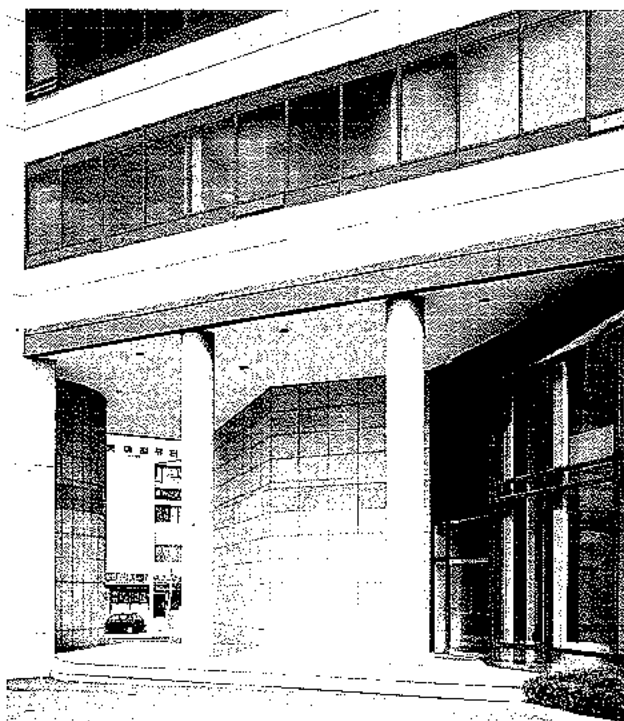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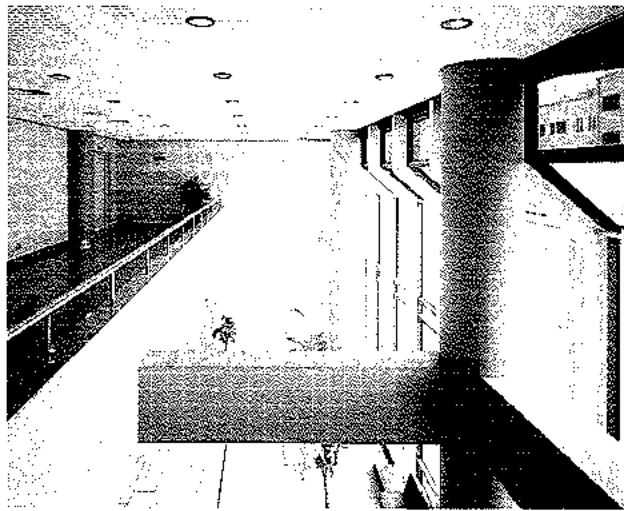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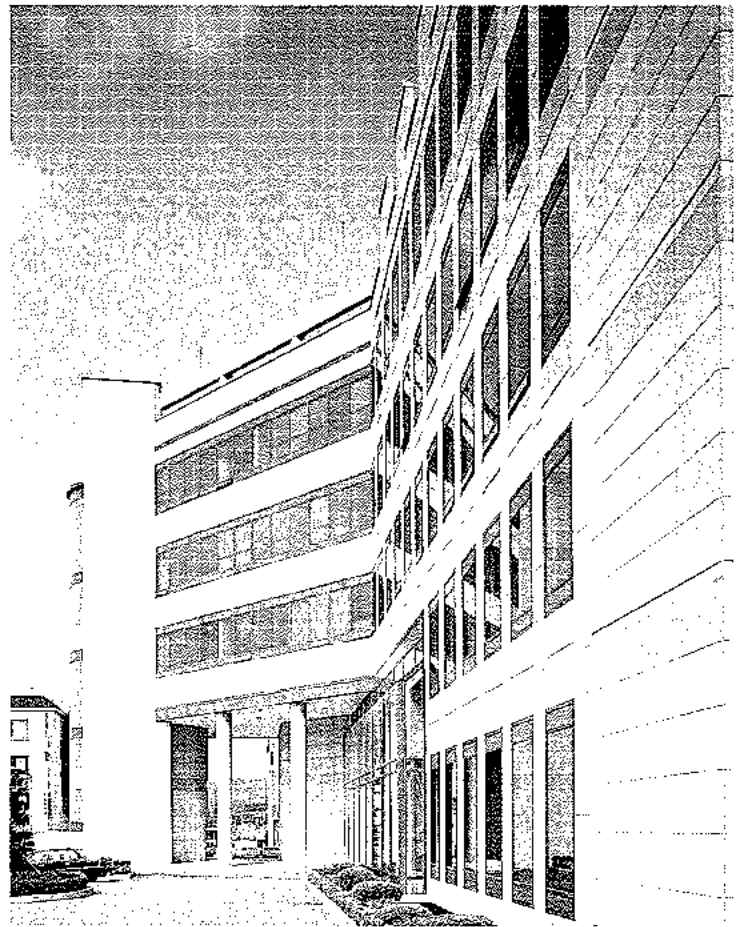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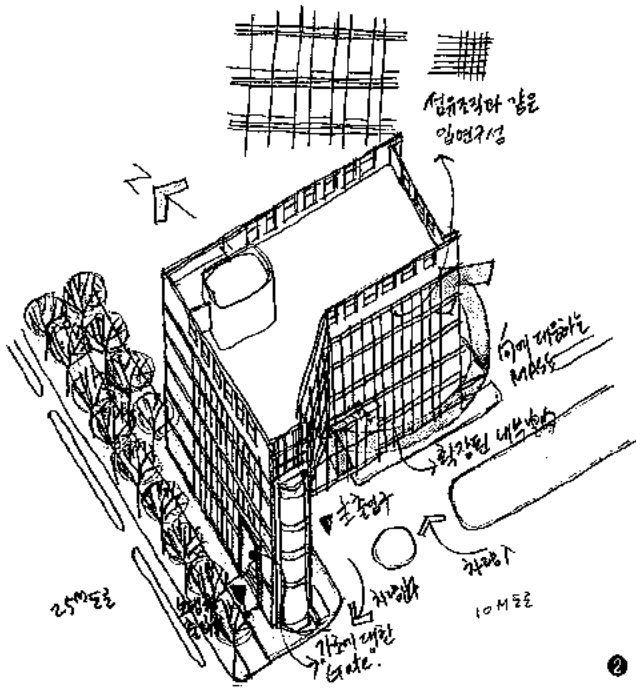
경남교원 회관

Kyungnam Teacher's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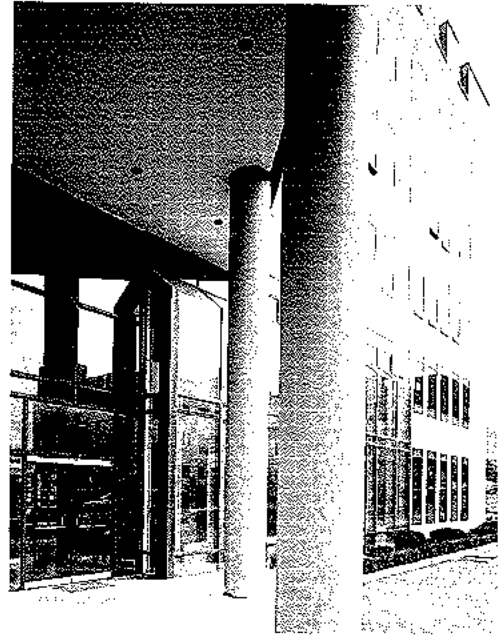
崔寬泳 / (주)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 - Young

■
대지위치 : 경남 창원시 용촌동 5-5
지역·지구 : 상업지역·1종비관, 업무지구
대지면적 : 5,748.0m²
건축면적 : 746.8m²
연면적 : 3,829.7m²
건폐율 : 12.9%
용적률 : 54.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주요외장 : 화강석,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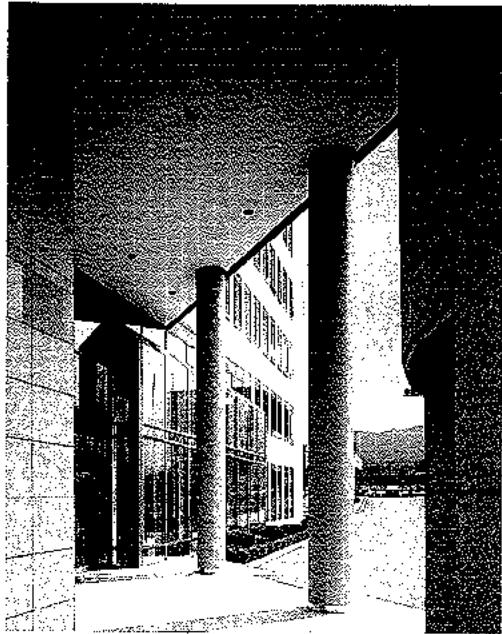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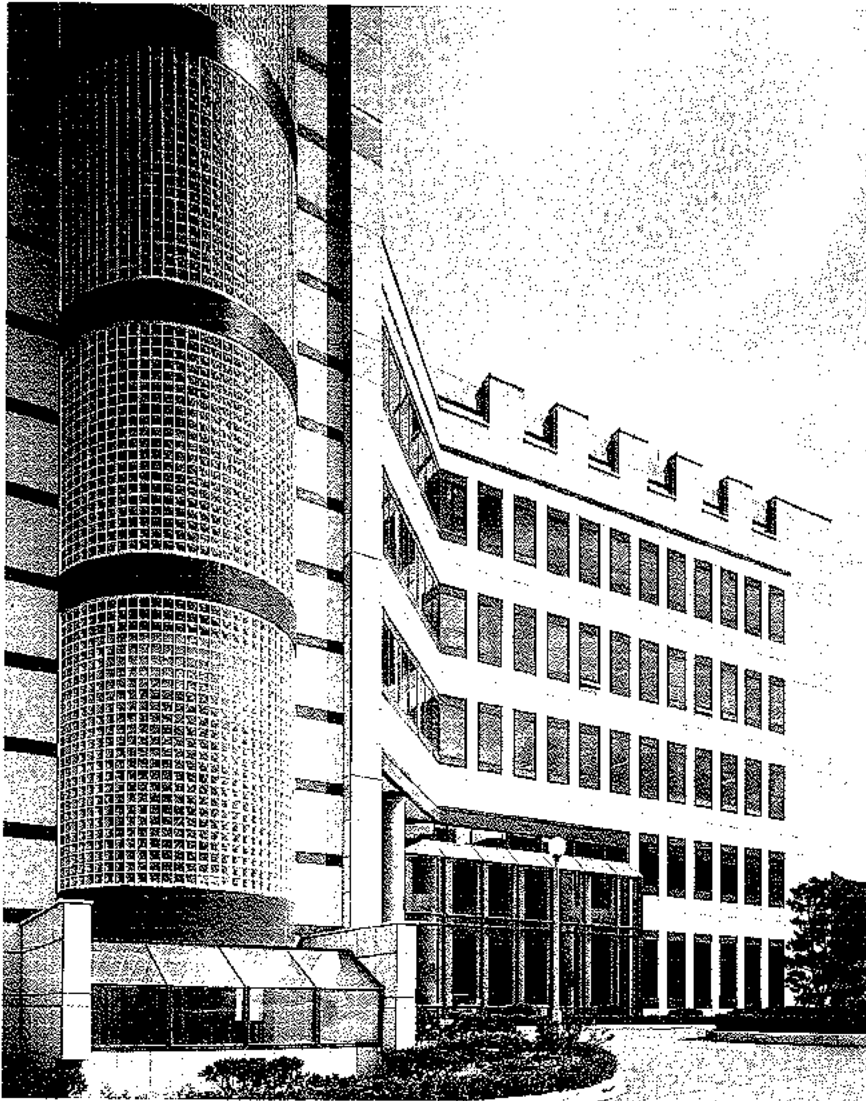
- ② 개념 스케치
- ③ 배면에서 피로티 진입부
- ④ 2층에서 본 로비
- ⑤ 로비
- ⑥ 주출입구 및 피로티
- ⑦ 배치도
- ⑧ 주출입구 진입로에서 본
상세
- ⑨ 피로티부분 기둥 상세
- ⑩ 피로티 상세
- ⑪ 1층 평면도
- ⑫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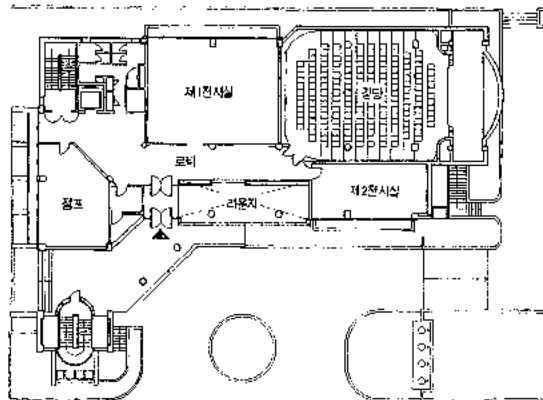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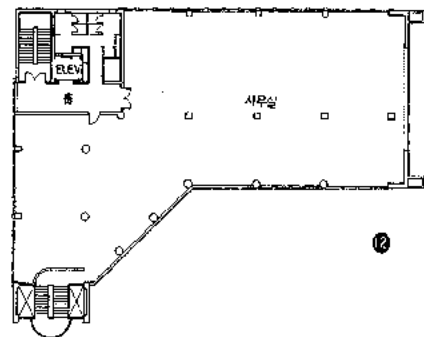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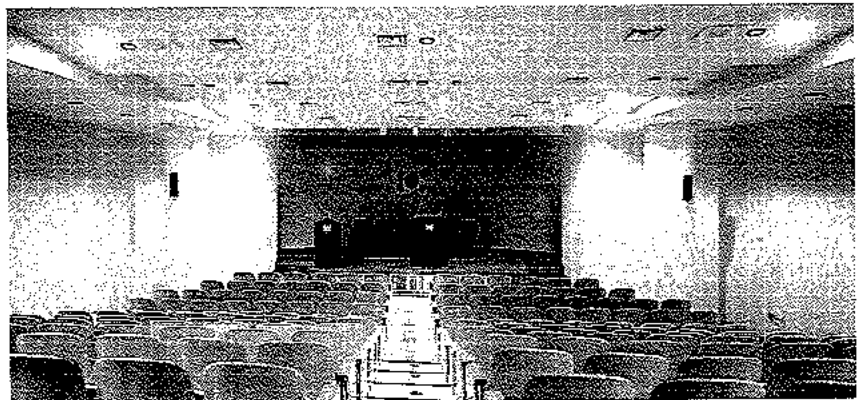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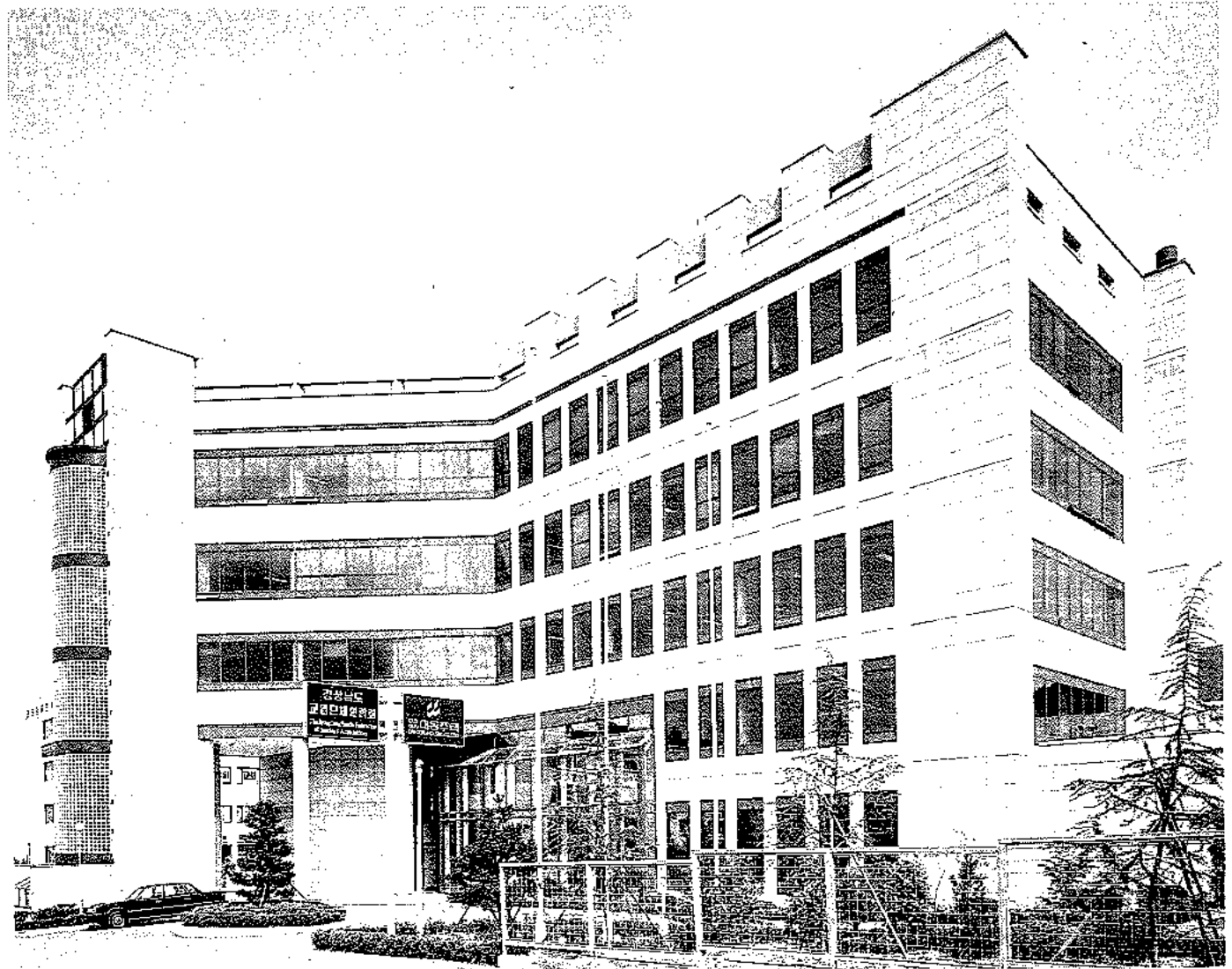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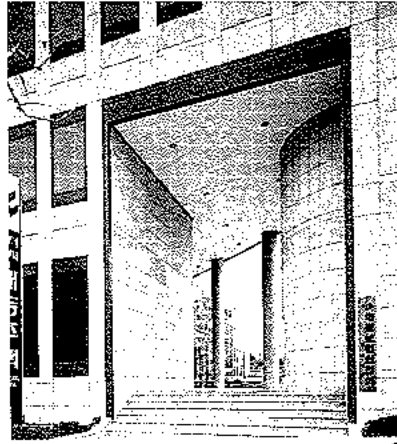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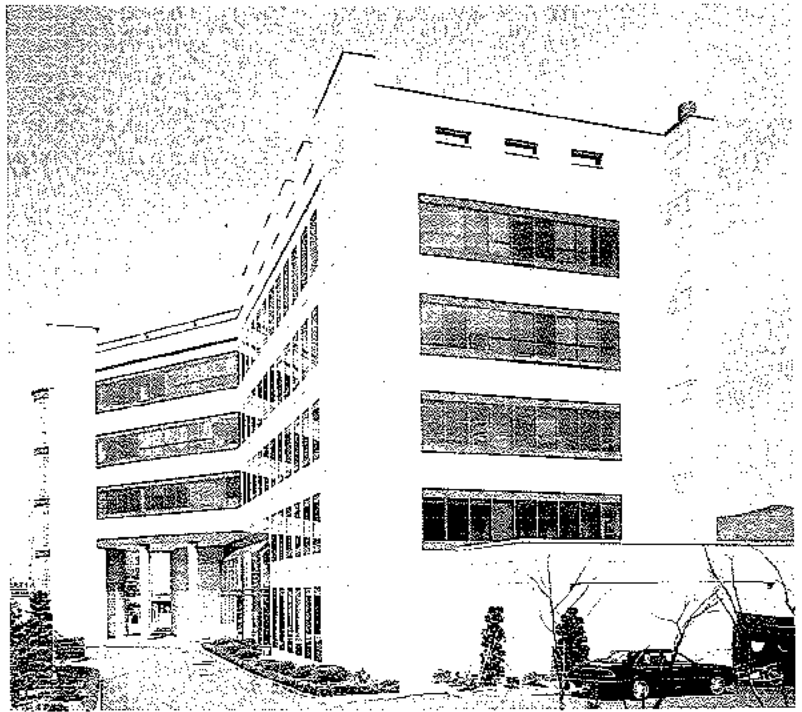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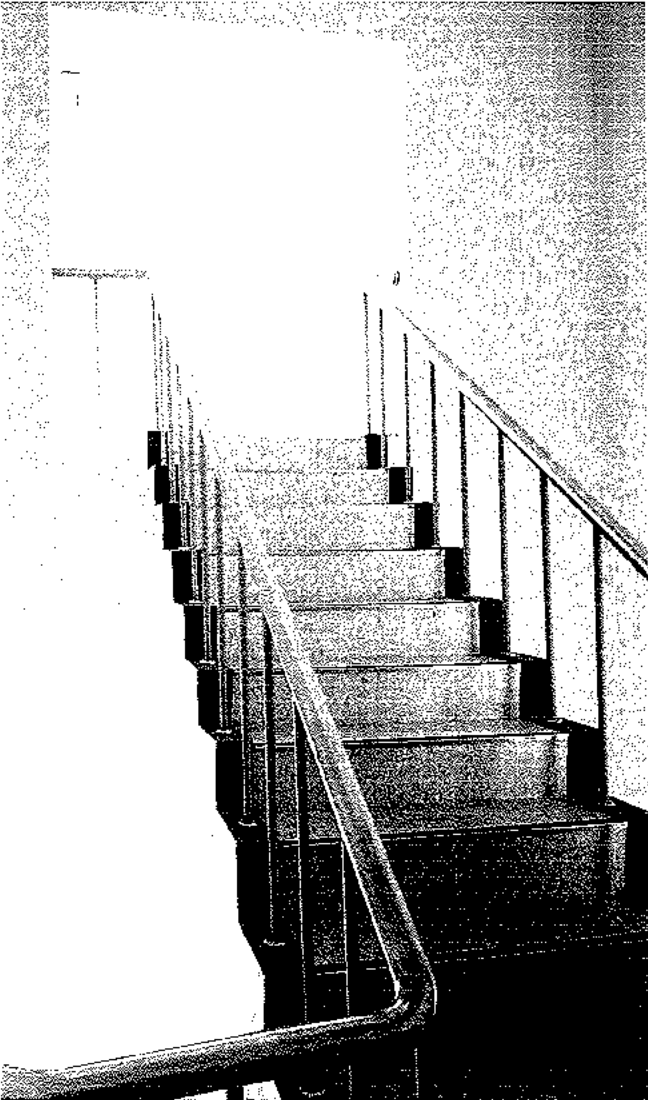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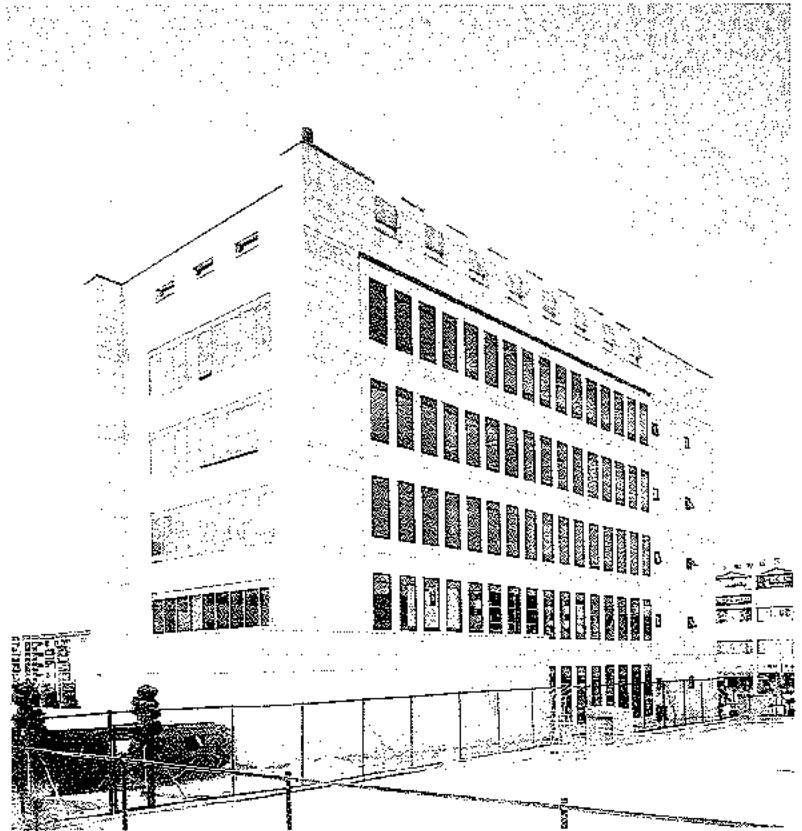
- ① 로비에서 본 주출입구
- ② 전면부 피로티 상세
- ③ 배면 전경
- ④ 강당 전경
- ⑤ 배면 전경
- ⑥ 계단 상세
- ⑦ 후면 전경
- ⑧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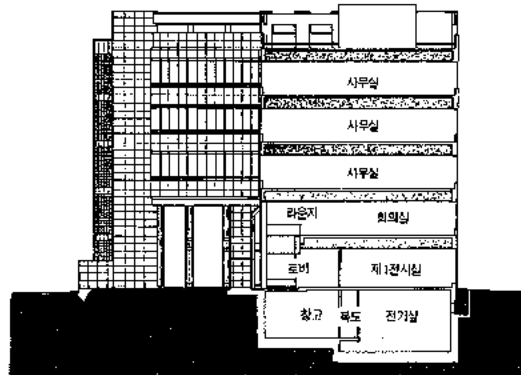
②



⑥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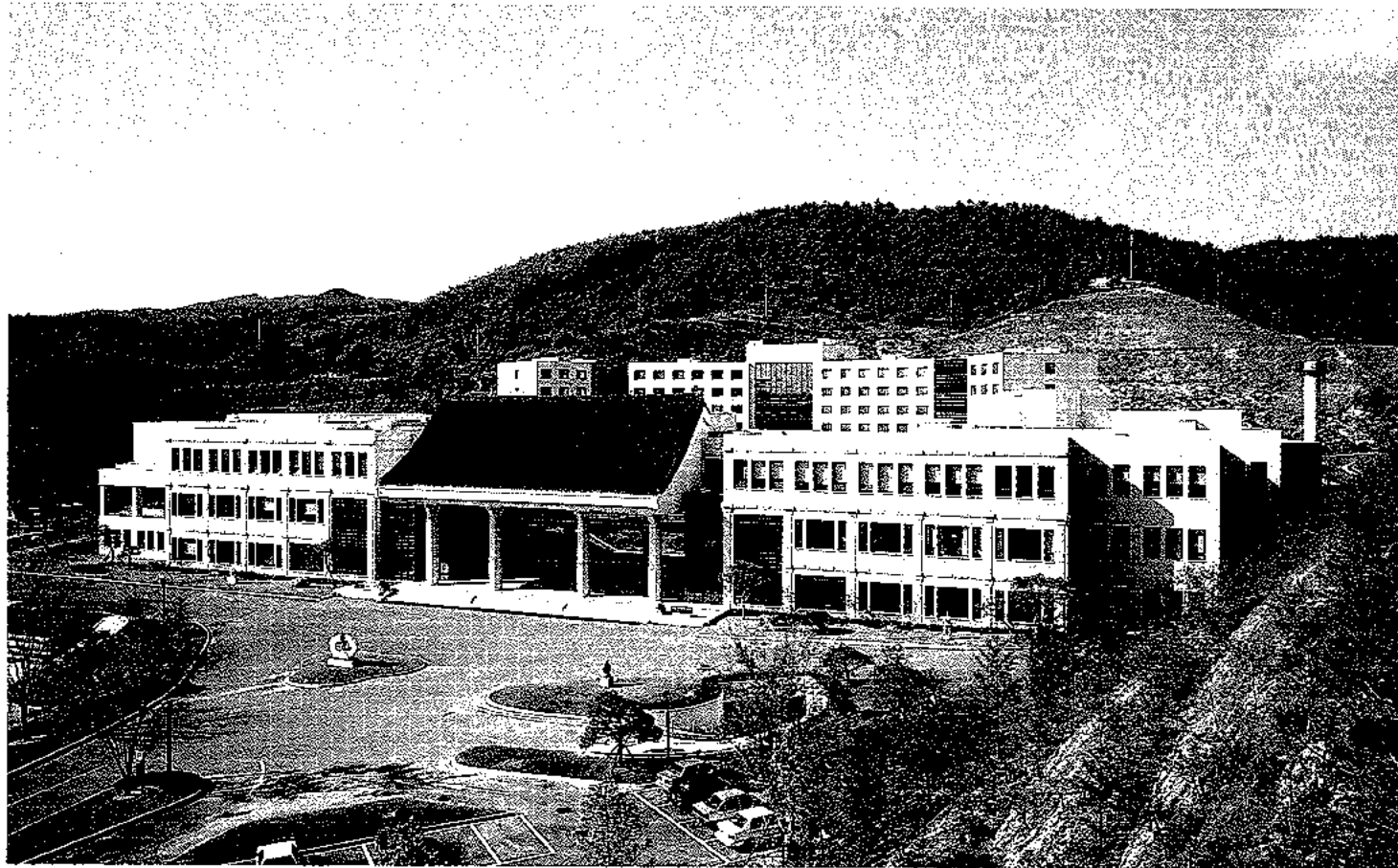
삼성종합연수원 창조관

Samsu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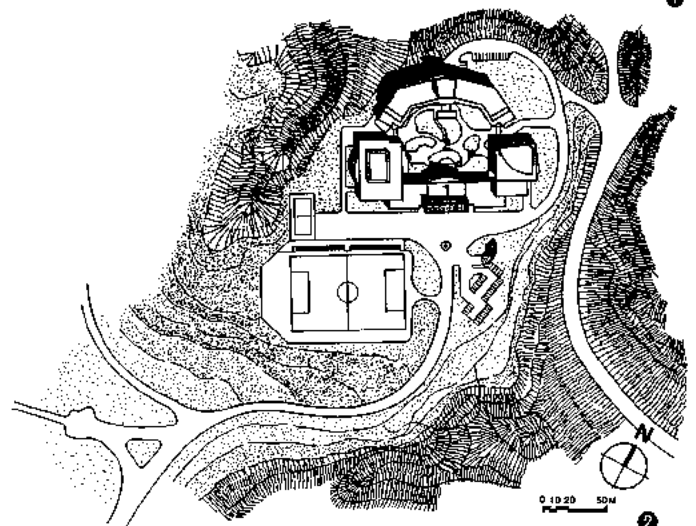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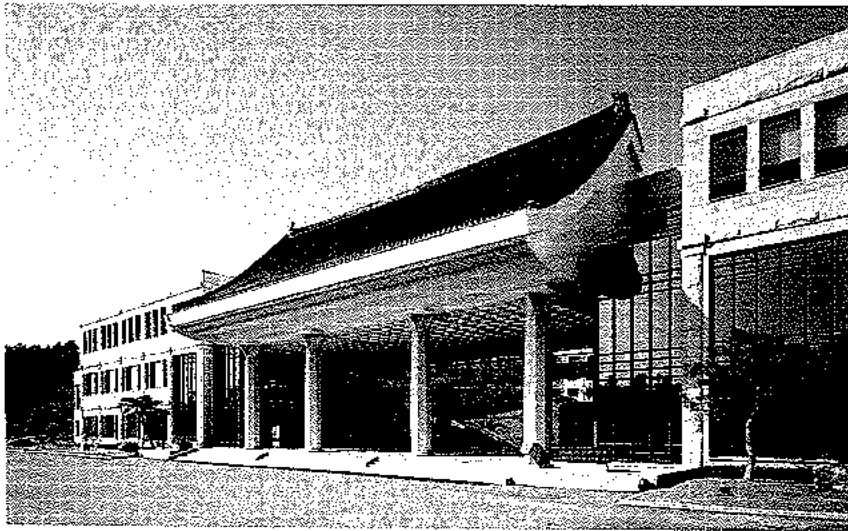
金昌壽 + 朴昇 + 韓相默 / (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ang - Soo · Park, Seung & Han, Sang - Mook



-
-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가실리(자연공원단지내)
- 대지면적 : 105,299m²
- 건축면적 : 7,432m²
- 연면적 : 24,625m²
- 건폐율 : 7.08%
- 용적률 : 22.77%
- 규모 : 교육동 - 지상 3층
- 숙소동 - 지하 1층, 지상 6층 (옥탑 1층)
- 주요외장 : 교육동 - 외벽 : 화강석버너구이 및 몰갈기
유리 : NTS 20 + 16mm
Pair Glass
- 숙소동 - 외벽 : 화강석 + P.C석재타일
유리 : THK 5mm투명
유리 + NTS 20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주출입구측 전면상세
- ④ 1층 로비 전경

②



④

용인 자연농원의 초입에 들어서서 차도를 따라 내려오다가 반대편 산등성이를 보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본 건물을 언뜻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림목으로 꾸며진 주위 환경에 잘 조화되고, 삼성 종합 연수원, 호암 미술관 등 주변에 위치한 일련의 건물군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물, 그리고 대기업의 종합 연수원으로서의 기능과 그 이상의 상징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주의 요구이자 설계의 전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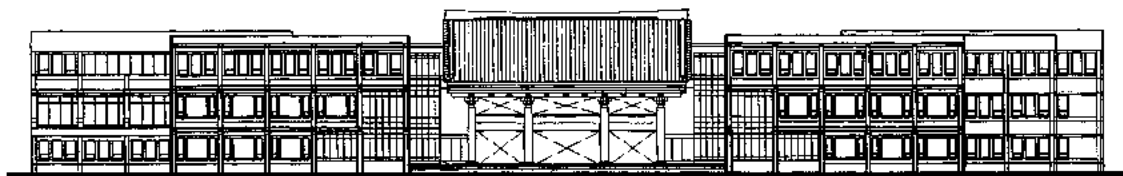
교육동의 양쪽 윙(Wing)에는 각각 식당과 강당을 분리 배치하였고, 특히 식당은 별동으로 처리하여 조망을 확보하면서 냄새의 건물내 유입을 방지하였다.

외피의 상징성 추구는 축을 따라 계획된 진입 도로에서 전면 광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라보게 될 파사드(Facade), 즉 건물의 정면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전면광장과 중정을 필로티로 연결시키는 한옥 지붕의 도입이 전체 입면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따라서 한옥 지붕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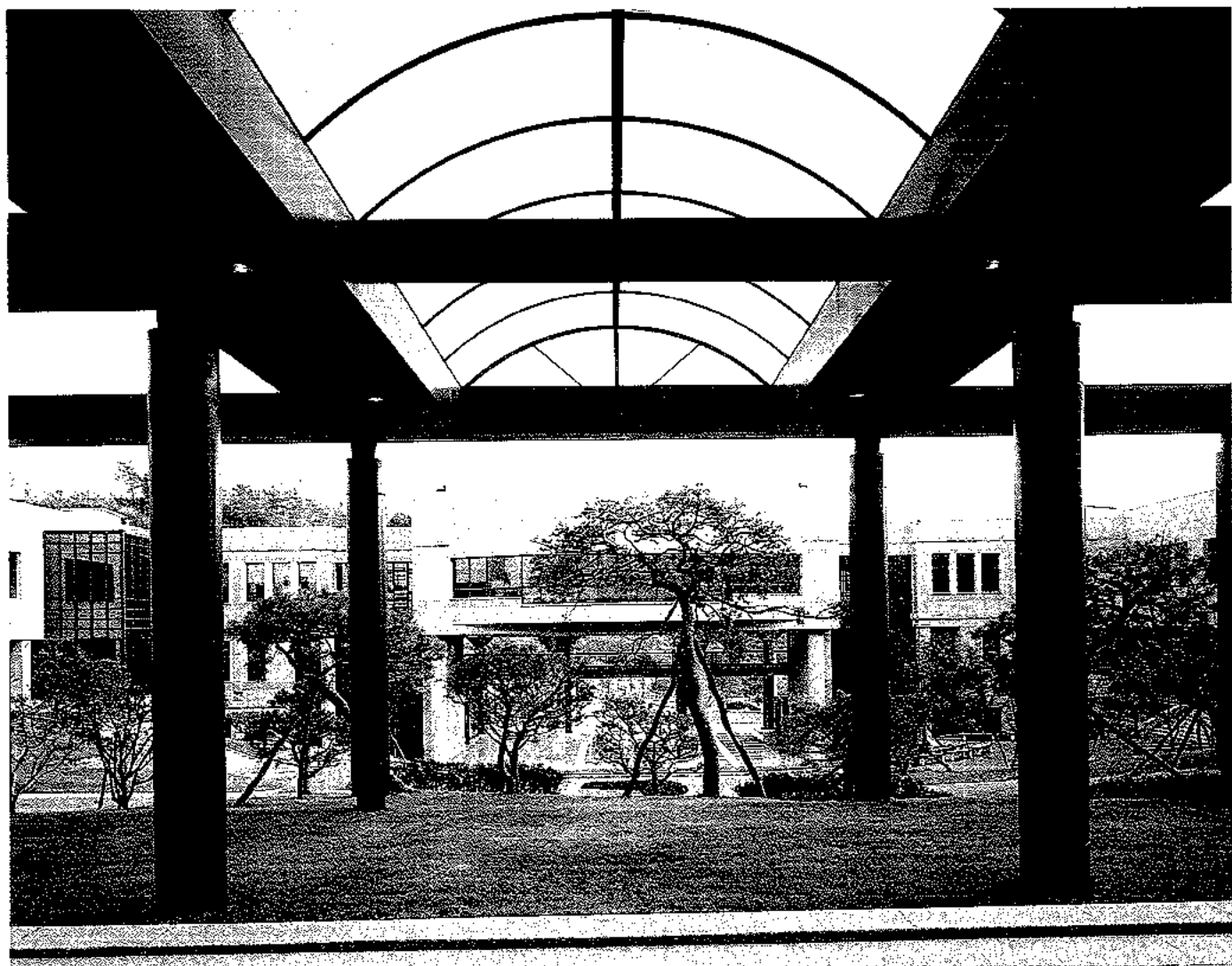
결되는 좌우 매스의 입면은 경주 불국사의 석축 등에서 모티브(Motive)를 구한 고전적인 형태가 되었다.

현대적 건물 중앙에 이식된 맞배 형태의 거대한 한옥 지붕의 도입은 기존 건물군(종합 연수원, 호암 미술관 등)들의 고전적 형태와 패를 같이 하려는 건축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주로 교육이 수행될 신입 사원들에게 대조적에 입문하게 된다는 상징적 암시를 주려는 의도의 결과물이었지만, 건축적으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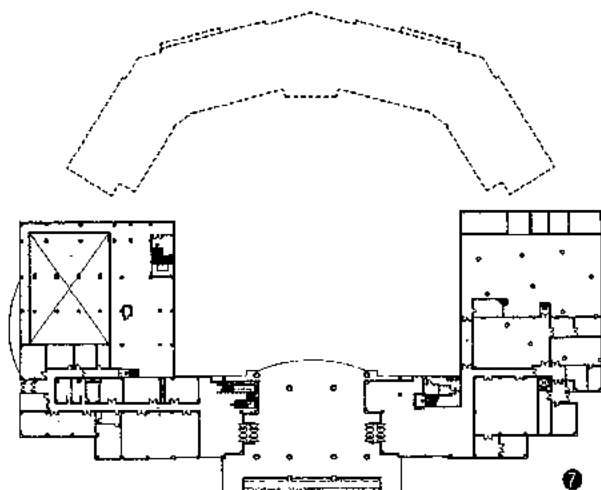
아무튼 상징성이나 표현에 있어서 건축 언어의 선택과 사용은 설계자뿐 아니라 이를 읽게되는 독자측에서도 다분히 자의적일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한계내에서 얼마만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설계자로서의 의문이자 바램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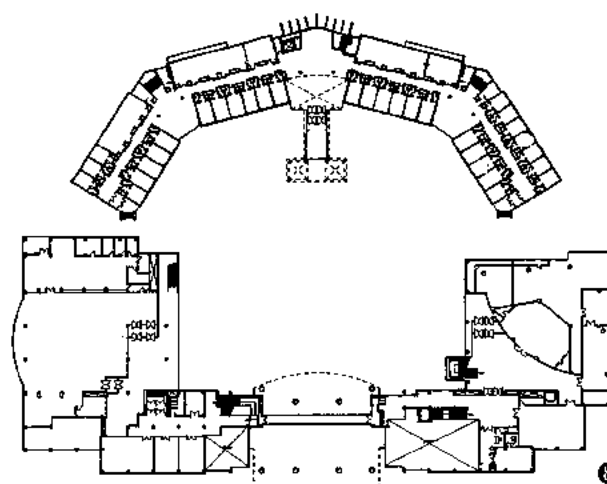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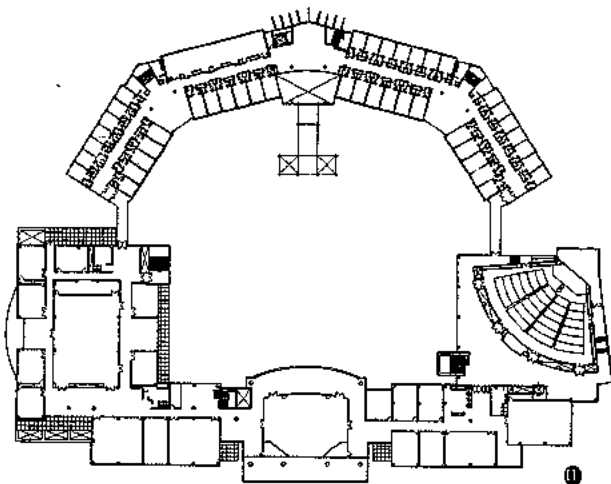
- ⑤ 교육동 정면도
- ⑥ 숙소동 출입구에서 본 교육동
- ⑦ 교육동 1층 평면도
- ⑧ 숙소동 1층, 교육동 2층 평면도
- ⑨ 교육동에서 본 숙소동 전경
- ⑩ 대강당
- ⑪ 숙소동 2층, 교육동 3층 평면도
- ⑫ 교육동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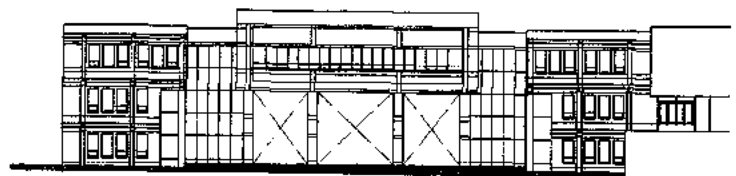
⑨



⑩



⑪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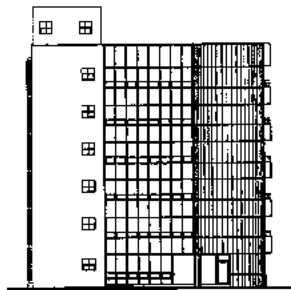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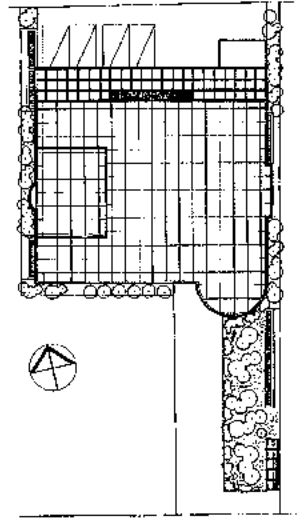
평택 동일빌딩

Dongil Building, Pyungt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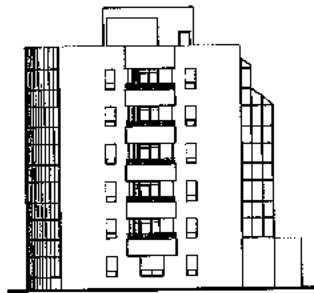
WORKS

李章伯 / 종합건축사사무소 백림건축
Designed by Lee, Jang -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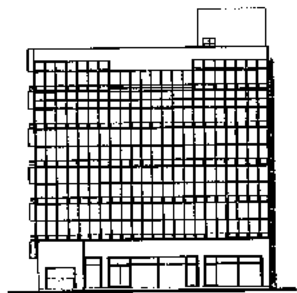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87-12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주차장정비, 5종미관지구
대지면적 : 768.3m²
건축면적 : 405.79m²
건폐율 : 52.82%
용적률 : 296.53%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 RC조
외부마감 : 커튼월 및 화강석 버너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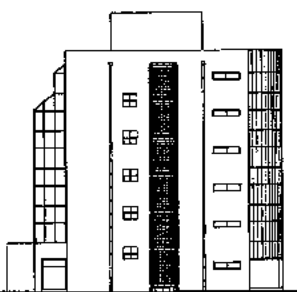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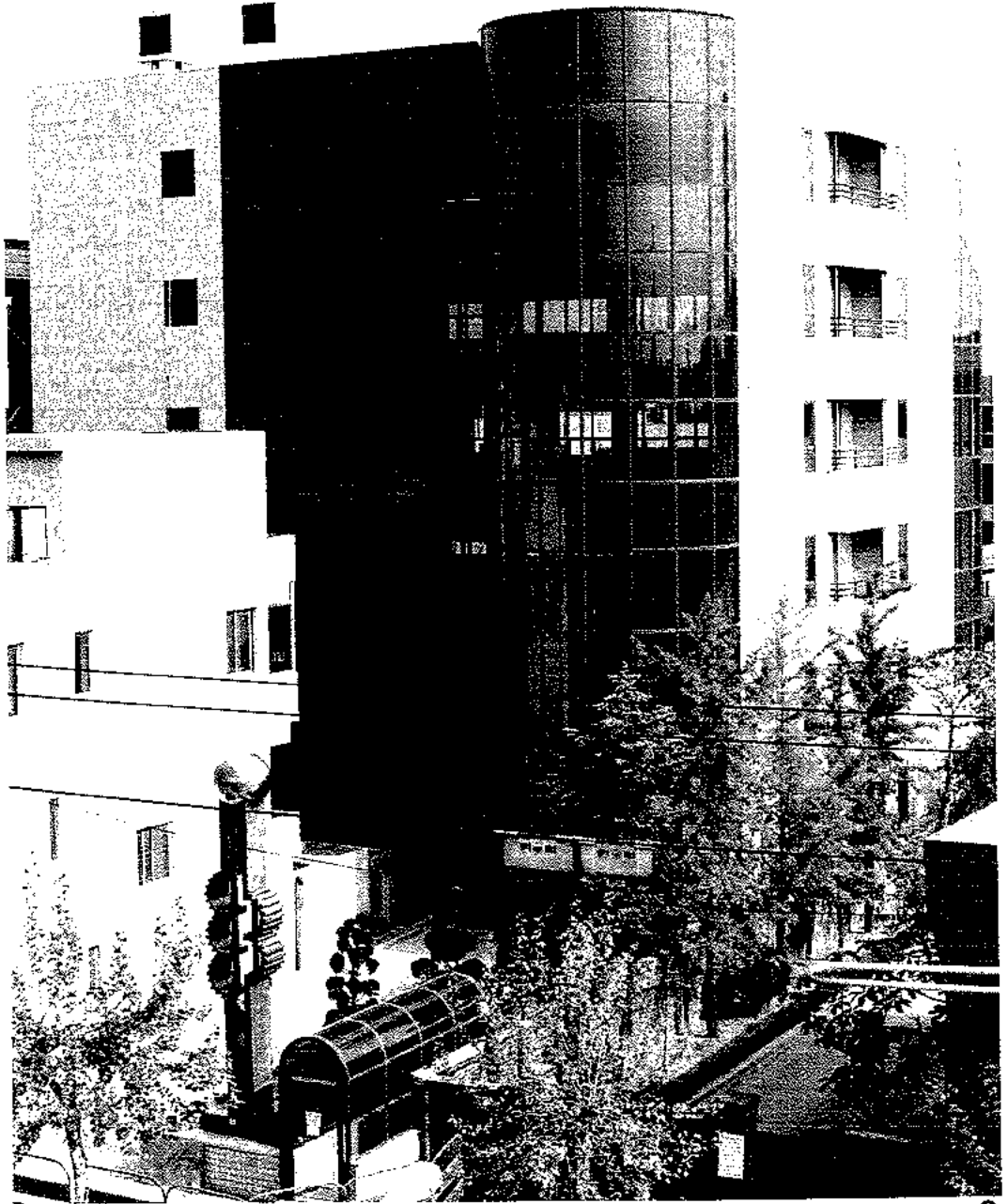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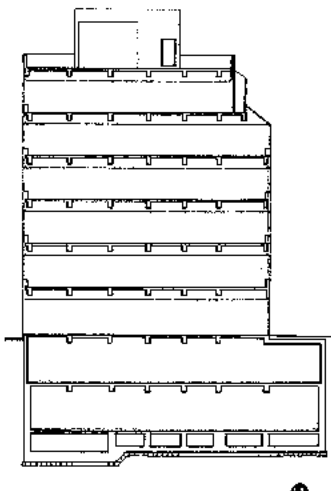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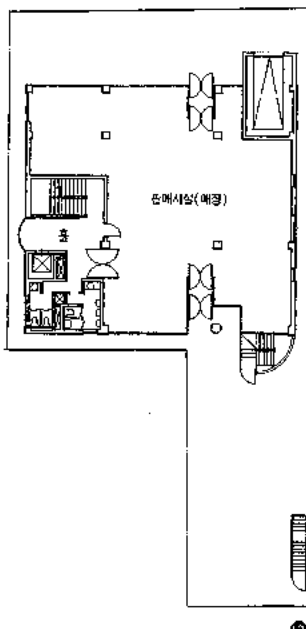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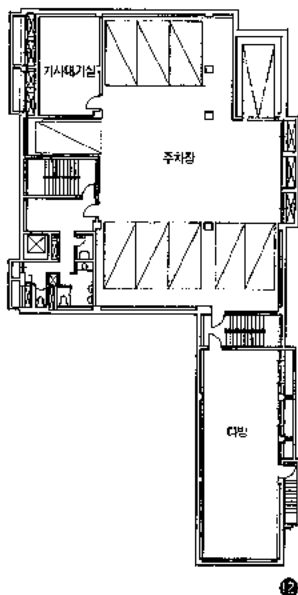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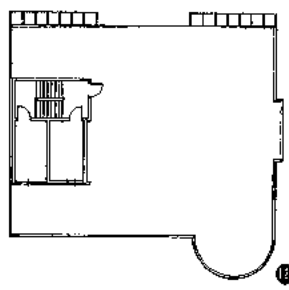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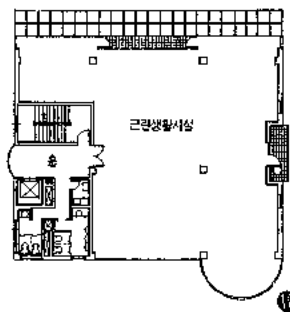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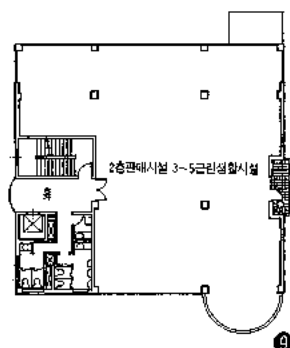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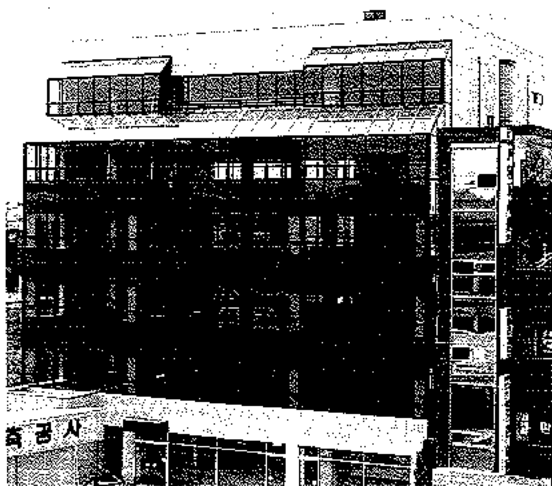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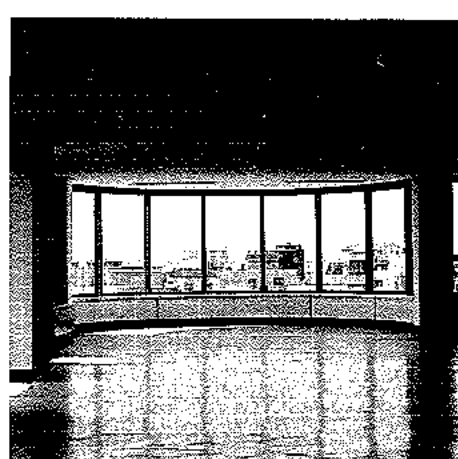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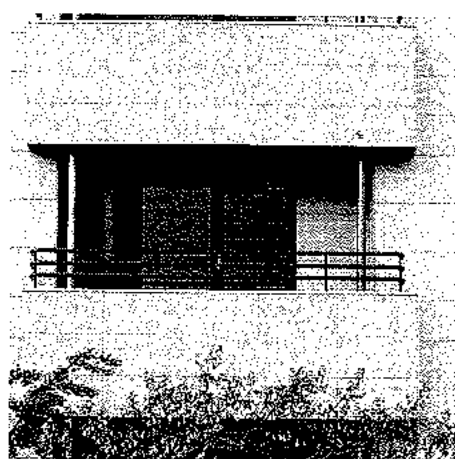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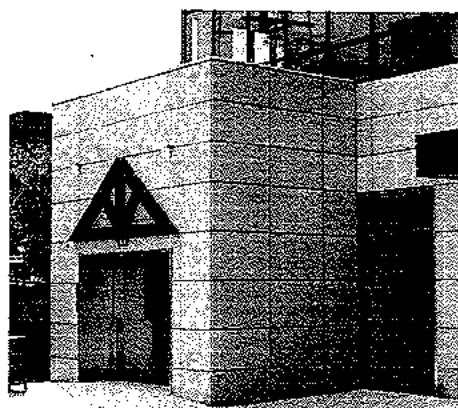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정면도
- ③ 우측면도
- ④ 배면도
- ⑤ 좌측면도
- ⑥ 전경
- ⑦ 측면전경
- ⑧ 후면전경
- ⑨ 2~5층 평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지붕/옥탑 평면도
- ⑫ 지하 1층 평면도
- ⑬ 1층 평면도
- ⑭ 종단면도
- ⑮ 지하 주차장 출입구측 및 매장 부출입구
- ⑯ 발코니 상세
- ⑰ 내부 사무실 상세



어느 부지나 그러하지만 본 부지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양변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 개월간의 계획기간동안 절제된 디자인과 디테일을 가진 평범하면서도 건물자신의 특성을 가진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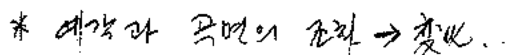
입면은, 도로에 면한 부분을 유리벽으로 처리하고 인접대지에 면한 부분에는 화강석을 사용, 재질감에 의한 콘트라스트를 두어 솔리드와 보이드의 접합을 추구하여 보았다. 또한 형태는 사각형 매스의 경직됨에서 벗어나고 싶어 매스의 변형과 함께 4면에 인지도와 다양성을 부여하여 보았다.

배치 및 평면에서 1층은 2도로를 연결하여 통행인을 유도하고 숲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통과도로를 두었으며, 미관도로에 접한 9M 폭의 대지에는 조경과 조각물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다.



The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Chooncheon Branch

李明奎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동영건축
Designed by Lee, Myung - Kyu



태 800

Tae 800

承孝相 / 종합건축사사무소 TSC

Designed by Seung, Hchloh - Sang

대지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1

대지면적 : 545m²

건축면적 : 266.92m²

연면적 : 2,67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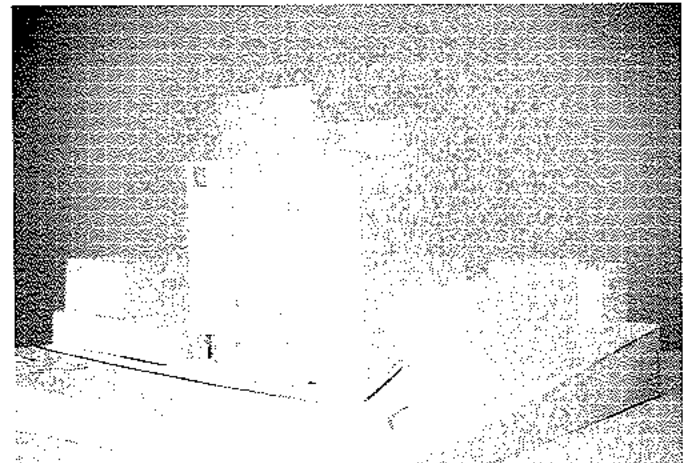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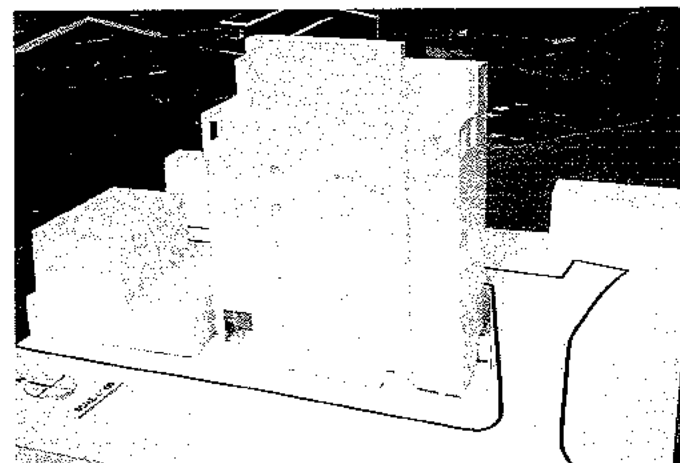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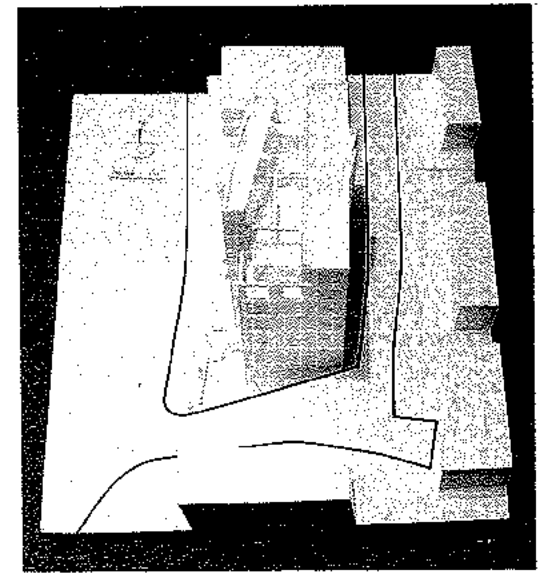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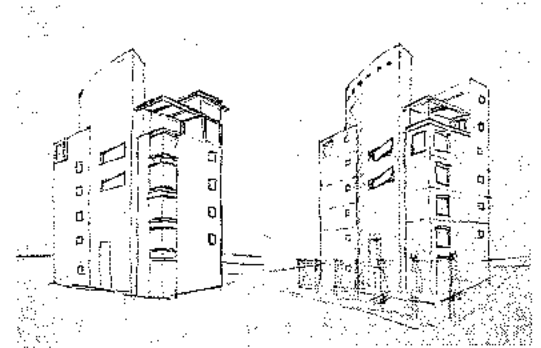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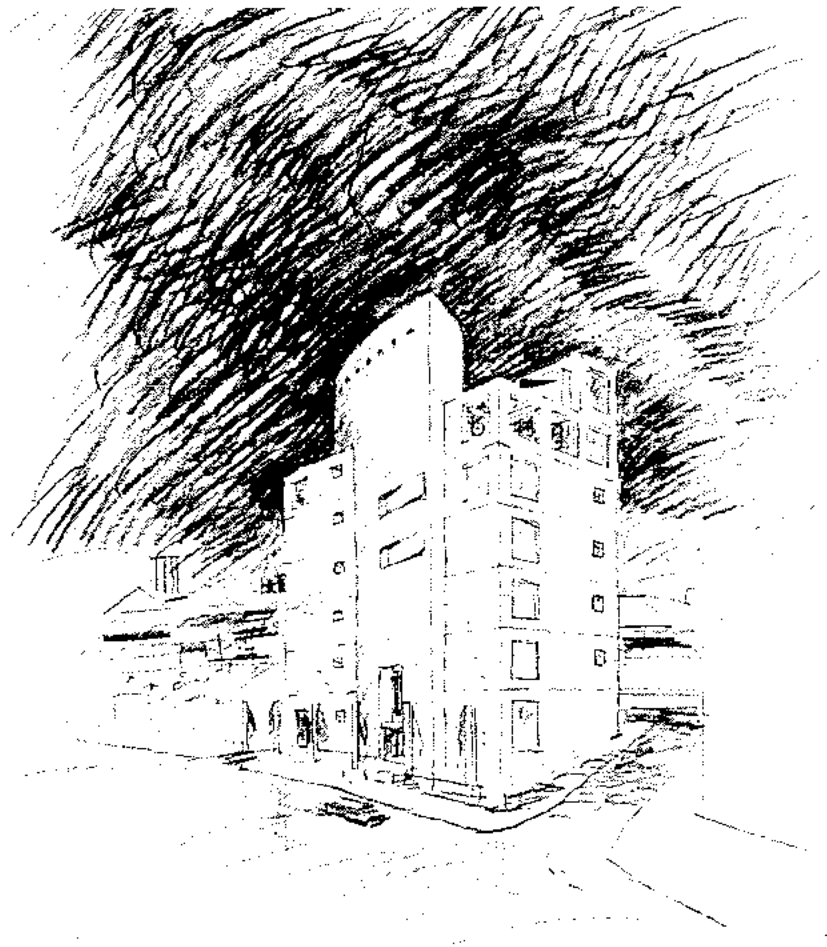
건폐율 : 48.4%

용적률 :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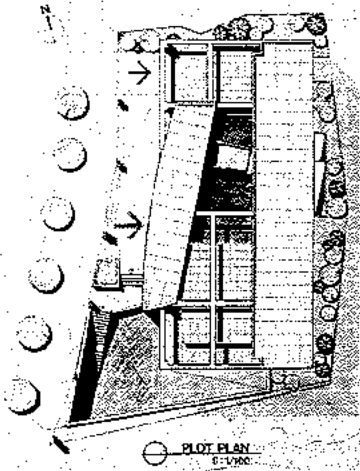
규모 : 지하 3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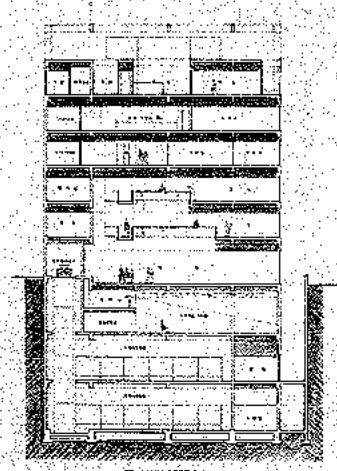
외부미감 :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 복합판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1
- 대지면적 : 545㎡ (164.9坪)
- 건축면적 : 263.92㎡ (79.84坪)
- 밀집도 : 지상 / 1,554.98㎡ (513.19坪)
지하 / 1,054.24㎡ (315.9坪)
- 건축률 : 48.42%
- 용적률 :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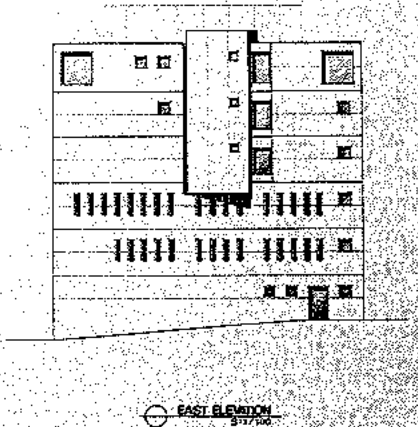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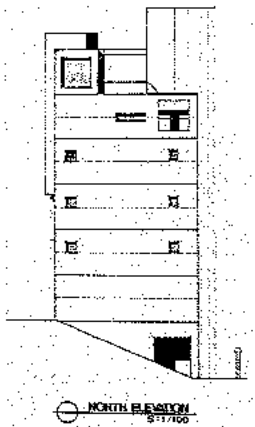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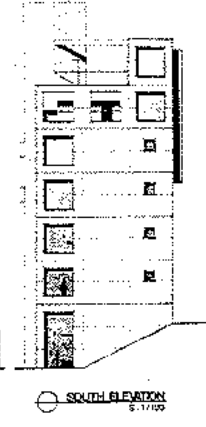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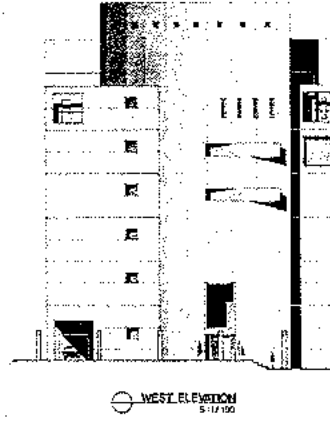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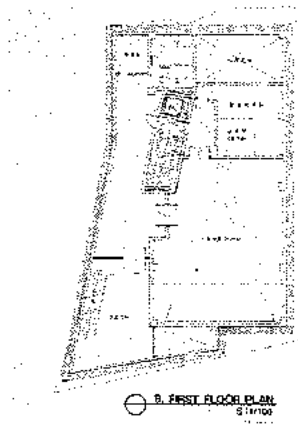
- 1 배치도
- 2 주단면도
- 3 북·동측 입면도
- 4 서·남측 입면도
- 5 지하 1, 1층 평면도
- 6 5, 6, 7층 평면도
- 7 지하 2, 3층 평면도
- 8 2, 3, 4층 평면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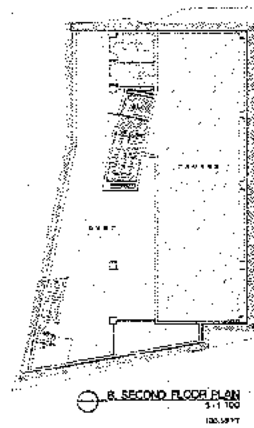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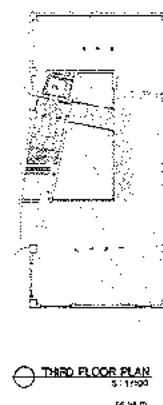
5



6



7



8

동아생명 본사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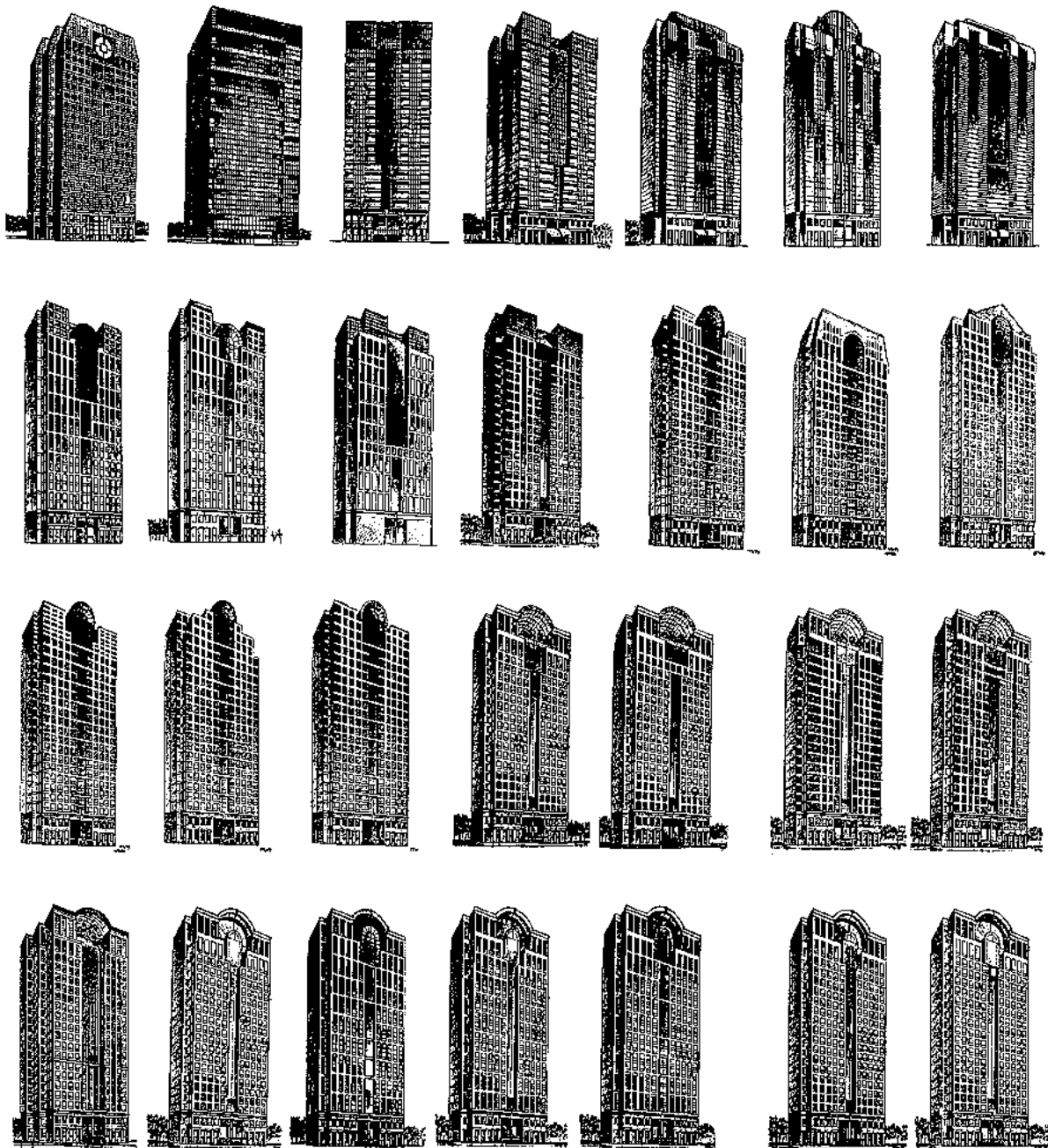
Dong - a Life Insurance Co.
Headquarter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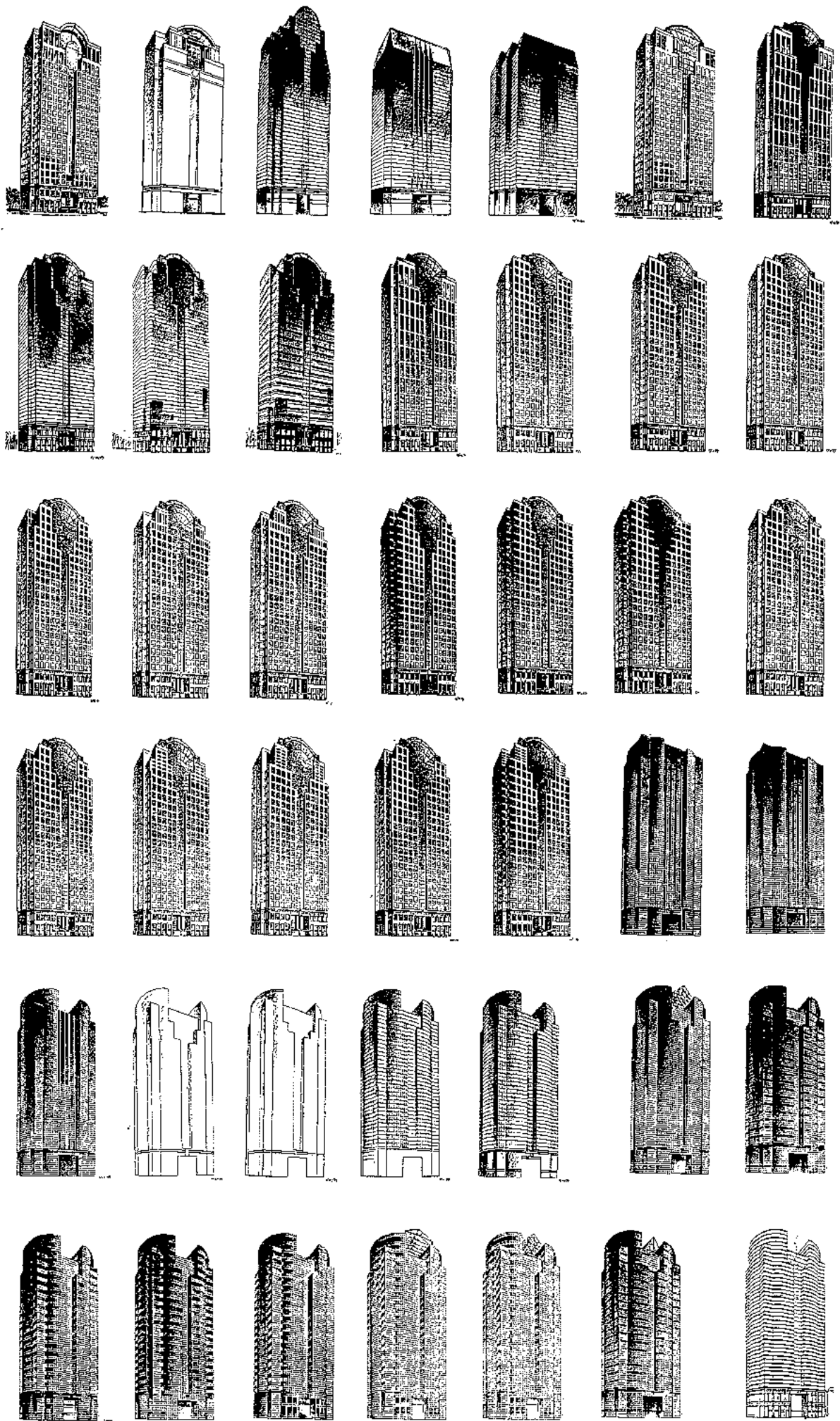
李星觀 / (주)한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ung - Kwan

■ 나의 스케치

이것은 동아생명 본사사옥설계를 위한 대안들과 그 변형들의 모음으로서, 건축주의 「4개의 대안」 요구로부터 「Image Guess」를 위해 한동안 부담속에서 질척거렸던 흔적들이다. 이런 단계에서의 스케치란 얼핏 일필휘지·패도난마의 초서체같은 초기 이미지스케치의 화려함보다 스스로의 짜들음과 연면을 느끼게 한다. 흑색 플러스펜과 프리즈마 색연필을 사용하여 A-3 사이즈에 담았던 칼러스케치 원본들을 제락스 축소하여 불러주한 것이다.

(현재 시공중인 이 프로젝트는 필자의 1989년도 (주)정림건축 참여작품임)





우리의 지금

The Actuality of ours

EASSY

李珏杓 / 입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ak - Pyo

신록의 계절이다. 새롭게 돌아나는 연록색의 나뭇잎이 화창한 날이면 더욱 눈부시게 투명하다. 지난해의 일을 일단락 짓고 힘차게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려는 듯한 나무가 나는 정말 부럽다. 어떤일을 일단락 짓기도 전에 새일이, 아니면 얼키고 설킨 일들이 쉴틈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멋있게만 보였던 건축가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 둘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안타깝기조차하다.

건축을 한다는 자부심을 값아 먹는것이 너무도 많다. 요즘의 경제 전반적인 불균형을 과도한 건설의 탓으로 돌리고 전가의 보도인 행정규제로 해결하려는 당국의 태도가 그렇고, 위법건축물을 모두 건축사의 탓으로 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그렇고, 아직도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공정치 못한 건축현상설계경기가 그렇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경직되고 형식적인 각종 심의제도가 그렇고, 열심히 일해도 힘들게만 느껴지는 사무소의 운영이 그렇다.

건축가가 아무리 예술적 기량을 뽐내고 싶고, 의욕과 정력을 쏟아보고 싶어도 건축주의 의뢰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작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수주하는 사업적인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해도 앞뒤 안가리고 제살 깎아먹는 식의 방법을 동원하는 건축가가 존재하는한 건축계 전체가 제대로 대접받기는 힘들다. 옛날보다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많이 나아지고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층이 두터워졌기는 하지만 설계비에 대해서는 별로 나아진게 없다. 설계란 것이 건축가 혼자서 하는것이 아니고 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속에서 이루어지고 타분야의 많은 기술을 수용해야만 하는 돈드는 종합적인 작업인데도 설계비에 관련한 인식하다. 그러니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한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가 어렵다.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충분치 못하고 기술축적을 위한 연구나 국제화를 대비하지도 못하면서 그날그날을 꾸려가기에도 벅차다. 그런가운데서도 참신하고 수준높은 작품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고는 있으나 이런현상이 건축가의 안쓰러운 노력과 많은 사무실직원들의 희생적인 노력의 열매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대접받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면한다. 현행 보수체제는 각설계사무소에서 내놓는 성과물에 대해 합당한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설계사무소의 형태를 보면 쉽게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분류된 그룹대로 성과물도 다르고 노력도 다르다. 현행 보수요율 아래서 남는 그룹도

있고 모자라는 그룹도 있다. 아직 사회적 인식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우리자신의 내적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각종제도와 법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 협회는 협회대로 관련단체는 관련단체대로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빈번히 열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반영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듯이 보인다. 우리의 위상이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정책결정에 우리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잘못된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축사법의 종합, 단독 문제도 그렇고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를 못하는 제도도 그렇다. 건축가는 설계에 미흡한 점이나 표현을 못했던 것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공사중에 감리를 통하여 건축물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한 건축가가 빠지는 감리제도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비단 이뿐이 아니라 건축법, 조례, 행정당국의 내부지침, 각종 심의 등에 대처하는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된다.

정보화, 과학화시대에서 날로 발전하는 건설기술과 새로운 건축재료, 변화하는 건물의 패턴들을 소화해 내기가 힘에 부겁다. 영세한 설계사무소의 힘으로는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물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건축물은 예술적인 작품이전에 시대의 기능을 담은 실용성을 전제로 생명력을 갖기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변화가 심할 미래를 대비하는 설계사무소의 체제와 협회의 기능 그리고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제 웬만한 설계사무실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설계를 하고있고 그응용 범위도 점점 넓어지면서 설계가 시스템화 되가고 있다. 지금은 각 설계사무소 나름대로 자체개발 해가면서 사용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무척이나 많이 들어간다. 협회차원에서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앞으로의 기술서비스의 개방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있어야 하며 설계사무소는 물론이고 협회와 행정당국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 대처해야 한다. 시대는 앞서 가는데 우리의 행보가 뒤쳐진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그동안 건축사의 숫자도 많아지고 설계사무소도 양적으로 많이 늘었다. 그러나 질적인 향상도 같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건축사 시험제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 자질이 있는 건축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 다만 무슨 고시처럼 점수로 판가름하는 행정편의적인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시험때가 되면 학원이 복적거리고 많은 설계사무소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미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합격되기도 하고, 설계사무소 구경을 안해본 사람도 합격이 될 수 있다. 건축사면허증이 단순히 설계사무소 영업을 위한 허가증으로만 생각하고 설계사무소를 개업하고는 가격경쟁, 입찰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양화를 구축한다. 건축설계는 허가를 얻기위한 최소한의 법적여건만 갖추려하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않아 서로 돌아가며 도서관점을 해야만되는 창피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불법설계, 위법감리에 건축사들이 무더기로 관련되어 가끔씩 매스미디어에 실리고 연간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벌건수가 사실인가하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많다. 물론 지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다 억울하고 당국의 횡포라고 생각되는 점도 많겠지만 건축설계계의 어두운 단면임에는 틀림없다.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는 세상이라 아직 젊은층에 속하면서도 우리가 겪었던 건축수업방식은 옛날의 일이 되어버렸다. 지나간 옛일이란 것이 이름답게 느껴지는 속성이 있고 또 그때 방식이 모두 옳다고도 볼 수 없으며 시대도 달라졌으나 건축에 대한 열정이나 의욕을 가진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건축설계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전문화 되가고 있는데다가 조직화되는 경향이어서 그전처럼 설계과정을 즐길 겨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분위기가 힘든일을 기피하고 자기만의 여유를 중히 여기는 풍토 탓일수도 있겠고, 건축사만 따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한몫을 하는것 같다. 또 건축사가 사회적 존경을 못받고 그저 하나의 평범한 생계를 위한 작업으로 보이게 만든 건축계의 풍토안에서 설계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떠하든 제 위치로 돌아가야한다. 먼저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욕구를 버리는 것이 시작이다.

아직도 건축에 애정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둡다고 자조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이 건축계의 뿌리다.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는 잘 자란다. 자 이제 어두운 나뭇잎들을 훑훑 털어 버리고 희망의 새잎을 틔우자! 무성한 푸른잎을 가진 거목이 되도록 우리의 힘을 기울일 때다.

소련 건축에 대하여

About the Soviet Union Architecture

이 글은 「건축가」 1992년 4월호, 5월호, 건축사협회와 건축학회에서 1992년 4월에 발간된 팸플렛의 계속이다(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FEATURE

니콜라이 김 / 건축학 교수 · 러시아 공화국 책임 건축가 · 소련국가 훈장 수상자
Designed by Kim, Nikolai Nikolaevich

위에서 언급한 필자의 한국인 동료들의 요청에 의해 쓰여진 글들에서 필자는 몰락한 소련과 또 이와 연관되어 있는, 필자의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소련건축의 불확실한 장래 때문에 우울해진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에트 건축의 성과에 대해서 -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고찰된 문제는 아니지만 - 이야기했다. 알다시피 필자는 거의 55년간 소비에트 건축을 형성시키는 데 참여했다. M. 긴즈부르크, I. 니콜라예프와 같은 생생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고 A. 피센코, G. 오를로프와 같은 교수들과 토론을 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건축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나중에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한평생을 애써왔다. 설계사들, 교육자들, 학자들과 꾸준한 협동작업을 해왔고, 26년동안 “학술 - 탐구 그리고 설계 - 실험 중앙 연구소”의 학술 분과위원장으로 일했고, 소비에트 건축가 협회의 부회장으로 22년간 일해왔다. 한 평생 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소비에트 건축과 건축활동의 적어도 1991년 12월 이전의 소련 건축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날카로우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려 고심해 왔다. 이제 필자는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와 서울대학교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이곳 서울에 올해 1월부터 체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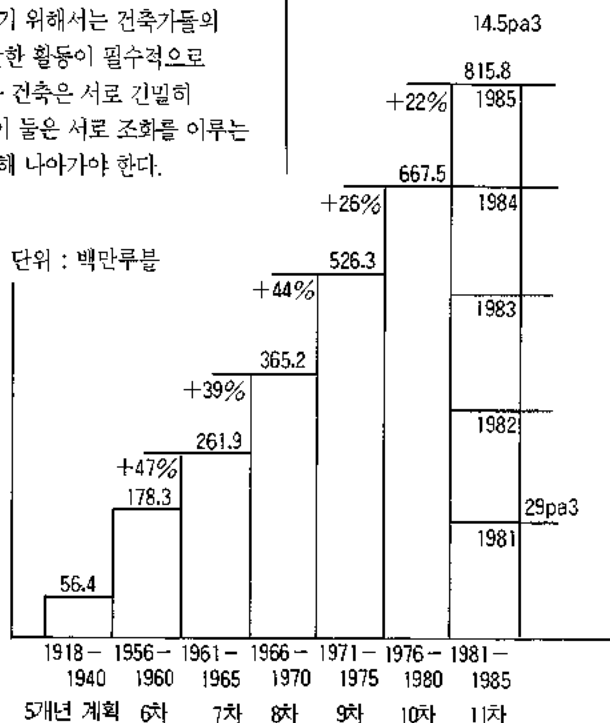
지금부터 한국의 건축가들의 관심을 끄는 몇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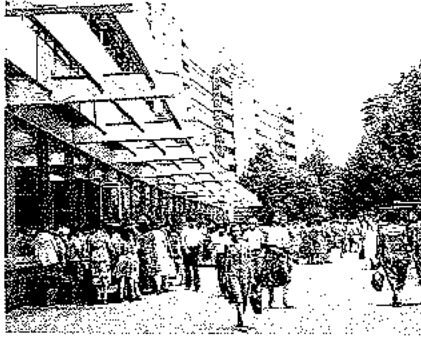
필자는 지금까지 출판된 여러 글들에서 건축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객관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선진(발달된) 산업적 토대와 기술 확보가 없이는 건축은 제자리 걸음만을 되풀이 할 뿐이며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요구와 국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때 경제적 잠재력이 성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가들의 책임감 있고 활발한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경제와 건축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단일체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역시 필요하다. 경제와 건축의 조화스러운 공동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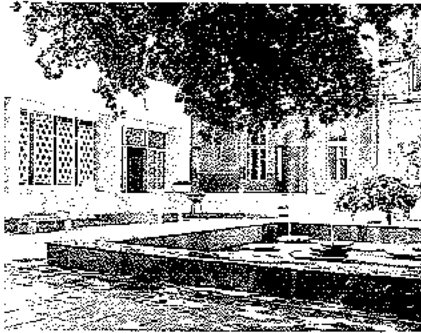
우선 한 나라의 공업 물품 생산을 가능케 해주는 산업기초펀드 - 가동중인 공장에 투자된 자본, 예를 들어 건물, 그와 연관된 재반시설, 발전시설, 전력 확보 등등 - 도입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그림 1)



1. 공장건설에 있어서(산업 기초 펀드) 투자율



타슈켄트, 5월 1일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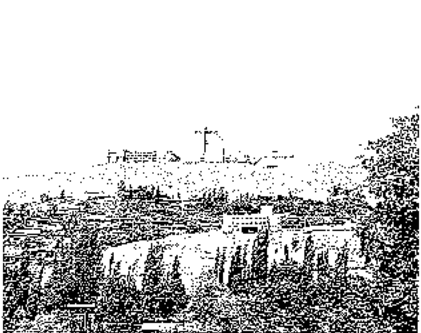
타슈켄트, 실용 예술박물관의 내부전경



타슈켄트 지하철 역



타슈켄트, 서커스 건물(관람장)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태양"(썬에) 과학 금속공업 종합단지, 중합단지의 전경과 남쪽에서 바라본 주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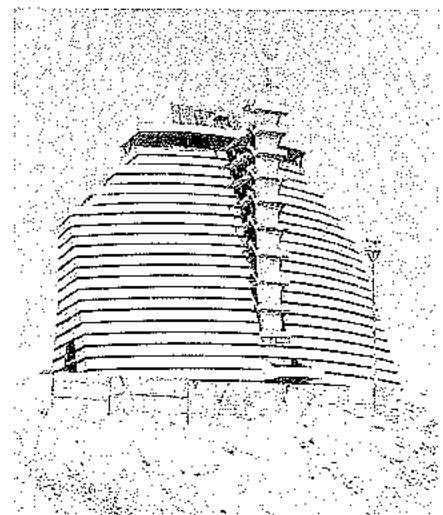
소련내의 공장들에 투자되어 가동중인 산업기초펀드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매 5개년 계획기간동안 전번 5개년 계획기간과 비교해 봐서 산업기초펀드 성장율은 47%에서 22%까지로 이루어져 왔다. 제 11 차 5개년 계획기간(1981-1985년) 동안에 도입된 산업기초펀드 총량은 8억1천5백8십만 루블에 달했다. 이것은 전쟁이전 총 22년간(1918-1940)에 도입된 양보다 14.5배나 성장한 것이다. 이것을 연평균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제 11 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1억6천3백16만 루블의 산업기초펀드가 도입된 것이고 이 1년간의 총산업기초펀드 투자량이 전쟁전 22년간의 총 산업기초펀드 투자량의 2.9배나 되고 있다. (그림 1을 보라)

1925년부터 시작해서 전쟁이전 시기에 국민경제의 산업화 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여서, 9천개의 공장들이 가동중이었다. 스탈린 그라드의 트랙터공장, 꾸즈네쯔시의 중기 기관차 제조공장, 기타 많은 전력 발전소와 항공기 제작공장들이 활발히 가동 중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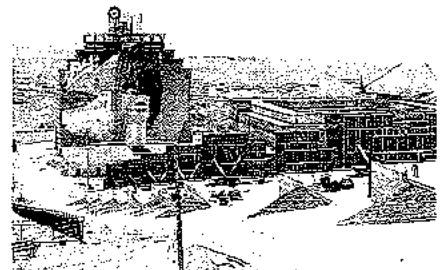
그러나! 아아! 만약 11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에 보였던 것과 같은 산업기초펀드의 도입율과 산업발전 속도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소위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에도 계속 유지가 되었더라면, 소비에트 연방은 공업물품 생산과 확보에 있어 틀림없이 높은 수준에 다다랐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대한 규모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로케트를 비롯한 불필요한 전쟁 물자를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 생산으로 과감하게 교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은 구호는 좋았고 정책은 그럴 듯 했지만 이 구호와 정책이 수행되지 못한 데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인간의 복지를 위해"라는 구호를 외쳐댔지만,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공업품과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업생산수준은 소련전체 산업 평균 성장율과 비교해서 3.5배나 뒤쳐진 수준이었고, 특히 중공업 성장비율과 비교해 봐서는 6배가, 기계제작과 비교해 봐서는 무려 613배나 뒤쳐져 있었다. (그림 2) 필자 역시 과학-기술 발전 시대에 있어 중공업과 기계제작이 갖는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산업 부문간의 심한 불균형 상태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생활 필수품 확보하는 데 있어 궁핍한 정도에 이르도록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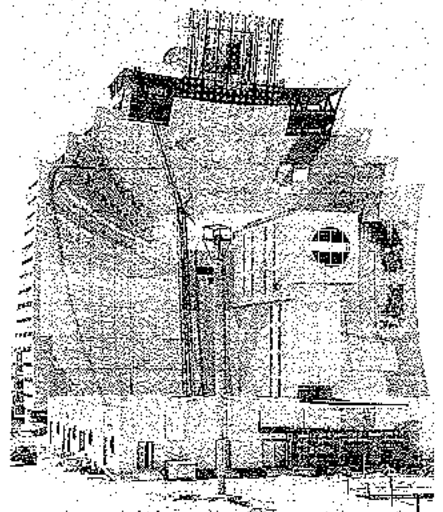
건축가들은 항상 경공업과 식료품 공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 일해왔고, 각 공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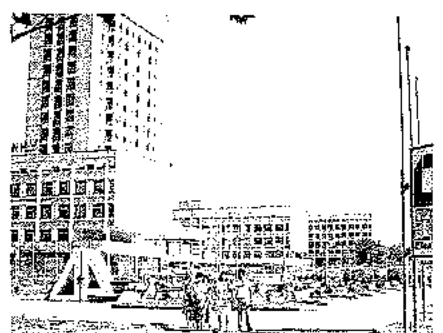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태양"(썬에) 과학 금속공업 종합단지(중합플렉스 중합단지의 전경과 남쪽에서 바라본 주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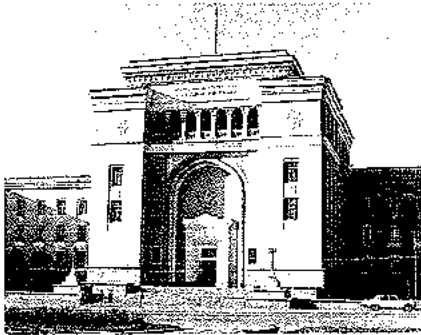
위와 동일 건물. 태양 빛에 반사되어 유리에 투영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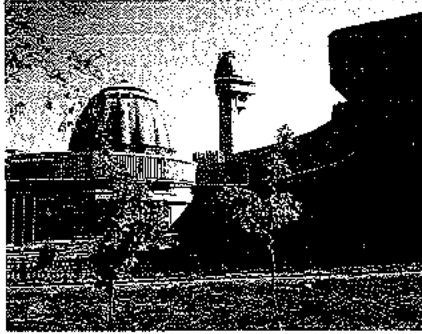
동일 건물. 태양열 집열기가 있는 북쪽 전면. 이 집열기의 온도는 약 3700℃에 달한다. 건축가, V.자하로프의 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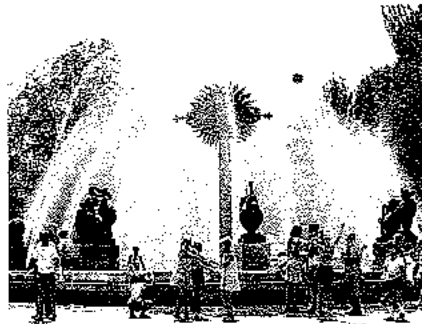
알마티시에 있는 카자흐 국립 대학교



알마타시에 있는 키지호 공과대학 과학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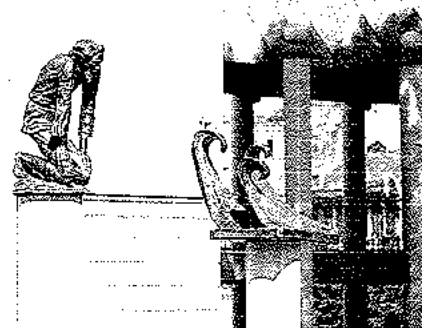
알마타시에 있는 피오네르 (소련공산당원) 공장



알마타시에 있는 "동방 칼린다" 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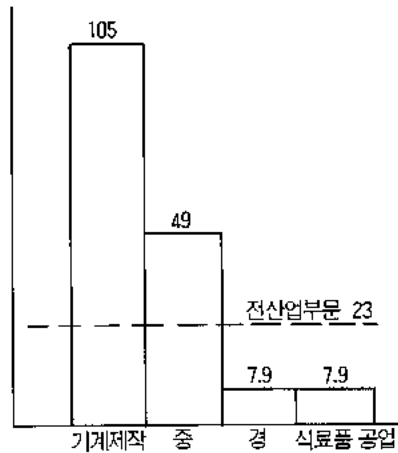
보르네오시에 있는 어린이 극장의 전경



동일 건물, 내부 모습

고유의 기능과 기술, 그리고 건축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각 공장들에 대한 설계를 하고, 또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학술적 탐구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장들은 도시건설에 있어 구심체 역할을 했으며, 이들 공장의 건축문제 해결이 도시건설에서 중요한 선결 문제였다. 많은 도시들에서 이렇게 건축된 공장들은 그 도시의 주 거리와 광장을 빛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장들에서 주로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며, 건축가들은 실제 노동현장인 공장을 건축할 때 이런 사실에 특별한 주목과 고려를 해야 한다.

소련이 겪었던 불행한 경험은 주요 경제 지표를 고려함에 있어 국민의 관심을 대변하는 신분으로서 건축가들이 그것을 심의하는 초기 과정부터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2. 1986년 소련공업의 성장 비율 (1940년을 기준 1로 했을 경우)

II.

소비에트 건축가들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문제는 토양과 그것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포함한 천연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광대하고 광활하다. 이 나라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만 하겠다. 사실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는 광대하다. 이 나라는 전 지구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토의 절반이 소위 북부 기후지역에 속하고 이 지역에서는 토지를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나라 전체로 봐서 1986년에 경작지역은 2억1천3십만 헥타였다. 1987년에 국민 1인당 경작지역은 0.74헥타였다. - 이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국민 1인당 미국은 0.8헥타, 캐나다는 2.3헥타이다. - 소련 국토의 기후조건 역시 고려를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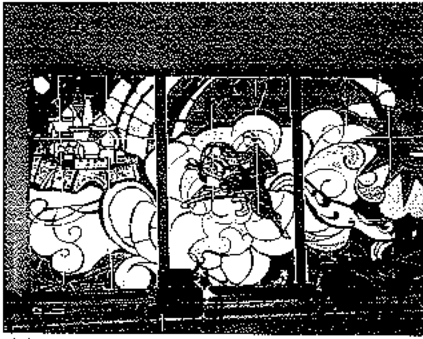
1년에 한번 수확을 하는 것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닌 지역도 있다. 1980년에 총 경작지는 2억1천7백3십만 헥타였고 인구거주지역은 2억6천2백5십만 헥타였다. 이렇게 최근 6년동안에 국민 1인당 경작지가 11% 낮아졌고 1958년과 비교해 볼 때 25%정도 감소한 것이다.

비합리적이고 때때로 부주의하기까지 한 토지 이용에는 산업생산을 비롯한 여러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데 있어 이 일에 참여한 건축가들도 한몫을 거들었다. 이것은 소비에트 건축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경제적 이용이라는 문제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의 한 예로 공장 건물의 층수를 들어보겠다. 많은 공장 기술자들은 단층을 선호했다. 주도면밀한 연구 끝에 건축가들에 의해 위층에 거대한 위주들이 늘어선 2층짜리 건물이 고안되었고 이 건물들이 기술적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이용률이 30 - 40% 상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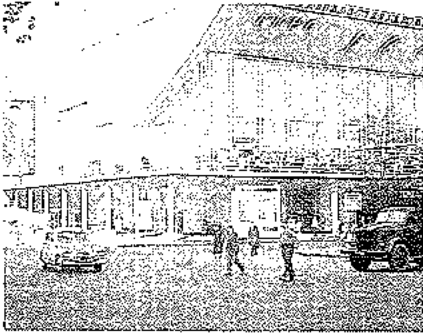
III.

주변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문제가 거론될 때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조심스러운 문제가 공기와 수자원의 오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연구된 수치를 대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쪽의 라인강 상류지역에서는 물 1m³당 대략 100종류의 박테리아가 발견되고, 중류에서는 2만4천여종의 박테리아가 하류에서는 신만 여종의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 이 수치를 필자는 필자 자신의 저서인 "산업 건축"에서 인용한 바 있다. 이런 수치는 필자의 나라에서는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았었다. 얼마 전이야 소비에트 신문들에 "아름다운 강 물가"로 3600여개 소의 공장들이 내뿜고 있는 폐수가 흘러 들고 있으며, 이 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물을 마시거나 심지어 이 강에서 목욕하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생태학적인 파괴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틀림없이 이런 일이 네바강, 인가라 강 등과 라도가 호, 바이칼 호, 아조프 해 등에 닥치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프츠이라는 도시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었다.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10월과 11월에 이 도시에서 160여명의 아이들이 머리가 빠지는 즉 대머리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태의 원인은 그해 여름에 이곳에 내렸던 "산성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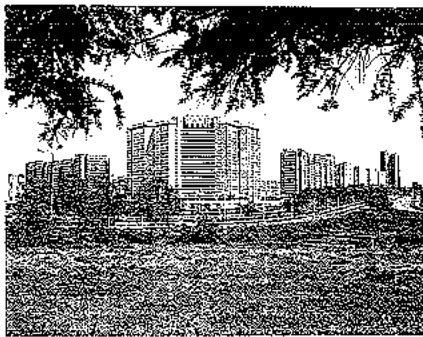
시베르토프시에 있는 인형극장 장식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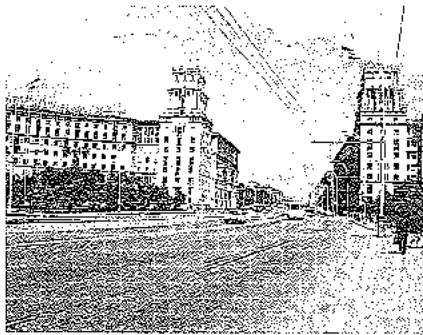
모스크바에 있는 영화관 "러시아" 건축가 N. 세베르자예프



모스크바에 있는 영화관 "프라우다"



모스크바에 있는 호텔 "스푸트니크"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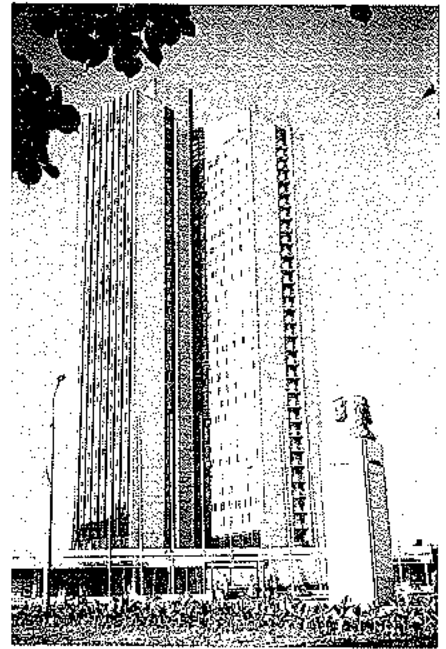
모스크바, 유리 가가린 기념 광장, 이전에 이 광장은 칼루즈스카야 초소라고 불려왔다.

화학적으로 유해 물질인 탈륨으로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후 15여개 소의 공장과 작업소가 폐쇄되었다. 이 페르노프츠이 사건은 소련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여러 현대 도시지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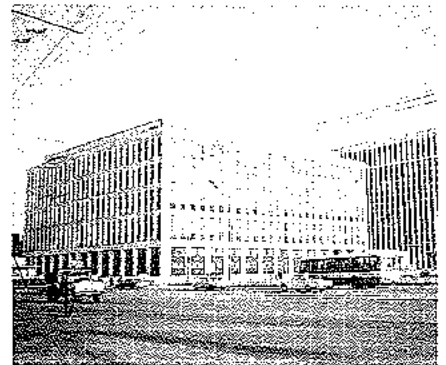
이와 유사한 재앙을 건축계획 방법을 이용해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스타르아 오스콜이라는 도시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도시와 이 도시근처에 있는 mountain concentrating combinat 와는 20km가 떨어져 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도시인 슬라브치츠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100km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유해물질 특히 위험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기술자들에게 주어진 "오염물질 처리 기술"의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 역시 강조되어야만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개개 공정이 그 전단계의 공정에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을 재처리하는 오염물질처리 산업복합체소성에 대한 건축가들의 앞을 내다보는 계획들이 세겨되었다. 예를 들어 내외벽 재료를 만드는 공장은 광물성 비료 공장의 폐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과학 - 기술 진보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미 오늘날 많은 형태의 공정이 "깨끗하고 밝은 인간에 이로운 작업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경공업, 식품업, 기구(instrument) 제작업 등등의 많은 산업공장들이 이미 이런 형태의 작업장으로 변신을 했다. 이런 기본적으로 유해물질공정과는 관련이 없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총노동자수가 소비에트연방의 전 산업 - 공정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총노동자수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공장들을 도시 건축지역에서 분리시켜 멀리 이전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유해물질공정을 전혀 지니지 않고 있는 공장을 아무런 근거없이 주거지역에서 멀리 이전시키는 것은 쓸데없이 교통 - 통신파를 연장시키게 되고 이러한 도시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생태적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자들이 출퇴근 할 때 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소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건물을 건축하고 이것을 개발, 이용하는 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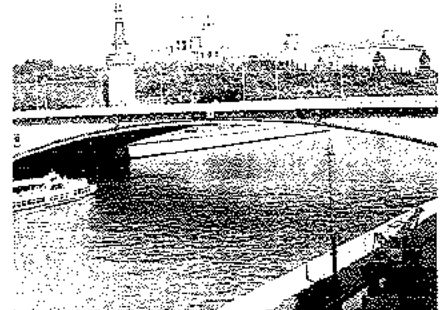
도시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조성(형성)해 가는 체계내에서 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한



호텔 "드루즈브" 건축가 V. 푸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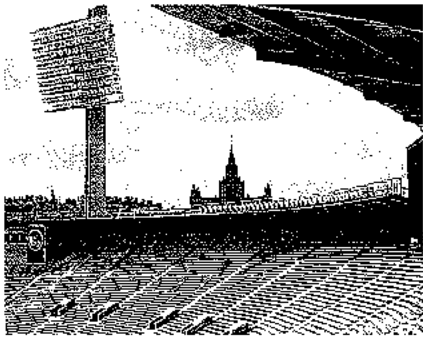
모스크바, 10월 광장에 있는 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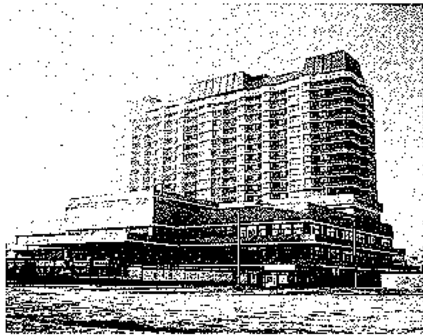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보레츠키 다리. 건축가 A. 슈체프. 1936 - 1938년



레닌스키에 고르에서 본 모스크바 전경. 앞쪽은 모스크바 강이 흐르고 있고, 중앙 스포츠 경기장인 "루쵸니키", 멀리 크레믈린어 보인다.



"루치니끼"에서 본 레닌스가에 고르이와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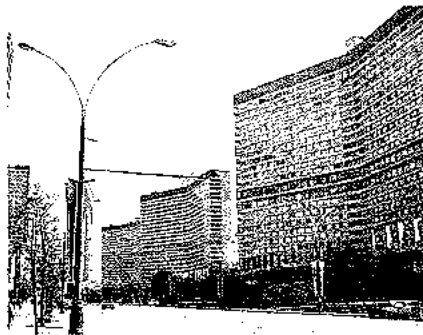
모스크바, 드미트로프거리에 있는 호텔 "죽바르리스카이"
건축가 V. 알코프스키 의 다수



동일 건물 모스크바 강변 쪽에서 본 모습



모스크바의 극장 광장. 왼쪽으로 "불쇼이"극장, "중앙백화점",
"발로이"극장, 호텔 "메트로폴리탄"이 있다.



모스크바 칼리닌대로의 양상분
건축가 M. 포소닌 의 다수
크레믈린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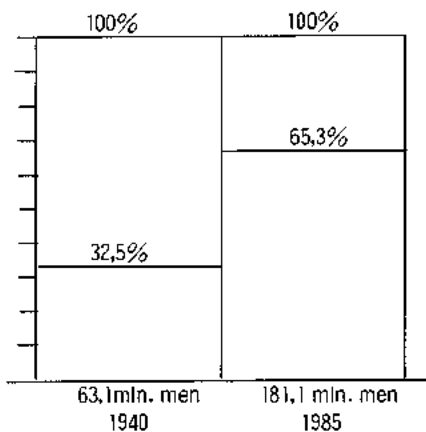
합리적인 공장배치는 매우 복잡하고
건축가들로 하여금 이와 연관된 다른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요구한다. 건축가들에게 요구되는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고, 분명히 창작문제와
연결되어있다. 이점에서 건축가는 진정한
세계 (공간) 창조해내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건축가가 진정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박학
다식해야만 한다.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건축가라는 직업은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직업이다.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다.
그러나 지금, 과학 - 기술의 진보가
눈부시고, 많은 도시건설과 관련된 문제가
산적되어있는 지금 건축가들이 여러 방면에
걸쳐 박학다식해야 한다는 이 필요성은
두배로 증가되었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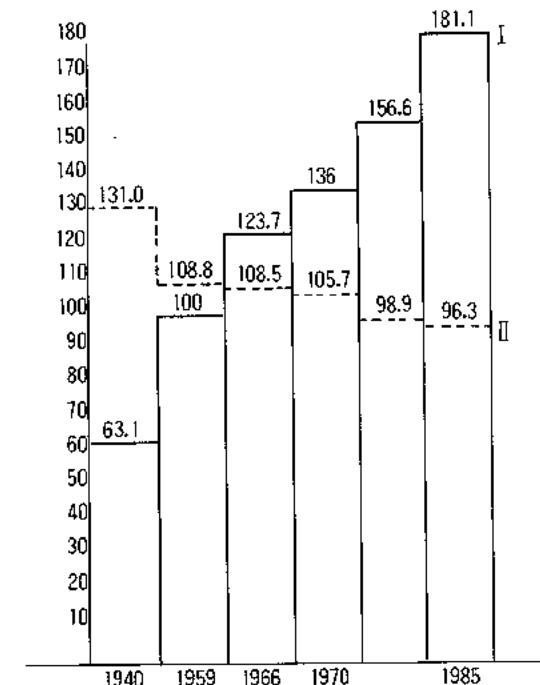
전 국민에게 거주지(주택)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고려대상이 된 것은 나라 전체 인구중 도시
거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였다. 도시거주 인구비율은
1940년에는 32.5%였던 것이, 1985년에는
65.3%가 되었다(그림 3). 전체인구중 도시
거주와 농촌 거주 인구 비율변화는 그림 4에
나타나있다.

1981 - 1985년 동안에 실제로 천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했었다. 가구당
구성원수에 맞춰서 주택은
건설되었다.(그림 5) 3 - 4개의 방을 가진
아파트하나에 주택난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2 - 3가구가 함께 생활을 했었다.
여기서 코된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건설되었는데 이 주택형식은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사는 데서 발생하는 갖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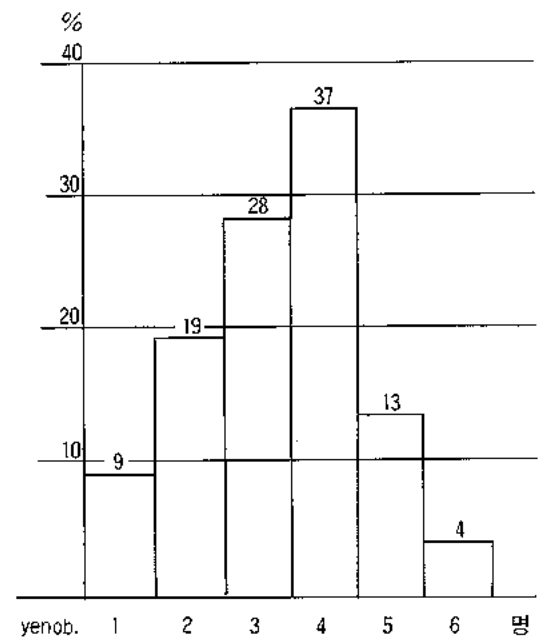


3. 소련 전체 인구 중도시 거주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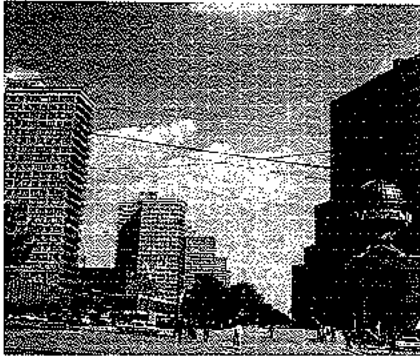
불편함을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주택 설계물들이 고안되었다. 주택건설
콤나트가 창설되었다. 이 모든 것이
"2000년에는 모든 소비에트 가구들에 개별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공급하자"(1가구
1주택)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러나 2000년은 이미 코앞에
다가왔는데, 소련이 와해된 지금 이미
발표되어서 진행중인, 소련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이고 전 국민을 위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책임질 주체가
누구인가? 15개 독립 공화국들인가?



4. 1940 - 1985년 동안의 소련 전인구중 도시 거주 (I)와
농촌거주 (II)인구 비율 변화(단위 : 백만명)



5. 가족 구조



싸도보에 칼쾨에서 크레믈린쪽으로 본 모습



민스키 대로 모스크바로 들어오는 서쪽 관문



모스크바 중심지에 있는 호텔 "나르바"와 그 뒤에 "인두리스트"



모스크바, "이즈마일로보" 호텔 일집 지역
건축가 D. 부르진 외 다수

러시아 속담에 "유모가 많으면 오히려 아이는 방치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정말 이 15개의 자주적인(독립을 선포한) 유모들에게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펼쳐 자신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옛 단일 소비에트 연방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을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도 잘 모르겠다. 얼마전에 TV에서 현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곤차르가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작업이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누가 그리고 언제 이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럼 건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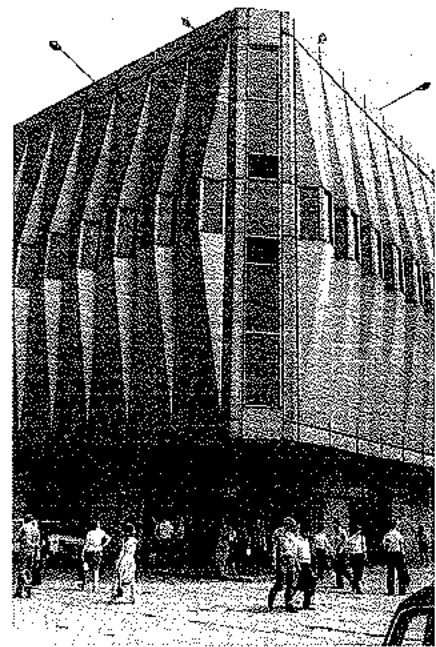
우리 건축가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들, 국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보다 나은 삶을 꿈꿔온 우리 건축가들의 희망은? 한 순간에 경제와 건축사이에 맺어져 있던 끈이 끊어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건축은 국민들, 그리고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와 건축사이에 맺어져 있는 끈은 그 어떤 우연찮은 사건에 의해, 심지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시도되는 건축적 사색과 그 사색의 실현이 방해받지 않도록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 필자 자신 아직 잘 모르겠다.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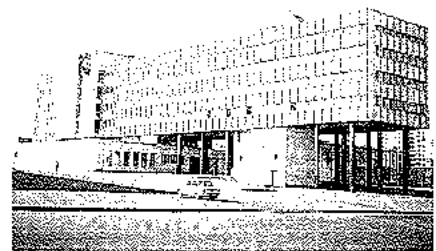
소비에트 권력기간 동안 건축과 건설에 대한 과학 - 설계 작업 조직화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 소비에트권력 발전의 다양한 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설계 - 예산 임무의 계속적인 한단계 높여진 완성"이라는 사업에 대한 지도부의 결정이 채택되곤 했다. (이 사업을 맡은 지도부는 처음에는 전러시아 중앙위원회 산하 소비에트 인민 위원회 였다가 나중에는 소련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소련방 국무회의가 이 사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건축발전에서 최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전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문학 - 예술조직의 개편에 대하여"라는 결정이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건축그룹이 폐지되고 소비에트 건축가 협회라는 단일 조직이 생겨났다(19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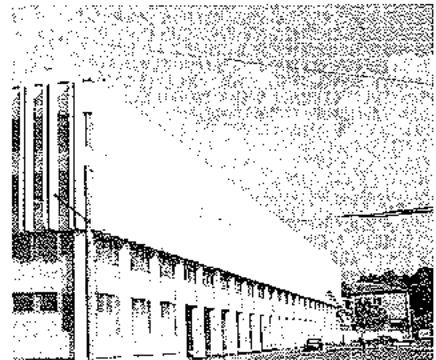
1920 - 1930년에 주택과 사회공공건물은 소비에트 건축가들의 설계에 따라 지어졌다. 예를 들어 르 꼬르뷔제가 전 소련방 소비조합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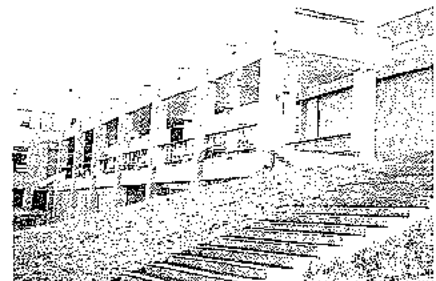
모스크바, 크라스나야 프레스냐에 있는 종합 전시장
건축가 M. 포스한, B. 트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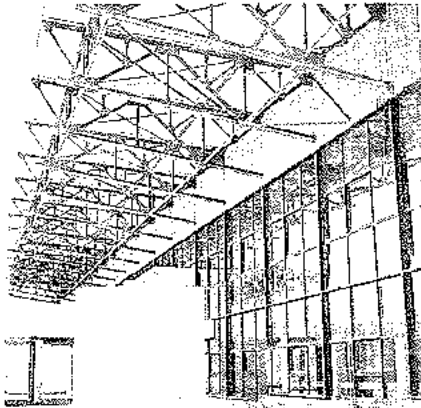
1980년 올림픽촌, 지휘본부(통제본부).
건축가 E. 스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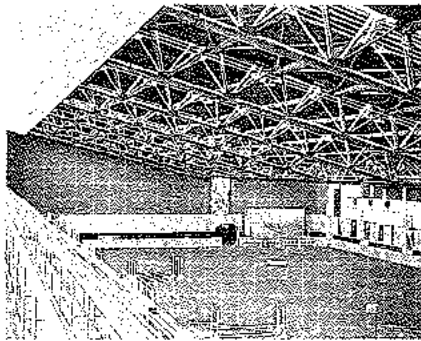
1980년 올림픽촌, 자동 기록 관측소
건축가 E. 스파모 외 다수



1980년 올림픽촌, 소빙센터
건축가 E. 스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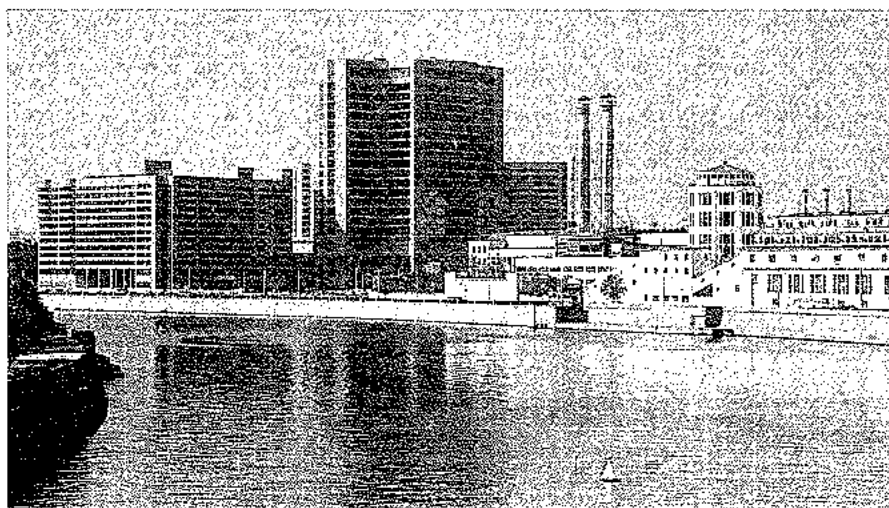
모스크바, 1960년 올림픽 때 지어진 중앙스포츠 클럽의 승마 종합 경기장.



동일 건물, 내부 모습.



올라노프스키에 있는 호텔 "베네딕" (외관)



모스크바, 고라스나야 프레스냐에 있는 무역센터 중앙건물과 호텔 "콘티넨탈"
건축가 M. 포스히, B. 트호르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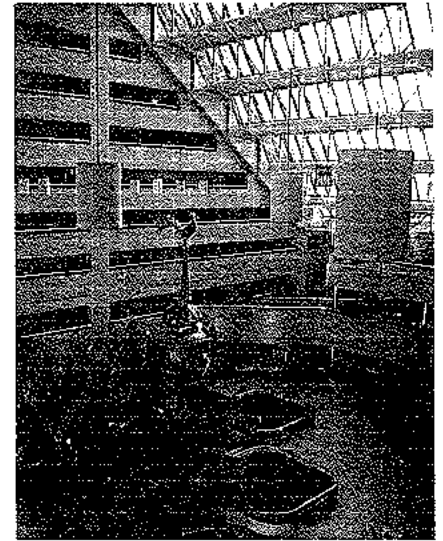
연합회 건물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로 진행된 일련의 산업건설에서는 때때로 미국을 포함한 외국 설계사무소의 설계에 따라 지어지기도 했다. 이 시기에 행정부 산하에(이 시기에는 행정부를 인민위원회라고 불렀다) 많은 국립설계 연구소(GIPRO)들이 창설되었다. 이 설계사무소들은 설계업무 뿐만 아니라 건설에 따르는 여러 기술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특히 산업부문에 있어 높은 기술 수준을 확보 하도록 요청되었다.(그림 6)

국립 설계 연구소와 나란히 건설성 산하에 예를 들어 산업건설 설계 연구소와 같은 건축건설 계획업무만을 따로 특수하게 다루는 거대한 특수 설계 연구소들이 창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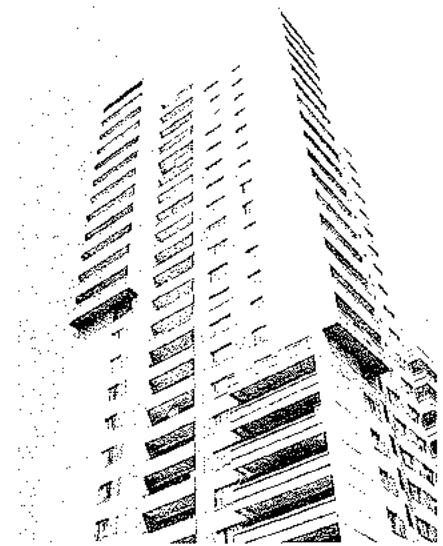
개개 소비에트 공화국들과 주(지역) 소비에트, 대도시 소비에트도 자신들의 설계 조직을 가지고 있다.

나라전체의 건축과 건설분야에 걸쳐 기술 정책을 관장하는 곳은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의 건설부문 국가 위원회 - 고스트로이이다.

1933년부터 소비에트 연방 건축 아카데미(AA USSR) 역시 제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소비에트 연방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건축기술에 대한 원론적이며 근본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건축구성의 고전적 법칙과 양상론 조성원리 역시 연구되고 있다. 많은 풍부한 실무 경력이 있는 건축가들이 이 아카데미의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재 교육을 받고, 이 아카데미의 각 학과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완성시켜가고 있다. 필자 역시 1953년부터 이 아카데미의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수학을 했고, 이 수학기간동안 계속해서 국립설계 연구소의 실무 역시 병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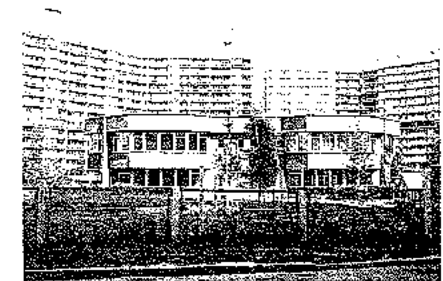
동일 건물, 현관 내부 모습



모스크바, 푸코프 원수(정문)대로에 있는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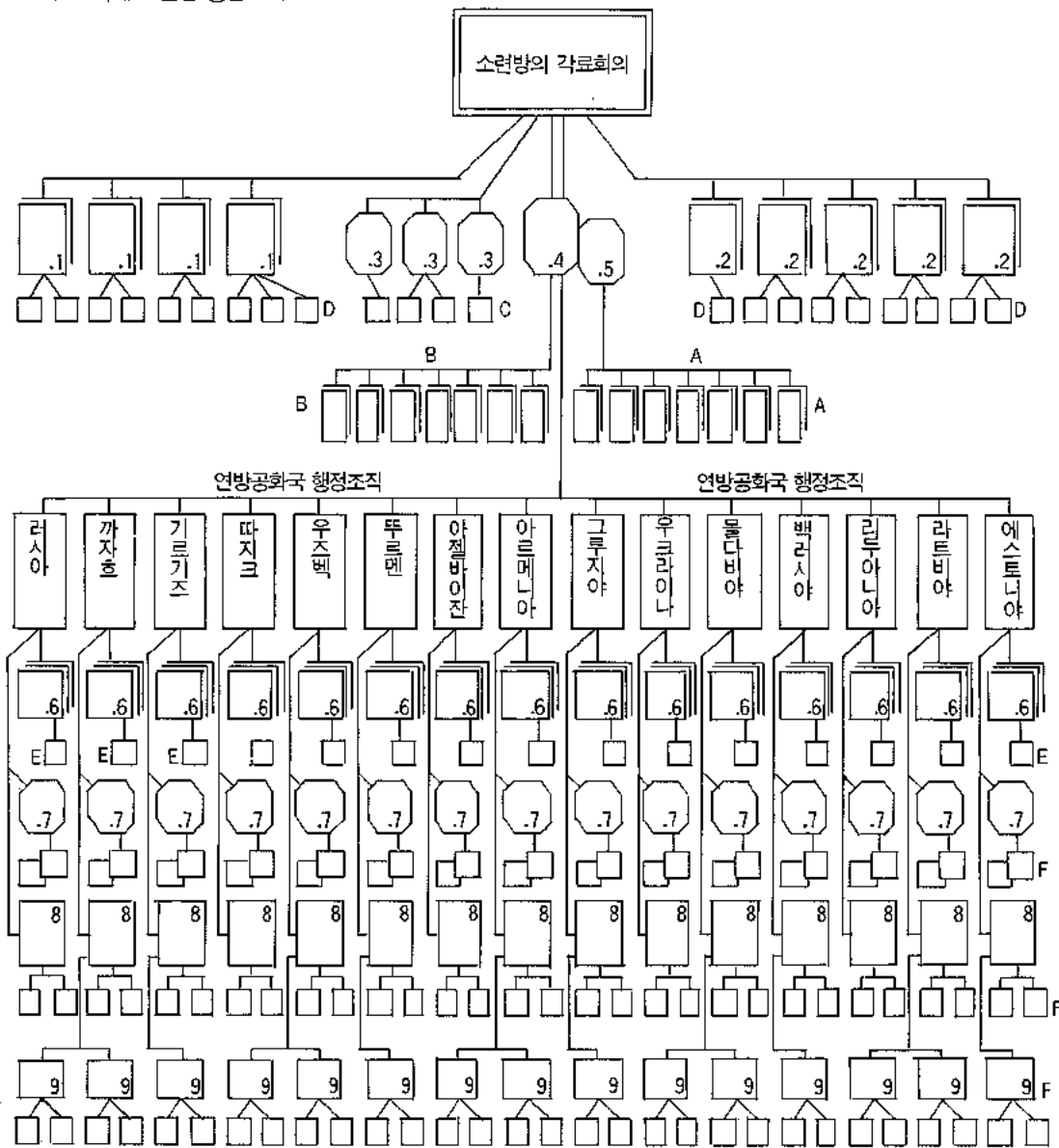


모스크바, 오레호보 보리소보 주택 구역
건축가 Ia. 벨리콜스키



모스크바, 신흥주택구역 "세베르노예 체르타노보"
건축가 D. 류에크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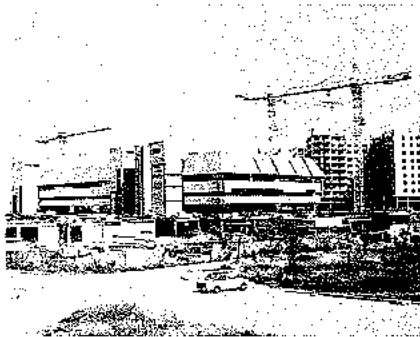
6. 소비에트 연방 행정조직



1. 연방행정부
2. 연방 공화국 감독성
3. 건설성
4. 소비에트 연방 건설부문 국가위원회
5. 건축과 비산업 건설 국가 위원회
6. 연방공화국 행정부
7. 연방공화국 건설부문 국가위원회
8. 주(지방) 소비에트
9. 시 소비에트

- A. 학술 - 탐구 그리고 설계 실험 중앙 연구소
도시건설
이론과 역사
주택
교육기관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서커스 공연장)
도시 재개발
엔지니어링
- B. 공장(산업)시설 학술 탐구 중앙 연구소
시공 학술 탐구 중앙 연구소
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학술 탐구 연구소
건조 역학 학술 탐구 연구소
건축 원론(근본)학술 탐구 연구소
- C. 산업건설설계 중앙 연구소
- D. 국립설계 연구소 분과들
- E. 국립 설계 연구소 분과들
- F. 지방(지역)설계 연구소들
- G. 감리,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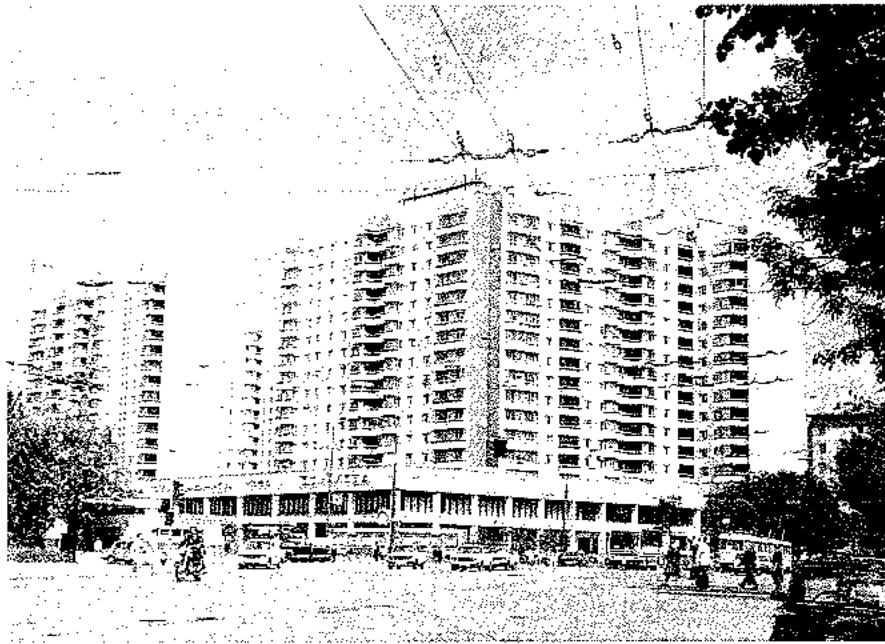
(소련에서는 행정조직이 2원화 되어있어서 1에서는 연방차원의 업무만을 관장하는 예를 들어 국방성, 중공업성등이 속하고 2에서는 각 연방공화국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예를 들어 경, 식료품 공업성등이 속한다)



제일 앞에 보이는 곳이 쇼핑센터이다.

이 건축 아카데미에서 뿐만 아니라 이 아카데미가 건설과 건축 아카데미 (ASIA USSR)로 개편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역량이 집중된 연구소는 건축학과 건설학부문에 대한 학술 - 탐구 그리고 설계 - 실험 중앙연구소들이었다.

소비에트 건축사에 있어 1963년은 기억해줄만한 해이다. 이 해에 전소련방 건설과 건축 아카데미가 폐지되고 소련방 건설부문 국가위원회 산하에 비산업부문



모스크바, 마르크스거리의 주택구역

건설(civil construction) 국가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여기서부터 파라독스가 시작되었다. 국가 위원회 산하에 또 국가위원회가 창설된 것이다. 건축학과 건설학은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이 둘이 각각 비산업부분과 산업부분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게 되었다. 산업시설 학술 탐구 중앙연구소, 시공 학술탐구 중앙연구소, 콘크리트 - 철근 콘크리트 학술탐구 중앙연구소 등등은 고스스트로이(건설부문 국가위원회) 산하에 소속되고, 주택 학술 탐구 중앙연구소, 건축 이론과 역사 학술탐구 중앙연구소, 도시건설 학술탐구 중앙연구소, 스포츠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서커스공연장) 학술 탐구 중앙연구소가 비산업부문건설 국가위원회 산하에 소속되게 되었다.(그림 6)

알다시피 이제 소비에트 연방은 붕괴되었고, 지금 어떤 체제로 건축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지 필자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필자가 모스크바를 떠나 이곳 한국에 온 녀 달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단일 국가가 와해된 지금 그 어떤 것이 훨씬 나은 방향으로 변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필자는 전소련방 건설과 건축 아카데미

산하 산업시설 학술 탐구 그리고 설계실험 중앙연구소의 창설자중의 한 사람이고 이 연구소에서 학술분과 위원장으로 그리고 책임 건축가로 26년간(1916 - 1986) 일해왔다. 이 연구소에는 1300명의 건축가가 일하고 있다. 어렵게 어렵게 창설된 연구소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렸을 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학술 탐구 중앙연구소들에서 이룩해낸 건축건설분야의 여러 방면에 대한 학술적 업적은 세계 건축 - 건설학 발전에 한몫을 할 것이 틀림없다. 이 업적들은 깊은 연구와 분석을 할 만한 것들이다. 연구소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 중 연구자체는 좋았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연구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 못내 아쉬운 일이다.

주택 여건을 개선시키고 도시내의 건축물들의 양상불을 고려한 대규모 도시 건설계획을 실현시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레닌이 전러시아 중앙 집행위원회에 내린 "도시내의 부동산에 대한 사유재산 폐지"지령이었다.(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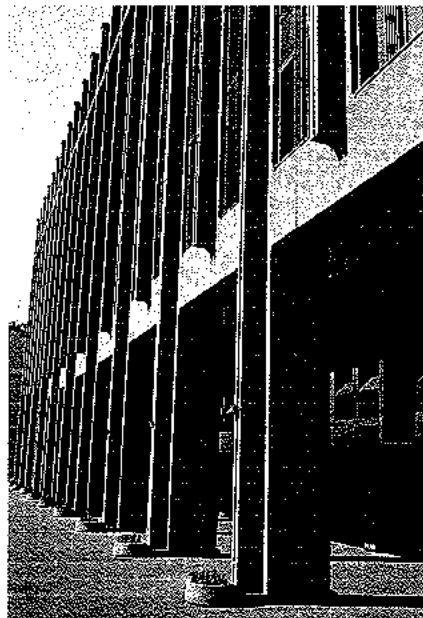
전쟁이전 기간에 제일 많은 관심이 쏠리진 것은 나라 전체에 합리적으로 산업시설(생산력)을 배치시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산업력 발전과 강화를 위해 대단위 그리고 복합단위 산업종합단지 계획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자동차터렛제조공장, 항공기제작, 전기기술 공장과 같은 새로운 산업지역이 형성되었다. 철과 바철 금속공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모든 정부 산하의(각 성 산하에 있는) 국립설계 연구소의 중요성이 이때 처럼 크게 부각된 적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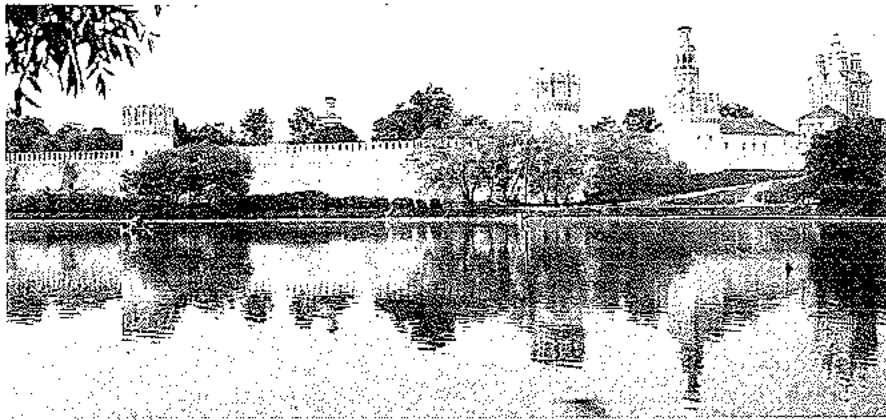
1930년대에 국가적 중요성을 획득한 것은 도시건설이었다. 중앙집행 위원회와 전소련방 인민위원회의의 "소비에트 연방내의 도시와 다른 거주지역의 사회주의적 재편성 계획의 설계안 작성과 그 승인"에 대한 결정사항이 채택되었다. 이 결정사항을 실제로 집행하고 이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도시건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시건설 국립설계 연구소, 도시재개발 국립설계 연구소, 건설 설계 국립연구소 등과 같은 대규모 설계 조직들에 집중해서 일임되었다.

도시 건설 사업의 중요성이 그 이후 하락한 것은 아니었다. 대도시들에 그 지역 건축학교가 문을 열었고 또 설계연구소들이 창설되었다. 예를 들어 타쉬켄트시에 얼마전에 타쉬켄트시 총 계획 수립(타쉬켄트플랜)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소비에트 도시건설부분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전소련방 인민위원회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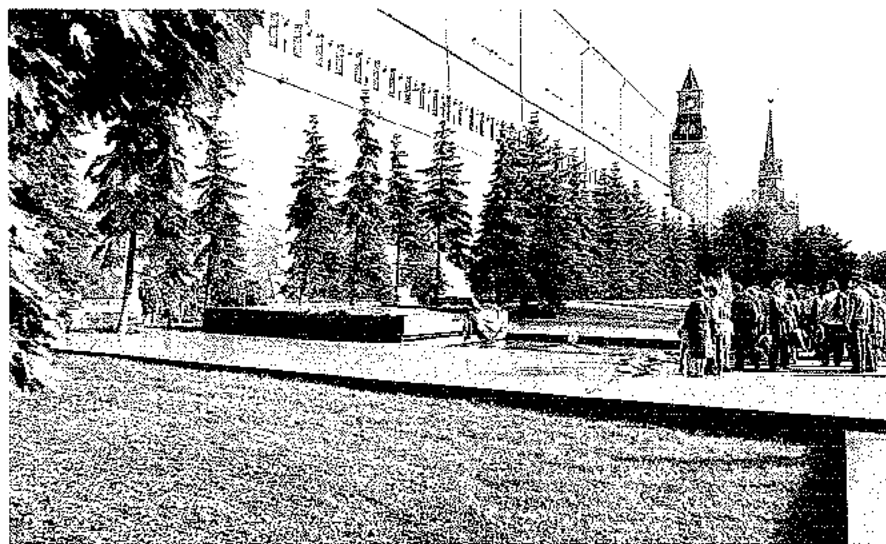
모스크바, 푸쉬킨 거리에 있는 소련방 고스스트로이(건설부문 국가위원회) 건물
건축가 N. 포코롭스키 외 다수



모스크바, 노보제비치 여자 수도원 전경



노보제비치 여자 수도원 내에 있는 스콜렌스키 성당(19세기)



모스크바, 고메를린 벽 근처의 제2차 세계대전 (1941 - 1945) 참전 무명 용사 기념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1935년 7월 10일에 채택된 “모스크바 시 총계획 수립에 대하여”라는 결정이었다. 이 결정을 수록한 문서는 세계도시 건설 역사상 최초의 문서이고 이 결정의 실제적 실현은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 폐지령과 국민경제 수립조작에 의해 뒷받침 되었고, 이 결정에 맞추어 기타 다른 대도시와 매머드 도시들에 대한 총계획이 수립되었다. 오늘날 인구

5십만이 넘는 도시가 54곳에 이르고, 이중에 인구 백만명이 넘는 도시는 22개에 이른다. 매머드 도시들에는 거의 예외없이 지하철 건설이 논의되었다. 현재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궤예프, 타쉬켄트, 바쿠, 예레반, 트빌리시 등의 도시에 지하철이 개통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금도 일련의 도시들에서 도시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에트 지하철 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하철 역 건설에서 건축 - 예술 측면으로 가장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지하철 역 지하 입구였다. 개개 지하철 역 설계안은 전 건축업계의 특별한 심의를 거친 후 채택되었다.

많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거주 지역 대단위 건설 계획이 이미 토의되고 채택된 상태에 있다. 그럼 지금 이 계획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누가 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 계획의 실현을 책임질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이 일차적으로 이 계획들의 성공적인 실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평균적으로 20개의 새도시와 60여개의 도시형태의 새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을 위한 매머드 건설 작업이었다. 이 건설작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정말 발전할 수는 있는 것인가? 필자는 이것에 대해 그 어떤 희망적인 생각도 품고 있지 않다. 슬프고도 괴로운 일이다.

건축이 지니고 있는 커다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쓸수도 있으리라 ! 전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소련 국무회의에서 얼마전에, 1987년 9월 19일에 채택된 1058호 지령 “소비에트 건축과 도시 건설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는 건축이 지니는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한 매우 중요한 지령이다.

필자의 외국인 동료들은 건축발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우리 소비에트 건축가들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었다. 자, 이제 우리 소비에트 건축가들은 어느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가? 현재의 인류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 입에 틀림없다. 끔찍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들 사이에 전쟁, 전쟁 심지어 동족상잔까지도 TV에서 본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그 밖의 도시에서 일어난 며칠 간의 사태가 필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직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건축발전이 아닌 전쟁 준비에 거대한 지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왜?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모든 끔찍한 상황을 경험한 필자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전 세계에 외치고 싶다. “창조가 아닌 파괴를 위한 모든 행위를 멈추라” 오직 창조만이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축이다. !

건축을 부흥시키자 !

1992. 5. 4. 서울

패러다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2)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s

吉成鎬 /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아키프랜 공학박사

Designed by Kil, Soung - Ho

REPORT

1. 패러다임(Paradigm)과 건축적 사고유형
2.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1)
3.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2)
4.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특성
5. 박물관 · 기념관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6. 공공청사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7.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디자인 접근 태도와 전망

②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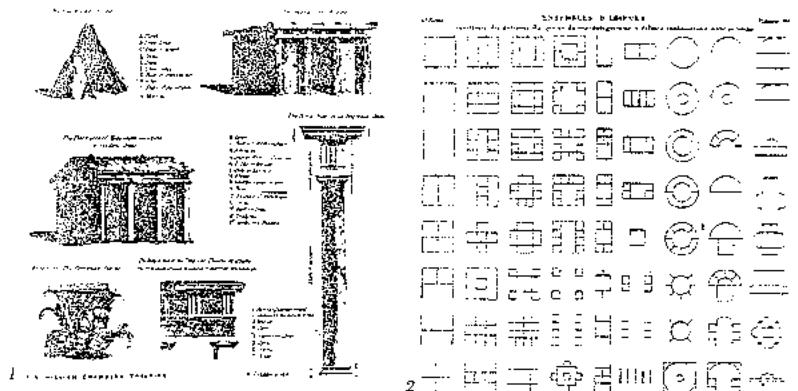
1. 유형학적 사고유형 (typology - oriented thought)

건축 디자인 사고에서 유형(type)과 유형학(typology)의 개념은 단순한 형태적, 물리적인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 해의 원천”이자 건축가의 “창상을 위한 최초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퀸시(Quincy)는 유형의 개념을 변형된 대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는 핵으로 정의하였으며 콜훈(A. Colquhoun)은 ‘건물 유형학(building typology)’의 개념을 “시간을 통하여 인간 행위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형태를 산출해 온 사회 공간적 조직의 세바(sociospatial organizational schemata)”라고 정의한다.

유형은 보편적으로 예술적인 개별성과 기술적인 반복성을 함축하는 특유의 내적 구조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형태에 내포된 개념을 통해 연상, 이미지, 기억 등을 그 형태를 지각하는 관찰자에게 환기시켜 주며 기억과 일상적 경험에 부합되는 풍부한 의미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① 원형(Original type)으로서의 원시 오두막과 고전건축의 신전형태
- ② 구성방법의 근원으로서의 평면발생 형태의 유형적 분류의 예
- ③ 주택의 여러 형태유형과 이미지 요소들
- ④ 엔젤(Engel)이 계획한 헬싱키 대학의 평면(1828년)유형과 알토의 도서관 평면형태(1959~63년)의 유사성
- ⑤ 알도로시의 총체적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미지 구성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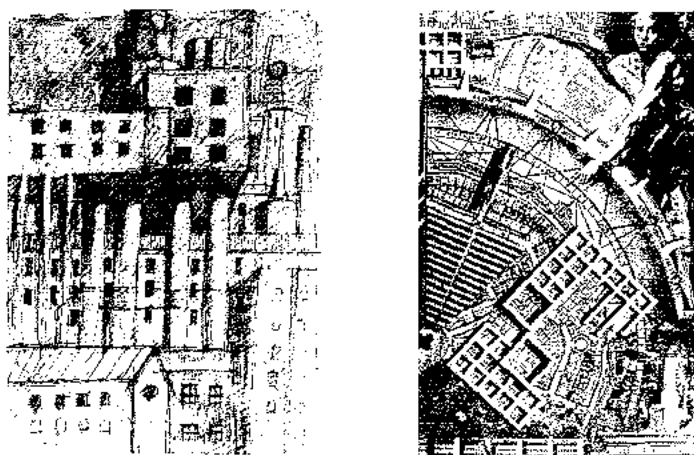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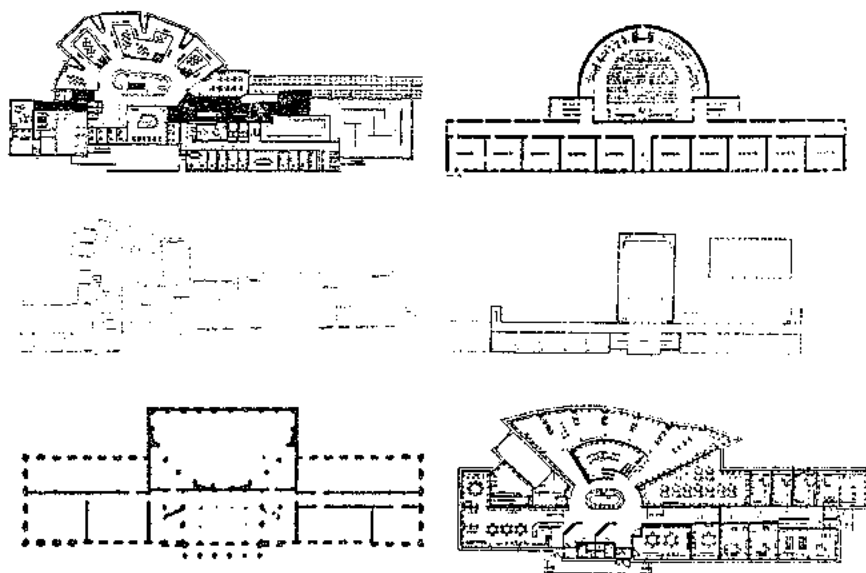
그러므로 유형과 유형학의 개념에 기초하여 디자인에 접근하는 건축가들은 그들이 만들어 낸 형태가 사회적 관례에서 용인되는 적절성의 개념을 지니도록 의도한다. 이들은 하나의 대상을 창조하고자 할때 ‘마음의 눈(mind's eye)’에 이와 같은 대상의 이미지를 갖고 시작하게 되며, 그 이미지를 전통과 이상적인 형태에 기초하여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 과정은 대상의 이미지가 사회적, 인습적인 가치 즉, 문화적인 교환가치(cultural exchange value)를 지니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문화적 가치는 골훈에 따르면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레비 - 스트라우스(Levi - Strauss)가 언급한 바 있는 이미지와 재현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레비 -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이미지와 재현은 객관적인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발달되어 온 것이며, 이것은 현상적 세계를 일관된 논리적 체계가 있는 방식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과 오늘날의 사회 조직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환경과 건물에서 장소감과 관계된 우리들의 감각은 측정 가능한 어떤 객관적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현상학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미적으로



그러므로, 유형학적 사고유형은 건축을 사회와 문화의 산물로 보고 건축을 총체적인 현상속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건축과 문화와의 관계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며, 과거의 모범적 규범이나 법칙에 대한 모방과 변형이 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건축 형태의 역사와의 연계성의 개념이 중시되는 것은 그들의 창작 작품이 공인된 고대의 모델과 비교됨으로써 그것과의 유사성 때문에 높이 평가되기 위해서이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역사의식과 해석의 관점은 유형학적 사고가 고전적 - 인본주의적인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포르피리우스(porphyrus)는 직관적 사고와 유형에 기초한 건축적 사고의 차이를 후자가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한 공통된 시각성 (common visuality)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유형학적 사고에서 “모방(mimesis)”의 개념은 그것이 기존의 역사적 대상이 갖는 개념과 형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해독하여 창조적으로 재구성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 모방의 개념은 유럽 미학의 전통에서는 크게 3가지로 해석되어 왔다. 그 첫번째의 해석은 모방을 감각적으로 주어진 외양의 재현으로 보는 플라톤적 개념이며, 둘째는 모방을 사물의 본질의 재현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이고, 셋째는 모방을 자연의 행위의 재현으로 보는 데모크라투스적인 개념이다.

[illegible]

이상에서 언급한 유형학적 사고의 접근과 태도는 근대 건축가들 중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알바 알토(A. Aalto)의 작품에서는 이미 존재해온 새로운 유형을 재 탄생시켜 재현적 속성을 내포하는 형태를 창조하고자 한 의도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고전 건축의 단순화 된 추상적 형태를 통해서 침묵의 의미를 내포하는 건축언어의 구성으로 고전적인 영속성을 회복시키고자 한 의도는 헤인리히 테세노우(H. Tessenow)의 작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의 건축가들중에서는 도시의 형태와 백락속에서 유추해 낸 유형을 변화시켜 이미지, 기억, 역사적 연속성을 상기시켜 주는 추상적 형태언어를 제시하고 있는 알도 로시(A. Rossi)의 작품세계도 유형학적 사고유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전적인 역사적 단편들로 된 도상학을 작품의 표현 수단으로 하여 의미론적 구성에 의한 문화적 상징성을 발현하는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마이클 그레이브스(M. Graves) 등의 작품세계 역시 유형학적 사고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그레이브스의 두꺼운 벽구성과 구심적 공간구성 개념은, 근대건축의 개방평면(open plan)에 의한 원심적 공간구성과는 대조되는 유형화된 고전적 공간구성 개념을 보여준다. 이들은 그 접근방식과 표현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 주지만, 건축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성에 대한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유형학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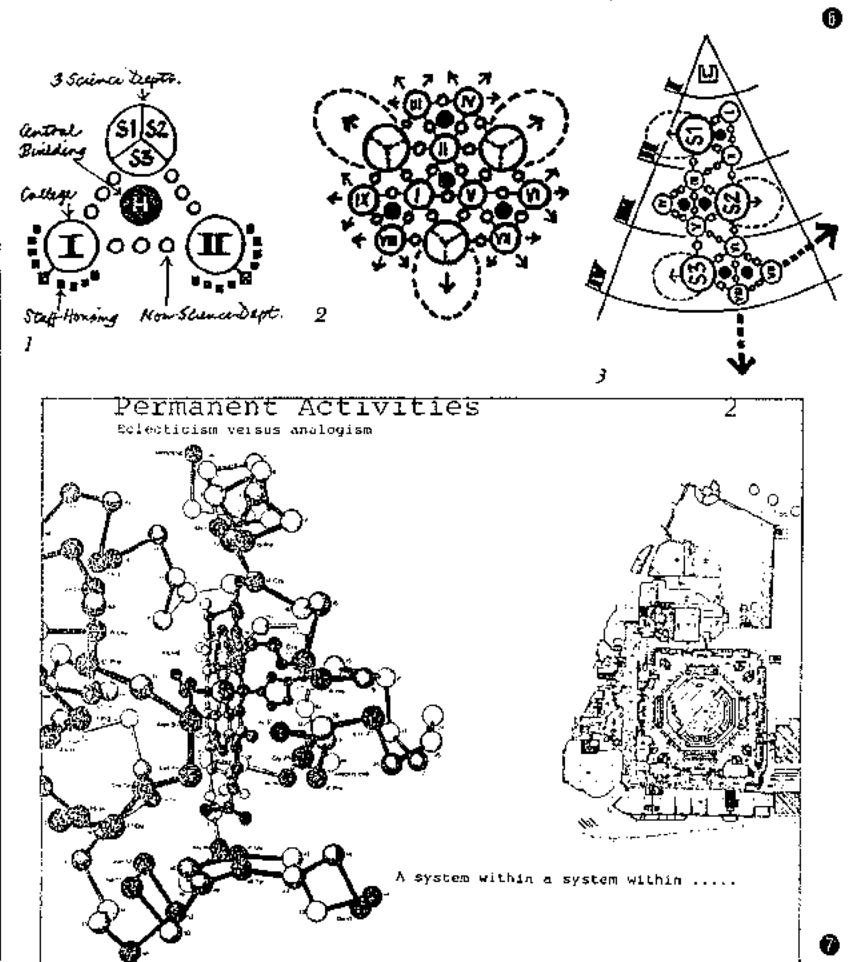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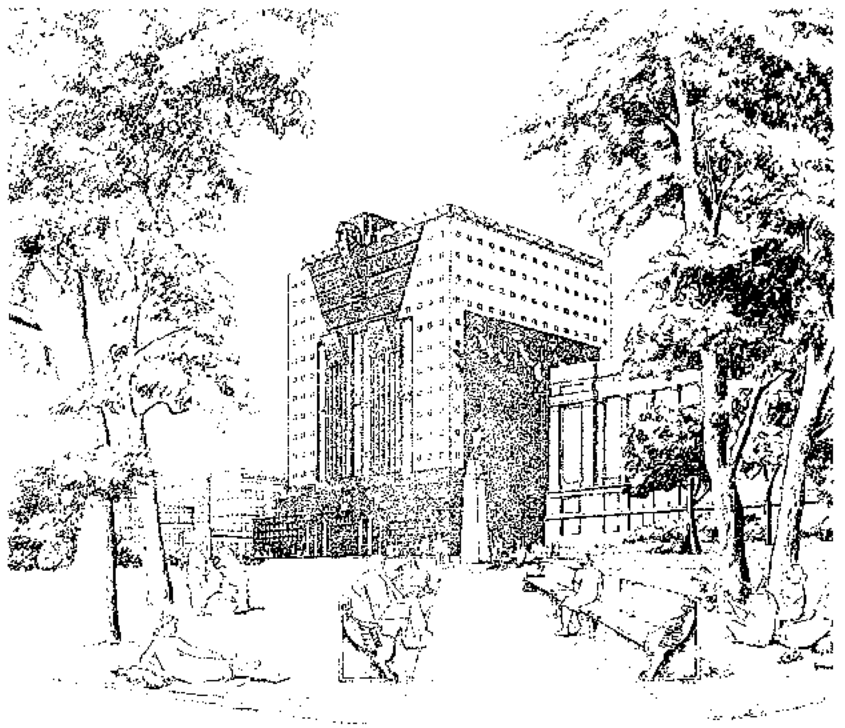
그러므로, 유형학적 사고유형에 의한 접근은 건축형태 구성의 내적 자율성, 도시적 연속성 및 문화적 맥락에서의 건축의 존재를 중시하게 된다. 문화속에서의 건축과 그것의 의미 및 체험 주체인 인간사회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시된다. 전통성 표현의 주제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어진 대상 고유의 연상적 분위기를 재현시키려는 작업과 관련되어 전개된다.

그러나 유형학적 사고유형은 재현 체계를 통한 연상적 의미의 회복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건축공간과 형태가 인간의 체험방식과 맺게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2. 기능적 사고유형(function-oriented thought)

유형학적 사고유형이 과거의 규범을 절대가치로 삼는 고전적 -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언급할 기능적 사고유형과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은 실증주의적 방법에 의한 객관성 지향과 외적인 세계와의 기계론적 해석관계를 중시하는 역사적 -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건축이 그 목적과 기능에 적합해야 한다”는 명제는 논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나 목적과 기능의 개념은 의미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적 측면에서는 비기능적인 장식, 주두 등도 미적 가치라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과 기능에의 적합성이라는 말은 사실(fact)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value)의 문제와



- ⑥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포틀랜드 빌딩 계획안(1980)
- ⑦ (a), (b) 기능적 구성요소의 분류화와 시스템간의 상관성 개념

관련된다.

삼전정일(森田慶一)에 따르면, 기능이란 전체적 개체에 있어서 그것을 구성하는 각 인자가 부담하는 고유의 역할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대상의 역할 즉, 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20세기 초기의 기능주의는 사물의 존재를 실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며, 과학적 인식, 미적 인식과 같은 모든 인식을

방법론적으로 기능에 기초하여 세우고자 하였다고 지적한다. 드 쿼르코(De Zurko)는 「기능주의 이론의 기원(Origins of functionalist Theory, 1957)」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기능의 개념은 본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형이상학적인 가치까지 포함한 다의적 가치체계였으나 근대 이후 일의적 가치체계로 변화되었으며, 20세기 초기의 기능주의는 유기적 개념, 도덕성의 개념, 목적에의 적합성 등에 기초한 상대주의의 개념을 디자인 사고를 위한 출발점의 전제로 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라스킨(U. Raskin)과 스미쓰(K. W. Smithies) 등도 기능의 개념을 단지 수량적, 정량적인 측면에서 분석 가능한 인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건축의 실용적인 목표만을 중시하는 건축가들의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분석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유용성에의 확신, 목적에의 적합성(fitness for purpose)만이 미의 결정인자임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적 사고성향의 건축가들은 디자인의 해(解)가 건물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도될 수 있거나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건축가의 직관적 창조능력의 상호작용에서 얻어진다고 보는 실증과학적 사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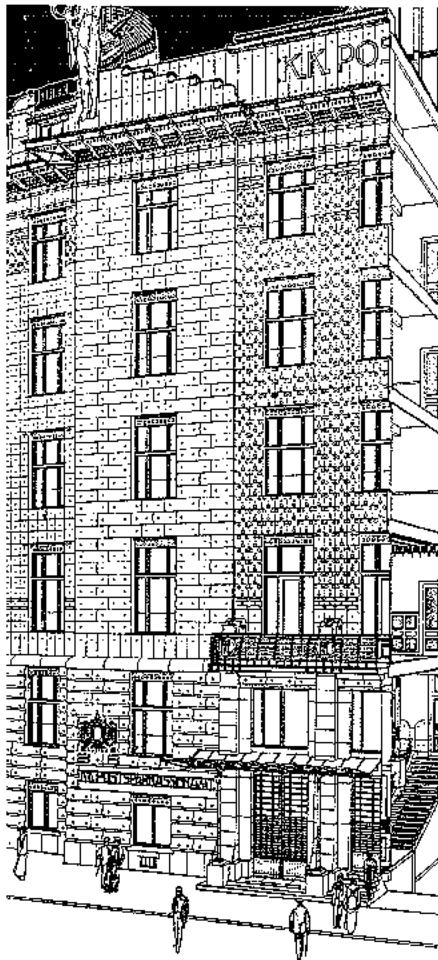
그러므로 좋은 건축 디자인이란 실재적 목적이 적절하게 수용될 때만 가능하며, 이외는 무관한 양식적 형태의 오용은 배제되어야 하고 형태적 구성은 기능의 자연스런 해결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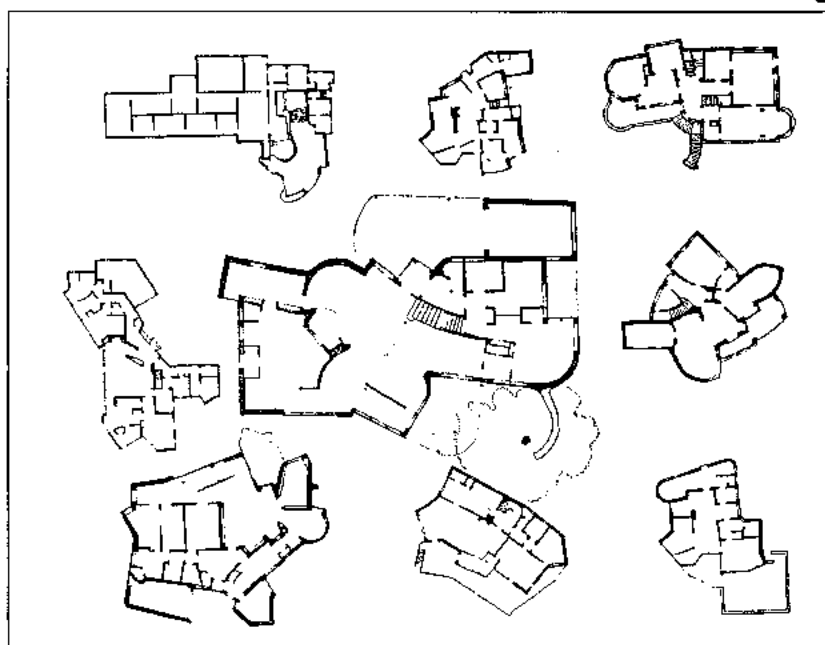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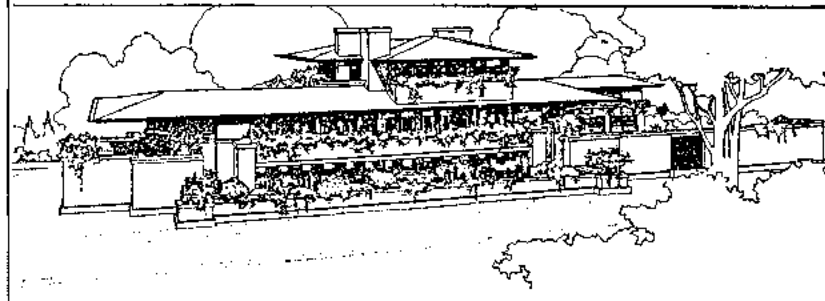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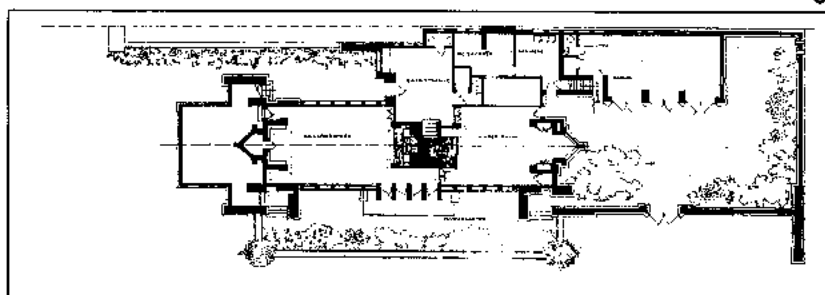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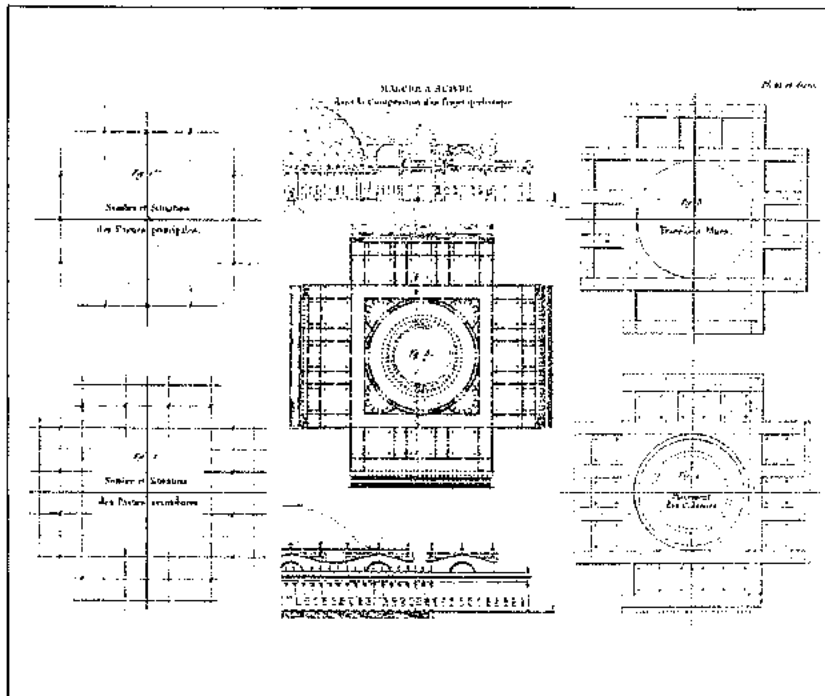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똥바가지가 금으로 된 방패보다 용도에 진실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미를 유용성(usefulness)과 동일시하고자 한 의도에서였으며, 기능에 대한 도덕성의 개념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도덕성의 개념은 근대건축 초기의 기능주의자들의 신조였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의 여러 영역과 차원 중에서 단지 정량적이고 측정가능한 변수와 관련된 기능인자만을 중시하여 이에 기초하여 인간의 삶의 방식을 해석하고, 이것을 건축적 공간이나 형태로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리적, 정신적인 차원은 배제된다. 이러한 사고성향의 이론가와 건축가들은 근대 이후의 건축사를 통하여 볼 때 쉽게 발견된다.

근대 건축 초기의 이론가인 켐퍼(Semper)는 유물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건물의 사용목적, 재료, 제작기구 및 제작과정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예술형태의 창조를 강조하여 왔으며, 오토 와그너(O. Wagner)는 목적에의 적합성, 재료의 정당성, 구조의 논리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근대적인 양식의 창조를 주장하였다. 또한 듀랑(Durand)은 기하학 형태의 구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한한 바 있는데, 이것은 미적인 의도보다는 구가 최소의 표면적으로 최대의 볼륨을 얻을 수 있어 최대의 경제성과 적합성의 조화에서 얻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명제를 제창한 설리만(L. Sullivan)과 건축형태를 기능 x 경제성의 산물로 파악한 마이어(H. Meyer) 등의 건축적

④ 오토 와그너의 비엔나 우편 저금국 계획안(1903-7)의 외관과 중앙 홀의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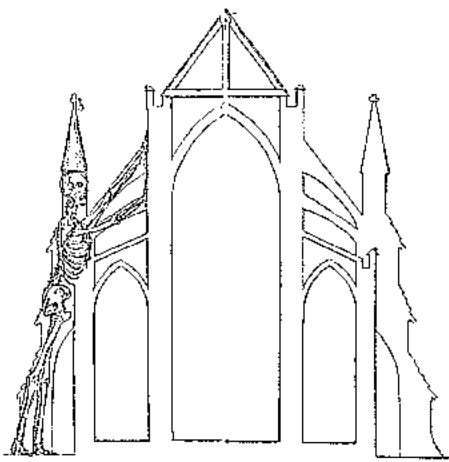
사고와 접근태도에서도 기능의 본질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으로부터 건축에 접근하려는 기능적 사고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모방과 변형은 독창적 사고에 방해가 되므로 폐기되어야 하며, 모든 디자인 문제는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있었다. 건축의 외적인 형태는 내부구성의 결과로 목적을 표현하는데서 발생하는 논리적 프로세스의 결과이며 기능과 구조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증시된다. 이러한 주장은 포르피리오스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실용성과 외관의 본체론적 결속(ontological bond)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재현 형태가 갖는 내보적인 의미의 세계는 배제되며 대상의 내재적 속성과 관련된 순수한 의연적 의미만을 지닌 건축적 표현만이 강조되이기 때문에 재현적 형태가 주는 미적가치는 상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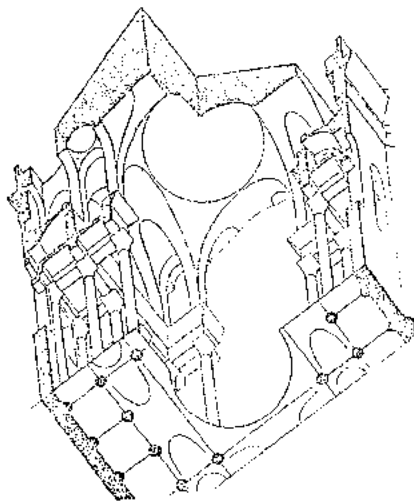
기능적 사고유형이 지향하는 개념적 유형방식을 두루 살펴보는 3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첫째는 기계적 유추방식(mechanical analogy)인데, 이것은 기계의 효율성, 즉 합리성을 추구할 때 건축적인 비를 얻게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추방식은 그로피우스, 마이어, 아키크램(Archigram) 등의 작품에서 발견된다. 둘째로 생물학적 유추방식(biological analogy)은 유기체의 속성을 건축형태의 발생개념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유추방식은 설리반, 라이트, 해링(Häring), 메타볼리즘(Metabolism) 등의 디자인 개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유추방식(moral analogy)은 유용성, 합목적성, 표현의 진실성, 윤리성의 기준을 강조했던 러스킨(Ruskin), 퓨진(Pugin) 등 근대건축 초기의 사상가들의 이론과 건축가의 작품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능과 형태는 하나"임을 강조한 프랭크로이드 라이트는 생물학적 유추에 근거한 「유기적 건축」의 개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이트는 건축가의 착상하는 정신 속에는 건물과 그 안의 가구 및 세팅(setting)과 환경 등의 모든 것들이 단일한 것(one thing)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따라서 디자인 개념화의 과정은 하나의 상정된 구체적인 도상(圖象)에 기초한 유형이나 선결형태(Pre-form)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단일한 것으로 작용하기 위해 지녀야 할 "구조(structure)의 속성"에서 출발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구조는 생물학적 질서에서 보이는,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통합해 주는 유기적 구조의 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라이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건물에 대한 총체적 인상은 볼륨, 기하학적 법칙, 비례 등의 배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적 전체(architectural whole)의 산물로 나타나며, 여기서 건물의 각부분들은 전체 형태와 동등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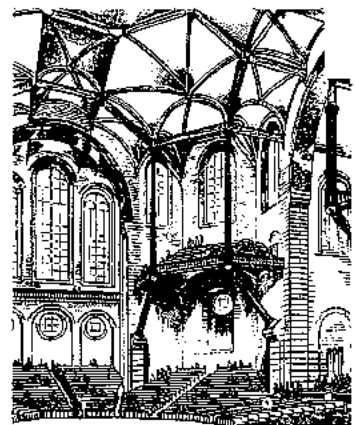
그의 작품의 내부 공간감은 지붕과 벽체로 에워싸인 공간이 아니라 표면과 매스의 감각이 빛 속에서 융해되어 자연과 재료의 성질에서 유추된 형태구조를 통해 항상 깊이로 인식되는 "스크린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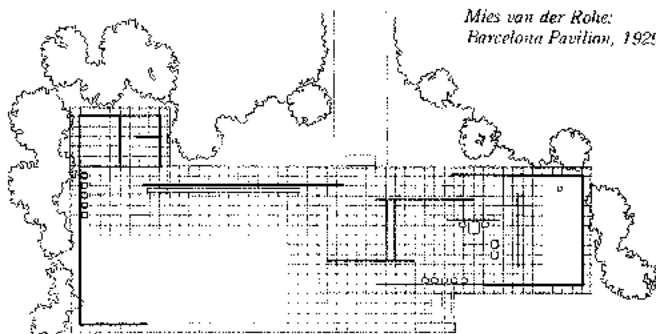
8 A. Barblanew, diagram comparing the counter-abutments of Gothic vaulting with the human skeleton.



7 Choisy, axonometric projection of part of the Panthéon, Paris (see ill. 1), from his *Histoire de l'Architecture*, 1899.



46 Illustration from Viollet-le-Duc's *Treizième Entretien*, Paris, 1872.



Mies van der Rohe:
Barcelona Pavilion, 1929. Plan



공간(screened space)”의 체험을 야기한다. 공간은 기하학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와 동선의 연속적인 공간적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유동공간의 복합성의 결과이다.

해링은 주택을 세 2의 피부로 간주하고 건물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함으로써 작업성능에서 나온 유기적 구조에 의해 접근하고자 하는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는 건축의 엄격한 형식적 법칙보다는 인간의 독특한 행위 생활양식의 특성과 그의 움직임에 대한 직관적 상상을 통해 모든 행위에 대응하는 특정의 물리적 형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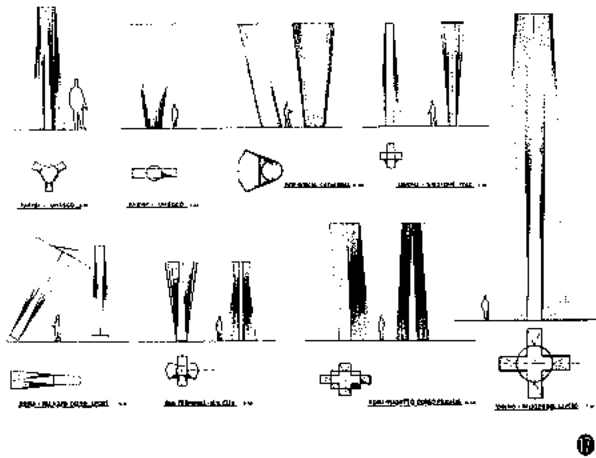
- ⑨ 듀랑의 “에콜 폴리텍크에서 행해진 강의록 요약”에 나오는 도판들 (1802-1805)
- ⑩ 라이트의 로비 하우스의 평면구성과 전경 (1906-09)
- ⑪ 해링의 주택평면의 구성
- ⑫ 인간의 신체구조와 비유되는 고딕건축의 구조방식
- ⑬ 고전건축 공간의 구조적 분석, 엑소노메트릭
- ⑭ 비올레 그-뒤크의 철과 조직으로 된 돔(1986년경)

여기서 공간과 형태는 비대칭적 불규칙적인 연속공간의 형태로 나타나며 항상 인간 행위의 양식과 움직임을 통해 유추 되어진다. 그의 주택작품에서 보이는 계단동선의 형태는 인간의 움직임이라는 작업성능을 반영한 형태를 기하학이 아닌 유기적 형상에서 찾아 구체화하고자 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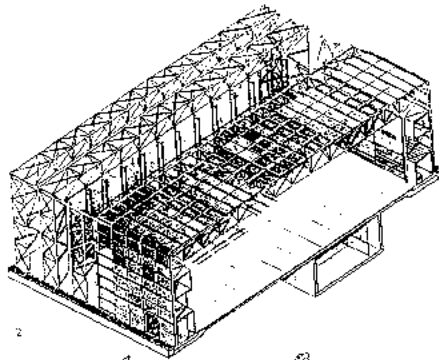
이들의 디자인 사고와 접근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과 기능에의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디자인 사고의 중심적 개념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상의 내재적 속성으로부터 디자인 개념화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유동적 공간개념(free-flowing space)이나 유기적 공간(organic space)개념 등은 물리적인 공간 형태에 의해 조절되는 공간적 형태(spatial behavior)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공간 형태가 경험 주체인 인간에게 부여하는 심상적 이미지와 그 공간 이미지에 의해 조절되는 행태의 개념이 간과되어 있다는 점과 아울러 인간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모든 변수들에 기초하여 상정되기 보다는 건축가의 주관과 직관에 의해 설정되어진 행태 패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결정론적인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건축을 단지 분석적, 합리적, 논리적인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창조하려는 데서 기능적 사고유형의 건축가들은 인간의 다양성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적, 심상적인 다른 차원을 간과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structure & material-oriented thought)

역사적 -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범주에 속하는 또 하나의 건축적 사고유형은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이다. 이 사고유형은 새로운 재료와 구조 시스템을 물리적 형태와 공간을 조직화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형태 결정 인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조적 혁신을 통해서 공간구성과 형태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자 시도한다. 선술한 기능적 사고유형이 건축의 함목적성 중에서 실용성의 측면을 중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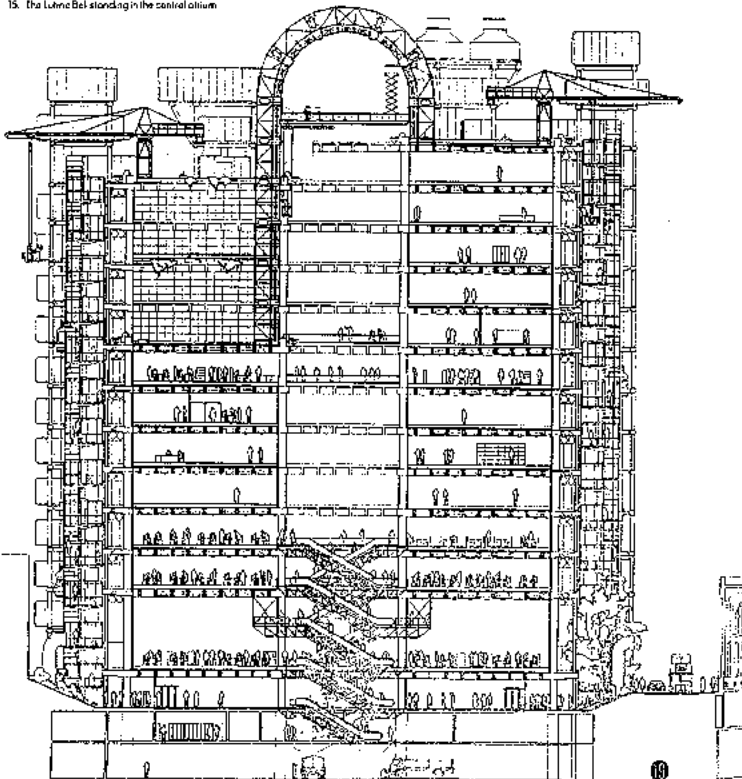
14



15

14. Cross section at an early stage in the development of the scheme. Plant rooms on top of the servant to whom became much bigger.

15. The Lüneburg standing in the central at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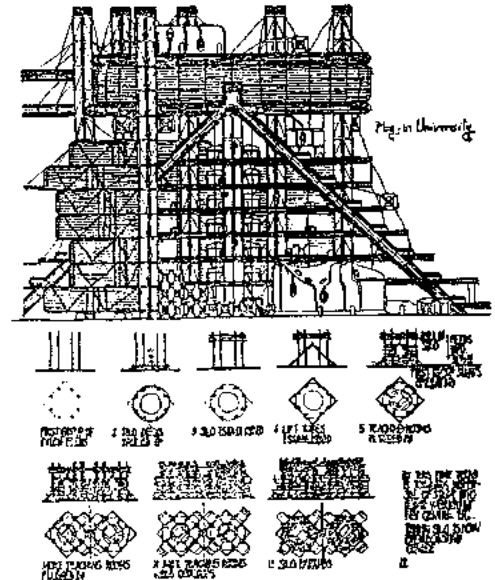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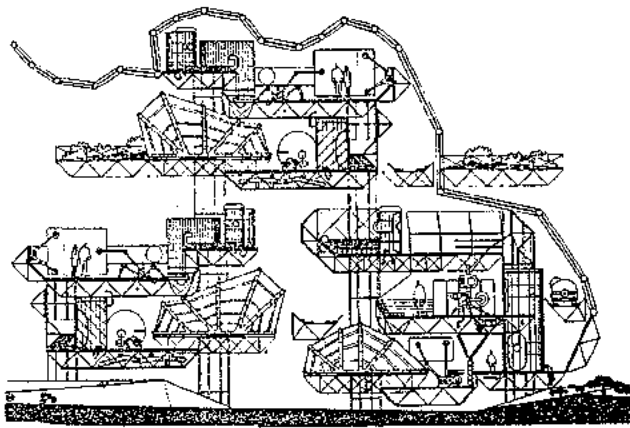


16

반면, 구조·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은 구조를 합리적, 미적으로 통합시킨 고딕건축의 논리성과 기술성의 측면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 두 사고유형은 과학적,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종종 합리주의라고 명명되어진다. 그러므로 구조-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의 건축가들은 건축공간과 형태 구조적 논리성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한다. 이러한 개념은 철학자 헤겔, 쇼펜하우어 등의 관념론적인 표현성의 미학에 그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다. 미의 개념을 형식의 표현성(what form expresses)에서 탐구할 때, 이것은 헤겔이 언급한 이념(또는 정신)의 완벽한 표현, 즉 진리의 현현을 의미하며,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의자와 이념간의 투쟁이 외적으로 표출되어서 얻어지는 미적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형식 자체보다 형식에 수용되어 있는 “표현성”의 개념이 중요시되며 건축적으로는 공간과 형태가 담고 있는 구조와 재료, 하중의 지지방식 등의 솔직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념론적, 철학적 사고와 함께 18세기 중반이후 공학과 추상적 역학이론의 발달은 프로그램과 구조에 대한 합리적 데이터의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건축에의 논리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실증적 사고 성향의 건축가들은 구조와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내부의 프로그램의 해석으로부터 외부로 진행해 나가는 논리적 사고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였다.

건축적 표현의 가능성을 구조나 재료시스템의 혁신 속에서 탐구하고자 한 건축적 사고의 건축 창작의 영역에서 고대로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특히 근대건축 시기에는 비올레-르-뒤크(Viollet-le-Duc), 파크톤(J. Paxton), 페레(A. Perret), 에펠(Eiffel), 풀러(B. Fuller), 미스(Mies), 네르비(Nervi) 등의 작품세계에서 이러한 사고의 특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비올레-르-뒤크는 건축적 형태는 구조와 프로그램의 논리적, 합리적 분석과 분류화 작업을 통해서만 얻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W. Curtis : 1982, P 37), 페레는 기술과 구조를 미적조화와 가능성을 동시에 얻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R, C구조 시스템에서 새로운 형태 양식을 창출하고자 시도하여 왔다.

미스의 작품 세계는 논리성과 자기 절제를 기반으로 구조로부터 성장해 나오는 건축(Structural Architecture)을 추구하였음을 보여준다.(D. Spaeth : 1985, P 16) 미스의 디자인 목표는 모든 요소들을 그 본질로 환원시켜 구조적, 미적 요소들의 표현가능성을 통하여 불기해한 정신의 세계가 그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신비로운 본질의 달성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작품세계에서 주변 환경과 빛은 이 형태적 완벽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향되며, 건축은 피막과 뼈대(skin & bone)의 골격구조로 구성된 구조적 건축개념으로 성취된다. 미스는 건축의 5가지 원리로 코르뷔제가 제시한 5원칙과는 달리 구조, 공간, 비례, 재료, 회화와 조각의 개념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의 대표작 바로셀로나 파빌리온은 재료와 구조방식에 의해 얻어지는 투명성의 개념에 기초한 공간인식과 더불어 조각, 회화 등이 공간적 참조틀로 활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르비 또한 정역학적 구성원리에 의해 가능한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여 왔으며, 루이스 칸은 건축의 구성요소로서 구조와 공간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형태 창조를 강조해 왔다(E. Schrimbeck : 1985, P 65). 따라서 이들의 건축적 접근은 구조를 단순히 공학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건축 공간구성과 형태표현을 위한 비구조적인 목표나 의미와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하이테크의 기술에서 창출되는 건축언어를 통해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하이테크 성향의 건축가들의 다양한 작품은 앞서 언급한 구조-재료 지향적 사고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포스터(Norman Foster)는 건축을 기술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구축적, 기능적인 성분요소에 입각해 미스가 추구했던 피막과 뼈대의 건축적 표현을 계승하고 있다. 로저스와 피아노(R. Rogers & R. Piano)역시 코도로 발달된

테크놀러지를 건물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설과정의 미학을 성취하고자 한다.(V. M. Lampugnani : 1982, P 13)

이러한 접근태도는 20세기 초의 미래파(Futurism), 60년대의 아키그램(Archigram), 메타볼리즘(Metabolism) 등에서 제시되어 온 끊임없는 변화성과 가변성의 미적 표현의 지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구조-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의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쉽게 발견되듯이, 이 사고유형은 건축이 놓이게 되는 맥락이나 형태의 미적 차원과 관련된 의미 등이 배제되기 쉽고, 공간을 체험하는 인간의 체험구조보다는 물리적 대상 자체와 관련된 건축의 내재적 속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적, 합리주의적인 추상적 사고는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적인 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 ⑮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언의 평면구성
- ⑯ 바르셀로나 파빌리언의 내부공간과 조각상
- ⑰ 네르비의 구조적 형태의 개념
- ⑱ 노먼 포스터의 새인스버리 시각예술센터 계획안, 평면과 엑소노메트릭
- ⑲ 리처드 로저스의 로이드 빌딩 계획안
- ㉑ 기계미학에 기초한 이상적인 계획안들

참고 문헌

1. Allsopp, Bruce (1977), A Modern Theory of Architecture,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2. Bonta, Juan Pablo (1979),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New York : Rizzoli
3. Colquhoun, Alan (1967), "Typology and Design Method", (ed.) People and Building, New York :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2.
4. Crnelis Van de Van (1980), Space in Architecture, The Netherlands : Van Gorcum Assen.
5. Curtis, William J. R. (1982),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Oxford : Phaidon Press.
6. De Zurko, Edgard Robert (1957), Origins of Functionalist Theory, London : Columbia Univ.
7. Frampton, Kenneth (1980),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London : Thames and Hudson.
8. Lampugnani, Vittorio Magnago (1986), The Thames and Hudson Encyclopedia of 20th-century Architecture, London : The Thames and Hudson Ltd.
9. Mainstone, Rowland J. (1983), Development in Structure Form,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0. Porphyrios, Demetri (1982),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London : cademy Editions.
11. Prak, Niels Luning (1968),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Mouton & Co, Netherlands.
12. Raskin, Eugene (1981), Architecturally, Speaking, New York : Bloch Publishing Company.
13. Spaet, D. (1985), Mies van der Rohe, New York : The Architectural Press.
14. Wright, F. L. Frank Lloyd Wright on Architecture, Selected Writings, New York : Duell, Sloan and Pearce
15. 森田慶一(1977), 「건축론」, 양광웅 역, 서울 : 동명사.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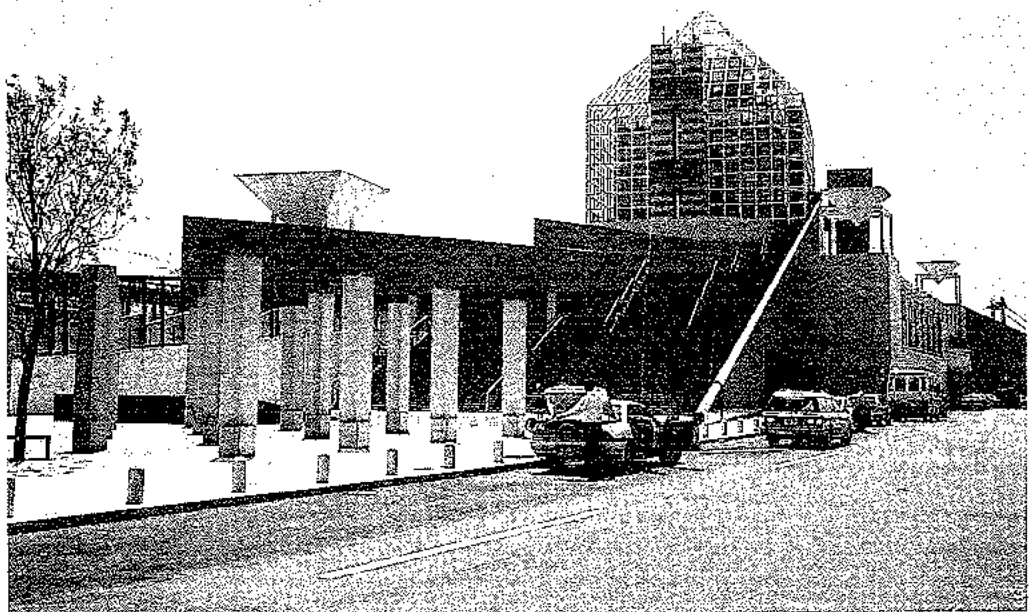
일본의 수변공간개발

Waterfront Development in Japan

金文德 /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 - Duck

“워터 프론트 개발은 도시 중심부의 연장으로서 근대화 도시 이전의 도시 패턴, 「물과 도시의 관계」를 재생시키는 것이다. 그 수변에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가가 또한 과제이다.”

—와타나베 아카즈끼(渡邊 明次)



1

• 해양국가 일본과 수변공간 개발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등 4개의 큰 섬과 약 4천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박람회붐이 퇴조하면서 해양과 관련된 수변공간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거의 도시들은 대부분은 도시기능상 강이나 바다와 인접해있었다. 그 이유는 물은 도시를 활성화하는 쉼터이었던 것이며, 또한 강이나 바다는 주요한 수송로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선박에 의한 수송수단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항만은 불필요한

시설로 전락해 수변은 공동화(空洞化)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공동화된 수변공간은 인적이 없는 무인화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다.

또한 해운업 역시 컨테이너 시스템에 의해 창고공간이 크게 필요치 않게 되어 창고들도 그 기능이 쇠퇴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 수변공간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영국 런던의 독랜드 재개발이나 네델란드의 암스텔담이나 로테담에서의 수변공간 재개발, 미국의 볼티모어 이너하비 재개발 등이 그것으로 이런 수변공간개발 붐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수변은 육지와 물의 접점으로 이곳의 개발은 양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1 하루미 객신타미널 전경

일본의 경우 물과 관련된 축제도 많고 대부분의 중요도시들은 물가와 인접해있어 수변공간의 개발은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현재 그 가능성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속속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례들이 도쿄 하루미(晴海)객선터미널이나 후쿠오카의 베이사이드 플래스(Bayside place) 博多(하카다)부두, 오사카의 덴포산(天保山) 하버 빌리지(Harbor Village), 도쿄의 임해수족관인 것이다.

• 하루미 객선터미널

“내 마음은 새마냥 즐겁게 뿔뿔 솟아올라 뿔뿔 주위를 자유로이 떠돌고 있었다. 배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향해중이었다. 마치 눈부신 태양에 취한 천사처럼.” 보들레르의 「키테라에의 항해」라는 시의 한 구절처럼 바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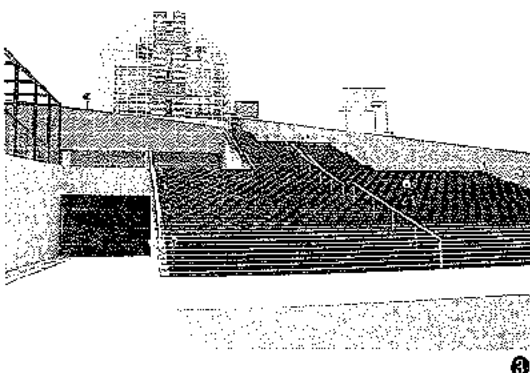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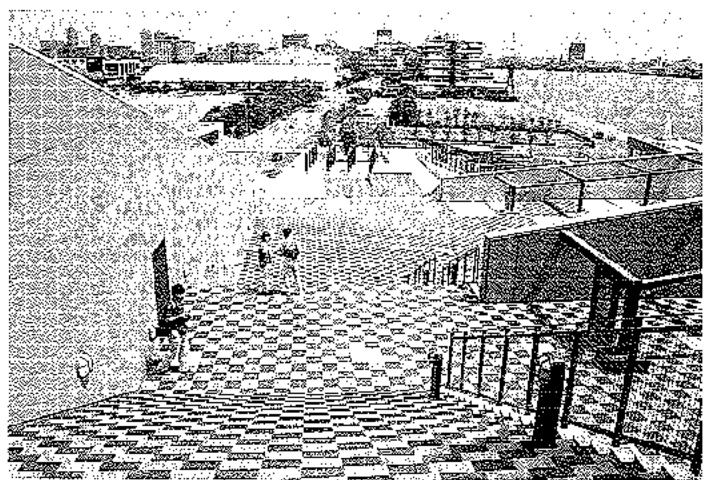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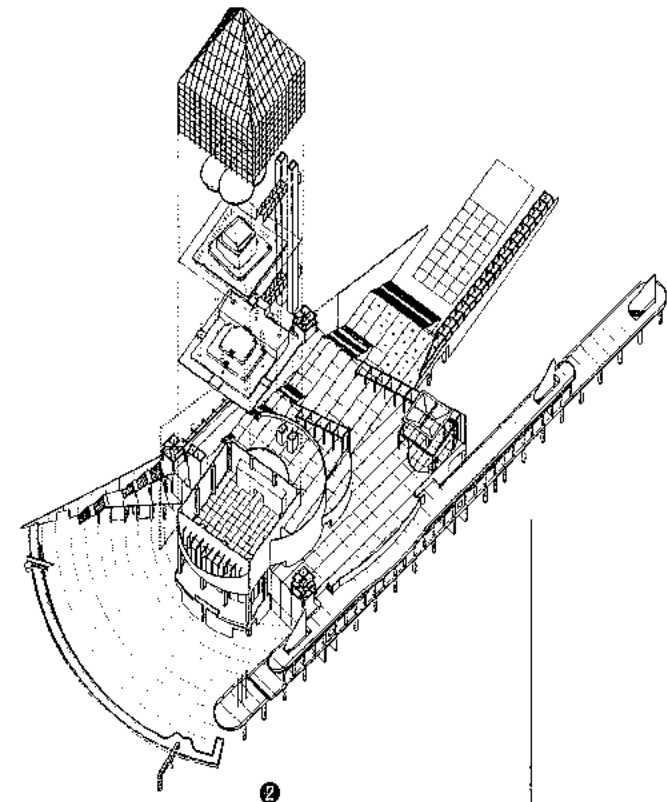
도쿄항 개항 5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항로전용의 객선터미널이 하루미에 계획되었으며 1988년 가을 제안방식의 현상설계에 의해 1991년 여름 완공되었다.

항만국이 요구한 터미널의 주요기능은 크게 2개 기능으로 선객의 출입국관리, 세관수속, 하물검사, 일반관리 등을 위한 공간과 함께 대합로비, 송영택크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이벤트홀, 레스토랑, 갤러리, 광장 등의 부가적 서비스기능이 그것이다. 즉 해외항로 객선에 승하선하는 선객과 송영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내방자를 위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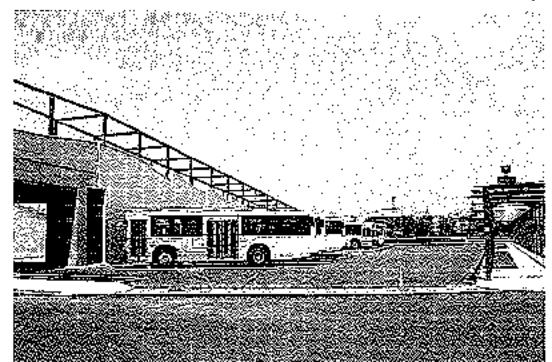
또한 수도 도쿄의 바다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과 임해도시공원의 일부로서의 축제성을 창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부지는 매립지인 하루미 임해부의 동남각지. 이 일대는 기존 도심부와 가깝고 금후예상된 임해부 도심부가 완성되면 바다와 도심기능을 연결하는 결절점이 될 것이다.

건축가 다케야마 미노루(竹山 實)는 1970년 도쿄의 신주쿠(新宿)에 세웠던 일반관과 이벤트관의 외벽에 슈퍼그라픽을 도입하여 이 당시 일본에 있어 포스트모던적 건축을 소개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건축물에 양의적인 의미를 함축시키려는 작업을 계속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설계한 이 객선터미널은 도시와 바다, 인공의 풍경과 자연의 풍경,



- ② 하루미 터미널 엑스포메트릭
- ③ 기반부의 계단이 과장적일 정도로 인상적이다.
- ④ 전면광장을 내려다볼, 격자패턴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 ⑤ 버스 정류장 부분



공업지대와 상업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발과 도착이라는 상반된 단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다케야마는 그가 일반관 등에서 슈퍼그라픽으로 도심속의 랜드마크를 형성했던 것처럼 객선터미널은 형태로서의 랜드마크 내지 씨마크(Sea Mark), 워터마크(Water mark)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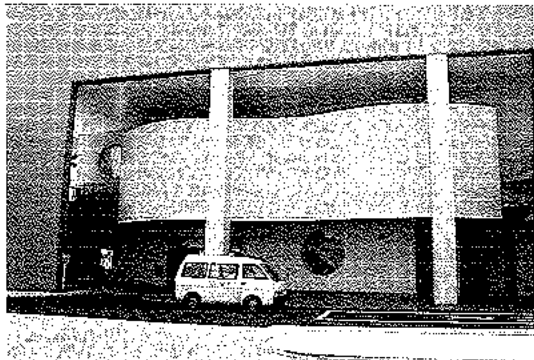
다케야마의 양의적인 이미지를 건축에 투영하는 작업은 이 터미널에도 재속되어 입지의 배치부터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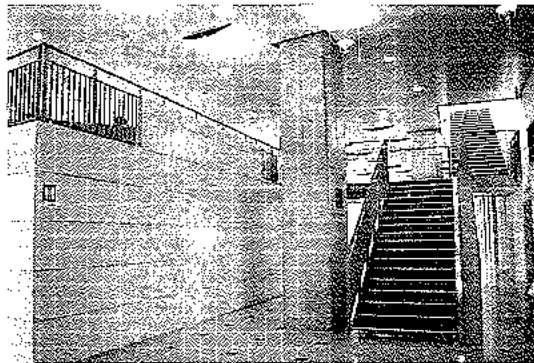
입지의 사회측과 건축물의 주배치축은 서로 약간 엇갈려 배치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주배치축은 도쿄만 입구에 세워진 현수교를 향해 있다.

이 터미널의 외형은 인공적인 언덕에 세워진 집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 집은 여행을 하는 지친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축물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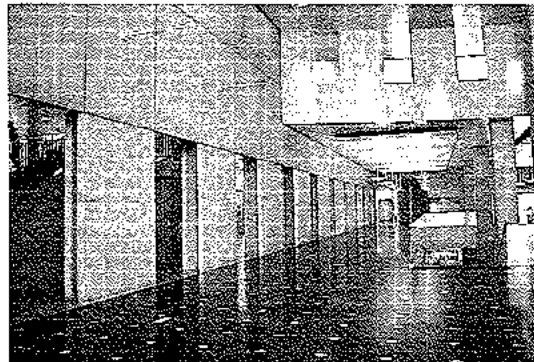
또한 터미널의 집의 형태는 폐쇄된 구조를 지닌 것이 아닌 프레임만으로 구성된 열려진 형태로 구성되어, 바다와 만나는 열려진 공간을 위한 건축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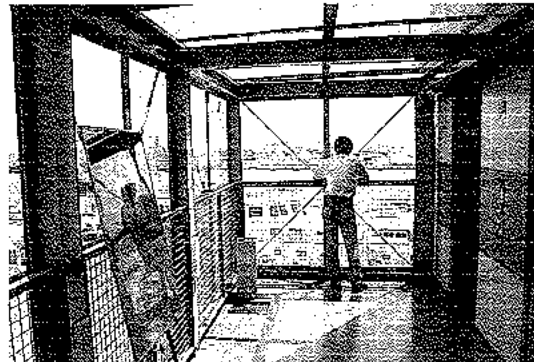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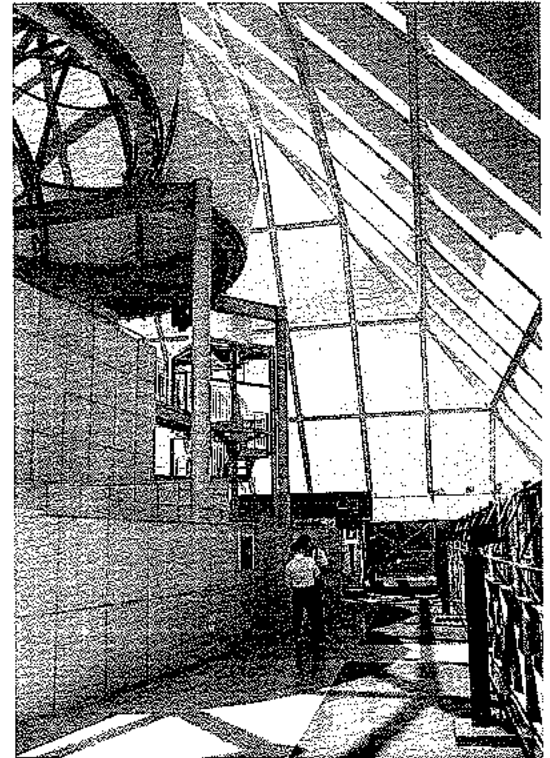
9

- ⑥ 버스 정류장측의 입구부분 벽이 편칭메탈로 파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⑦ 휴게실이 있는 2층의 중이 층공간
- ⑧ 2층의 실내일부를 바라봄.
- ⑨ 브릿지에서 외부를 바라봄
- ⑩ 전망대의 갤러리 상부는 구형의 돔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집의 형태를 한 골격에 호화객선에서 보이는 브릿지나 마스트 등이 형상화된 구조물들이 부가되어 있으며 기단부는 기대한 계단의 처리에 의해 보차분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층별구성은 1층부가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기계실, 임해광장 그리고 카페테라스, 2층부가 대합로비, 검사실, 메인라운지, 쇼핑스페이스, 플라자, 3층부가 송영플라자, 송영데크, 송영로비, 4층부가 홀, 5층부가 레스토랑, 6층부가 터미널갤러리겸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미 객선터미널을 방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10

패러터미널로 가자고 하자 엉뚱하게 화물을 위한 터미널로 가서 시간과 경비를 다같이 허비하였던 기억이 나는 이 하루미 터미널은, 작년 여름 방문당시 완공한 지 얼마안되어 홍보가 별로 안된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택시로 터미널 가까이 접근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층 기단부의 계단과 상부에 집의 형태를 한 상부구조였다. 터미널의 전면광장에 서자 수목사이로 보이는 적색으로 도색된 철골기둥들이 오브제처럼 원자와 같이 여행간 동료를 맞이하였다.

격자형으로 배치된 철골기둥들에 인접해 바닥이 경사진 구조가 있었는데 아마도 물이 경사구조를 따라 흐르게 처리된 조형물 같았다.

전면광장에서 바라보는 계단은 보차분리를 위한 기능적 장치로 느껴지기 보다는 조형적인, 약간은 과장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좌측의 철골의 골조프레임으로 상부가 구성된 경사로 구조가 계단과 함께 시각적 시퀀스를 유발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경사로의 난간은 파도의 이미지를 유추한 곡선형을 취하여 이 건축물이 수변과 관련된 건축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일본현대건축에서 과장된 계단처리는 안도와 같은 건축가의 작품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지만, 르 꼬르뷔제의 건축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사로나 계단 = 시퀀스 장치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터미널건축의 기본형태는 격자패턴의 변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격자패턴의 틀에 축의 변화와 파도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곡선의 도입에 의해 격자라는 틀의 엄격성을 탈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선객들은 1층부분의 파도형의 편칭메탈이 벽에 장식된 벽면을 따라 1층 입구홀로 들어가게 된다.

1층 입구홀에는 풀형의 조명들이 열을 지어 서있어 거리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었고 2층부분의 대합로비는 완만한 경사의 에스카레이터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터미널 경우, 동선의 흐름 등을 고려해 입구홀에서 대합로비로 진입하는 것을 같은 레벨로 처리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다케야마 미노루는 그와 같은 처리가 공간의 극적인 연출의 심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즉 대부분의 선객들이 이 입구홀에 서면, 바다가 바라보이는 홀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존관념을 역전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오히려 입구홀은 어둡고 거리같은 분위기로 의도되어 있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서서히 대합로비로 오르면 바다가 보이는 개방적인 시야가 펼쳐지고 동시에 감정을 에스칼레이트시키는 연출을 의도하고 있었다.

2층의 대합로비에는 적색으로 도색된, 오브제처럼 처리된 벤취들이 있어 노출콘크리트로 처리된 드라이한 실내공간에 임팩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 2층공간의 부분 부분을 적색, 녹색, 황색으로 도색하여 실내공간을 활성화하고 있었고 천장에는 곡선으로 처리된 편칭메탈판이 부착되어 있는 천장면을 조명으로 반사시켜 빛의 파도가 잔잔하게 실내를 흐르는 것같은 연출을 의도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오르면, 전망대의 철제 프레임사이로 도쿄시내가 멀리 바라다 보였다.

맨처음 이 전망대를 보면서 상부전망대의 내부는 유리가 덮여있는 줄 알았지만 올라와 보니 개방되어 있었다.

4개의 구형 텐트구조물에 설치된 적색으로 도색된 갤러리에서 너리갈을 바람결에 휘날리며 바라보는 바다는 필자의 마음을 이미 바다 한가운데로 향하게 하고 있었다. 개방된 시야와 바람은 여름이라서 그런지 특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몇년전 신주쿠에 있는 일반관이나 이번관을 보고 그 퇴락한 모습에 실망한 적이 있는 필자에게는 이 하루미 터미널이 다케야마의 역량을 인식시켜준 계기라고 생각되었다.

이 터미널의 계단을 따라서 전면광장에 다시 내려오니 몇 명의 젊은이들이 리모트 콘트롤로 조종하는 미니취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터미널의 광장이 멀지않은 장래에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터미널을 떠났다.

• 도쿄도 입해수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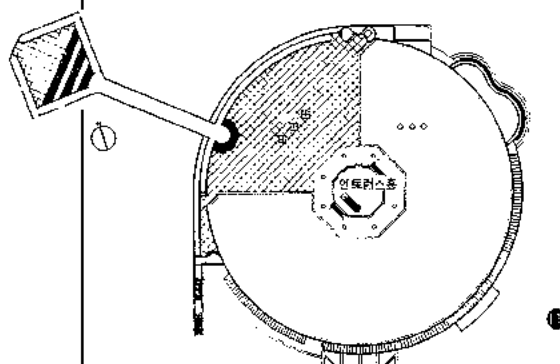
입해수족관은 하루미 객선터미널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수족관이다.

최근 일본에 세워지고 있는 수족관들은 교육적인 공간인 동시에 위락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 도쿄도 입해수족관은 도쿄 디즈니랜드와도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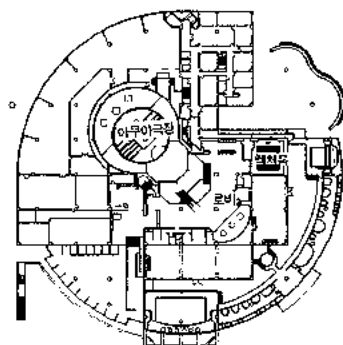
이 지역은 도쿄도에 남은 최후의 귀중한 해변의 장소이고 주변은 공원으로 정비된 넓은 녹지지역에 이 수족관이 배치되어 있다.

과연 수족관이란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

국내에서도 63빌딩내에 소규모 수족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던 필자에게 있어 대규모로 계획된 수족관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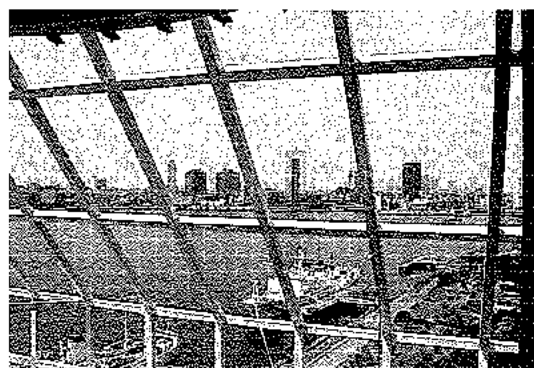
3층平面



2층平面



断面



- ① 도쿄도 입해공원 수족관 3층평면도
- ② 도쿄도 입해공원 수족관 2층평면도
- ③ 도쿄도 입해공원 수족관 단면도
- ④ 갤러리에서 도쿄를 바라봄.

이 수족관을 설계한 다니구찌 요시오(谷口 吉生)는 이 수족관의 설계방침을

1) 설계하는 건축물이 수족관이고 부지가 해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자를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해야 한다.

즉 단순히 물고기를 전시하기 위한 시설만이 아닌 아름다운 해변의 총체적 환경을 창조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한다. 수족관의 본관인 건축물과 주변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물이 있는 경관을 삽입하여 부지와 바다가 일체화가 되도록 의도한다.

건축은 양식적 표현을 피하고 기능기한 추상화된 기하학적 형으로 구성한다. 건축물의 전체높이를 낮게 하여 입구측에서 볼때 건축물의 전모가 노출되지 않도록 의도하고 상부 유리돔만 주변경관에서 돌출되도록 하여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2) 환상적인 세계를 내부에 전시하는 계획에 어울리게 비밀상적인 공간의 연출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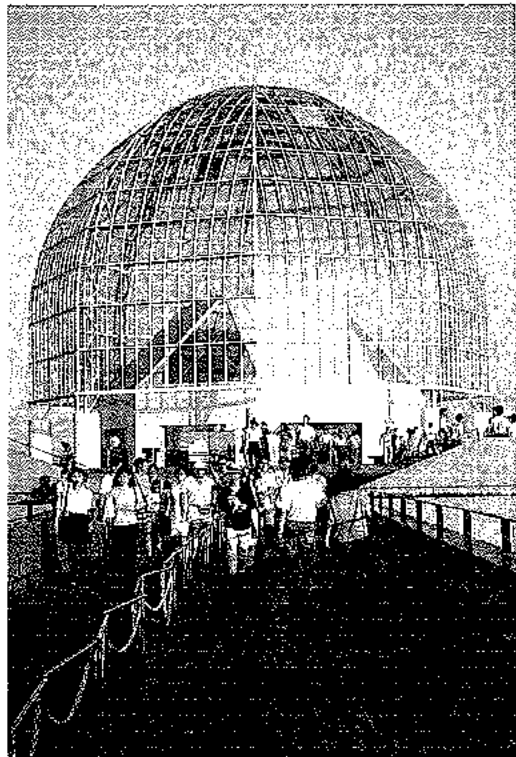
부지에서 바다를 보이는 디즈니랜드는 이런 허구에 의한 비밀상성을 주제로 하는 시설로는 대표적인 것이다.

부지는 수목으로 둘러싸이도록 하여 주변에서 완전히 격리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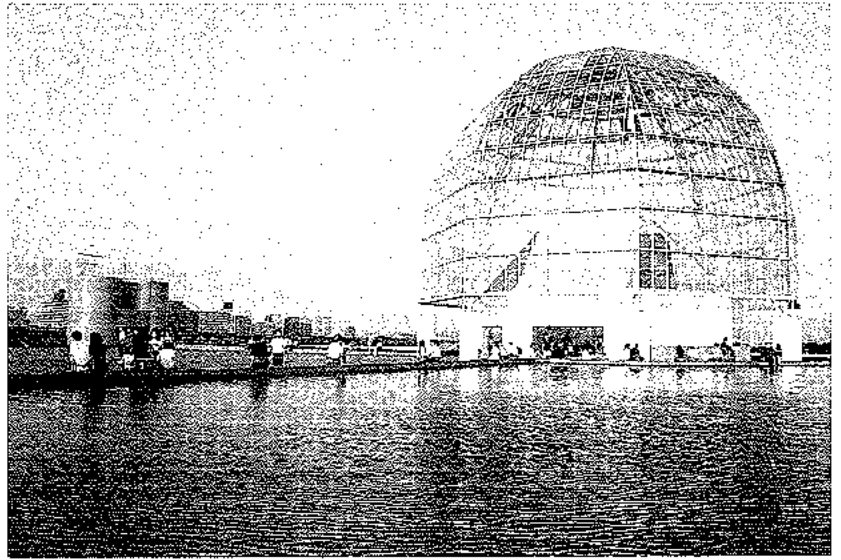
수족관 자체는 부지와 주변의 자연경관을 밀접하게



15



16



17

연결시켜 도쿄만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삽입하면서 도쿄 교유의 풍경중에 바일상적인 공간구성을 연출하도록 시도한다.

본관의 접근동선은 단지 입구부근에 있는 물의 광장을 기점으로 시작하여 사람의 이동에 의해 변화하는 공간의 연결로 계획되도록 한다.

물의 광장은 길이 100m, 폭 40m로 대기장소와 수족관을 순회한 후의 휴식장소로도 의도한다.

광장전면의 벽천의 물소리가 물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암시한다.

긴 벽천의 능선상으로 상부 유리돔이 보이게 하여 목적지를 인식케 한다.

수족관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동선에서 입구 정문부분이 지중으로 매몰되어 마름모형의 정문광장을 지나면 돌연 하늘로 향한 공간이 전개되고 수족관과 도쿄만의 웅대한 바다가 전개되도록 한다.

건축가 다니구찌 요시오는 1937년 도쿄출신으로 1960년 게이오(慶應)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1964년 하바드대학 건축학 석사과정 수료후 1965~72년 도쿄대학 단계 건축연구소 및 도시건축설계연구소 소속. 1978년 다니구찌 건축설계연구소를 설립한 건축가로 근대적인 디자인 취향을 지니고 있다.

수족관의 기본형태는 원형 평면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상인 진입부의 레벨에서는 원형의 1/4이 입구광장이고 3/4은 분수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심에 수면에 떠있는 것처럼 세워진 유리돔은 높이 21m로 평면이 8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엄격한 기하학의 입체와 주변의 웅대한 자연이

15 진입로에서 바라본 수족관 상부 유리돔.

16 계단을 오르면 수족관 유리돔 전모가 나타난다.

17 수족관의 옥상부의 3/4은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연못에 물의 분무로 연출된 전경.

물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텐트구조는 옥외휴게공간인 텐트구조.



18

서로 대비되게하여 도쿄만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도록 의도한다.

이런 의도로 설계된 도쿄도 입해수족관에 도착하니 이 수족관이 있는 공원을 위해서 새로운 전철정류장이 신설되어 있었고 주변은 녹지로 이루어진 공원이었다.

전철정류장이 있는 광장에서 다리를 지나서 수족관쪽으로 진입하니 도쿄도 입해수족관이라는 로고가 부착된, 벽천이 있는 물의 광장이 나타났고, 긴 벽천구조물 위로 수족관의 유리돔 상부가 보였다.

이 진입부는 동양건축의 진입수법처럼 처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멀리 보이는 수족관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목으로 덮힌 구릉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과 일체화된 건축물일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마름모형 평면의 정문 입구에 서자, 가로지른 거대한 보와 같은 구조물이 수족관의 전모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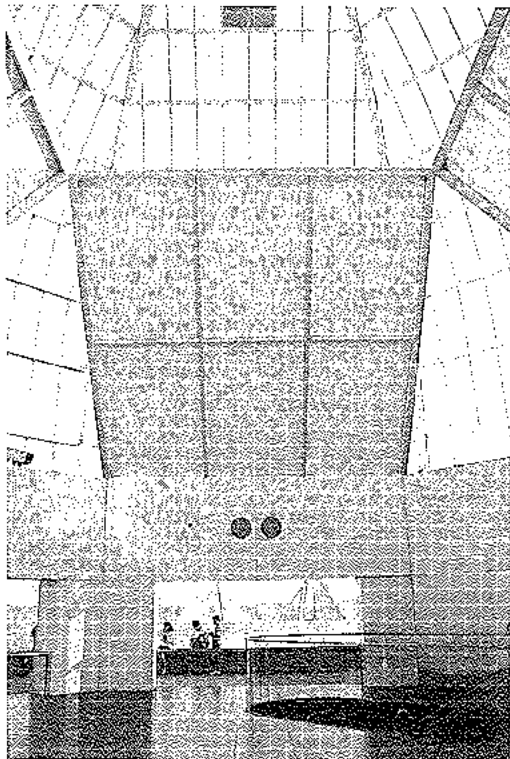
이 게이트에서 표를 사고 계단을 따라 올라서 브릿지를 건너면 수족관의 유리돔이 있는 광장이 나타났다.

이 유리돔을 둘러싼 연못에서는 몇분 간격으로 수증기처럼, 물이 분무되도록 연출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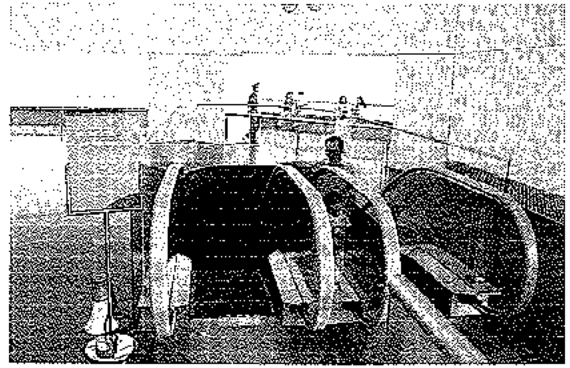
이 수족관의 옥상인 광장에서 바다쪽을 바라보니 선글렌 해변가의 공간은 뭇처럼 형상화된, 텐트구조로 상부가 처리된 옥외 휴게공간이 보였다.

유리돔의 파빌리온은 크노소스의 미궁과 같은 인공적인 지하의 전시공간으로 진입하는 입구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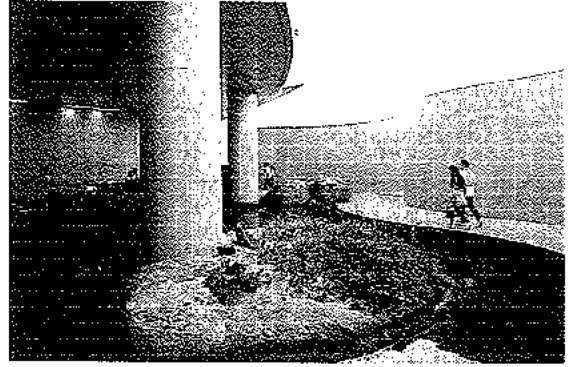
마치 한스 홀라인(Hans Hollein)이 설계한 독일의 멘헨그라트바흐미술관이 구릉의 지하공간에 건축되어 구릉 정상부의 박스형 입구를 통해 지하전시공간으로 진입하는 개념처럼 이 수족관도 설계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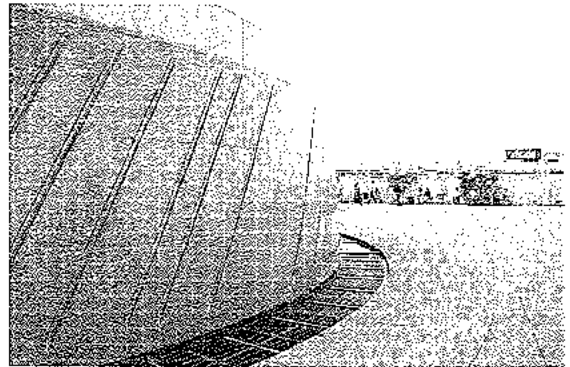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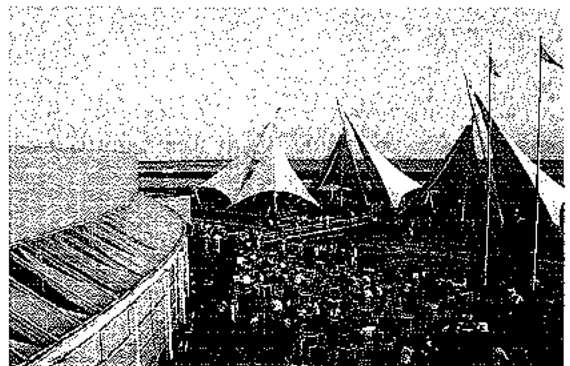
20



21



22



23

- 19 유리돔 상부는 일부가 텐트로 설치되어 일조를 차단한다.
- 20 유리돔 실내의 전시장으로 진입하는 에스케이타터
- 21 파동장치가 시뮬레이션화되어 보여주는 옥외 전시공간 외벽이 파동형으로 처리되어 있다.
- 22 옥외 전시공간 외벽의 흠을 따라 물이 흘러내린다.
- 23 옥외 휴게공간 유리 천창 하부는 레스토랑이다.

유리돔 내부에는 2개의 에스케이타터가 설치되어 있고 돔상부는 텐트구조로 일광이 부분적으로 차단되도록 되어 있었다.

지하처럼 처리된 전시공간으로 에스케이타터를 타고 내려가면, 에스케이타터를 기점으로 나선상으로 형성된 전시공간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수족관의 전시시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마치 서클비전처럼 처리된, 관람객들이 경사로 처리된 원형극장같은 객석에 앉으면 수족마리의 참치가 원형으로 구성된 수조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전시공간이었다.

이외에도 해조(海鳥)와 물고기를 동시에 관찰이 가능한 전시수조, 파동장치에 의해 해조(海潮)의 간만을 시뮬레이션화한 전시공간등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도쿄의 바다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천창이 있는 밝은 전시공간에, 세계각국에서 수집한 물고기들은 어두운 공간에 전시하여 서로 대비되도록 처리하였다.

파동장치를 시뮬레이션화해서 보여주는 전시공간은 옥외와 연결된 곳으로 그 외벽은 피아노라인의 파도형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외부의 벽에는 흙이 파여있어 벽상부에서 흙을 따라 흐르던 물들이 하부에서는 튀어서 떨어지도록 처리된 디테일이 흥미있었다.

전시공간이 끝나는 곳에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코너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레스토랑 천장부에는 해변과 관련된 건축물감개 텐트구조물로 그 일부를 장식하고 있었다.

건축가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는 수족관을 처음 설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관과 진입하는 진입로의 시퀀스 등은 잘 연출하고 있었지만 수족관의 전시공간은 오사카의 덴포잔 하버 빌리지 수족관에 비해 전시연출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다.

저녁이 되어 이 수족관을 뒤로 하면서 나올 때, 저 멀리 어두운 주변환경 속에 조명으로 밝은 유리돔이 마치 바다 저멀리에 보이는 등대처럼 보였다.

• 덴포잔(天保山) 하버 빌리지

지난 여름의 여행에서 오사카를 방문한 것의 주목적은 캠브릿지 세븐(Cambridge 7) 어소시에츠에서 설계한 덴포잔 하버 빌리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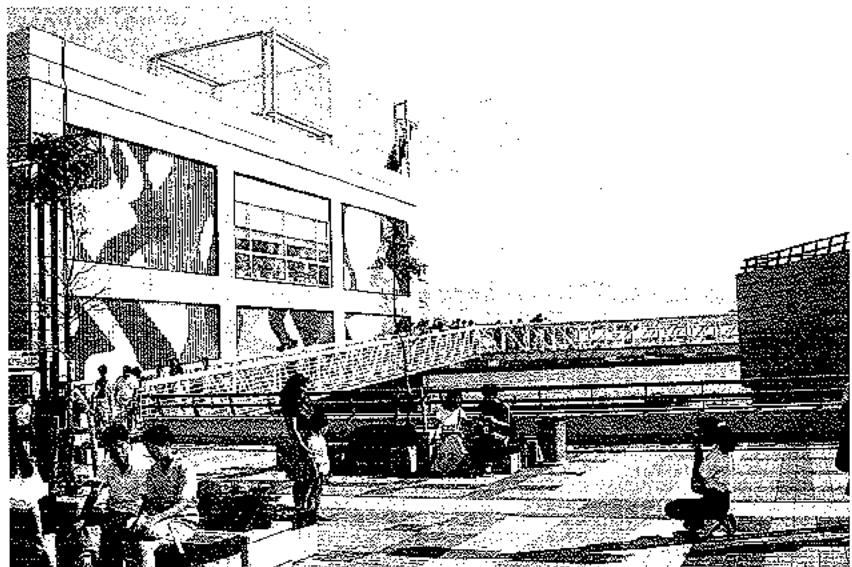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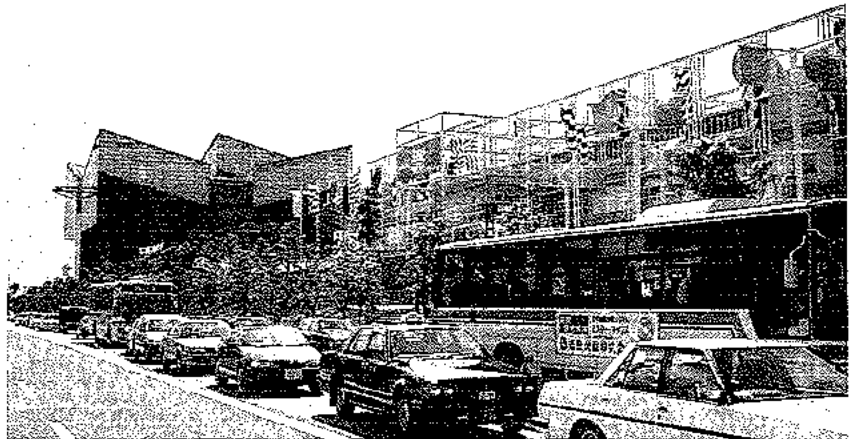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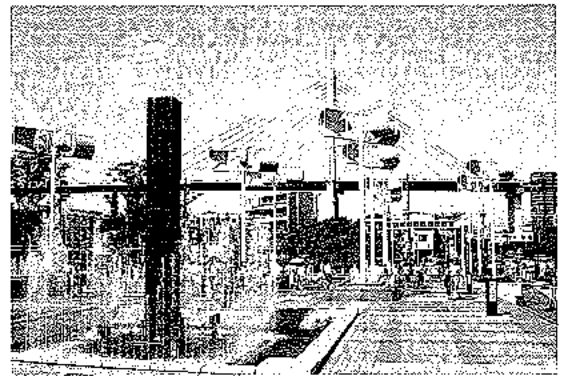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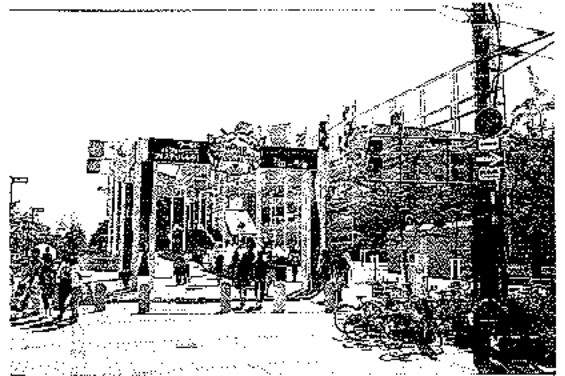
실제 오사카에서 다른 건축물을 방문한 것이 없던 것도 사실이었다.

덴포잔 하버 빌리지가 여행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 건축가그룹이 주로 수족관건축으로 유명해진 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볼티모어 수족관(1981) 등의 완공과 함께 몇 개의 수족관건축으로 유명한 이 캠브릿지 세븐 어소시에츠는 피터 샤마이어프(Peter Chermayeff)를 중심으로 1960년대 7인의 멤버로 구성된 팀으로 건축가, 도시계획가, 그래픽디자이너와 공업디자이너라는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4개의 수족관을 완성했던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자연사박물관과 복합시켜 제안한 볼티모어 수족관, 그리고 테네시 수족관(1992), 보스톤의 뉴 잉글랜드 수족관(1975)과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덴포잔 하버 빌리지가 그것이다. 이 팀의 장점은 건축과 전시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계획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에서 전시 및 환경에 이르는 계획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만의 수변에 건축된 덴포잔 하버 빌리지 수족관은 환태평양화산대에 있어서 화산활동을 상징한 「화산대」를 삼불마크로 하는 것에 의해 광대한 태평양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 ④ 덴포잔 하버빌리지의 진입로
- ⑤ 진입로는 분수와 조형을 배너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⑥ 마켓플레이스와 수족관을 바라봄
- ⑦ 마켓플레이스 건물 측면의 전망대
- ⑧ 마켓플레이스 내부
- ⑨ 덴포잔 하버빌리지 배치도
- ⑩ 덴포잔 하버빌리지 7층평면도
- ⑪ 덴포잔 하버빌리지 수족관 3층평면도
- ⑫ 마켓 플레이스 내부의 원형광장, 서커스 등이 열린다.





이 수족관에서 관람자들은 「화산대」를 따라 각각의 기후지대로 분류된 서식지를 모방한 전시실을 통해 시계방향으로 동선이 처리되도록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일본,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에쿠아도르와 갈라파고스 제도(諸島), 칠레의 해안, 남극대륙, 뉴질랜드, 북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연결된 전시공간을 따라 관람객들은 16,000m² 면적의 수족관으로 내려가면서 각 전시를 수면상으로부터 수면하까지 감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관람객용 통로는 수조사이를 통과하며 이루어진 터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수족관은 거대한 십자형(十字形) 수조(태평양)를 중심으로 「환태평양화산대」로 대응된 위치에 8개의 수조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 수족관사이의 공간이 관람객 동선을 위한 터널로 이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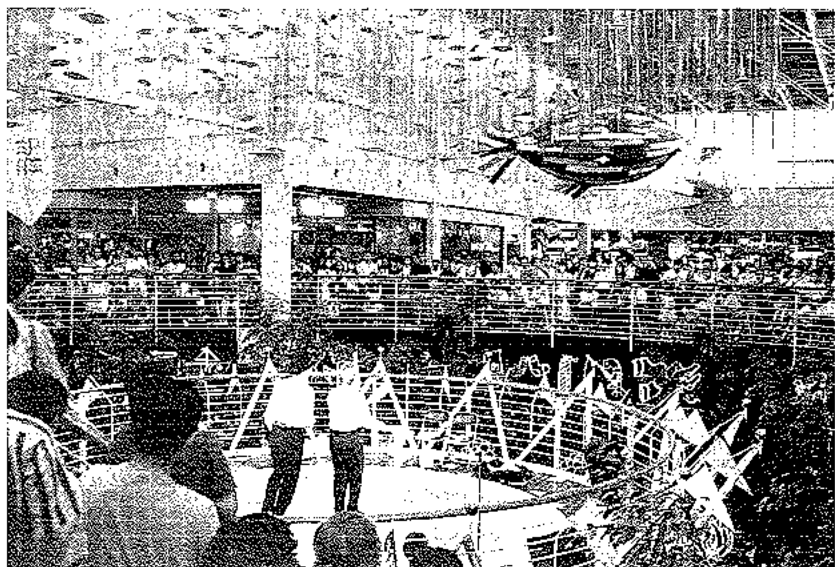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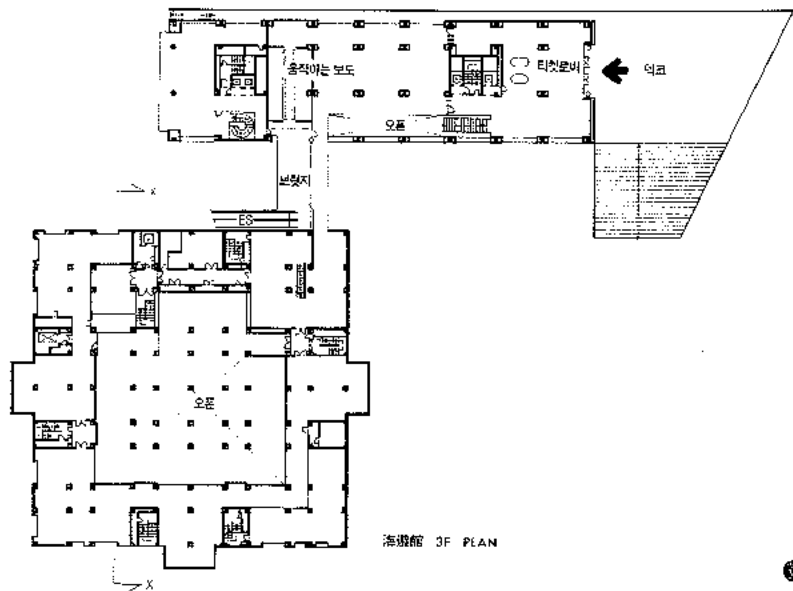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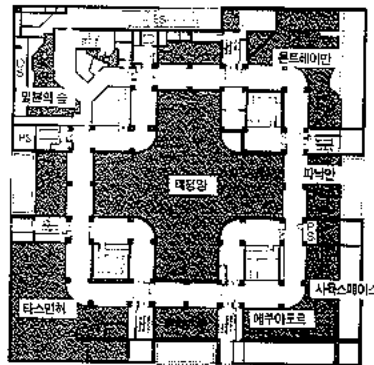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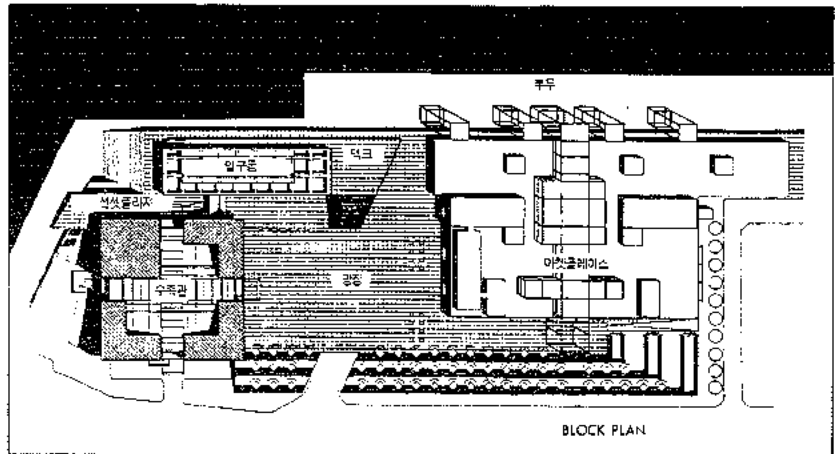
이런 전시동선 시스템에 의해 물 밑으로 내려가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생물의 형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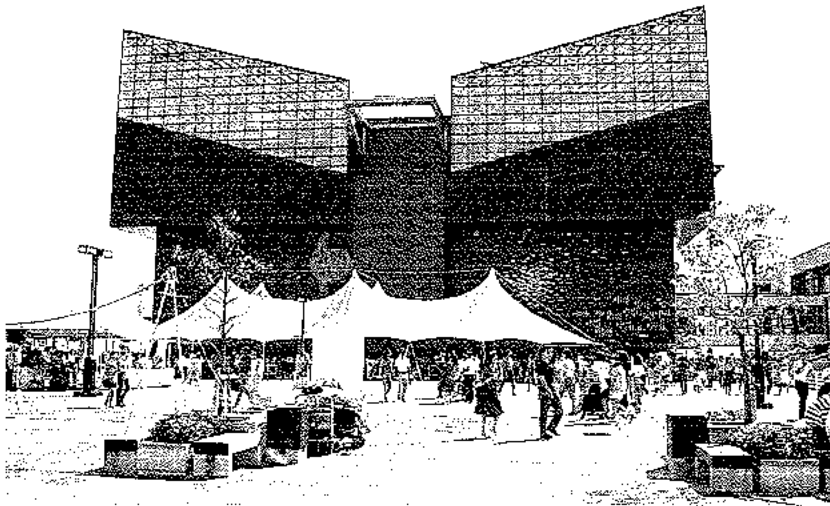
이 수족관 기능외에도 각국의 음식 및 물품판매와 이벤트기능이 가미된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에 의해 도시 위락공간의 성격으로 조성된 복합시설인 것이다.

이 수족관의 건축과 전시의 기본개념은 캠프리트지 새본 어소시에츠가 작성하였고 일본내에서의 실시설계는 환경개발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의 컨설턴트디벨로퍼로 엔터프라이즈 컴패니가 참여하여 「페스티벌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을 실현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수족관과 마켓플레이스의 기본 형태와 공간개념은 전자는 매시브한 심볼릭한 형태로, 후자는 밝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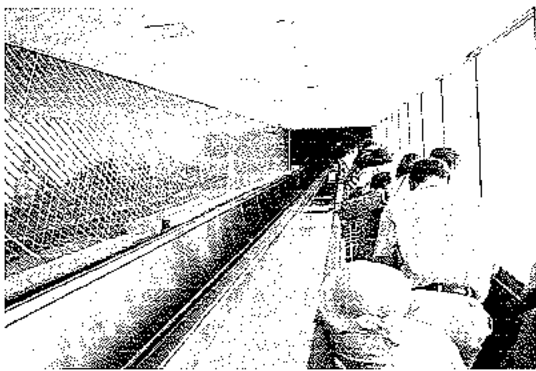


즉 건축은 공업적 이미지를 지니면서도 조형물과 배너 그리고 분수 등에 의해 밝고 경쾌하며 축제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마켓플레이스내의 원형으로 처리된 로툰다공간은 특히 역사이팅한 구성 등에 의해 축제적인 분위기가 잘 표출되도록 하였다.

계획에 있어 전체적인 개념은 항상 바다를 의식하면서, 관광객들인 도시인들이 바다나 선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석양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연인과 담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이 수변공간의 개발에 대해 엔터프라이즈 컴패니의 회장인 제임스 W. 라우스는 이 개발의 개념을 1) 지나치게 건축에 치중하지 않을 것과 지나치게 이익을 구하지 말 것, 2) 지역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을



- ③ 수족관 전경
광장에서 바라봄
- ④ 수족관은 먼저 아트리움으로 처리된 상부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 ⑤ 환태평양 화산대를 상징하는 지구, 이 수족관의 전시 개념이다.
- ⑥ 먼저 지상부의 자연이 전개된다.

인식하여 그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고려한다. 3) 사람들이 즐기고 활기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고려하면 건축과 상업개발 양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템포잔 하버 빌리지에 도착한 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붐비고 있었다.

진입로 부근은 분수, 배너가 걸려있는 폴형 구조물과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조형물에 의해 축제적 분위기로 가득차 있었다.

이 템포잔지역은 하역창고로 이용되던 선착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미나토(港)구 카이간(海岸)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 하버 빌리지 측면에는 그 당시 공사중이던 고속도로용 고가도로도 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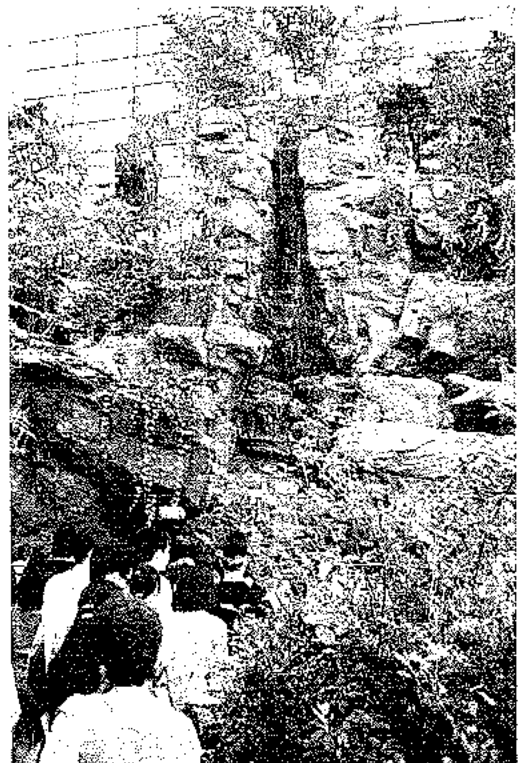
수족관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인공택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 택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에스카레이터나 계단으로 진입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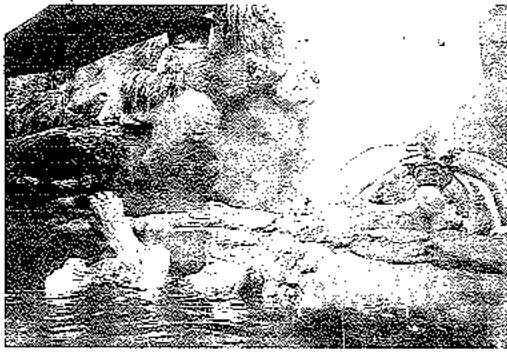
진입로를 따라 세워져 있는 백색으로 외벽이 마감된 마켓플레이스를 지나자 수족관의 전모가 서서히 나타났다.

마켓플레이스는 배너가 걸려있는 구조물에 의해 쇼핑몰의 분위기를 잘 표출하고 있었으며 수족관은 하부에 타일로 그래픽하게 처리된 바다의 정경과 상부에 돌출된, 적색타일마감의 상부구조물, 그리고 그위에 사선으로 처리된 커튼월의 아트리움구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바다의 세계와 육지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이 전시관 건축물에서 전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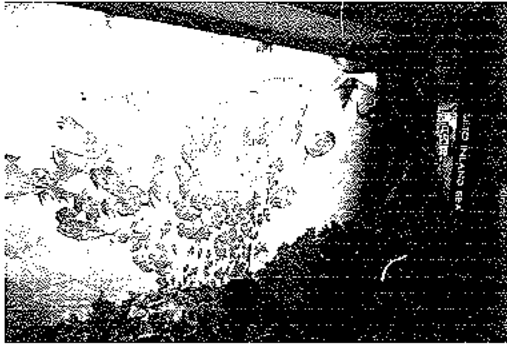
상부의 돌출된 메스사이아 황색 캔티레비 구조로 설치된 철제구조물은 전시품을 반입하기 위한 구조물처럼 보였다.

수족관과 마켓플레이스 사이에는 대기하는 관람자를





37



38

위한 광장이 있었고 마켓플레이스 측면의 바다로 향해 개방된 공간에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요일이라서 관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공간에 가서 줄을 서니 즉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몇분까지 오라는 티켓을 배부하고 있었다.

약 40여분의 시간이 생겨 마켓플레이스로 발걸음 향했다.

마켓플레이스 내부는 쇼핑물의 개념으로 처리되어 천장에는 바다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매달려 있고 중앙에는 원형광장이 있었다.

이 원형광장에서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참 비슷한 부분에 원형의 무대가 설치되어 몇 시간 간격으로 서커스를 공연하고 있었다.

식당가나 쇼핑가를 둘러보니 대부분 바다와 관련된 상품을 개발해서 팔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족관하면 교육적인, 딱딱하게 느껴지기 쉬우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느낀 것은 완전히 상업적인 공간으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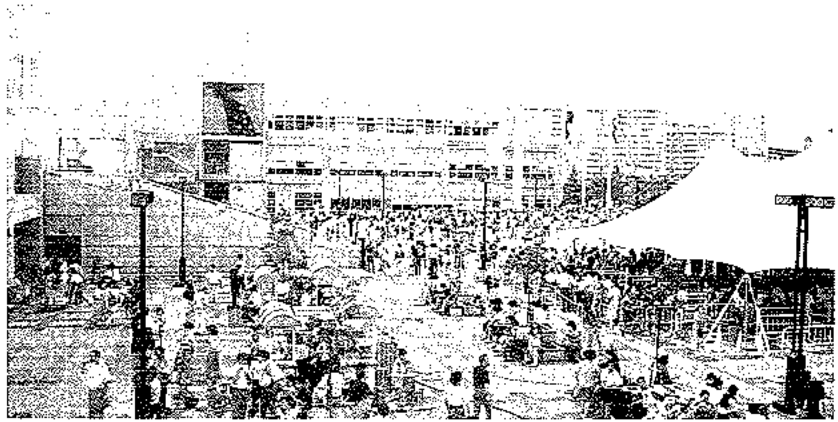
역시 캠프리지 세븐 어소시에츠는 미국적인 디즈니랜드식의 접근방법으로 이 하버 빌리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오히려 도쿄도 임해공원은 이 하버 빌리지에 비하면 훨씬 비상업적이고 교육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수족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장으로 나오자 광장의 한편에서는 판토마임을 하는 사람이 관광객들에게 둘러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과연 미국적 상업주의의 엔터테인먼트적 감각은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실감되었다.

이런 건축물이라는 하드웨어와 함께 행사같은 소프트웨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보였다.

이 하버 빌리지의 축제적 분위기는 수족관 외부에 표현된 슈퍼그래픽이나 배너 그리고 바람에 의해



39

움직이는 조형물 못지않게 이런 행사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족관에 들어가기위해 우측의 해변가에 자리잡은 부속동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부속동과 수족관사이에 연결된 브릿지를 통해 수족관에 들어가자, 상부로 오르는 상당히 긴 에스캐레이터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에스캐레이터로 진입한 상층부에는 이 수족관의 전시가 환태평양 화산대를 연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었다.

이 곳을 지나자 지붕이 유리로 덮여있는 지상의 자연세계가 나왔다.

암벽과 수목으로 이루어진 전시공간을 따라 지하동굴의 전시공간으로 들어가자 서서히 물의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수달이나 악어, 펭귄의 생활을 볼 수 있는 물가의 세계에서 시계방향의 전시터널을 따라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각지의 바다의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의 전시존이 바뀌는 곳을 암시하는 구조물과 안내에 의해 환태평양 지역의 각지의 바다 세계를 감상할 수 있었다.

전시개념은 상당히 재미있었지만, 일요일이라 그런지 워낙 관람객들이 많아서 복잡하였다.

어느 정도 내려가자 휴게시설도 있어 휴식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었다. 전시를 다 보고나서 3면이 바다인 국내의 경우도 우리의 자연을 알리며 교육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처럼 환태평양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의 자연과 물의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전시공간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바다와 수변공간은 또 하나의 무한한 보고(寶庫)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하버 빌리지를 떠났다.

참고 문헌

- 1) 상점건축 1991년 8월호
 - 2) 신건축 1991년 8월호
 - 3) 신건축 1989년 11월호
 - 4) JA 건축연감(1990년), 1991년분호
 - 5) SD 1989년 3월호 (캠프릿지 세븐 어소시에츠 특집)
 - 6) JAPAN INTERIOR DESIGN 1982년 8월호 (캠프릿지 세븐 어소시에츠 특집)
- ① 서서히 지하터널로 진입하면서 물속의 세계가 나타난다.
- ② 각 지역의 어족을 보여주는 전시공간
- ③ 대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광장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과 반영 비교

STATISTICS

올해 6월 1일에 시행될 건축법에 맞추어 지난 3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건설부 및 시, 도 건축관련 공무원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견을 수렴, 본 협회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진의했다.
다음은 그동안 건설부와 협의·설정된 내용을 비교·검토한 것이다.

조 문 내 용	입 법 예 고 (안)	본협회 의견	결 과
지하층의 정의 (제2조)	모든 건축물 : $h \geq 2/3H$	- 일반건축물 : $h \geq 2/3H$ - 다세대·단독주택 : $h \geq 1/2H$	모든건축물은 $h \geq 2/3H$로 된것을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은 $h \geq 1/2$ H로 정함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제6조)	○ 건축에 관한 계획은 사전결정 대상 : 건축물용도 및 규모 ● 연면적 500m² 이상으로서 용도, 규모 등은 조례에서 정함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용도 및 규모 - 연면적 10,000m² 이상 건축물 : 위탁시 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 연면적 25,000m² 이상 : 모든건축물 (공동주택, 공장제외) * 연면적은 주차장, 부대시설, 기계설비실 은 제외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용도 및 규모 - 연면적 500m² 이상을 5층이상 또는 연 면적 2,000m² 이상 건축물 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 함
건축허가 (제7조)	○ 건설부장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4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0m²이 상 건축물(공동주택 및 공장은 제외) ○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11층(또는 7층)이상 41층미만이거나 연면적 50,000m²(또는 30,000 m²) 이상 300,000m²미만	○ 건설부장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입법예고(안) 대로 ○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21층이상 41층미만이거나 100,000 m²이상 300,000m²미만 건축물(단, 공동주택 및 공장은 제외)	○ 건설부장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입법예고(안)과 동일 ○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입법예고(안)과 동일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제11조)	○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사항 ● 연면적 20m² 이하로서 연면적의 1/10 이하 변경되는 건축물 ● 높이 0.5m이하로서 전체높이의 1/10 이하 변경되는 높이 ● 변경되는 위치가 1m이하 건축물 ●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신 설	○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사항 ● 연면적 50m² 이하로서 연면적의 1/10 이하 변경되는 건축물 ● 변경되는 위치가 동일대지내에 있는 건 축물 ●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 전체높이의 1/10이하 변경되는 건 축물 ● 용도변경 및 기초구조변경	○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사항 - 연면적 20m² 이하로서 연면적의 1/10 이하 를 "연면적50m²이하
건축허가의 제한(제12조)	○ 건설부장관, 시·도지사의 건축허 가 제한	○ 건설부장관, 시·도지사의 건축허 가 제한	○ 건설부장관, 시·도지사의 건축허 가 제한

조 문 내 용	입 법 예 고 (안)	본 협 회 의 견	결 과																														
	• 목 적 : 대상구역, 대상건축물을 상세하게 할 것 • 제한기간 : 2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동안 연기 가능함	• 목 적 : 대상구역, 대상건축물을 상세하게 할 것 • 제한기간 : 1년이하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동안 연기 가능	- 입법예고(안)과 동일																														
중간검사 (제 15조)	○중간검사 시기 ①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콘크리트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기초 철근배치 완료시 기타구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시 ②단열시공이 50%공정에 달할 때 (조립식건축물은 제외) ③공동주택 : 매 3개층슬라브 배근 완료시 ④5층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옥상슬라브 배근 완료시	○중간검사 시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콘크리트조 : 기초철근배치 완료시 기타구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시 - 삭제 : ②, ③, ④	○중간검사 시기 - “공동주택의 경우 매 3개층을 슬라브 배근 완료시”를 매 5개층으로 함																														
공사감리 (제 19조)	○ “건축사보 경력5년 이상인자”로 하여금 상주감리 대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여야 한다. (부분개정)	건축사보 경력자를 하향조정	“건축사보 경력5년 이상인자”를 건축사보로 함																														
건축설비의 설계 (제 88조)	-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때는 해당 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함. - 상기 설계자(해당기술사)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설계를 하여야 함	-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때는 해당 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함(단, 공동주택의 개별 난방은 제외) - 상기 설계자(해당기술사)는 건축사의 책임(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함	• 개별 난방은 설치한 공동주택은 해당 기술사의 설계에서 제외 - 해당 기술사는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함																														
임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 83조)	1. 인지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 <table><tr><th>대 상 건축물</th><th>층수 및 높이</th><th>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th></tr><tr><td>•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td><td>1층 2층 3층 4층</td><td>1이상 2이상 4이상 높이의 1/2 이상</td></tr></table>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서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 - 예외규정 ①건축물 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폭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택지 개발예정지구, 새로이 조성되는 시가지 등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음	대 상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	•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층 2층 3층 4층	1이상 2이상 4이상 높이의 1/2 이상	1. 인지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 제1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새로이 조성되는 시가지 등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이 있는 지역에도 과감히 정남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 건축함 제2안) • 다음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table><tr><th>대 상 건축물</th><th>층수 및 높이</th><th>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th></tr><tr><td>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td><td>높이8m 이하</td><td>1-2 이하</td></tr><tr><td></td><td>높이12 이하</td><td>2-3 이하</td></tr><tr><td></td><td>높이12 m 초과</td><td>높이 1/3, 1/2 이하</td></tr></table> * 기존 시가지에서도 인접대지와 계단식으로 남방향반이인 경우 일조권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거리 완화조치	대 상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8m 이하	1-2 이하		높이12 이하	2-3 이하		높이12 m 초과	높이 1/3, 1/2 이하	1. 인지 정북방향 일조권 제한 <table><tr><th>대 상 건축물</th><th>층수 및 높이</th><th>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th></tr><tr><td>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td><td>1 층으로 높이 4m 이하</td><td>1 이상</td></tr><tr><td></td><td>2 층으로 높이 8m 이하</td><td>2 이상</td></tr><tr><td></td><td>3층이상</td><td>높이의 1/2 이상</td></tr></table> * 위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예외규정 ①건축물 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폭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택지개발예정지구, 새로이 조성되는 시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재개발구역 등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음	대 상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 층으로 높이 4m 이하	1 이상		2 층으로 높이 8m 이하	2 이상		3층이상	높이의 1/2 이상
대 상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																															
•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층 2층 3층 4층	1이상 2이상 4이상 높이의 1/2 이상																															
대 상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8m 이하	1-2 이하																															
	높이12 이하	2-3 이하																															
	높이12 m 초과	높이 1/3, 1/2 이하																															
대 상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까지 이격 거리(m)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 층으로 높이 4m 이하	1 이상																															
	2 층으로 높이 8m 이하	2 이상																															
	3층이상	높이의 1/2 이상																															

조 문 내 용	입 법 예 고 (안)	본 협 회 의 건	결 과
면적·높이 등의 산정 방법 (제 115조)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치마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에서 둘러싸인 부분이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 이하----- ----- -----)(치마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 ----- ※ 외벽의 중심선을 조적조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중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함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조적조의 경우는 내력벽의 중심선)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에----- -----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면적 : 입법예고(안)과 동일 3. 바닥면적 : 입법예고(안)과 동일
건축지도원 (제 24조)	• 자격 -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 -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자 • 업무 -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 - 무단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 - 공사중인 건축물의 시공지도 및 위법시공 여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 등의 적합하게 유지관리 있는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 경비 및 수당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 자격 - 입법예고(안)대로 • 업무 -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인 건축물의 시공지도 및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은 삭제 • 경비 및 수당 - 입법예고(안) 대로	• 자격 - 입법예고(안)과 동일 • 업무 -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인 건축물의 시공지도 및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은 삭제 • 경비 및 수당 - 입법예고(안)과 동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제 77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파반이상이 속하는 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파반이상이 속하는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배의 범위내에서 한하여 파반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는 개정(안)과 같이 하여 녹지지역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상업지역(미관지구)과 주거지역이 걸치는 경우는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율이 저하되므로 상업지역과 걸치는 지역은 <u>현행대로 할 것</u>	- 입법예고(안)과 동일
별표 2	•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 ①생략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6. 생략 7. 업무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 대로변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u>현행과 같이 면적제한이 없이 일반업무시설허용 요망</u>	•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 ①생략 ②다음 건축물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축할 수 있다. 7. 업무시설 ※ “12m이상 도로변에는연면적 3,000㎡ 이상을 할 수 있음”

조 문 내 용	입 법 예 고 (안)	본회의 의견	결 과
별표 3	• 준공업지역내의 건축물 ① 생략 ② 다음 건축물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없음	• 준공업지역내의 건축물 ① 생략 ② 다음 건축물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추가	• 준공업지역내의 건축물 ① 생략 ② 다음 건축물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을 추가함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제 21 조)	① 시공자는 당해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파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위 제 1항의 위험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한다.	(현재 처리 방법) • 현재 서울시의 경우 건축법령의 근거 없이 다만 서울시장의 지침사항으로 하여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시는 용역업체 또는 사공업체에 소속된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가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감리하도록 있음 (현황 및 건의 내용) 지하 5m 이하의 굴착은 지하 2층 정도이며 특수한 건물의 경우에는 지하 1층도 지하 5m를 굴착할 수 있는바 이를 토질 및 기초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가 설계 및 감리도록 함은 ① 이분야의 기술사가 극소수이며 ② 지하 2층 또는 그이상의 규모의 모든 건축물설계는 건축사가 하도록 건축사법에 규정되어 있고 ③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하 2층정도 건축설계하는 것은 허다함 ④ 건축주에게 2중으로 부담이 되는 설계 및 감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건축사법에서 정한 건축사에게만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게 조치 요망	-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시 위해 방지는 산업 안전 보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토공사 설계도서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시공자가 제출토록 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 83 조)	2. 별표 13중 나에 정하는 건축물은 폭 8m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 한다. * 별표 13중 나 :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집회장, 판매시설, 위락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2. 별표 13중 나에 정하는 건축물(종교시설은 제외한다)은 폭 8미터----- 한다.	• “별표 13중 나에 정하는 건축물”을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건축물로 하여 종교시설 등을 제외함
별표 13 건축물 용도 분류 “사”	축사, 창고, 재배사 등 통상의 물품의 저장 등 식물의 사육, 재배에 쓰이는 용도	축사, 재배사와 창고를 별도항으로 분리	축사, 재배사와 창고를 별도항으로 분리함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 분석

조 문 내 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본 협 회 건 의 (안)
제2조 (정의) 지하층	- 일반건축물 : $h \geq 2/3H$ -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h \geq 1/2H$		지하층설치 건축물 : $h \geq 2/3H$	제1안 : 모든건축물 $h \geq 1/3H$ 제2안 : 현행대로
제4조 (지방건축위원회)	○ 지방건축위원회 - 심의사항 ① 건축조례제정, 개정 및 폐지 ② 도시설계안의 심의 ③ 재해위험구역 지정 ④ 건축선의 지정 ⑤ 특정가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계획의 작성 ⑥ 풍치지구, 미관지구, 업무지구, 특정가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물과 건설부장관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⑦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⑧ 11층이상 건축물 구조 계획에 관한 사항 ⑨ 완화적용하는 조경, 비상급수설비제외 건축물 고도지구내의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폐율 강화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한 지하층 설치제외 건축물 대지 최소면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의 건축물 허가 법령등의 제정, 개정, 도시계획결정, 변경으로 인한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의 허가 ⑩ 기타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조직 ① 위원구성 : 7인 이상 25인 이하 ② 지방건축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 부시장, 군수(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시장, 군수가 지명 ④ 위원 : - 건축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법률, 조경, 설계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건축위원회 - 심의사항 - 현재와 동일 : ①, ②, ④, ⑩ - 삭제 : ③, ⑤, ⑦, ⑧, ⑨ - 부분개정 : ⑥ <u>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물</u> - 신설 :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 사전결정대상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 조직 ① 위원구성 : 7인 이상 25인 이하 ② 조례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자격 : 조례로 정함 ④ 위원 자격 - 건축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법률, 조경, 소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건축위원회 - 심의사항 - 현재와 동일 : ①, ②, ③, ④, ⑩ - 삭제 : ③, ⑤, ⑦, ⑧, ⑨ - 부분개정 : ⑥ <u>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물</u> - 신설 :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 사전결정대상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 조직 ① 위원자격 - 건축관계공무원, 건축사, 건축, 도시계획, 법률, 조경, 소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사는 위원 총수의 1/4를 초과할 수 있음	
제6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신 설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연면적 500㎡ 이상으로서 용도, 규모 등은 조례에서 정함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 용도 및 규모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위락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 연면적 25,000㎡ 이상 : 모든 건축물 (공동주택, 공장제외)

조 문 내 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본 협 회 건 의 (안)	
				* 연면적은 주차장, 부대시설, 기계설비실은 제외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사전결정시 할 수 있다.	
제 82조(높이제한 완화 구역)	신	설	○ 완화구역지정기준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25m이상 도로변중 건축조례가 접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이 정하여 공고함 ○ 완화기준 - 도로폭의 1.5배이상 3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 완화구역지정기준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간선도로변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이 지정 공고 ○ 완화기준 - 도로폭의 3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제 7조(건축허가)	○ 건설부장관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00㎡이상 건축물(공동주택 및 공장은 제외)	• 4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0㎡이상 건축물(공동주택 및 공장은 제외)	•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0㎡이상 건축물(공동주택 및 공장은 제외)	
제 10조(건축신고)	○ 신고대상 건축물	신	설	○ 신고대상 건축물 - 연면적 85㎡이하 주택(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설계)	○ 신고대상 건축물 - 연면적 85㎡이하의 주택신축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설계
제 11조(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신	설	○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사항 • 연면적 20㎡이하로서 연면적 1/10이하 변경되는 건축물 • 높이 0.5m 이하로서 전체높이의 1/10 이하 변경되는 높이 • 변경되는 위치가 1m이하 건축물 •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사항 • 연면적 50㎡이하로서 연면적 1/10이하 변경되는 건축물 • 높이 1.0m 이하로서 전체높이의 1/10 이하 변경되는 높이 • 변경되는 위치가 1m이하 건축물 •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 용도변경 및 기초구조변경	
제 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 목적, 기간,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 군수에게 통지	○ 건설부장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 목 적 : 대상구역, 대상건축물을 상세하게 할 것. • 제한기간 : 2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동안 연기 가능함(신설) ○ 작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작공을 제한한 날로부터 2년이내로 함	○ 건설부장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 목 적 : 대상구역, 대상건축물을 상세하게 할 것 • 제한기간 :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동안 연기 가능 ○ 건축허가제한시 작공연기조건부로 건축허가 가능	
제 14조 (가설건축물)	○ 층수 : 3층이하 ○ 존치기간 :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다음 기준을 조례로 정함. - 층수 : 3층이하 - 존치기간 : • 5년 이내 • 도시계획 미설치시는 도시계획 설치때까지의 기간 ○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설치 - 지하층 설치규정, 건축선지정,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 미적용 ○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추가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에서의 가설건축물 - 층수 : 3층이하 - 존치기간 : 건축허가시 조건부여함 ○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설치 - 지하층 설치규정, 건축선지정,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 미적용 - 모델하우스, 조립식경비용 건축물(10㎡이하) 및 차고(20㎡이하)	

조 문 내 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본 협 회 건 의 (안)
			- 모델 하우스, 조립식경비용 건축물 (10㎡이하) 및 차고(20㎡이하) - 컨테이너구조의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 2년이하	- 컨테이너구조의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 2년이하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 15조 (중간 검사)	○ 중간검사 시기 ①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기초 철근 배치 완료 기타구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한 때 ② 단열시공이 전체공정의 50%달할 때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 신 설 신 설	○ 중간검사 시기 ①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콘크리트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기초 철근배치 완료시 기타구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한 때 ② 단열시공이 50%공정에 달할 때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 ③ 공동주택 : 매 3개층 슬라브배근 완료시 ④ 5층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골조공사 완료시 - 옥상 슬라브배근 완료시	○ 중간검사 시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콘크리트조 : 기초철근배치 완료시 기타구조 :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한 때 - 삭제 : 단열시공이 50% 공정에 달할 때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	
제 16조 (사용검사 신고)	신 설	○ 동일대지내에 2동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가 완료시에는 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동별 준공신청 가능	○ 동일대지내에 2동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가 완료시에는 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동별 준공 신청가능	
제 27조 (대지 안의 조정)	○ 조정 대상 건축물의 대지면적 - 대지면적 165㎡이상	○ 조정 대상 건축물의 대지면적 - 대지면적 300㎡이상	○ 조정 대상 건축물의 대지면적 - 대지면적 300㎡이상	
제 29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	신 설	○ 도로에 돌출가능한 구조물 1.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 2. 승차대기소 및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3. 기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 도로에 돌출가능한 구조물 1.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 2. 승차대기소 및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3. 기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제 54조 (방화구획)	○ 방화구획 • 3층이상의 모든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	○ 방화구획 • 3층이상의 모든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 할 것. 단, 복층형아파트의 경우 세대안의 층간 구획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 방화구획 - 3층이상의 모든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 할 것. 단,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세대안의 층간 구획은 제외한다.	
제 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의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업무(법 23의 2) •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되는지의 여부 • 건축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설계자의 공사감리장의 분리지정(명 25) •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위한 조사 업무를 대행할 자 • 공사감리를 하고 준공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자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의 조사 또는 검사 하여야 할 사항 - 조사 또는 검사대상 건축물로서 ①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② 중간검사에 따른 현장조사 ③ 사용승인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현장검사 ④ 기타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 조사 또는 검사대상 이외의 건축물 ① 중간검사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의 조사 또는 검사 하여야 할 사항 - 조사 또는 검사대상 건축물로서 ①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② 중간검사에 따른 현장조사 ③ 사용승인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현장검사 ④ 기타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건축지도원 (제 24조)	신 설	○ 자격 -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 -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에 관한 학식	○ 자격 -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 -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에 관한 학식	

조 문 내 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본 협 회 건 의 (안)																																			
			이 풍부한 자 ○업무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 -무단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 -공사중인 건축물의 시공지도 및 위법시공 여부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 등의 적법유지관리 있는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경비 및 수당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이 풍부한 자 ○업무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 -무단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 ○경비 및 수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건축설비의 설계 등(제 85조)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에 건축설비 설치하는 때는 해당 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신 설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에 건축설비 설치하는 때는 해당 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함 -상기 설계자(해당기술사)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설계를 하여야 함	-현행 대로 -상기 설계자(해당기술사)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설계를 하여야 함																																				
제 60조 (지하층의 설치)	○지하층설치 대상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건축물	○지하층설치 대상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건축물	○지하층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 •다세대 주택 면적 규모인 660㎡ 이하의 모든 건축물																																				
제 75조 (건폐)	전용주거지역 : 5/10 일반주거지역 : 6/10 준 주거지역 : 7/10 중심상업지역 : 7/10 일반상업지역 : 7/10 근린상업지역 : 7/10 전용공업지역 : 6/10 일반공업지역 : 6/10 준 공업지역 : 6/10 자연녹지지역 : 2/10 생산녹지지역 : 2/10 보존녹지지역 : 2/10 기 타 : 6/10	<table><tr><th>지역</th><th>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기준</th></tr><tr><td>전용주거</td><td>5/10 이하</td></tr><tr><td>일반주거</td><td>6/10 이하</td></tr><tr><td>준주거</td><td>7/10 이하</td></tr><tr><td>중심상업</td><td>9/10 이하</td></tr><tr><td>일반상업</td><td>8/10 이하</td></tr><tr><td>근린상업</td><td>7/10 이하</td></tr><tr><td>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td><td>6/10 이하</td></tr><tr><td>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td><td>2/10 이하</td></tr><tr><td>기 타</td><td>6/10 이하</td></tr></table>	지역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전용주거	5/10 이하	일반주거	6/10 이하	준주거	7/10 이하	중심상업	9/10 이하	일반상업	8/10 이하	근린상업	7/10 이하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6/10 이하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2/10 이하	기 타	6/10 이하	현행과 같이 하되 중심상업지역은 9/10 일반상업지역은 8/10로 상향조정																
지역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전용주거	5/10 이하																																						
일반주거	6/10 이하																																						
준주거	7/10 이하																																						
중심상업	9/10 이하																																						
일반상업	8/10 이하																																						
근린상업	7/10 이하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6/10 이하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2/10 이하																																						
기 타	6/10 이하																																						
제 76조 (용적율)	○다음 표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table><tr><th>지 역</th><th>용 적 율</th></tr><tr><td>전용주거지역</td><td>50%이상 100%이하</td></tr><tr><td>일반주거지역</td><td>200%이상 400%이하</td></tr><tr><td>준 주거지역</td><td>300%이상 700%이하</td></tr><tr><td>중심상업지역</td><td>700%이상 1천300%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td><td>500%이상 1천100%이하</td></tr><tr><td>근린상업지역</td><td>350%이상 900%이하</td></tr><tr><td>전용공업지역</td><td>150%이상 300%이하</td></tr></table>	지 역	용 적 율	전용주거지역	50%이상 100%이하	일반주거지역	200%이상 400%이하	준 주거지역	300%이상 700%이하	중심상업지역	700%이상 1천300%이하	일반상업지역	500%이상 1천100%이하	근린상업지역	350%이상 900%이하	전용공업지역	150%이상 300%이하	○다음 표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함 <table><tr><th>지 역</th><th>용 적 율</th></tr><tr><td>전용주거지역</td><td>100%이하</td></tr><tr><td>일반주거지역</td><td>400%이하</td></tr><tr><td>준 주거지역</td><td>700%이하</td></tr><tr><td>중심상업지역</td><td>1천300%이하</td></tr><tr><td>일반상업지역</td><td>1천100%이하</td></tr><tr><td>근린상업지역</td><td>900%이하</td></tr><tr><td>전용공업지역</td><td>300%이하</td></tr><tr><td>일반공업지역</td><td>350%이하</td></tr><tr><td>준 공업지역</td><td>400%이하</td></tr></table>	지 역	용 적 율	전용주거지역	100%이하	일반주거지역	400%이하	준 주거지역	700%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300%이하	일반상업지역	1천100%이하	근린상업지역	900%이하	전용공업지역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 공업지역	400%이하	○현행대로 하되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근린상업지역은 1,000%로 상향조정
지 역	용 적 율																																						
전용주거지역	50%이상 100%이하																																						
일반주거지역	200%이상 400%이하																																						
준 주거지역	300%이상 700%이하																																						
중심상업지역	700%이상 1천300%이하																																						
일반상업지역	500%이상 1천100%이하																																						
근린상업지역	350%이상 900%이하																																						
전용공업지역	150%이상 300%이하																																						
지 역	용 적 율																																						
전용주거지역	100%이하																																						
일반주거지역	400%이하																																						
준 주거지역	700%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300%이하																																						
일반상업지역	1천100%이하																																						
근린상업지역	900%이하																																						
전용공업지역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 공업지역	400%이하																																						

조문내용	현	행	입법예고(안)	본회의건의(안)																													
	일반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보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 이 없는 구역, 국토이용 관리 법에 의 하여 지정된 공 업지역 및 취 락지역과 제3 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구 역	200%이상 350%이하 200%이상 400%이하 50%이상 80%이하 100%이상 200%이하 50%이상 100%이하 200%이상 400%이하	보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0%이하 200%이하 100%이하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 이 없는 구 역,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 여 지정된 지 역 400%이하																														
일보권등의 확보 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제한 (제 83조)	1. 隣地 正北방향 일조권 제한 <table><tr><th>대상</th><th>방향</th><th>높이8m이 상인 건축물</th><th>2층이하로 서 높이8m 미만인 건축 물</th></tr><tr><td>• 전 용 주 거, 일 반 주 거 지 역 방 향 모 든 건 축 물</td><td>정북 방향</td><td>$H \leq 2D$ 또한 $D \geq H/2$</td><td>$H \leq 4D$ 또한 $D \geq H/4$</td></tr></table> 단, 폭20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 한 인접대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대상	방향	높이8m이 상인 건축물	2층이하로 서 높이8m 미만인 건축 물	• 전 용 주 거, 일 반 주 거 지 역 방 향 모 든 건 축 물	정북 방향	$H \leq 2D$ 또한 $D \geq H/2$	$H \leq 4D$ 또한 $D \geq H/4$	1. 隣地 正北방향 일조권 제한 <table><tr><th>대 상 건축물</th><th>층수 및 높이</th><th>건축물 각 부분 까지 이격거리 (m)</th></tr><tr><td rowspan="4">• 전용 주거, 일반주 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td><td>1층</td><td>1이상</td></tr><tr><td>2층</td><td>2이상</td></tr><tr><td>3층</td><td>4이상</td></tr><tr><td>4층이상</td><td>높이의 1/2 이하</td></tr></table> ※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 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 다. - 예외규정 ① 건축물 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폭 의 도로에 접한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택지개발예정지구, 새로이 조성되는 시 가지 등 지역에 있어서는 진설부령이 정하는 구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정 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음	대 상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 까지 이격거리 (m)	• 전용 주거, 일반주 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1층	1이상	2층	2이상	3층	4이상	4층이상	높이의 1/2 이하	1. 隣地 正北방향 일조권 제한 제1안)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안의 모든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 선에서 건축물 각부분까지 이격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1/4이하 단, 건축물 미 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폭의 도로 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안) <table><tr><th>대상물</th><th>층수 및 높이</th><th>건축물 각 부분 까지 이 격거리 (m)</th></tr><tr><td rowspan="3">• 전용 주거, 일반주 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td><td>높이 8m이하</td><td>1~2이하</td></tr><tr><td>높이12 m이하</td><td>2~3이하</td></tr><tr><td>높이12 m초과</td><td>높이1/3~ 1/2이하</td></tr></table> ※ 위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대상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 까지 이 격거리 (m)	• 전용 주거, 일반주 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높이 8m이하	1~2이하	높이12 m이하	2~3이하	높이12 m초과	높이1/3~ 1/2이하
대상	방향	높이8m이 상인 건축물	2층이하로 서 높이8m 미만인 건축 물																														
• 전 용 주 거, 일 반 주 거 지 역 방 향 모 든 건 축 물	정북 방향	$H \leq 2D$ 또한 $D \geq H/2$	$H \leq 4D$ 또한 $D \geq H/4$																														
대 상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 까지 이격거리 (m)																															
• 전용 주거, 일반주 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1층	1이상																															
	2층	2이상																															
	3층	4이상																															
	4층이상	높이의 1/2 이하																															
대상물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각 부분 까지 이 격거리 (m)																															
• 전용 주거, 일반주 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높이 8m이하	1~2이하																															
	높이12 m이하	2~3이하																															
	높이12 m초과	높이1/3~ 1/2이하																															
제 105 조 (도시설계구역 안의 건축기준)	신설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1. 대지의 일부를 공공공지로 제공하 는 경우 : 제공된 면적의 2/3을 조정면 적에 산입 2.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지정,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 : 당 해 용도지역 건폐율의 1.2배 가산 3.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공 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용도지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1. 대지의 일부를 공공공지로 제공하 는 경우 : 제공된 면적의 2/3을 조정면 적에 산입 2.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지정,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 : 당 해 용도지역 3.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공 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용도지																														

조 문 내 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본 협 회 건 의 (안)
			역 용적률의 1.2배 가산 4.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물 용도 지정한 경우 :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5. 합벽개발, 공동주차 및 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6.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 :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1.2배 가산함.	역 용적률의 1.2배 가산 4.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물 용도 지정한 경우 :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5. 합벽개발, 공동주차 및 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6.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 :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1.2배 가산함.
제 110 조 (공 개공지의 확보)	신	설	○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① 연면적 5,000㎡ 이상 :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 위 대상건축물중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 공개공지 확보 대상 면적 대지면적 10%이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 공개공지는 피로티구조로도 설치가능하며, 공개공지에는 벤취, 조경시설, 파고라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내용 ①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 적용규정의 1.2배이하 ②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 적용규정의 1.2배이하 ③ 대지안의 공지 : 기준의 1/5이하 ④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기준제한의 1.2배 이하	○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단,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과 기계설비실은 제외) - 기타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공개공지확보를 회망하는 시설 ○ 공개공지 확보 대상 면적 대지면적의 1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개공지는 피로티구조로도 설치가능하며, 공개공지에는 벤취, 조경시설, 파고라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내용 ①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 적용규정의 1.2배이하 ②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 적용규정의 1.2배이하 ③ 대지안의 공지 : 기준의 1/5이하 ④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기준제한의 1.2배 이하
제 115 조 (면적 높이등의 산정 방법)			2. 건축면적 : (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85. 8. 16개정)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면적 : (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면적 : (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외벽의 중심선을 조적조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중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함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벽(조적조의 경우는 내력벽의 중심선)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에서 -----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면적 : (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 * 외벽의 중심선을 조적조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중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함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벽(조적조의 경우는 내력벽의 중심선)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에서 -----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COMPETITION

대전생명보험사옥 현상설계

당선작 / 창건사(대표 : 이의구) + 정원건축(대표 : 박운웅) (안)

대전 둔산택지개발지구내에 대전생명 보험주식회사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응한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사옥건설을 목적으로 개최한 지명설계경기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5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여 심사결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사 (대표 : 이의구)와 정원건축사사무소 (대표 : 박운웅)가 공동 출품한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 설계지점

- 대지위치 : 대전 직할시 서구 둔산동
신서가지 개발 지역내 A지역
197-1-2
- 대지면적 : 3850m² (1,165평)
- 건축규모 : 지하 / 5층
지상 / 25층
- 용도
지하1층 / 근린생활 편의시설, 스포츠
시설(사원채력단련 공간 및
볼링장 정도)
지상 1층 / 은행 및 로비
지상 2-3층 / 전시 기능실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기준층 / 전용사무실 : 약 4000평 확보
임대사무실 : 기타부분
옥상층 / 스카이라운지
옥탑층 / 헬리포트확보



■ 설계개념

● 배치개념

- 도시 질서에 순응하는 축성의 도입
- 효율적인 동선체계의 확립
- 녹지 및 외부공간의 적절한 배치

● 평면개념

- 구심적 평면 구성을 위한 평면형태의 정립

- 정방향과 원형의 구성 및 조합

- 동일중심을 지닌 정방향과 내접원의 구성

● 입면개념

- 부지의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전면과 측면이 동일한 중요성으로 표현되어야함.

- 입면 구성에서 강한 축성과

형태 표현이 요구됨.

- 구심적 평면을 형태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하나의 정점으로 모아지는 매스의 구성

■ 배치계획

● 주축의 설정

- 둔산 신시까지 도심축(보행자 전용로, 상징녹지)의 적극적 수용을 위해 남북축을 종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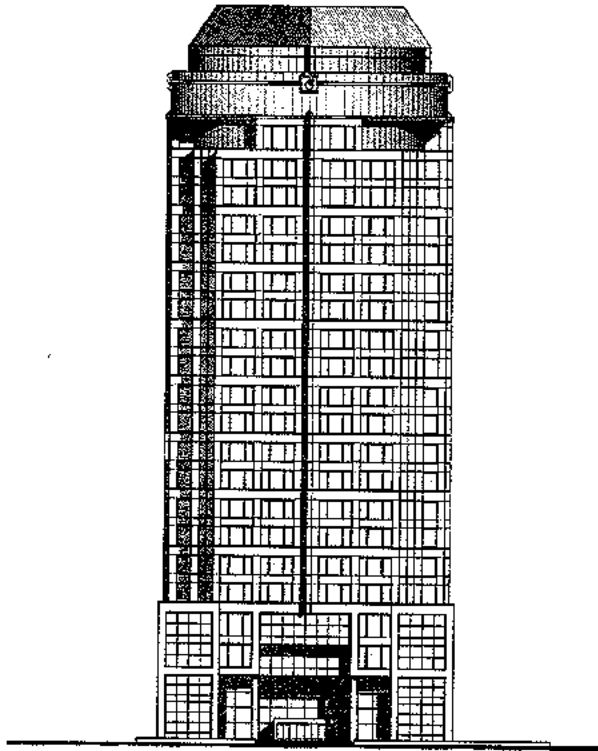
설정함.

- 남북축의 설정과 아울러 이에 직교하는 동서축을 함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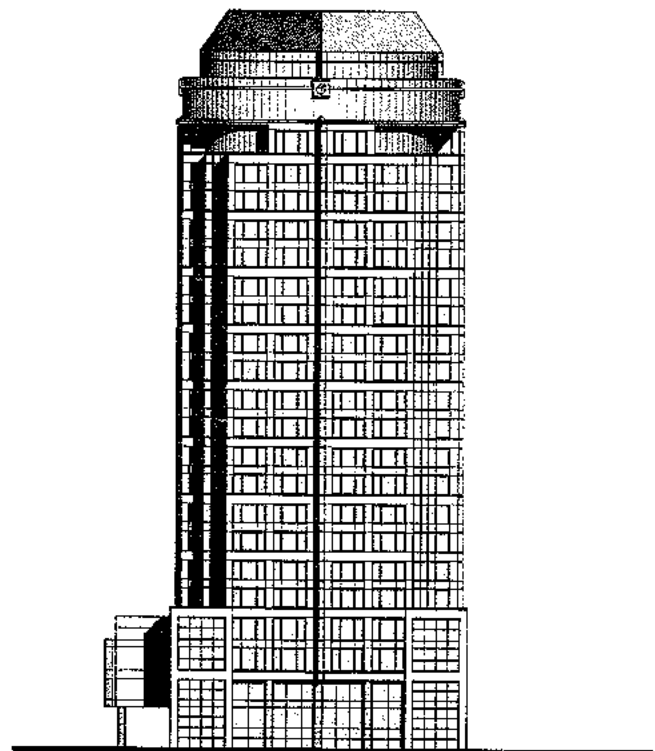
- 제3정부종합청사의 배치특성으로 대표되는 행정 지구의 성격을 감안한 교차축의 설정

● 진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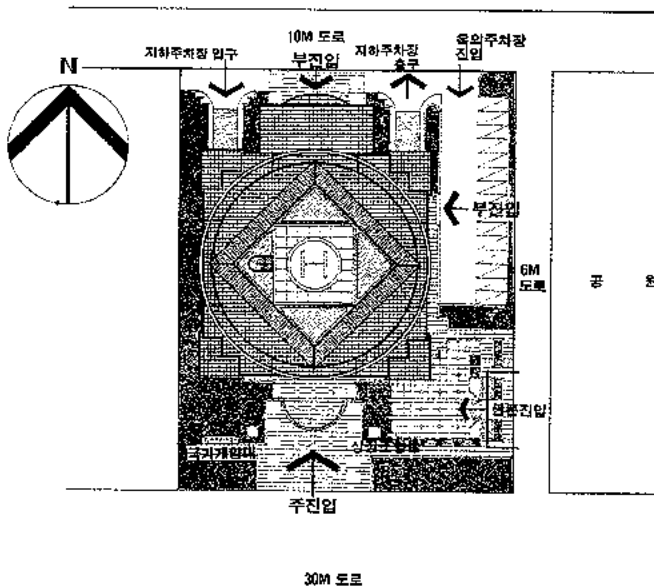
- 도시계획상의 차량진입 동선 흐름을 고려하여 전면 30m도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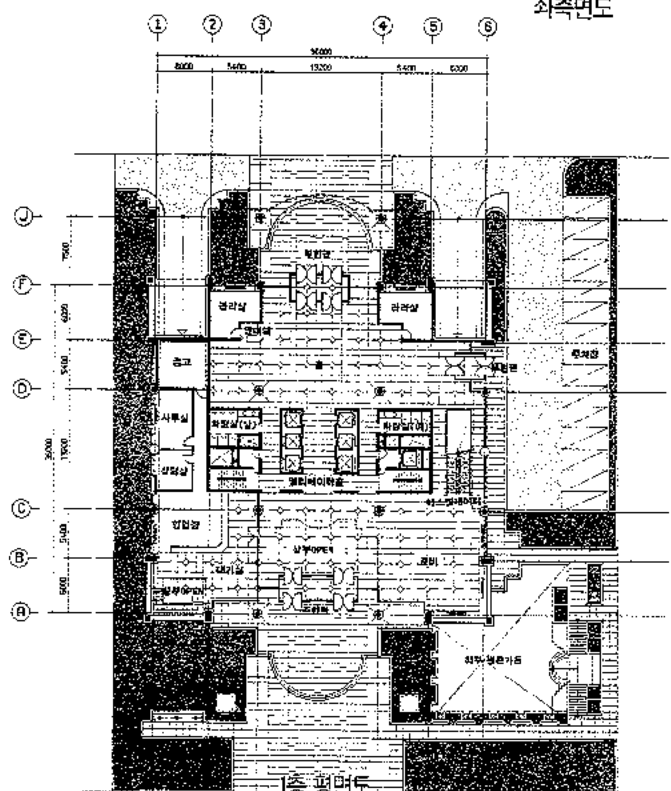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배치도



부터의 진입동선을 주진입으로 설정.

- 차량진입은 후면진입체계 강구(둔산 도시설계 지침 반영)

● 녹지와 전면 광장의 확보

- 도심 진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지의 남단에 녹지를 확보하고 전면에 개방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변물의 인식도를 높임.

- 우측의 보행로 및 녹지대는 이와 인접한 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행 녹지축을 대지에 수용키 위한 매개 공간으로 조성.

■ 평면계획

● 평면의 개념구상에서 제안된 중심적 정방형과 내접원을 수용하기 위한 평면구성에서 아래와 같은 발전 단계를 설정함.

- 기단부(저층) :

정방형의 평면에 모서리부를 확장함으로써 기단부를 시험.

- 몸체

(기준층의 To 압) :

정방형의 각진모서리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단층적으로 면을 접어들어감.(안쪽으로 면을 접어들어가도록 처리)

- 완충부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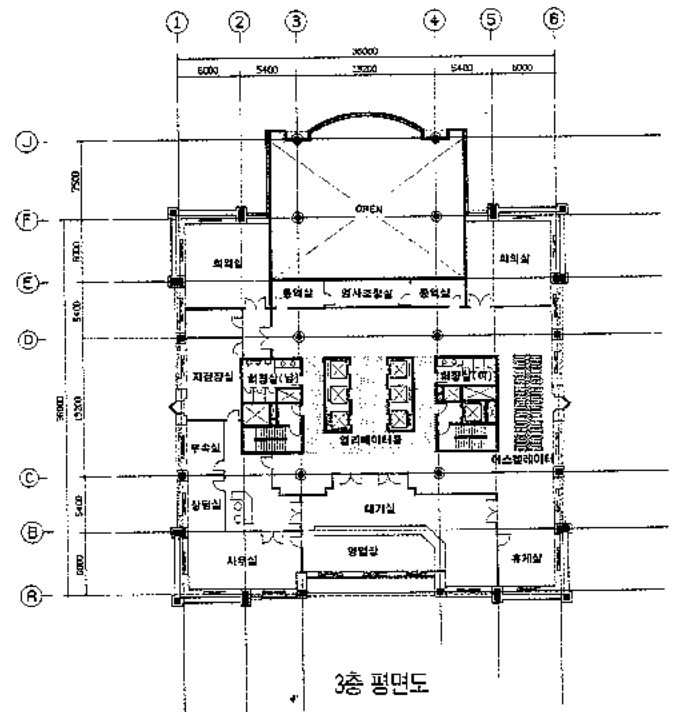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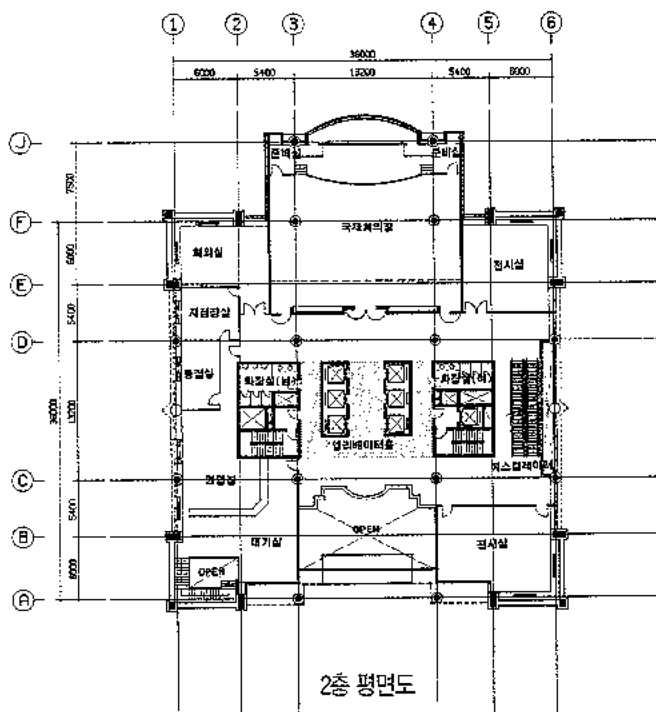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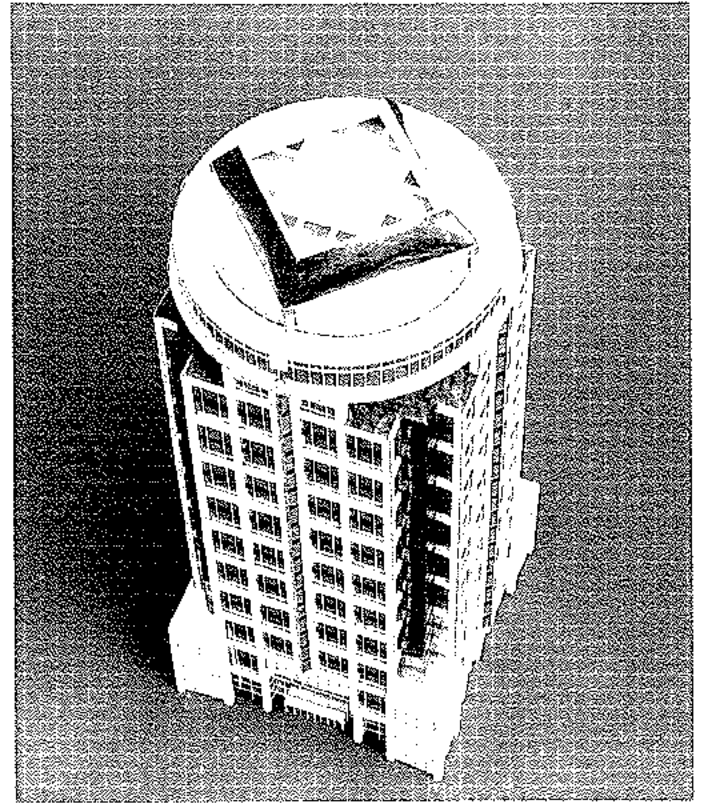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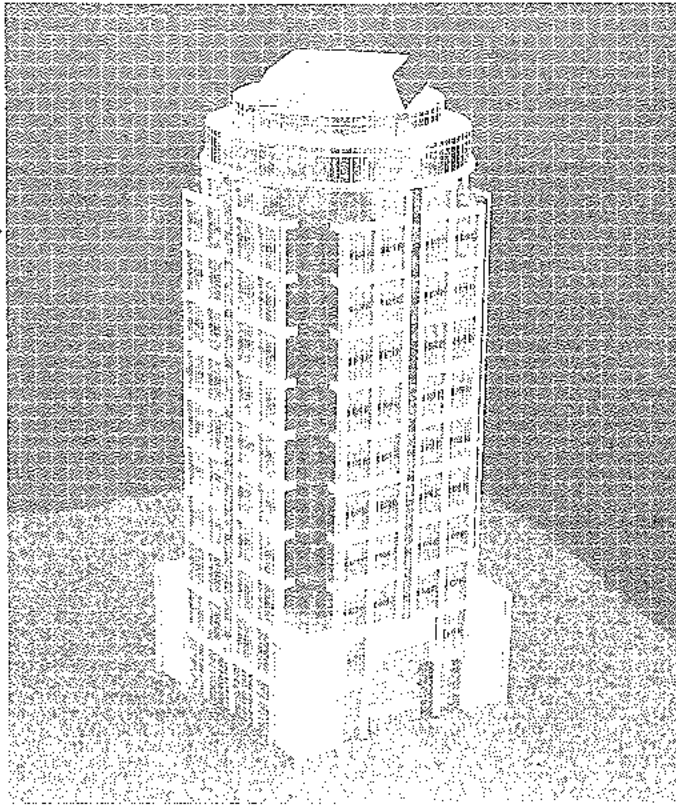
정방형과 내접원의 구성을 암시하는 형태의 중첩을 위해 모서리 부분을 원형의 접힌 공간으로 대체.

- 최상층 :

정방형 대신 같은 중심을 지니는 내접원으로 대체.

- 정상부(옥탑층) :

정방형과 원형에 동시에 수



용되는 형태로써 정형바름
모도입.(최상부 정점의 마
무러치리)

■ 입면계획

- 도심의 Land - Mark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 외관구성
- 도심의 강한 축성과 접근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평
면상 도심축성을 입면으로 형상화

하는 방안 검토

- 둔산 신사가지의 Sky Line
과 조화를 이룸(중앙 및 지방행정
기관의 높이 및 형태특성 감안)
- 건물의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
한 간선도로 전면의 입면상에 상
징성 표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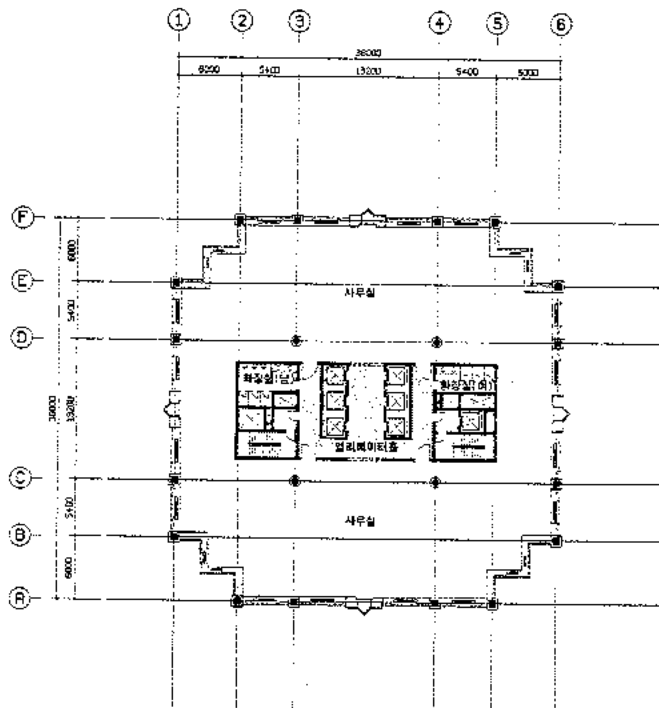
- 금융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표현
- 대전 · 충남권의 대표적인 생

명보협의 Image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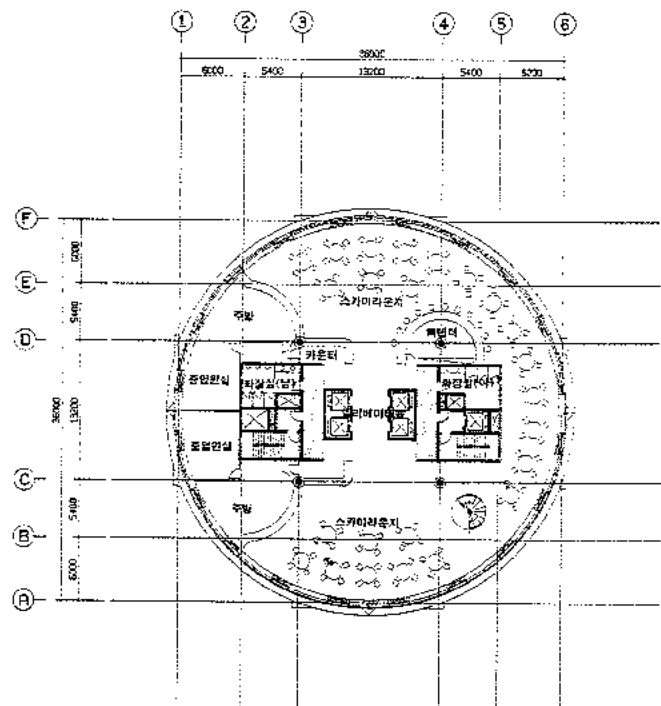
- 친근한 느낌과 품위의 외적표
현
- 생명보험 본사로서의 신뢰성
암시(대칭적 입면구성)
- 중후한 재질과 High -
Tech의 연계
(화강석과 glass curtain
wall)

• 대전생명보험 본사 사옥으로서
의 독자적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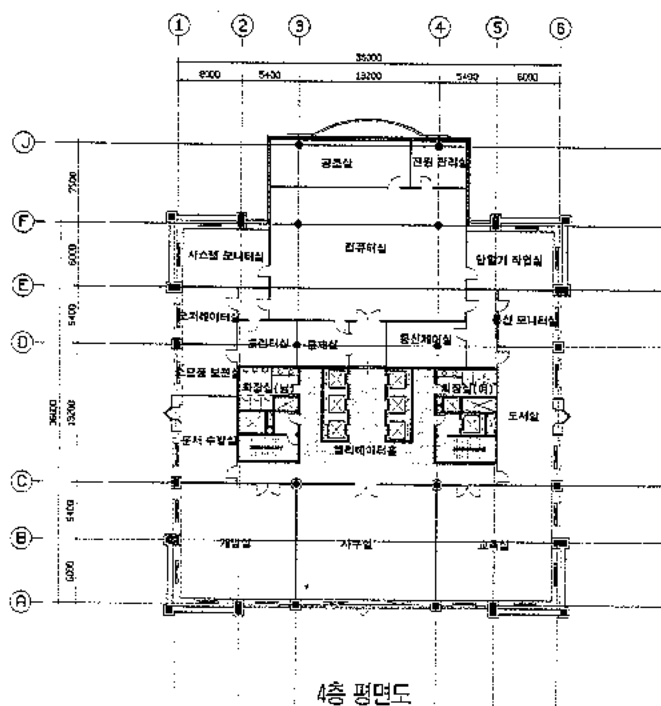
- 저층의 Base 와 상층부
Tower의 연계적 구성을 통해 안
정감을 표현
- 강한 격자 Grid에 의한 구성
과 균제 효과를 통한 질서감의 부
여
- Post Modernism의 건축적
표현을 위한 어휘의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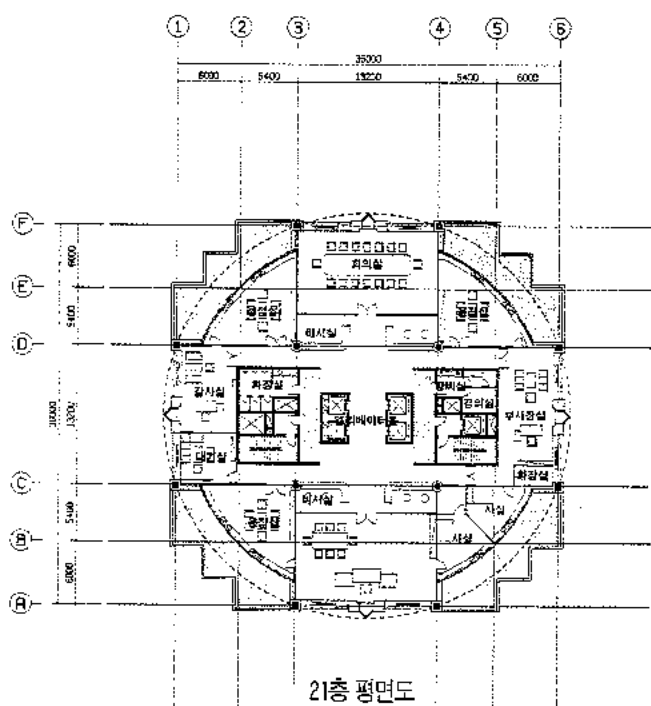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2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21층 평면도

1992년 3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 1천1백56만1천9백61m²보다 1.66%(19만1천7백59m²) 증가한 1천1백75만3천7백20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3월누계 3천7백21만9천3백58m²보다 23.34%(8백68만6천9백99m²) 감소한 2천8백53만2천3백59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년 2월분 1천83만2천7백3758m²보다 8.50%(92만9백83m²) 증가한 1천1백75만3천7백20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구	205,882	223,973	18,091	8.79%
인천	666,260	853,651	187,391	28.13%
광주	196,322	615,482	419,160	213.51%
경기	1,344,072	3,009,165	1,665,093	123.88%
강원	304,546	1,046,941	742,395	243.77%
충남	451,716	572,957	121,241	26.84%
전북	321,049	779,313	458,264	142.74%
제주	47,690	116,633	68,943	144.56%
감소지역				
서울	3,416,067	1,351,374	(2,064,693)	-60.44%
부산	1,146,590	909,352	(237,238)	-20.69%
대전	531,060	318,033	(213,027)	-40.11%
충북	803,127	430,933	(372,194)	-46.34%
전남	516,678	281,308	(235,370)	-45.55%
경북	706,046	662,387	(43,659)	-6.18%
경남	904,856	582,218	(322,638)	-35.66%
합계	11,561,961	11,753,720	191,759	1.66%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종별	2월분	3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548,187	1,323,728	775,541	141.47%
다세대주택	124,556	221,894	97,338	78.15%
연립주택	68,722	65,179	(3,543)	-5.16%
아파트	6,552,303	5,882,533	(669,770)	-10.22%
근린생활시설	1,365,042	1,543,899	178,857	13.10%
종교시설	40,602	90,650	50,048	123.26%
의료시설	2,837	38,353	35,516	1251.89%
교육연구시설	159,100	331,928	172,828	108.63%
업무시설	492,047	409,065	(82,982)	-16.86%
숙박시설	62,376	61,212	(1,164)	-1.87%
공장	674,555	1,004,387	329,832	48.90%
기타	742,410	780,892	38,482	5.18%
계	10,832,737	11,753,720	920,983	8.50%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3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2,169	2,229	1,275,481	106	110	75,893	0	0	0	2,275	2,339	1,351,374
부산	1,334	1,559	808,762	167	205	61,306	59	68	39,284	1,560	1,832	909,352
대구	511	542	148,418	243	264	61,611	42	43	13,911	796	849	223,973
인천	439	697	819,098	36	36	25,216	27	27	9,337	502	760	853,651
광주	383	503	584,134	93	103	27,405	15	15	3,943	491	621	615,482
대전	356	397	238,696	50	51	19,408	61	71	59,929	467	519	318,033
경기	2,026	2,687	2,858,897	231	261	100,962	92	92	49,306	2,349	3,040	3,009,165
강원	699	919	942,688	128	150	99,651	19	19	4,902	846	1,090	1,046,941
충북	693	889	354,514	146	186	68,930	79	82	7,489	918	1,157	430,933
충남	586	600	535,079	137	137	29,875	22	22	8,003	745	759	572,957
전북	520	592	746,828	97	107	22,773	39	39	9,712	656	738	779,313
전남	636	724	240,732	148	171	35,475	25	30	5,101	809	925	281,308
경북	1,055	1,181	568,015	210	249	69,041	25	25	25,331	1,290	1,455	662,387
경남	1,237	1,457	477,897	168	220	85,506	42	42	18,815	1,447	1,719	582,218
제주	287	356	110,947	88	88	5,686	0	0	0	375	444	116,633
합계	12,931	15,332	10,710,186	2,048	2,340	788,438	547	575	255,096	15,526	18,247	11,753,720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3月 合計分)

구분 시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4,350	4,622	3,024,704	239	255	139,169	0	0	0	4,589	4,877	3,163,873
부산	3,170	4,074	2,144,219	394	491	186,273	144	162	86,270	3,708	4,727	2,416,762
대구	1,128	1,233	727,634	550	592	85,781	111	117	66,955	1,789	1,942	880,370
인천	968	1,335	1,309,888	67	72	87,212	68	72	35,460	1,103	1,479	1,432,560
광주	785	950	791,341	157	174	44,435	31	31	8,905	973	1,155	844,681
대전	721	961	1,463,600	100	108	78,075	173	184	91,654	994	1,253	1,633,329
경기	4,149	5,955	7,332,870	411	480	184,337	265	265	173,332	4,825	6,700	7,690,539
강원	1,256	1,610	1,398,826	241	292	133,281	55	57	12,902	1,552	1,959	1,545,009
충북	1,474	1,828	782,067	295	397	119,317	174	180	18,556	1,943	2,405	919,940
충남	1,158	1,243	968,483	282	287	80,077	56	75	34,841	1,496	1,605	1,083,401
전북	848	983	997,945	188	211	63,028	74	74	20,868	1,110	1,268	1,081,841
전남	1,322	1,590	676,871	333	432	144,629	64	69	17,215	1,719	2,091	838,715
경북	1,910	2,290	1,632,655	411	495	181,504	88	82	100,449	2,409	2,867	1,914,608
경남	2,724	3,521	2,571,623	385	554	170,190	114	117	59,767	3,223	4,192	2,801,580
제주	484	612	271,433	207	207	13,718	0	0	0	691	819	285,151
합 계	26,447	32,807	26,094,159	4,260	5,047	1,711,026	1,417	1,485	727,174	32,124	39,339	28,532,359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3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6,385	6,684	1,251,932	827	869	66,549	57	57	5,247	7,269	7,610	1,323,728
다세대주택	445	596	219,097	17	17	2,166	2	2	631	464	615	221,894
연립주택	41	47	63,753	4	4	1,210	1	1	216	46	52	65,179
아파트	206	1,175	5,818,534	13	19	62,444	7	7	1,555	226	1,201	5,882,533
근린생활시설	3,988	4,210	1,364,266	492	516	98,212	272	276	81,421	4,752	5,002	1,543,899
종교시설	76	90	70,456	55	59	19,066	6	6	1,128	137	155	90,650
의료시설	5	5	2,180	6	10	33,728	4	4	2,445	15	19	38,353
교육연구시설	53	84	200,749	40	53	91,352	26	37	39,827	119	174	331,928
업무시설	107	115	337,336	48	50	36,279	20	21	35,450	175	186	409,065
숙박시설	10	14	41,497	11	11	4,704	4	4	15,011	25	29	61,212
공장	477	757	767,314	208	314	204,754	67	70	32,319	752	1,141	1,004,387
기타	1,138	1,555	573,072	327	418	167,974	81	90	39,846	1,546	2,063	780,892
합 계	12,931	15,332	10,710,186	2,048	2,340	788,438	547	575	255,096	15,526	18,247	11,753,720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3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11,870	12,820	2,213,034	1,483	1,608	121,080	131	133	12,269	13,484	14,561	2,346,383
다세대주택	952	1,199	467,395	62	62	4,986	8	8	1,419	1,022	1,269	473,800
연립주택	121	190	300,321	13	13	3,130	2	2	261	136	205	303,712
아파트	505	3,245	14,877,005	23	39	67,896	14	15	18,728	542	3,299	14,963,629
근린생활시설	8,762	9,237	3,341,006	1,111	1,162	216,603	707	719	231,024	10,580	11,118	3,788,633
종교시설	161	200	122,680	116	128	40,199	16	16	5,932	293	344	168,811
의료시설	11	11	14,997	16	25	70,689	7	7	4,223	34	43	89,909
교육연구시설	127	185	434,523	95	118	184,208	88	99	80,428	310	402	699,159
업무시설	288	308	951,277	101	117	104,560	57	58	74,234	446	483	1,130,071
숙박시설	43	48	91,611	28	30	10,150	24	26	76,539	95	104	178,300
공장	1,087	1,908	1,749,726	504	802	470,786	155	185	107,974	1,746	2,895	2,328,486
기타	2,520	3,456	1,530,584	708	943	416,739	208	217	114,143	3,436	4,616	2,061,466
합 계	26,447	32,807	26,094,159	4,260	5,047	1,711,026	1,417	1,485	727,174	32,124	39,339	28,532,359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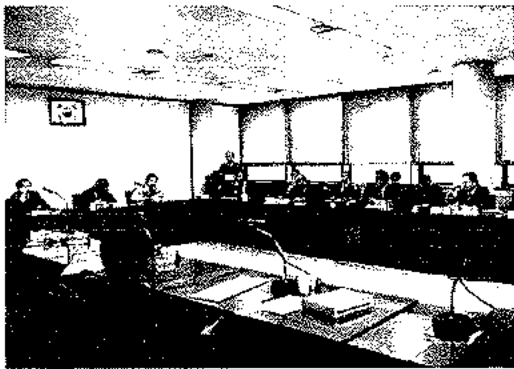
'92년도 제 4 회 이사회가 오운 동회장의 주재로 지난 7일 본 협 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주요부 의안건을 협의하였다.

이날 처리된 주요안건의 처리 내용을 보면,

'92한국건축전 사업계획의 일 부 조정(시상금 인상, 작품집 사 양변경)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제주건축" 발간 유공자 표창 승인의 건은 원안대 로 승인하였으며, 건축설계비 감

면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충청남 도의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 업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들의 건축설계비를 50% 감면키로 하였다.

한편, 인사규정 개정(안) 승 인의 건과 분회산설 승인의 건, 직원 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등은 집행부에서 검토보완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협의 하였다.



니콜라이 김교수 초청강연회

서울건축사회(회장 이문우) 에서는 지난달 21일 본 협회 강 당에서 구소련의 건축가 연행 이 사 및 이사회 의장이며, 과학위 원회 및 구조위원회 고문으로 있 는 러시아 공화국 건축가 니콜라 이 김 모스크바대학교 교수의 초 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러시아 건축 발전상"을 주내 용으로 개최된 이날 강연회에서 니콜라이 김교수는 150여점의 구소련과 북한의 건축물 슬라이

드 상영을 통하여 '소비에트 건 축의 과거'에 대해 주로 이야기 하면서 구소련 건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강연하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 앞서 이 문우 서울건축사회장은 인사말 을 통해 "공산권 및 북한의 현대 건축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광주 건축사보 교육 실시

광주건축사회(회장 서정민) 는 지난 4월 24일(금) 광주건축 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건축사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보 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서정민 광주건축사회 장의 「건축인의 자세」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홍인회 광주시

청 건축과계장의 「건축행정 건 실화 대책 및 건축법 개정방향」, 박일석 광주 서부소방서계장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및 송 건 종합건축사 사무소 한진, 반석, 대호 소장의 「건축계획」에 관한 강연이 있었 다.

영·호남회원 친선납시 대회 개최

전라남도 건축사회(회장 김광 호)는 지난 4월 17일(금)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계매저수지에서 부 산, 광 주, 경 북, 경 남, 전 북, 전 남 등 6개 건축사회에서 73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3회 영·호남 건축사회원 친선 납시 대회를 개

최하였다.

영남건축사회원과 호남건축사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 지기 위해 개최된 이번 납시대회 에서는 납시 종료후 시상 및 환 송연 등을 통해 영·호남건축사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대한건축학회 제 25대 회장 취임

대한건축학회 지난 3월 25일 과학기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참 여이사, 이사, 감사 81명이 참석 한 가운데 투표에 의해 대한건축 학회 제 25대 회장으로 송종석 교수(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선 출하였다.

또한 부회장에 이명호(중앙대 교수), 안영배(서울시립대 교 수), 이상순(롯데건설 대표이 사), 이문보(동국대 교수)씨, 감 사에 최영규(안하대 교수), 노회

일(서울시립대 교수)씨, 그리고 최영식(부산대 교수), 김현산 (영남대 교수), 임영배(전남대 교수), 김용부(성균관대 교수), 김동규(서울시립대 교수) 등 5 명을 참여이사로 함께 선출하였 다.

4월 25일 서울산업대학에서 가졌던 92년도 정기총회에서 2 년간 학회를 이끌어갈 새 집행부 가 인준을 받아 새롭게 출범하였 다.

실내디자인 학회 창립총회

실내디자인에 관한 학술 예 술·기술을 연마하고, 이에 관한 정보체제를 육성함으로써 한국 실내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도모 하고,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실내디자인학회가 새로이 발족되어 4월 24일

(금) 오후 2시 연세대 장기원 기 념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 다.

초대회장으로는 윤도근(홍 익대 환경대학원장)교수가 추 대되었다.